

江原監營

병찬구인회
현성영석영
지김박윤최

2001

江 原 道 · 原 州 市
江陵大學校 博物館

표지서체 《輿地圖書》에서 集字
표지사진 발굴조사 후 모습〈남→북〉



강원감영 발굴조사 전〈건물철거 전〉모습



강원감영 선화당 모습



발굴조사 후 모습 <남→북>



발굴조사 후 모습 <동→서>

7

This is a historical map of Jiangyuan County (江原縣) from the 'Siku Quanshu'. The map depicts a fortified city with several gates: North Gate (門北), South Gate (門南), East Gate (門東), West Gate (門西), and a Central Gate (門中). Inside the city walls, numerous buildings are labeled, including the County Office (縣署), various halls (e.g., 縣學, 縣倉), and military quarters (e.g., 兵馬司). The city is surrounded by mountains (e.g., 山南, 山北) and a river flows along the right side. The map is oriented with North at the top.

8



《輿地圖書》原州牧

目 次

I. 머리말	19
II. 發掘調査 經緯	20
III. 遺蹟의 地理的 環境과 考古·歷史學的 背景	21
1. 地理的 環境	21
2. 考古·歷史學的 背景	22
IV. 文獻으로 본 江原監營의 官衙施設	24
1. 江原監營의 設置	25
2. 江原監營의 營建推移	27
1) 地理志	27
(1) 『新增東國輿地勝覽』 原州牧條	27
(2) 『東國輿地志』 原州牧條	29
(3) 『輿地圖書』 觀察營條	30
(4) 『輿地圖書』 原州牧條	32
(5) 『關東誌』 江原監營誌	35
(6) 『關東誌』 原州牧條	42
2) 江原監營 補修·重記 記錄	46
(1) 光緒元年十月日江原監營各公廨修補物力區別成冊	46
(2) 光緒十七年十月日東營重記	51
(3) 光緒十九年三月日東營重記	56
3) 『旌善叢瑣錄』에 보이는 강원감영 건물기록	59

V. 發掘調査 現況 및 露出遺構	62
1. 上層遺構	64
1) 布政樓	64
2) 건물지 1(重三門址)	70
3) 건물지 2	70
4) 건물지 3(內三門址)	73
5) 건물지 4(工房址)	73
6) 건물지 5(冊房址)	76
7) 건물지 6	76
8) 배수로	76
9) 보도 1	76
10) 보도 2	83
11) 담장지	83
12) 방지 호안석축	83
2. 下層遺構	87
1) 건물지 1·2	87
2) 건물지 3	89
3) 담장지 1	89
4) 담장지 2	89
5) 담장지 3	89
6) 하층유구 1	92

7) 하층유구 2	92
8) 하층유구 3	93
9) 하층유구 4	93
VI. 出土遺物	94
1. 上層遺構 出土遺物	94
1) 瓦類	94
2) 磁器類	113
3) 陶器類	140
4) 貨幣類	142
2. 下層遺構 出土遺物	143
1) 瓦磚類	143
2) 磁器類	160
3) 陶器類	179
4) 其他遺物	180
VII. 考察	183
1. 遺構	183
2. 遺物	186
1) 瓦磚類	186
2) 磁器 및 陶器類	198
3) 其他遺物	206
VIII. 맺는말	207

表 目 次

표 1. 강원감영지 출토 화폐목록	142
표 2. 강원감영지 출토 전목록	158
표 3. 강원감영 관아 규모	184
표 4. 강원감영지 출토 기와 구성표	187
표 5. 강원감영지 출토 銘文기와	189
표 6. 강원감영지 상층유구 출토 평기와의 특징	191
표 7. 강원감영지 하층유구 출토 평기와의 특징	192
표 8. 강원감영지 출토 평기와 문양분류도	195
표 9. 하층출토 자기 및 도기 속성 분류	199
표 10. 상층출토 자기 및 도기 속성 분류	201
표 11. 강원감영 출토 자기 및 도기 분류도	203

그림 目 次

〈그림 1〉원주 강원감영 위치도	63
〈그림 2〉강원감영 발굴조사 현황도	65
〈그림 3〉S4 · W2~S2 · W2 그리드 남-북 토층도	69
〈그림 4〉방지 지역 토층도	69
〈그림 5〉상층유구 실측도	69
〈그림 6〉상층 건물지 1(중삼문지) 실측도	71
〈그림 7〉상층 건물지 2 실측도	72
〈그림 8〉상층 건물지 3(내삼문지) 실측도	74
〈그림 9〉상층 건물지 4(공방고지) 실측도	75
〈그림 10〉상층 건물지 5(책방지) 실측도	77
〈그림 11〉상층 건물지 6 실측도	78
〈그림 12〉상층 배수로 실측도	79
〈그림 13〉상층 보도 1 실측도	79
〈그림 14〉상층 보도 2 실측도	81
〈그림 15〉상층 담장지 실측도	81
〈그림 16〉상층 방지 호안석축 실측도	84
〈그림 17〉하층유구 실측도	85
〈그림 18〉하층 건물지 실측도	88
〈그림 19〉하층 담장지 2 실측도	90
〈그림 20〉하층 담장지 3 실측도	91
〈그림 21〉상층유구 출토유물	95
〈그림 22〉상층유구 출토유물	97
〈그림 23〉상층유구 출토유물	99
〈그림 24〉상층유구 출토유물	101
〈그림 25〉상층유구 출토유물	103
〈그림 26〉상층유구 출토유물	105
〈그림 27〉상층유구 출토유물	107
〈그림 28〉상층유구 출토유물	109
〈그림 29〉상층유구 출토유물	111

〈그림 30〉상충유구 출토유물	112
〈그림 31〉상충유구 출토유물	114
〈그림 32〉상충유구 출토유물	117
〈그림 33〉상충유구 출토유물	119
〈그림 34〉상충유구 출토유물	122
〈그림 35〉상충유구 출토유물	125
〈그림 36〉상충유구 출토유물	127
〈그림 37〉상충유구 출토유물	129
〈그림 38〉상충유구 출토유물	131
〈그림 39〉상충유구 출토유물	133
〈그림 40〉상충유구 출토유물	136
〈그림 41〉상충유구 출토유물	138
〈그림 42〉상충유구 출토유물	141
〈그림 43〉하충유구 출토유물	144
〈그림 44〉하충유구 출토유물	146
〈그림 45〉하충유구 출토유물	148
〈그림 46〉하충유구 출토유물	150
〈그림 47〉하충유구 출토유물	153
〈그림 48〉하충유구 출토유물	155
〈그림 49〉하충유구 출토유물	157
〈그림 50〉하충유구 출토유물	159
〈그림 51〉하충유구 출토유물	163
〈그림 52〉하충유구 출토유물	164
〈그림 53〉하충유구 출토유물	166
〈그림 54〉하충유구 출토유물	169
〈그림 55〉하충유구 출토유물	172
〈그림 56〉하충유구 출토유물	174
〈그림 57〉하충유구 출토유물	176
〈그림 58〉하충유구 출토유물	178
〈그림 59〉하충유구 출토유물	181
〈그림 60〉하충유구 출토유물	182

寫眞目次

〈사진 1〉① 원주 강원감영 조사 전 모습(건물 철거 전)	211
② 원주 강원감영 조사 전 모습(건물 철거 후)	
〈사진 2〉① 탐색조사갱 넣은 모습	212
② 탐색조사갱 내 유구 중복된 모습	
〈사진 3〉① 선화당 서편지역 조사 모습	213
② 선화당 모습	
〈사진 4〉① 상충유구 조사 후 모습(남-북)	214
② 포정루 초석 모습(서-동)	
〈사진 5〉① 포정루 주변지역 조사 후 모습(서-동)	215
② 건물지 1(중삼문지) 모습(남-북)	
〈사진 6〉① 건물지 1(중삼문지) 모습(북-남)	216
② 건물지 1(중삼문지) 초석 모습	
〈사진 7〉① 건물지 1(중삼문지) 배수로 모습	217
② 건물지 2 모습(동-서)	
〈사진 8〉① 건물지 2 초석 및 고래자리 모습	218
② 건물지 3(내삼문지 지역)조사 후 모습	
〈사진 9〉① 건물지 3(내삼문지) 모습	219
② 건물지 4(공방고지) 모습(남-북)	
〈사진 10〉① 건물지 4(공방고지) 고래자리 모습	220
② 건물지 5(책방지) 모습(서-동)	
〈사진 11〉① 건물지 5(책방지) 모습(남-북)	221
② 건물지 5(책방지) 고래자리 모습	
〈사진 12〉① 건물지 5(책방지) 유물 나온 모습	222
② 건물지 6 모습(동-서)	
〈사진 13〉① 배수로 모습(동-서)	223
② 보도 1 모습(서-동)	
〈사진 14〉① 보도 1 모습(동-서)	224
② 보도 2 모습(남-북)	
〈사진 15〉① 보도 2 동쪽 유구 모습(북-남)	225
② 담장지 모습(동-서)	

〈사진 16〉① 담장지 서편 모습	226
② 방지 지역 토층 모습	
〈사진 17〉① 방지 지역 토층 모습	227
② 방지 호안석축 모습(서-동)	
〈사진 18〉① 방지 호안석축 모습(동-서)	228
② 방지 지역 유물 나온 모습	
〈사진 19〉① 하층유구 조사 후 모습(남-북)	229
② 하층유구 조사 후 모습(동-서)	
〈사진 20〉① 하층 건물지 모습(동-서)	230
② 하층 건물지 모습(서-동)	
〈사진 21〉① 하층 건물지 모습(남-북)	231
② 담장지 1 모습(동-서)	
〈사진 22〉① 담장지 1 모습(북-남)	232
② 유물 나온 모습	
〈사진 23〉① 하층 담장지 2지역 조사 후 모습	233
② 담장지 2 모습(남-북)	
〈사진 24〉① 담장지 2 모습	234
② 담장지 3 지역 조사 후 모습	
〈사진 25〉① 담장지 3 지역 토층 모습	235
② 담장지 3 모습(서-동)	
〈사진 26〉① 담장지 3 남편 유구 내 유물 나온 모습	236
② 하층유구 1 모습(북-남)	
〈사진 27〉① 하층유구 1 모습(동-서)	237
② 하층유구 1 주변 유물 나온 모습	
〈사진 28〉① 하층유구 2 (매납유구) 모습(동-서)	238
② 하층유구 2 (매납유구) 내 토기 나온 모습	
〈사진 29〉하층유구 2 주변 유물 나온 모습	239
〈사진 30〉① 하층유구 3 모습	240
② 하층유구 4 모습	
〈사진 31〉① 토층 단면 모습	241
② 지도위원회의 모습	
〈사진 32〉상층유구 출토유물	242

〈사진 33〉상층유구 출토유물	243
〈사진 34〉상층유구 출토유물	244
〈사진 35〉상층유구 출토유물	245
〈사진 36〉상층유구 출토유물	246
〈사진 37〉상층유구 출토유물	247
〈사진 38〉상층유구 출토유물	248
〈사진 39〉상층유구 출토유물	249
〈사진 40〉상층유구 출토유물	250
〈사진 41〉상층유구 출토유물	251
〈사진 42〉상층유구 출토유물	252
〈사진 43〉상층유구 출토유물	253
〈사진 44〉상층유구 출토유물	254
〈사진 45〉상층유구 출토유물	255
〈사진 46〉상층유구 출토유물	256
〈사진 47〉상층유구 출토유물	257
〈사진 48〉상층유구 출토유물	258
〈사진 49〉상층유구 출토유물	259
〈사진 50〉상층유구 출토유물	260
〈사진 51〉하층유구 출토유물	261
〈사진 52〉하층유구 출토유물	262
〈사진 53〉①~③ 상층유구 출토유물	263
④~⑤ 하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54〉하층유구 출토유물	264
〈사진 55〉하층유구 출토유물	265
〈사진 56〉하층유구 출토유물	266
〈사진 57〉하층유구 출토유물	267
〈사진 58〉하층유구 출토유물	268
〈사진 59〉하층유구 출토유물	269
〈사진 60〉하층유구 출토유물	270
〈사진 61〉하층유구 출토유물	271
〈사진 62〉하층유구 출토유물	272
〈사진 63〉하층유구 출토유물	273

I. 머리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4-2번지에 위치하였던 江原監營은 朝鮮 太祖 4년 (1395)부터 高宗 22년 (1895) 八道制度가 폐지될 때까지 500년 동안 강원도 26개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관할하던 장소이다.

강원감영의 관아는 선화당이 창건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여 英祖 35년(1759) 경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의하면 公廨 13동 276間, 亭閣 3동 16間, 창고 11동 213間 등 총 27동 550 간에 달하였고, 그 후 純祖 30년(1830)경에는 37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종 12년 (1875) 경에는 53여동의 관아건물이 존재하다가 6.25동란 중 큰 피해를 입어 현재는 당시의 강원도 관찰사가 집무하던 宣化堂을 비롯하여 布政樓, 內衙(청운당)가 보존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1995년 강원 정도 6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 태조 때부터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등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원감영(1395~1895)터에 관아를 정비 복원하여 원주시가 역사적으로 강원도 수부도시였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속 역사문화사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강원감영지 복원에 앞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유구를 파악하여 복원에 앞서 학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정비복원자료로 삼고자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2000년 5월 23일부터 약 5개월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감영지에 대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단 장 : 백 홍 기(강릉대학교 명예교수)
- 지도위원 : 최 영 희(문화재위원)
 - 김 정 기(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상임위원)
 - 장 경 호(문화재위원, 기전문화재연구원장)
 - 김 동 현(문화재위원,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 조 유 전(문화재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지 현 병(강릉대학교 박물관)
- 조 사 원 : 고 동 순(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 김 성 찬(원주시립박물관)

조 승 호(강원도사 편찬위원)

· 조사보조원 : 박 영 구(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 창 현(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심 상 욱(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현 부여문화재연구소)

· 보 조 원 : 최 영 희(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본 보고서 작성작업은 현장조사시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박영구가 정리한 것을 지현병이 수정·보완하였으며 유구 및 유물의 정리와 실측은 박영구·윤석인·최영희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유물설명 중 자기는 윤석인이, 기와는 최영희가 집필하였으며, 문헌으로 본 강원감영의 관아시설은 김성찬이 담당하였다. 전체적인 편집과 교열은 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지현병이 총괄하였다.

본 발굴조사에 있어서 발굴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한상철 원주시장님과 원주시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강원도문화재위원 유승룡 교수님, 박경립 교수님, 오영교 교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주셨고, 강릉대학교 정경숙 교수님과 이규대 교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아울러 매일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문화관광과 김수운 과장님, 하용운 계장님, 서동석 문화재담당관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안동주 계장님, 정연우 문화재전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날 더위와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 현 병

II. 發掘調査 經緯

강원감영지의 면적은 9,608㎡(2,906평)의 거의 방형에 가까운 대지로 남쪽에는 현재 원주시청별관(구 원주군청)이 자리하고 있었고 북쪽에는 원주우체국(2,601㎡)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굴조사지역은 원주시청 별관이 자리한 6041㎡(약 2000평) 지역에 한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주시에서는 1995년 강원감영 6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 태조 때부터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등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였던 강원감영(1395~1895)터에 관아를 정비 복원하여 원주시가 역사적으로 강원도 수부도시였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속 역사문화사적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원주시는 사적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포정루 및 내아를 보수하고 문화재 조명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감영터 북동쪽에 있던 재향군인회관 건물매입 및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감영터 서측에 있는 원주시청별관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곳에 추가로 내삼문과 행각 등을 1차로 복원하고 추후 원주우체국(2,601㎡)을 매입하여 그 자리에 관풍루, 환선정, 봉래각, 방지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강원감영지 복원에 앞서 동지역에 대하여 지하매장유구를 파악하여 복원에 앞서 구체하고 복원자료로 삼고자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5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2000.9.17) 결과 현재 일부에서 확인되는 하층유구도 복원되는 건물지 및 공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로 약 1개월간에 걸쳐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약 5개월 이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박 영 구

Ⅲ. 遺蹟의 地理的環境과 考古・歷史學的 背景

1. 地理的 環境

원주시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인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시의 경계는 동쪽은 횡성군·영월군, 서쪽은 경기도 양평군·여주군, 남쪽은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북쪽은 횡성군과 접하고 있다.¹⁾

경·위도상의 위치로는 남단: 북위 37°08′(부론면 단강리), 북단: 37°30′(호저면 고산리), 동단: 128°13′(신림면 송계리), 서단: 동경 127°45′(부론면 법천리)이고, 동서간 거리는 43km, 남북간의 거

1) 정장호, 1997, <원주의 지리적환경>《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P.37. 강원향토문화연구회.

리는 44km이다. 지형은 남동부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으며 치악산의 비로봉(1,288m)·향로봉(1,043m) 등의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북서부는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어 비교적 낮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에는 차령산맥의 줄기가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뻗어 구학산(968m)·백운산(1,087m) 등이 있다. 비로봉~향로봉 서쪽에는 대규모의 山麓 緩斜面 지형과 低位丘陵地를 발달시키며 원주 시가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동쪽산지의 선캄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과 서쪽의 화강암류의 差別侵蝕에 의한 결과이다. 한편 남대봉과 백운산에서 발원한 원주천이 원주 시가지를 남에서 북서쪽으로 관류하며 지류인 홍양천·단계천·영랑천 등을 합치면서 사방의 구릉지를 침식하여 이른바 원주분지를 형성하고 호저면 옥산리에서 섬강에 흘러든다. 평야는 섬강유역의 호저면 무장리, 지정면 간현리, 문막읍 문막리 및 반계리 일대에 비교적 넓고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하여 주요 생활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원주천을 비롯한 여러 작은 수계 유역에도 규모는 작으나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있고, 치악산 기슭의 산록완사면과 저위구릉지도 과수원이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²⁾

한편 원주시는 京畿陸塊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과 중생대의 화성암류,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본 지역의 동부 치악산 지역과 서부 문막 부근에 분포하고, 중생대 화성암류는 원주~문막 일원에 넓게 분포한다³⁾.

2. 考古・歷史學的 背景

원주의 북쪽과 서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섬강과 남한강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는 구석기시대 유적부터 삼국시대 고분유적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지만 정식으로 발굴된 유적은 드문 편이다.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구석기시대의 뗂석기가 찾아진 곳은 지정면 월송 4리⁴⁾와 부론면 홍호리·법천 3리 좁재마을·지정면 안창리⁵⁾ 지역으로 두강이 합쳐진 곳 근처의 곡류가 심한 곳에 있으며 강줄기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2) 건설부·국립지리원, 1994.《한국지리》지방편 II. p.169.

3) 건설부·국립지리원, 1994.《韓國地誌》지방편 II. p.167.

4) 김남돈, 1995.〈원주 월송리 구석기유적〉《박물관지》2, pp.13~41. 강원대학교 박물관.

5) 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7.〈원주의 선사유적·고분〉《원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원주시.

신석기유적으로는 부론면 법천리 부론초등학교 자리⁶⁾에서 멘석기 1점과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고,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부론면 노림리 고인돌유적, 법천리 부론초등학교 주변 유적⁷⁾, 판부면 서곡리유적⁸⁾, 문막면 궁촌리유적⁹⁾ 등이다.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호저면 매호리 향미유적, 부론면 법천리 부론초등학교 주변유적¹⁰⁾ 등이며, 고분유적으로는 법천리 고분군유적¹¹⁾이 조사되었다.

원주는 삼국시대에 백제가 마한의 영토를 통합하였을 때에는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 장수왕때 고구려의 영토가 되면서 평원군(平原郡)이 설치되었다. 신라의 북상으로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문무왕 때는 북원소경(北原小京)을 설치되었으며, 신문왕 5년(685) 이곳에 성을 쌓았다. 경덕왕 16년(757)에는 북원경(北原京)이 되었다¹²⁾.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23년(940)에 原州로 개칭되었고, 성종 14년(995) 전국이 10도로 구획될 때 이 지역은 중원도(中原道)에 속하였다. 현종 9년(1018)에 지주사(知州事)가 파견되었고 양광도(楊廣道)에 소속되었으며 그 밑에 영월·제천 등 2군 5현을 두었다. 고종 45년(1258)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원종 1년(1260) 원주로 복구되었다. 원종 10년(1269) 공신 임유무(林惟茂)의 외가고을이라 하여 정원도호부(靖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충렬왕 17년(1291) 합단적(哈丹賊)의 침입 때 항공진사 원충갑(元沖甲)이 적을 물리친 공으로 익흥도호부(益興都護府)로 개칭되었고, 충렬왕 34년(1308)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되어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충선왕 2년(1310)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성안부(成安府)로 되었다가, 공민왕 2년(1353) 치악산에 왕자의 태(胎)가 봉안되고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조선 태조 4년(1395)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강원도에 귀속되었고 강원도관찰부가 신설되면서 강원감영(江原監營)의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숙종 9년(1683) 원주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숙종 18년(1692)에 다시 원주목으로 복구되었다. 영조 4년(1728) 정무중(鄭茂重)의 모반사건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영조 13년(1737)년 다시 원주목으로 복귀되었다. 고종 32년(1895)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 때 충주부 원주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 전국을 13도로 개편할 때 강원도 원주군이 되었다. 1937년 원주읍으로 승격되고, 1955년 9월 1일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분리되어

6) 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7, 앞의 글, pp.85~86.

7) 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7, 앞의 글, pp.86~92.

8) 문화재관리국, 1977,《문화유적총람》상, p.396.

9) 한영희, 1977,〈원성군 궁촌리출토 일괄유물〉《고고학》4, pp.109~110.

10) 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7, 앞의 글, pp.92~97.

11) 국립중앙박물관, 1999,〈원주 법천리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건설부·국립지리원, 1994, 앞의 책 p.171.

원성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었다¹³⁾.

박 영 구

Ⅳ. 文獻으로 본 江原監營의 官衙施設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 고장 原州에 강원도 首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江原監營이 설치되었던 사실은 오늘날 원주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이 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조선시대 전국 八道 監營 가운데 중심 건물인 宣化堂·布政樓 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강원감영을 복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원성군·원주군 및 원주시 제2청사로 사용되어 온 강원감영 터는 새로운 제2청사로의 이전을 마침에 따라 사적공원으로서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첫 단계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작업이 이루어졌고, 원주시민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강원감영 사적공원사업은 예전의 강원감영 모두를 복원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한정하였다. 첫째는, 강원도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였던 觀察監營인 강원감영에 대한 연구성과¹⁴⁾를 토대로 하여 조선초기에 강원도의 탄생과 이에 따라 강원감영이 원주에 설치된 배경, 그리고 관찰사제도의 변화에 따라 강원감영 건물이 造營되는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둘째는, 이 글의 주된 부분인 강원감영 건물에 대한 고찰이다. 조선초에 강원감영이 원주에 설치된 이후 500년 동안 강원감영에 속해 있던 건물에 대한 營建은 관찰사의 근무형태 또는 兼牧制의 실시 여부에 따라 변화되면서 江原監營과 原州牧의 관아시설이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단지 강원감영에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강원감영과 원주목의 관아건물을 알려주는 사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헌을 臺本으로 하였다.

13) 원영환·유재춘, 1995. <횡성군의 역사>《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도·횡성군.

14) 元永煥, 1988. <江原監營의 史的考察>, 《江原史學》4.

_____, 1990. <江原監營에 對한 考察>, 《原州叢》2.

_____, 1994. <朝鮮時代 江原道行政體制 變遷에 관한 研究>, 《江原史學》10.

曹昇鎬, 1998. <朝鮮時代 江原監營 研究>, 江原大學校大學院 史學科博士學位論文.

그 하나는 조선초부터 1800년대 말에 이르는 동안 각 시기별로 편찬된 각종 地理誌·邑誌로서, 이들 문헌에는 강원감영이나 원주목의 관아건물이 혼용되거나 별도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강원감영과 원주목의 관아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소개하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17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강원감영에 대한 기록, 1800년대 이후의 江原監營誌, 그리고 강원감영의 보수기록과 일종의 인수인계서인 重記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原文을 자료로 실고 그 요지를 소개하였다.

1. 江原監營의 設置

麗末鮮初에 혼용되어 온 江原道の 명칭은 1395년(태조 4년) 6월 13일 영동의 江陵道와 영서의 交州道가 江原道로 합쳐지면서 ‘강원도’라는 道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¹⁵⁾ 이는 당시 강원도의 중심지역이었던 江陵의 ‘江’字와 原州의 ‘原’字를 조합한 것이다. 이로부터 江原監營이 原州에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년) 8道制가 폐지되고 23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감영이 폐지될 때까지 500년 동안 원주는 강원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395년(태조 4년) 지방행정구역의 일부를 개편하면서 강원도 관찰사의 관아인 감영을 원주에 설치한 것은 조선초기 중앙집권적인 왕권강화의 통치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각 도의 감영은 道內的 界首官 가운데 가장 큰 고을에 설치하되 漢陽으로부터 到界地點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평안도는 平壤監營, 전라도는 全州監營, 강원도는 原州監營, 황해도는 海州監營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원감영은 계수관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면서 지리적으로도 한성부에서 가장 가까운 도계지점이며, 도내를 순력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편리한 원주에 설치되었다.

1395년(태조 4년) 原州牧에 설치되었던 강원감영의 관원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1474년(성종 5년)에 반포된 『經國大典』에 의하면 종2품 觀察使를 비롯하여 종5품 都事 1명·判官 1명, 종9품 審藥·檢律 각 1명 등 5명의 관원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원주에 설치된 江原監營은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1大都護府(강릉), 1牧(원주), 5都護府(회양·양양·춘천·철원·삼척), 7郡(평해·통천·정선·고성·간성·영월·평창), 12縣(금성·울진·함곡·이천·평강·김화·낭천·홍천·양구·인제·횡성·안협) 등 도내 26개 府·牧·郡·縣의 官衙를

15)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6月 乙亥條, 「改開城府爲開城留後司改楊廣道爲忠清西海道爲豐海合江陵交州道爲江原…」.

통치하는 강원도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강원감영의 관찰사는 1395년부터 1895년까지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강원도의 모든 행정책임과 시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고 책임였다. 監司·方伯·道伯·道臣·道先生·道長官·營主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던 강원도 관찰사는 수령을 비롯한 道内の 외관을 糾察하는 外憲으로서의 임무와 자신도 외관으로서 한 道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장관이었으므로 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刑獄·兵馬 등에 관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관찰사제는 1413년(태종 13년) 10월 전국적인 관찰사제로 확립되었다. 조선 전기에 감영의 기능은 임기 1년의 관찰사가 單身到界하여 감영에서 留營하지 않고 연중의 대부분 동안 도내 관할구역을 순력하면서 觀察·黜陟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道政을 종합하는 중심지 내지는 일시적인 휴식처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으므로 관찰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별도의 감영건물이 없었다.

조선초에 중국 및 야인과 접해 있어 항상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평안도와 함경도 兩界 지방에는 관찰사가 率眷赴任하여 장기간 상주하면서 수령직을 겸직하였으므로 일찍부터 관아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조선후기 각 道의 감영과 같은 관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道의 감영들은 도정을 총괄하는 중심지 또는 수합지로서의 역할과 임기동안 도내 列邑을 끊임없이 순력해야 하는 관찰사 本營으로서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며, 감영소속 관원인 都事·檢律·審藥 등과 營吏들도 감영에 상주하지 않고 관찰사의 순력에 동행하거나 도내를 왕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여 별다른 관아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강원감영 관아가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던 것은 관찰사가 감영 소재읍인 원주목사를 겸하는 兼牧制의 시행으로 원주목 관아를 강원감영의 관아로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관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던 데에 그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찰사의 근무형태가 감영에 留營하지 않고 연중 대부분을 순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관찰사의 본영인 강원감영에는 별도의 관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채 原州牧의 관아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당시의 원주목 관아가 바로 강원감영의 관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38년(인조 16년)부터 1783년(정조 7년) 사이에 관찰사의 근무형태가 감영에 留營하면서 春秋 2회에 걸쳐 1개월 이내로 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7세기 이후 각 道 감영의 관아건물들은 양계지방의 평안·함경감영의 기존 시설을 모방하여 19세기와 같은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2. 江原監營 官衙施設の 營建推移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전기 강원감영의 관아시설은 관찰사의 근무형태와 兼牧制 시행 등으로 인하여 원주목의 건물과 같이 사용되어 오다가, 16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이를 문헌을 통해서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감영 또는 원주목의 관아시설에 대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우선 문헌에 실린 원문을 수록하고, 그에 대해 대강의 요지를 밝히겠다.

1) 地理誌

(1) 『新增東國輿地勝覽』 原州牧條

① 徐居正重新記原本高句麗之平原郡新羅置北原小京高麗初置州後降爲知州又降爲一新縣中間陞爲靖原都護府改爲益興恭愍朝復爲牧舊屬楊廣道今爲江原道之界首官其地廣其民夥山川之勝土田之饒物產之富爲諸州最其俗勤儉節用貯財殖貨水旱不能爲災實東道之美州也居正少時讀書雒岳法泉諸山寺往來于州非一再每見中家以上務營居室豐堂廣宇高樓美在在皆是也而獨奈何以如是之州之鉅之富而官之湫隘不振如是乎訊其經營歲月大元延祐年間所作也計今百數十年前後爲州者喜因循不暇修整此一州之大欠也成化庚子鐵城李侯以選出牧政修弊謀諸通判全城李侯以重新事宜報于朝獲俞鳩材陶瓦將事經營監司權公綸亦助其費適時屈未舉耳癸卯春歲稍稔肇興功役雇遊手不煩農民乃即舊址增益其制度先立大廳三楹前後有翼東軒亦如之宏敞廣豁然矣然昔之隘今則寬昔之湫今則塏觀者皆之是年夏六月鐵城移牧廣州上洛金侯代之李通判秩滿召還許通判代之事工之未訖兩侯措置有裕矣日者鐵城予記之予聞世之尙論者皆曰署之修否不繫於守令之賢否是大不然上古無宮室聖人取諸大壯始營宮室況署者接賓客嚴官府胡可不致意也哉予觀今之守令其迂闊齷齪者雖簿書文字流汗袖手蒙不可否復何事於外哉間或有號爲賢者能者然時勢盜竊名字問官署不修則諉之曰邦禁不可犯也民力不可竭也雖外示恬靜而內實玩弊弊焉坐視不救孟軻氏有言曰以佚道使民雖勞不怨苟合於道何畏於法於民而其爲說如是於長民之責何如哉今李牧李通判皆以慈祥愷悌之仁盡撫字之職一邑按堵其餘恩足以修舉廢墮金牧許通判又能繼前政張皇賁飾官府一新改觀易聽居正前日所欠於州者豈不有待於四君子乎四君子之才之德之政之賢之遠過於前守可知也嗚呼聖人之於春秋興作必書何也重民事也時屈舉羸勞民動衆則貶之不傷財不害民則褒之今四君子之舉在春秋之例當大書特書美之居正長史局可無一言乎鐵城諱字升卿李通判諱祿崇上洛諱象許通判諱達皆一時名賢云

② 雙樹臺在客館西

③ 清陰亭在客館南

④ 崇化亭在州西二里許李淑璵記吾友閔君貞子幹出牧原州之有年寄書於予曰原爲關東之界首雉岳之一趾西走邐迤百餘里者爲州之鎮而凡邑居公館堽庫鈴閣皆於是面勢焉直鎮閣之南偏有地斗起平似碁局甚爽塏也二面負山松檜森鬱一面臨水原野廣衍蕭然隔塵 可以爲遊息之所於是乎作亭其一每乘衙罷杖屨至亭上端坐時有縫掖之徒挾冊以進則啓發憤 詩書禮樂以教之牒訴之民有乖倫類則開諭指說孝悌忠信以導之者是皆亭之所助也故扁曰崇化予其記之予讀其書卒業而嘆曰人君位兩間萬民至衆也不能以獨治必得二千石之良以寄其撫字焉丈夫生斯世抱負至重也不得爲宰相必欲長百里之雄以行其政教焉然其爲政也教化本也刑法末也能知本末以崇化爲先者其亦難矣昔子游以聖門高弟宰武城絃歌爲治使君子小人皆學道焉其崇化者歟然子游生不遇時不能大施抱負化止於十室之邑而已故吾夫子有牛刀割雞之戲焉今子幹生逢聖明之世擬巍科步玉堂出入臺閣歷成均司成以教國子弟朝廷方重外寄知子幹儒術飾吏經濟幹局之能特選牧本州子幹未及下車先舉儒教首出租若干石以爲學 又勸其治內大小人出租有差權其子毋使不乏焉簿領之外所深注意者教化也又乃結構高亭以寓夫詩書禮樂之教孝悌忠信之道直百里 然則化之崇也刑之措也非流連光景之具也他日膺聖上褒美入授大拜有大建白得行道焉將化至一國澤被萬民矣豈特百里而已哉而武城十室眞兒戲耳太史氏大書特書以續夫漢循吏 黃諸人傳也無疑矣是爲記以歸之

⑤ 天王寺在州東二里許今廢爲射廳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原州牧條에 원주목의 관아시설로는 徐居正이 重新記를 지은 객관만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거정이 젊어서 치악산 文殊寺, 法泉寺에서 공부하기 위해 원주를 자주 왕래하던 1440년대 당시에는 원주읍내 중류이상 집들은 모두 부유하여 가는 곳마다 넓고 높은 居室과 樓亭을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관아의 대표적인 건물로 사용되고 있던 객관은 이미 120여년 전인 1314~1320년 사이에 건축된 이후 수리되거나 중수되지 않아 누추하고 낡은 채 賓客을 접대하는 객관으로 사용될 정도로 관아의 시설과 규모는 초라하였다.

이후 1480년(성종 11년)에 李 原州牧使가 부임하여 李祿崇 通判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누추한 관아를 중수할 뜻을 조정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고, 이에 당시의 權綸 강원도 관찰사 또한 공사비용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때마침 시절이 좋지 못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1483년(성종 14년)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옛 터에 객관 大廳 3棟과 앞뒤로 翼廊을 세웠고, 東軒 또한 같게 하여 관아 건물을 새롭게 造營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이 해 6월에 이지 원주목사와 이녹송 통판이

전근함에 따라 후임자로 온 金象 목사와 許達 통관이 앞선 사람들이 마치지 못한 중수공사를 잘 마무리하였다. 이 때 새롭게營建된 관아시설에 대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이 당시 객관 서쪽에는 雙樹臺, 남쪽에는 淸陰亭이 있어 관아건물과 어우러져 있었다. 또한 원주 읍내 동쪽 2리쯤에는 예전 天王寺 터에 射廳이 자리하였고, 서쪽 2리쯤에는 崇化亭이 지어져 있었다. 승화정은 閔貞(1475년 부임)이 원주목사로 부임하여 1년쯤이 되어서 고을 서쪽 2리쯤에 세운 정자로, 관아의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고을 백성들에게 詩書·禮樂의 가르침과 孝悌·忠信의 道를 펴는데 이용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2) 『東國輿地志』 原州牧條

① 客館

② 鄉射堂在客館北

③ 鍊武堂在客館南

④ 淸陰亭在客館南

⑤ 崇化亭在州西二里許牧使閔貞建李淑璵記公閣之南偏有地斗起平似碁局二面負山松檜森鬱一面臨水原野廣衍蕭然隔塵囂可以爲宴息之所閔君構亭其上每乘衙罷杖屨至亭上端坐時有縫掖之徒挾冊以進則啓發憤悱詩書禮樂以教之訴牒之民有乖倫類則開諭指說孝悌忠信以導之是皆亭之所助也故扁曰崇化

⑥ 興法寺在建登山寺有僧忠湛塔碑高麗太祖親製其文命崔光胤集唐太宗書模刻李齊賢嘗謂字大小眞行相間若鸞漂鳳泊氣吞象外眞天下之寶至萬曆壬辰倭寇見之知其爲絕寶輦移屯所其後仍在州內官館中

⑦ 天王寺在州東二里許今廢爲射廳

조선 顯宗朝(1660~1674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東國輿地志』 原州牧條에는 앞서 보았던 客館, 淸陰亭, 崇化亭, 射廳 이외에도 객관 북쪽에 鄉射堂, 남쪽에 鍊武堂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興法寺 眞空大師塔碑는 임진왜란 당시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왜구에 의해 객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3)『輿地圖書』觀察營條

① 城池無東水明門一間西翠滴門一間南鎮南門一間北拱北門一間 樓無

② 宣化堂三十一間監營古無營舍顯廟乙巳監司李晚榮始 建宣化堂丁未監司李後山畢役後壬子監司李普赫改丹牘

③ 戴恩堂三十八間內衙營建事蹟曰上之三十五年己卯冬十月乙酉臣以承政院右承旨任直中伏承特旨以臣爲江原道觀察使屢辭不獲命十一月丁巳陞辭特命晝講同爲入侍講訖命進前教曰今茲藩寄蓋欲試卿而關東之不得眷率裳聞之矣卿有望七老母予念卿離親之懷心甚不平卿雖以先公後私之義拜命就途而予心終有所不平矣又教曰頃年卿之陞資也慈聖有下教曰人臣報孝之道不在決科誨飭勤懇大哉至哉其時慈教卿豈不誦傳於予乎卿雖欲殫誠一路事而予以徐庶方寸徒亂之語而推之其何能專意藩務乎又教曰予以既孤既衰之人思卿情私心甚不平特許卿眷率須悉此意到界後狀聞可也臣奉命隕越惟惶猥踧踖而退十二月辛巳上教于筵臣曰爲自己眷率而狀請則不知裡面者必以爲僭越于當下教矣仍傳曰江原道眷率事會已下教頃聞往者奉命承宣所奏已有制置者云其所舉行不過營將處置及節目間事令備局問于道臣卽爲節目啓下又命左參贊臣洪鳳漢主其事翌年庚辰正月壬戌備局奏節目令道臣兼牧使州置通判一如他道例營將討捕使移兼於橫城縣劃給白米一百八十石耗穀一千五十石以備經用歲以爲常嶺南綿布十同本道耗穀五百石以爲衙舍新建之需寺奴婢三十口以供使役本月丙寅節目頒到臣開讀未半感極而涕成命之下不敢不祗承遂乃撤去古觀風閣卽其地搆建內衙而拙其規模簡其間架寢堂廳廡合爲三十八間始役於三月乙丑訖功於六月丁亥噫本道之不得携眷今幾年所而前後按節之臣由近貴而來者亦幾人哉乃者眷率之命由臣伊始則此實爲曠絕之渥若乃深軫微臣離膝之情而德音諄懇旋促備局節目之頒而筵教頻繁其所惓惓於爲臣地者有若慈父之爲子謀者自惟此生雖磨身粉骨何以報答其萬一哉只有母子感祝隕結是期而已堂旣成扁其額曰戴恩嗚呼繼臣而來者八此堂而伸定省之誠奉牲鼎之養能享前人所未有之樂則我聖上錫類體下之恩所施者博矣奚但爲微臣人之感戴而止哉遂敬敘伊時筵教垂示無窮焉是歲七月巡察使臣金孝大謹識

④ 喚仙亭四間

⑤ 蓬萊閣六間在宣化堂北蓮池中小島上甲子監司申玩所建其後監司洪萬朝重修又其後乙丑監司金尙星重修

⑥ 布政樓十二間

⑦ 客舍七十間在監營東崇禎甲戌牧使李培元搆建有李敏求重修記及徐居正重新記題咏在本州誌

⑧ 浮萍閣六間在客館東白洲李明漢始搆小敍曰營軒東十餘步有方池荒廢池中小島頽落春夏水至荷與蒲并生蒙茆不復有池臺之興命州人輦其穢而甃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扁曰浮萍以閣在島中如

萍之浮水也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暑月居之甚可樂也用遊手三日役已完莫謂余舉贏也

- ⑨ 清陰堂十二間都事營
- ⑩ 中營十五間中軍處所
- ⑪ 裨將廳二十間
- ⑫ 執事廳十六間
- ⑬ 營吏廳二十間
- ⑭ 營衙前廳十六間
- ⑮ 營奴房十五間
- ⑯ 使令房六間
- ⑰ 軍牢房五間
- ⑱ 營倉四十五間
- ⑲ 營庫二十間
- ⑳ 營繕庫三間
- ㉑ 補膳庫十七間
- ㉒ 補營庫九間
- ㉓ 雇馬庫三間
- ㉔ 軍需庫六十二間
- ㉕ 工房庫十二間
- ㉖ 永賴庫十一間
- ㉗ 補蓼庫十二間
- ㉘ 屯倉十九間在原州加乙坡三十里

1750년대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비로소 강원도 觀察營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건물의 棟數와 間數를 알게 한다. 강원감영에 속해 있는 건물로는 四大門(각1間, 4間), 宣化堂(31間), 戴恩堂(38間), 喚仙亭(4間), 蓬萊閣(6間), 布政樓(12間), 客舍(70間), 浮萍閣(6間), 清陰堂(12間), 中營(15間), 裨將廳(20間), 執事廳(16間), 營吏廳(20間), 營衙前廳(16間), 營奴房(15間), 使令房(6間), 軍牢房(5間), 營倉(45間), 營庫(20間), 營繕庫(3間), 補膳庫(17間), 補營庫(9間), 雇馬庫(3間), 軍需庫(62間), 工房庫(12間), 永賴庫(11間), 補蓼庫(12間), 屯倉(19間) 등의 건물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원주 남쪽 30리 加乙坡에 있던 屯倉을 제외한 건물들은 모두 營下에 있었다. 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건물은 사대문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볼 때, 총 31棟, 509間이었다.

강원감영이 있는 원주 읍내에는 특별히 城堞은 없었으나, 동·서·남·북 네 곳에 각각 1間 규모의 다락이 없는 형태로 된 東門(水明門)·西門(翠滴門)·南門(鎮南門)·北門(拱北門)이 있었다. 강원감영에는 예전에 특별히 지어진 집이 없었는데, 강원도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은 1665년(현종 6년)에 李晩榮 관찰사가 새롭게 창건하기 시작하여 1667년(현종 8년)에 이르러 후임 李後山 관찰사에 의해 31間 규모로 건축되었고, 이후 1732년(영조 8년)에 李普赫 관찰사가 선화당 건물을 다시丹青하였다.

戴恩堂은 곧 內衙로 1760년(영조 36년) 3월부터 6월까지 金孝大 관찰사가 옛 觀風閣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寢堂과 廳廡 건물 38間을 창건하였고, 7월에 內衙營建事蹟記를 지었다. 客舍는 70間으로 감영 동쪽에 있는데 1634년(인조 12년)에 李培元 원주목사가 창건하였으나, 이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불타버린 객관을 다시 창건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포정루는 12間이었고, 都事營으로 쓰이던 淸陰堂은 12間이다. 中軍이 거처하던 中營은 15間이다.

강원감영의 樓亭 가운데 喚仙亭은 4間이었다. 蓬萊閣은 6間으로 1684년(숙종 10년)에 申玩 관찰사가 선화당 북쪽 蓮池 속의 작은 섬 위에 세운 뒤에 洪萬祖 관찰사(1703~1704년 재임)가 중수하였으며, 그 뒤 1745년(영조 21년)에는 金尙星 관찰사에 의해 또다시 중수되었다. 浮萍閣은 6間으로 白洲 李明漢이 객관 동쪽에 처음으로 세웠다.

(4) 『輿地圖書』 原州牧條

① 距監營一百二十步

② 客館七十間在官門北壬辰倭亂賊酋留屯七朔公館間舍蕩然灰燼草棚客館十餘間名曰新月軒崇禎甲戌牧使李培元因舊址募工起役乙亥落成東洲李敏求作重修記東洲李敏求記曰原州關以東一都會也去京邑三百里而近綰畿嶺東西之口方伯之所駐節使蓋之所輻輳州大而當孔道宜有樓臺棟宇居美而觀盛以稱夫藩府者然而賓館毀於兵燹廢而不復者過四十年龜鼎所騁遊獵之所窟棲丘榛塗莽大爲鄉父老之羞歲壬申李侯培元來牧是州約已奉公一以興廢補弊爲務三年報政州告無事於是與觀察使姜公弘重協謀齊策大修賓館舊址屏瓦礫剔樑翳作爲方略鳩材募工財因贖鍰役藉遊手群趨競勸鼙鼓不勝踴躍時而正廳東西軒次第而起向之荒墟斷隴翼然有巨麗之觀何其熾哉功未訖李侯用前能遷忠原以去李侯重吉代其篆竭心嗣事程功不懈繩無改墨斧無停斲門廠敝庖廨位置俱備塗墍丹雘一時咸舉輪輿之盛居然甲一道於是鄉父老暨其子弟之秀者相聚而賀曰自此館廢四十年邦大夫之來者

易三十餘政其賢者則曰時絀而舉羸恐以困吾民也吾民者亦且惑其恤我而頌其德不衰然而吾之財未嘗羨於橐也粟未嘗裕於廩也至今日而此館成吾之財與粟固無損也意者前後兩李侯神役而鬼使之以就其功乎不然而殺我民晏息田廬未嘗肩一木手一鋸而有此眼前突兀其奚由哉解之者曰心與誠不專乎家則專乎國財與力不歸乎已則歸乎公私營而官怠利黜而義立若是而已館以崇禎甲戌正月起役翌年乙亥仲秋斷工余於是時出按茲土設宴大落之夫以姜公與李侯經始斯役而不及有其樂余乃與後李侯雍容而據其成語曰作者不居居者不作信矣余既嘉兩李侯有大造于原而幸余之首先處新館也於是乎書

③ 宣化堂三十一間監營古無別構之舍顯廟乙巳監司李晚榮新拊營舍於客館之西至丁未李後山始畢役觀風閣在堂之東布政樓在堂第二門上

④ 衙舍四十二間

⑤ 親民堂十五間壬申牧使尹滄重建衙之東軒

⑥ 鄉廳二十六間

⑦ 閱武堂九間在州東二里許卽鎮屬七邑軍兵鍊習處今乙卯新建乃天王寺古址云

⑧ 司倉四十四間

⑨ 別倉三十五間兩倉皆在邑內

⑩ 清陰亭在客館南

⑪ 浮萍閣六間在客館東白洲李明漢詩并小敘曰營軒東十餘步有池池中有小島皆荒廢春夏水至荷與蒲并生蒙葍不復有池臺之興命州人輦其穢而疏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扁曰浮萍以閣在島中如萍之浮水也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暑月居之甚可樂也用遊手三日役已完莫謂余舉羸也今丁丑監司沈鏞重修

⑫ 蓬萊閣六間在宣化堂北蓮池中小島上甲子監司申琬所建

⑬ 天王寺在州東二里許今廢爲閱武堂

앞에서 보았던 기록과는 별도로 『輿地圖書』 原州牧條에도 원주목 읍내에 있었던 公廨 건물로 客館(70間)·宣化堂(30間)·觀風閣·布政樓·衙舍(42間)·親民堂(15間)·鄉廳(26間)·閱武堂(9間) 등의 건물이 있었다. 倉庫는 司倉(44間)·別倉(35間)과 樓亭은 清陰亭·浮萍閣(6間)·蓬萊閣(6間) 등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강원감영과 원주목 관아는 120步 거리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官門 북쪽에 있는 客館은 70間으로 처음에는 10間 남짓의 규모로 지어 新月軒이라 하였다가, 임

진왜란 당시 왜적이 7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모두 불탄 것을 1634년(인조 12년)에 李培元 원주목사가 옛 터에 공사를 시작하여 1635년(인조 13년)에 준공하였고, 東州 李敏求 관찰사가 重修記를 지었다. 그의 중수기에 의하면, 객관이 임진왜란 동안 허물어져 40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못하다가 1632년(인조 10년)에 李培元 원주목사가 부임하여 1634년 정월에 姜弘重 관찰사와 모의하여 객관의 옛 터를 중수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여 正廳과 東·西軒이 차례대로 세워졌고, 그 사이에 이배원 목사가 충주로 옮겨가게 되어 그의 후임인 李重吉 원주목사에 의해 門·헛간·부엌의 위치가 모두 갖추어져 1635년 仲秋에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조 31년(1598년) 이후 원주·춘천·강릉을 비롯하여 금성·양양·삼척·홍천·낭천 등을 巡駐하여 封進을 받았던 강원도 관찰사의 순력 방식이 정청과 동·서헌 건축공사가 시작된 인조 12년(1634년) 이후부터는 계속 원주에 定居하여 봉진을 받으면서 列邑을 巡駐하게 되었다.¹⁶⁾

宣化堂에 대한 기록은 앞의 내용과 같으며, 觀風閣과 布政樓는 각각 선화당 동쪽과 선화당 제2문 위에 있었다. 원주목의 관아 東軒인 親民堂은 15間으로 1752년(영조 28년)에 尹滄 원주목사가 세웠고, 衙舍는 42間이고, 鄉廳은 26間이었다. 오늘날의 봉산동 천왕사지에 있던 閤武堂은 1735년(영조 11년)에 9間으로 세워져 原州鎭에 속해 있는 일곱 고을의 軍兵을 鍊習시키는 곳이었다. 누정으로는 객관 남쪽에 있는 淸陰亭이 보이고 있고, 浮萍閣에 대한 기록 또한 앞의 내용과 같으나, 다만 1757년(영조 33년)에 沈 관찰사가 중수한 기록이 추가되고 있다. 『輿地圖書』 觀察營條와 原州牧條에 나타난 관아시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觀察營條

東門(水明門, 1間), 西門(翠滴門, 1間), 南門(鎭南門, 1間), 北門(拱北門, 1間), 宣化堂(31間), 戴恩堂(內衙, 38間), 喚仙亭(4間), 蓬萊閣(6間), 布政樓(12間), 客舍(70間), 浮萍閣(6間), 淸陰堂(12間), 中營(15間), 裨將廳(20間), 執事廳(16間), 營吏廳(20間), 營衙前廳(16間), 營奴房(15間), 使令房(6間), 軍牢房(5間), 營倉(45間), 營庫(20間), 營繕庫(3間), 補膳庫(17間), 補營庫(9間), 雇馬庫(3間), 軍需庫(62間), 工房庫(12間), 永賴庫(11間), 補蓼庫(12間), 屯倉(19間)

16) 『關東誌』江原監營誌建置沿革條, 「萬曆戊戌以後殿最錄中觀察使駐于原州春川江陵金城襄陽三陟洪川狼川等邑封進崇禎甲戌以後連自原州封進而巡駐列邑及定居原州」.

原州牧條

客館(70間), 宣化堂(31間), 衙舍(42間), 親民堂(東軒, 15間), 鄉廳(26間), 閱武堂(9間), 司倉(44間), 別倉(35間), 浮萍閣(6間), 蓬萊閣(6間)

觀察營條에는 강원감영의 건물로 모두 31棟, 509間이 보이는데, 이외에도 原州牧條에는 原州牧과 관련된 건물로 보이는 衙舍(42間), 親民堂(東軒, 15間), 鄉廳(26間), 閱武堂(9間), 司倉(44間), 別倉(35間), 觀風閣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間數를 알 수 없는 觀風閣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원주읍내에는 적어도 37棟, 680間 규모의 관아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關東誌』江原監營誌

① 營下本無城堞但有四門東水明西翠滴南鎮南北拱北

② 宣化堂三十一間顯廟乙巳觀察使李晩榮勅建宣化堂重修記住在壬辰之亂平原一境慘被兵火官民居蕩然一空只餘數間營舍狹陋不可居而補葺苟度者殆將四十餘年歲在甲戌客館迺新創遂移寓於此其地勢雖似敞豁居處淺露殊非營門制度且於璿源錄實錄之行輒必虛館避之人以是病焉甲辰之春牧伯李侯擢拜按使慨然有意於重修恢拓其基址撤其舊村即令工師求大木而一新之堂宇宏麗規模咸備文之以丹雘輝煌奪目雖較諸他雄藩鮮有其偶不幸因事逆歸功未告訖厥後連值阻饑勢有所未遑然而存者三年於此矣余於上年秋幸得再而歲又失稔若不更舉則將未免頽廢故竊附於范文正之凶年與造損俸募人添加營繕突者平之凹者實之施以階砌鐫以周牆軍官之所寓營屬之所處米布之所藏並其大小門而計之則幾至七十餘間若非主人許秩天敘之盡心相助幕裨權克中之晝夜監董何能不數月而成之爰居爰處內外有別望之可知其觀察使衙門也噫前後之按是道者孰不念及於此必得李侯而營之過李侯數年之後必待七十翁之重來而完之凡物之興廢有數者非虛語也後來之登斯堂者必將指點而稱之曰如絮斯飛光彩照輝者李晩榮春長之經始也畫樓東西廊廡羅絡者李後山子高之成終也聊爲之記以敘其顛末云余崇禎紀元後丁未孟夏李後山後壬子族孫普燁按是藩堂之丹雘易而新之仍修飾茲板而重揭焉廟六年乙巳觀察使李晩榮營建越三年丁未觀察使李後山訖功廟八年壬子觀察使李普燁改丹雘當寧十一年丁未改瓦丹雘丁未八月中浣觀察使金載瓚識

③ 內衙三十六間英廟庚辰命率內眷觀察使金孝大勅建戴恩堂營建事蹟今內衙上之三十五年己卯冬十月乙酉臣孝大以承政院右承旨直中伏承特旨以臣爲江原道觀察使屢辭不獲命十一月丁巳陞辭特命畫講同爲八侍講訖命進前教曰今茲藩寄蓋欲試卿而關東之不得眷率裳聞之矣卿有望七老母

予念卿離親之懷心甚不平卿雖以先公後私之義拜命就途而予心終有所不平矣又教曰頃年卿之陞資也慈聖有下教曰人臣報效之道不在決科誨飭勤懇大哉至哉其時慈教卿豈不誦傳於予乎卿雖欲殫誠一路事而予以徐庶方寸徒亂之語而推之其何能專意藩務乎又教曰予以既孤既衰之人思卿情私心甚不平特許卿眷率須悉此意到界後狀聞可也臣承命隕越惟惶猥踧踖而退十二月辛巳上教于筵臣曰爲自己眷率而狀請則不知裡面者必以爲僭越即當下教矣仍傳曰江原道眷率事曾已下教頃聞往者奉命承宣所奏已有制置者云其所舉行不過營將處置及節目間事令備局問于道臣卽爲節目啓下又命左參贊臣洪鳳漢主其事翌年庚辰正月壬戌備局奏節目令道臣兼牧使州置通判一如他道例營將討捕使移兼於橫城縣割給白米一百八十石耗穀一千五十石以備經用歲以爲常嶺南綿布十同本道耗穀五百石以爲衙舍新建之需寺奴婢三十口以供使役本月丙寅節目頒到臣開讀未半感極而涕成命之下不敢不祗承遂乃撤去古觀風閣卽其地建內衙而拙其規模簡其間架寢堂廳舍爲三十八間始役於三月乙丑訖功於六月丁亥噫本道之不得携眷今幾年所而前後按節之臣由近貴而來者亦幾人哉迺者眷率之命由臣伊始則此實爲曠絕之渥若乃深軫微臣觀膝之情而德音諄懇旋從備局節目之頒而筵教頻繁其所眷眷於爲臣地者有若慈父之爲子謨者自惟此生雖磨身粉骨何以報答其萬一哉只有母子感祝隕結是期而已堂旣成扁其額曰戴恩嗚呼繼臣而來者八此堂而伸定省之誠奉牲鼎之養能享前人所未有之樂則我聖上錫類體下之恩所施者博矣奚但爲微臣人之感戴而止哉遂敬敘伊時筵教垂示無窮焉是歲之七月上旬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臣金孝大稽首謹識

④ 鶴城館七十間在宣化堂東崇禎甲戌牧使李培元勅建原州關以東一都會也去京邑三百里近綰轂嶺東西之口方伯之所住節使蓋之所輻輳州大而當孔道宜有樓臺棟宇居美而觀盛以稱夫藩府者然而賓館燬於兵廢而不改者過四十年鼃黽所騁遊貓之所窟栖丘榛塗莽大爲鄉父老之羞歲壬申李侯培元來牧是州約已奉公一以興廢補弊爲務三年報政州告無事於是與觀察使姜公弘重協謀齊筴大修賓館舊址屏瓦礫剔砵作爲方略鳩材募工財仍贖緩役藉遊乎群趨競勸磬鼓不勝塵踰時而正廳東西軒次第而起向之荒墟斷壘翼然有巨麗之觀何其媿哉功未訖李侯用前能遷忠原而去李侯重古代其篆竭心嗣事程功不懈繩無改墨斧無停斲門廠敝庖靡位置俱備塗墍丹雘一時咸舉輪輿之盛居然甲一道於是鄉父老其子弟之秀者相聚而賀曰自此館廢四十年邦大夫之來者易三十餘政其賢者則曰時屈而舉羸思以困吾民也吾民者亦且感其恤我而頌其德不衰然而吾之財未嘗羨於橐也粟未嘗裕於廩也至于今日而此館成吾之財與粟固無損也意者前後兩李侯神役而鬼使之以就其功乎不然而殺我晏息田廬未嘗肩一木手一甃而有此眼前突兀其奚由哉解之者曰心與誠不專乎家則專乎國財與力不歸乎公則歸乎已私營而官怠利黷而義立若是而已館以崇禎甲戌正月起役翌年乙亥仲秋斷工余於是時出按茲土設筵而大落之以姜公與李侯經始斯役而不及有其樂余乃與後李侯雍容而據其成語曰作者不居居者不

作信矣夫余既嘉兩李侯有大造于原而幸余之首先處新也於是乎書崇禎八年仲秋巡察使李敏求萬曆十有九年蝗筮自海中來積災異彰灼臺諫論遞方伯盖恐其不勝任也由是朝廷以先君膺其選先君承命以來繕築十四城軍政亦修舉泊壬辰倭亂歇棘而方靄著宣祖嘉之特陞嘉善塔後五十六年而恒又按節于是邦感愴舊事謹以七言律識之云丙戌臘月上澣巡使柳恒

⑤ 布政門樓十二間

⑥ 中營二十一間

⑦ 裨將廳二十八間

⑧ 審藥堂十二間

⑨ 檢律堂六間

⑩ 執事廳十間

⑪ 將官廳十四間

⑫ 別武士廳六間

⑬ 別軍官廳六間

⑭ 月課廳四間

⑮ 營吏廳二十一間

⑯ 營衙前廳十七間

⑰ 蓬萊閣四間在宣化堂北小池中肅廟甲子監司申玩所建蓬萊閣上樑文述夫山川風物之美雖因造化之奇功樓閣臺榭之觀必待人工而肇創幾年慳秘此日經營睠茲東原之奧區實惟左海之雄府雉岳東峙遙聯獅子之山鳳川西流下注蟾江之渡境隣關嶺素號民物之阜殷地接蓬瀛固是神仙之窟宅村間井落之森列遠遶太守之黃堂榮戟牙纛之深嚴高臨按使之玉節涼堂奧室非無燕適之居勝日佳辰數欠臨觀之所不惟過客之永歎久矣居民之有歎相彼池中之荒邱實是寰內之蓬島匯清流於塘面依稀十洲之微茫峙孤嶼於潭心彷彿三山之縹緲展也眼前之佳景居然象外之仙區營茲小齋賁以美號賁遊手而趨事役不煩民拓舊址而開基勢固因地塔墀爽潤還宜暇日之登臨軒檻周迥堪容罍俎之揖讓荷香冉冉納晚涼於良宵樹影陰陰送薰吹於清晝彤檻畫棟共雲影而徘徊月戶風簾與波光而上下雖足瑰偉巨麗之勝足擅從容蘊藉之奇綠水紅蓮時引賓僚而共會青春白日了無公事之相關只自閑吟燕居堪消俗慮不必遺世遐舉方號真仙奚但遊目憑懷引公餘之漫興抑且觀風宣化布惠政於黎民王學士之守黃岡新開竹閣柳義曹之在夷徼肇建茅屋追同調於昔賢非敢僭擬寄遠懷於真景聊以優遊將舉脩樑茶蔬善頌兒郎偉拋樑東晨曦吐燼漲霞紅天風吹拂螺園出一抹高撐碧落中兒郎偉拋樑西鷺擲垂楊遶曲堤睡起憑欄聊騁望亂山千點夕陽低兒郎偉拋樑南雨後春波碧似藍十頃荷池鋪鏡面夜深明月印瑤潭兒郎偉拋

樑北笑問洪厓肩可拍身世還疑坐海山臨風似聞笙鶴兒即偉拋樑上玉宇迢迢星斗朗倚枕清霄耿不眠風吹鈴索檻前響兒即偉拋樑下前籌永日多餘暇簾旌不動戟門閑一穗鑪薰供宴坐伏願上樑之後溪山固護棟宇恒新風月長閑南樓之清與不淺朋僚常滿北海之賓樽莫空指蓬海之揚塵永庇茲土配山川而垂號無廢舊觀與一邦而咸休殺百世而無數甲子春觀察使申玩稿重修記關東伯政堂後有池可數畝許有島島崇約仞脩三筵廣四脩一立四大楹爲房脩崇尋脩一筵廣筵有尺四面以柱十二是爲廳廳由房退各五尺強摠而名之曰蓬萊閣以其絕境在島中類海島之蓬萊云其始築土不甚堅且池水常滯之故閣屢脩而屢壞今觀察使洪相公至數月政成化行百廢俱興一日逍遙於池上見其閣將剝則命工毀之而復以土石積島上鼓之堅而又鼓之築之堅而又築之且以其直隅四柱弱難勝任更以大代之閣自此庶幾其永久哉餘皆一遵其舊制桶則易之腐瓦則補之級之夷者整之礎之者正之赤白之漫漶者皆煥然而改觀矣於是山若益高水若益清堤上有楊柳數十株綠陰娑娑柳上有好鳥和鳴亦皆若欣欣然各呈其態公命世稿曰仙閣成矣蓋往觀諸乃涉橋而上倚欄而吟俄而冷風灑然而至一洗我萬劫塵俗自不覺其已作玉鏡上人也亦奇哉公曰不可以無識也遂識之公諱萬朝字宗之豐山人歲闕逢涖灘余月上泮都事聞韶金世稿京伯謹記重修記蓬萊者神仙之窟宅耳鸞驂之所翱翔羽客之所蹁躚則世間亦豈有神仙而閣以蓬萊名者奚哉有池窪然不可謂之瀛洲也有邱嶸然不可謂之方丈也而彼翼然一小構者又非銀臺金闕則蓬萊之稱毋亦太不着題耶噫嶺東之以山水稱雅矣三日四仙海之蓬萊也金剛雪嶽山之蓬萊也而爲按使者便亦神仙中人則凡一路之樓觀亭臺無非蓬萊耳何不可之有哉夫蓬萊者乃秦皇之求之不能得也然東方朔嘗言漢武帝曰仙人好樓居蓋亦靜俟云天下無神仙則已有之則只在此間而是閣也丹碧剝不能爲仙之所必好則余之易而一新之者抑豈曼倩之遺意歟壁上揭楊蓬萊元化洞天字又令善繪者畫蓬萊山水每天晴月出萬籟闐然余以幅巾鶴氅與客逍遙於其間又有歌者誦關東曲以侑之不知傍觀者亦以爲丹丘洪崖之流也否噫歲乙丑初秋上泮觀察使臨瀛金尙星題採藥塢記東人喜浮華多倣古人粗蹟如丘山廟首陽碑龍岡之武侯祠皆此類也楓嶽之得蓬萊稱又不知何據而按是邦者謂其管領乎蓬萊輒以神仙自居豈非妄歟然而猶嫌其稍遠不得朝夕於其間則鑿池築閣假之蓬瀛之號列置三島以象三神之山每風清月朗令六七小妓泛舟沿洄擬童男女故事此妄之妄耳然既蓬萊有閣瀛洲有榭三山之中獨無採藥之所可乎遂就島中央結一小塢以採藥扁之六其楹所以應六鰲也三其鈴所以取三秀也自塢而俯閣則水底倒影別是畫中奇觀自閣而望塢則林端突兀隱若天上眞境蒼顏白髮頽然醉臥於塢閣之間者謂之醉仙可也臥仙亦可也何必羽化飛昇然後始可謂神仙乎且仙人好樓居若聞佳處必翩然來止安知假三山不爲眞蓬萊耶余姑靜處以俟其至辛卯天中蓬萊臥仙徐命善醉題

⑱ 觀風軒間在蓬萊閣北小池中正宗丁巳新建

⑲ 浮萍閣六間在鶴城館東仁廟己卯觀察使白洲李明漢勅建其詩并小敘曰營軒十餘步有池池中小島皆荒廢春夏水至荷與蒲并生蒙葍不復有池臺之興命州人輦其穢而疏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扁曰

浮萍以閣在島中如萍之浮水也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暑月居之甚可樂也用遊手三日役已完莫謂余舉羸也浮萍閣重修記原之客館之東有閣曰浮萍以閣在池中小島上故名之即白洲李尚書按本道時所也嶺之西十三郡原爲名邑山川襟抱明麗周遭而邑無亭臨眺之所此茲閣之初歟閣之體制雖不甚宏巨處地幽而眼界敞林木繞繚池沼環之頗以爽塏稱庚申余佐幕于茲壬戌以守禦戎幕來甲子以仙槎令來登茲閣者蓋非一二而歲久不修丹雘漫漶猶不知甚類輒憑欄吟嘯樂而玩之別來十有餘年荷香月色時往來于懷今幸按節重來樑棟撓折戶爽破缺陂池陸塞蓬蒿翳蒼鞠爲一荒墟余病之語原之倅鄭侯快可叔曰茲閣也即白洲公之所創而其風流勝蹟至今在人耳目且邑之可以宴賓僚暢幽情者惟茲閣在而蕪廢至此此固前後吏于茲者之恥而在吾可叔爲尤大焉可叔聞余言有憮然色屬余東巡列邑而回也可叔迎我於楓岳語余曰浮萍閣重理矣蓋爲記以責飾之余欣然許可歸而見之向之漫漶者鮮麗撓切者繕完居然輪焉奐焉而紗籠舊作重揭間或燦然改觀焉翳蒼者刻鋤之陸塞者疏拓之池紋激瀾而新荷已出水田田矣非可叔雅有勝情素著才韻可能神且速若是乎每於簿領餘暇暢於斯詠於斯披襟而納鳳川之冷風卷幔而邀雒岳之霽月時或俯瞰漣漪坐數游魚則不出戶庭之外渺然有江湖千里之想皆足以洗滌煩鬱潑除幽憂可叔之賜誠大矣噫余于此抑有感焉物之興廢莫非有待而然前後握節於茲佩符於茲者凡幾人而茲閣者始創者白洲公也重修於五十有餘年者可叔而蓋由余一言以啓發之白洲公以文章鳴一世余佩劣雖不能倖擬前人頗以吟嘯爲事亦嘗忝齒文苑可叔雖以發跡自少有能詩聲古稱地之勝人重之者白洲公之謂而余與可叔亦與有榮焉遂書此爲浮萍閣記乙亥五月日觀察使吳道一記與在仁廟己卯歲曾王考文靖公按節關東創設鶴城館東畔池中小閣名之曰浮萍閣而有詩有序曰方池荒廢小島頽落輦其機而疏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自己卯至于今幾百年中間幾番重修而少孫適佩符于茲邑來登此閣則方池之荒廢又復如昔小閣之圯毀更無餘地瞻玩于壁上紗籠之舊詩撫賞疇昔經紀之遺蹟不勝之愴恨懷茲乃鳩聚財力因舊沼而疏築焉毀舊閣而修葺焉改其丹雘新其牆砌摩沙而登瞰則天香襲人池光映楹恰似當時光景而然若親承樽俎間警咳也噫不肖小孫白首殘年按遑下邑忝先極矣幸蒙聖恩分憂東縣得到吾先祖憩堂之地修此首創之舊池閣是則似乎非偶然也已略識顛末收淚而書崇禎紀元後再甲寅雨臣浮萍閣創於白洲李文靖公距今百有三十三載而累圯屢修者甘棠之義也不佞忝持藩節有詩是閣而登亭則剝落多矣蕪穢久矣函謀諸通判金公魯捐鳩鳩材葺而新之扁于楣者識于壁者并改其丹雘還之舊處若干日工告訖蓋關東山水之富甲於八路而原之爲營宅乎野中四顧莽然無一邱一壑之可以寓目而娛意每春秋歷巡靈區勝景令人應接不暇而及還營則朝夕於几案者村間與田疇而已巡邑日短留營日長山水雖富終非我有此閣之所以作池不深而蕩然有江海之意臺不高而超然有岡巒之勢林木花石之環列掩映又恍然如松桂之洞海棠之洲觸類引伸大小一致足不下於階庭神則遍於湖山閣以浮萍名者其猶歐陽子之以舫名齋歟況文靖之風流文

采尙在東人之耳目卽其嘯詠之地寓其慕仰之誠者固爲後來者之責則今之舉豈但愛其觀而惜其廢哉董其工者幕賓李督郵禮輔助其費者三陟府使李敏輔伯訥書吾記者李晚秀成仲也三子於文靖公同爲後裔而適與斯役其亦不偶也辛卯首夏徐命善閣以浮萍名居水中也水環而爲池廣袤廬十許畝也西可數十武爲觀察使營觀察使領東方二十六邑左鉅海而前大江擁名山而館絕峽環麗殊絕浩渺之觀甲於一國而浮萍閣猶能以名勝聞於某間云閣之建在崇禎己卯白洲李公實經始之厥後垂二百年蓋再葺而三圮矣惟我伯父東按之三歲政清而民安迺循茲閣喟然而歎曰斯古名公之遺跡也可無繕乎於是捐捧以圖之不役民不費官不引日而閣告新丹雘不麗土木不雕蓋不出庭戶不動車馬坐獲湖山之勝旣成之翌月以書命小子爽周日記之爽周聞古之爲官府者既有高堂正衙東房西室聽事之軒延賓之館以蒞政而講禮又必有園囿池沼曲榭別觀登臨遊息之所以舒其湮菀以平其愆懣然後氣暢而神愉氣暢則喜怒不爭而疾病不作神愉則謀慮不爽施措不愆於以平其民而和其政也亦必賴之雖然地僻則妨務道遠則煩人侈觀則傷財而勞民宜吾伯父獨有取於茲閣也吾伯父春秋巡部嘗再至海上望見天地之所際畔日月之所出入視蛟龍鯨鼉之滅沒於其中者猶醢鷄也及歸而登茲閣臨茲水猶欣然樂之而不以爲小夫不以大而廢小不驚遠而忽近者君子之所用以也嗚呼斯亦可以觀爲政之道歟辛未流夏洪爽周撰者周書

- ⑳ 營倉四十一間
- ㉑ 補營庫八間
- ㉒ 補膳庫十一間
- ㉓ 軍需庫二十間
- ㉔ 軍器庫十三間
- ㉕ 火藥庫四間
- ㉖ 補蔘庫三間
- ㉗ 營庫十九間
- ㉘ 工房庫六間
- ㉙ 藥庫五間以上在營下
- ㉚ 屯倉十六間在加里坡面距營四十里

강원감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살필 수 있는 문헌은 『關東誌』에 수록된 江原監營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핀 내용과 중첩된 부분도 있으나 각 건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감영에는 본래 城堞이 없고 단지 네 門만이 있었는데 東門은 水明門, 西門은 翠滴門, 南門은 鎭南門, 北門은 拱北門이다. 宣化堂은 31間으로 1665년(현종 6년)에 李晚榮 관찰사가 창건하기 시

작하여 1667년(현종 8년)에 李後山 관찰사가 공사를 마쳤다. 뒤에 1732년(영조 8년)에 李普麟 관찰사가 선화당의 丹青을 새롭게 하였고, 1787년(정조 11년)에도 金載瓚 관찰사가 단청을 하였다. 內衙(戴恩堂)는 36間으로 1760년(영조 36년)에 임금이 率眷을 명하여 金孝大 관찰사가 창건하였다. 내아는 예전의 觀風閣을 철거하고 그 터에 寢堂과 廳을 합하여 38間으로 지어졌는데, 공사는 1760년 3월에 시작되어 6월에 마무리 되었다.

鶴城館(客館)은 70間으로 宣化堂 동쪽에 있다. 1634년(인조 12년)에 李培元 원주목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李敏求 관찰사가 客舍重修記를 지었다. 賓館(客館)은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 없어진 이후 40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가 1632년(인조 10년)에 李培元이 원주목사로 부임한 2년 뒤에 姜弘重 관찰사와 힘을 모아 1634년(인조 12년) 정월에 옛 터에 役事를 시작하여 正廳과 東軒·西軒이 차례대로 세워져 지난날에 황폐되었던 터는 아름다운 광경이 되었다. 이배원 목사는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충주로 전근하게 되어 그의 후임인 李重吉 목사가 부임하여 공사를 계속하여 門·헛간·부엌 등이 모두 갖추어졌고, 이러한 객관 중수공사는 1635년(인조 13년) 仲秋에 공사가 끝났다.

蓬萊閣은 4間으로 宣化堂 북쪽 작은 연못 속에 있는데, 1684년(숙종 10년)에 申玩 관찰사가 세우고 蓬萊閣 上樑文을 지었다. 이후 1704년(숙종 30년)에 洪萬朝 관찰사에 의해 중수되어 金世稿가 重修記를 지었고, 또다시 1745년(영조 21년) 초가을에 金尙星이 중수하였다. 觀風軒은 봉래각 북쪽 작은 연못 속에 있는데, 1797년(정조 21년)에 새롭게 營建되었다. 浮萍閣은 6間으로 학성관(객관) 동쪽에 있는데, 1639년(인조 17년)에 李明漢 관찰사가 처음으로 지었다. 이후 1695년(숙종 21년)에 鄭원주목사가 중수하여 吳道一 관찰사가 중수기를 지었고, 1734년(영조 10년)에 李雨臣 원주목사가 또다시 중수하였다. 1771년(영조 47년)에는 督郵 李禮輔가 공사를 감독하고 삼척부사 李敏輔가 공사비용을 조달하여 중수하였다.

『關東誌』江原監營誌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감영의 관아건물은 東門(水明門), 西門(翠滴門), 南門(鎭南門), 北門(拱北門), 宣化堂(31間), 內衙(戴恩堂, 36間), 鶴城館(客館, 70間), 布政門樓(布政樓, 12間), 中營(21間), 裨將廳(28間), 審藥堂(12間), 檢律堂(6間), 執事廳(10間), 將官廳(14間), 別武士廳(6間), 別軍官廳(6間), 月課廳(4間), 營吏廳(21間), 營衙前廳(17間), 蓬萊閣(4間), 觀風軒(間數不明), 浮萍閣(6間), 營倉(41間), 補營庫(8間), 補膳庫(11間), 軍需庫(20間), 軍器庫(13間), 火藥庫(4間), 補藥庫(3間), 營庫(19間), 工房庫(6間), 藥庫(5間), 屯倉(16間)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輿地圖書』觀察營條의 기록과 일치되는 건물 명칭은 東門(水明門), 西門(翠滴門), 南門(鎭南門), 北門(拱北門), 宣化堂(31間), 內衙(戴恩堂, 36間), 鶴城館(客館, 70間), 布政門樓(布政樓, 12間), 中營(21間), 裨將廳(28間), 執事廳(10間), 營吏廳(21間), 營衙前廳(17間), 蓬萊閣(4間), 浮萍閣

(6間), 營倉(41間), 補營庫(8間), 補膳庫(11間), 軍需庫(20間), 補蔘庫(3間), 營庫(19間), 工房庫(6間), 屯倉(16間)으로, 각 건물의 間數에서도 內衙는 38間에서 36間으로, 中營은 15間에서 21間으로, 裨將廳은 20間에서 28間으로, 執事廳은 16間에서 10間으로, 營吏廳은 20間에서 21間으로, 營衙前廳은 16間에서 17間으로, 蓬萊閣은 6間에서 4間으로, 營倉은 45間에서 41間으로, 補營庫는 9間에서 8間으로, 補膳庫는 17間에서 11間으로, 軍需庫는 62間에서 20間으로, 補蔘庫는 12間에서 3間으로, 營庫는 20間에서 19間으로, 工房庫는 12間에서 6間으로, 屯倉은 19間에서 16間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 명칭으로 審藥堂(12間), 檢律堂(6間), 將官廳(14間), 別武士廳(6間), 別軍官廳(6間), 月課廳(4間), 觀風軒(間數不明), 軍器庫(13間), 火藥庫(4間), 藥庫(5間)가 나타나고 있다.

(6) 『關東誌』原州牧條

① 客館七十間在州北壬辰倭亂賊曾留屯七朔公廨閭舍蕩然灰燼草棚客館十餘間名曰新月軒崇禎甲戌牧使李培元回舊址募工起役乙亥落成東州李敏求作重修記東洲李敏求記曰原州關以東一都會也去京邑三百里而近館穀嶺東西之口方伯之所駐節使蓋之所輻輳州大而當孔道宜有樓臺棟宇居美而觀盛以稱藩府者然而賓館毀於兵燹廢而不復者過四十年龜臚所騁遊獮貉之所窟棲丘榛塗莽大爲鄉父老之羞歲壬申李侯培元來牧是州約已奉公一以興廢補弊爲務三年報政州告無事於是與觀察使姜公弘重協謀齊策大修賓館舊址屏瓦礫剔樞翳作爲方略鳩材募工財因贖銀役藉遊手群趨競勸磬鼓不勝雇踰時而正廳東西軒次第而起向之荒墟斷隴翼然有巨麗之觀何其熾哉功未訖李侯用前能遷忠原以去李侯重古代其篆竭心嗣事程功不懈繩無改墨斧無停斲門廠庖廨位置俱備塗墍丹雘一時咸舉輪輿之盛居然甲一道於是鄉父老暨其子弟之秀者相聚而賀曰自此館廢四十年邦大夫之來者易三十餘政其賢者則曰時絀而舉羸恐以困吾民也吾民者亦且惑其恤我而頌其德不衰然而吾之財未嘗羨於橐也粟未嘗裕於廩也至今日而此館成吾之財與粟固無損也意者前後兩李侯神役而鬼使之以就其功乎不然而殺我民晏息田廬未嘗肩一木手一甓而有此眼前突兀其奚由哉解之者曰心與誠不專乎家則專乎國財與力不歸乎己則歸乎公私營而官怠利黜而義立若是而已館以崇禎甲戌正月起役翌年乙亥仲秋斷工余於是時出按茲土設宴大落之夫以姜公與李侯經始斯役而不及有其樂余乃與後李侯雍容而據其成語曰作者不居居者不作信矣余既嘉兩李侯有大造于原而幸余之首先處新館也於是乎書

② 宣化堂監營古無別構之舍顯廟乙巳監司李晚榮新棚營舍於客舍之西至于丁未李後山始畢役觀風閣在堂東布政樓在堂之第三門上

③ 親民堂衙之東軒

④ 閱武堂在州東二里許乃天王寺古址云卽鎮屬七邑軍兵鍊習處今乙卯新建牧使李雨臣作記揭之曰記鶴城卽關東最大邑而且近京師要害之地也惟其最大也故設爲方伯留營之府惟其要害也故兼摠七邑兵馬取爲嶺西巨鎮每春秋方伯爲元帥營將爲副將合七邑軍伍操鍊試射於此堂豈不重且大哉名其所曰教場而在於鳳川之上廣野中有空墀而無亭榭堂其鍊試也數千軍卒一齊奔走誅茅斫木合力而構成卅餘間假屋以爲點閱之所已成謬例其舉措之草創軍民之貽弊當如何哉然則亭榭之設正是急務而因循至此佞非一册構大欠事耶不佞至任以後遂欲勑與將校相議且詢于軍卒則咸曰諾迺造于按使按使亦許之於是鳩聚財力瓦焉而燔之工焉而餉之而棟材則衆卒自來助之册役數朔工乃告訖揭其額曰閱武堂今秋始鍊射于斯仍以牛酒大飲校卒旌旗列隊于上射砲應令於下軍容卽整師律無遠諸校衆卒欣欣然相告曰元戎之威儀自此備矣軍卒之宿瘼自此祛矣軍丁之悅豫如此斯堂之成尙可謂一鎮之幸也歟遂書此顛末而卑之

⑤ 武學堂記曰在衙東北三百有餘武夾右鳳川面揖鳳山微有臨眺之勝焉每春秋大閱則六邑之長領軍而至營將具戎衛鼓吹而出中堂而坐六邑長佩劔握鞭由楹外入以次升堂拜跪惟勤於是兵士整隊而進列于庭軍主吏執簿就右陞按名點然後乃退營將病則亞將代之而列邑亦以別駕行禮焉每冬夏考績則營將亦於堂開坐如議自營將以下諸校以序入行再拜禮訖就堂之北具決拾帶張服選耦而升弓開箭落鉦鼓交鳴而優劣乃別檢投席進之于前講武經校陣圖等其能否而殿最之太守仍鄉射亦成禮於是共無事時則亞將居之凡軍校之演技者人士之業武者咸會于堂設懸帷較力而觀德降射升飲盃盤交錯或談說兵家衆論蜂起亞將乃指穀率授旨訣折衷而訓誨之以日爲榮而疎者精者拙者即才就而藝成遂拔其尤者甄用之此堂之所由設也蓋一路武士之修廢專責亞將而得其人則存乎營將其作與教育之方與學校之待諸生所以示文武經緯安不妄危其重有如是者堂久且圯廢不用軍吏咨焉辛未海平尹侯視州事慨然曰斯州也何可無斯堂命亞將李虔臣撤其舊而將新之故事堂有役則隸鎮之邑咸出財力侯曰一屋者烏足困六邑乃損鳩財待時與功侯偶感疾棄官歸京師事亦中撤驪輿代爲政以時繼不遑土木甲戌麥稍登民始蘇侯命虔臣曰前侯之志汝其成之乃以是歲之八月始事開三朔而功告成役皆募遊手軍民不知勞而堂乃輪奐焉凡爲十八楹壁其五立一爲寢處所餘皆爲廳事而中外仍爲上下堂以鄭升降四週爲窓墟南北庭開暢闊幽動息咸宜冬則負輿面陽以迎暄夏則反之以納涼斯皆堂之微改舊觀者也尹侯諱閱侯諱百行李君原州人以繕械詰恣勞賞階折衝役既且落李君請爲記遂書顛末此亦一州之政蓋以詩人免置之義望云爾甲戌通訓大夫前行弘文館校理洪重孝記

⑥ 觀風閣正廟丙辰觀察使徐有防勅建

⑦ 清陰亭在客館南

⑧ 浮萍閣在客館東白洲李明漢詩并小敘曰營軒東十餘步有池池中有小階皆荒廢春夏水至荷與蒲

并生蒙葍不復有池臺之興命州人輦其穢而疏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扁曰浮萍以閣在島中如萍之浮水也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暑月居之甚可樂也用遊手三日役已完莫謂余舉贏也西坡吳道一重修記曰原之客館之東有閣曰浮萍以閣在池中小島上故名之即白洲李尚書按本道時所刪也嶺之西十三郡原爲名邑山川襟袍明麗周遭而邑無亭榭臨眺之所此茲閣之刪歟閣之體制雖不甚宏巨處地幽而眼界敞林木繞繚池沼環之頗以爽塏稱庚申余佐幕于茲壬戌以守禦戎幕來甲子以仙槎令來登茲閣者蓋非一二而歲久不修丹雘漫漶猶不知甚頽圯輒憑欄吟嘯樂而玩之別來十有餘年荷香月色時往來于懷今幸按節重來樑棟撓折戶爽破缺陂池墜塞蓬蒿翳鞠爲一荒墟余病之語原之倅鄭侯快可叔曰茲閣也即白洲公之所刪而其風流勝蹟至今在人耳目且邑之可以宴賓僚暢幽情者惟茲閣在而蕪廢至此此固前後吏于茲者之恥而在吾可叔爲尤大焉可叔聞余言有樵然色屬余東巡列邑而回也可叔迎我於楓岳語余曰浮萍閣重理矣蓋爲記以賁飾之余欣然許可歸而見之向之漫漶者鮮麗撓折者繕完居然輪焉奐焉而紗籠舊作重揭間或燦然改觀焉翳鞠者刻鋤之墜塞者疏拓之池文□灤而新荷已出水田田矣非可叔雅有勝情素著才譔可能神且速若是乎每於簿領餘暇暢於斯詠於斯披襟而納鳳川之冷風卷而邀雒岳之霽月時或俯瞰漣漪坐數游魚則不出戶庭之外渺然有江湖千里之想皆足以洗滌煩鬱潑除幽憂可叔之賜誠大矣噫余于此抑有感焉物之興廢莫非有待而然後握節於茲佩符於茲者凡幾人而茲閣者始刪者白洲公也重修於五十有餘年者可叔而蓋由余一言以啓發之白洲公以文章鳴一世余瀚劣雖不能倖擬前人頗以頗爲事亦嘗忝齒文苑可叔雖以發跡自少有能詩聲古稱地之勝人重之者白洲公之謂而余與可叔亦與有榮焉遂書此爲浮萍閣記英廟朝甲寅李兩臣重建記曰奧在仁廟己卯歲曾王考文靖公按節關東刪設鶴城館東畔池中小閣名之曰浮萍閣而有詩有序曰方池荒廢小島頽落葍其機而疏其蔚砌其島而安之小閣荷香水色四面環映爽氣撲人衣袖自己卯至于今幾百年中間幾番重修而小孫適佩符于茲邑來登此閣則方池之荒廢又復如昔小閣之圯毀更無餘地瞻玩于壁上紗籠之舊詩撫賞疇昔經紀之遺蠅不勝之愴恨懷茲乃鳩聚財力因舊沼而築焉毀舊閣而修葺焉改其丹雘新其牆砌摩沙而登瞰則天香襲人池光映楹恰似當時光景而悅然若親承樽俎間警咳也噫不肖小孫白首殘年按遑下邑忝先極矣幸蒙聖恩分憂東縣得到吾先祖憩堂之地修此首創之舊池閣是則似乎非偶然也已略識顛末收淚而書今丁丑監司沈鏞又重修

⑨ 蓬萊閣在宣化堂北蓮池中小島上甲子監司申玩所建歲閏逢涸灘余月上浣聞韶金世鎬重修記曰關東伯政堂後有池可數畝許池有島島崇約仞修三筵廣四修一中立四大楹爲房崇尋修一筵廣筵有尺四柱小柱十二是爲廳廳由房退各五尺強擡而名之曰蓬萊閣以其絕境在島中類海隅之蓬萊云其始築土不甚堅且池水常濟之故閣屢修而屢壞今觀察使洪相公至數月而政成化行百廢俱興一日逍遙于池上見其閣將圯剝則命工毀之而復以土石積島上鼓之堅而又鼓之築之高而又築之且以其直隅四柱擘

弱難勝任更以大伐之閣自此庶幾其永久哉餘皆一遵其舊制圯桶則易之腐瓦則補之級之曳者整之礎之積者正之赤白之漫漶黔沫者亦皆煥然而改觀矣於是山若益高水若益清堤上有楊柳數十株綠陰婆娑柳上有好鳥和鳴亦皆若欣欣然各呈其態公命世鐫曰仙閣成矣蓋逞觀諸乃涉橋而上倚欄而吟俄而冷風蕭然而至一洗我萬劫塵俗自不覺其已作玉京上人也亦奇哉矣公曰不可以無識也遂識之公諱萬朝字宗之豐山人也金尙星重修記曰蓬萊者神仙窟宅耳鸞驂之所翱翔羽客之所蹕蹕則世間亦豈有神仙而閣以蓬萊名者奚哉有池窪然不可謂瀛洲也有丘窪然不可謂方丈也而彼翼然一小構者又非銀臺金闕則蓬萊之號亦太不着題耶噫嶺東之以山水稱雅矣三日四仙海之蓬萊也金剛雪岳山之蓬萊也爲按使者便亦神仙中人則凡一路之樓觀亭臺無非蓬萊耳何不可之有哉蓬萊者乃秦皇之求之不能得也然東方朔嘗言漢武帝曰仙人好樓居蓋亦靜俟云天下無神仙則已矣有之則只在此間而是閣也丹碧剝不能爲神仙之所必好則余之易而一新之者抑豈曼倩之遺意歟壁上揭楊蓬萊元仙洞天字又令善繪者畫蓬萊山水每天晴月出萬籟闐然余以幅巾鶴氅與客逍遙於其間又有歌者誦關東曲以侑之不知傍觀者亦以爲丹丘洪崖之流也否噫

⑩ 喚仙亭在蓬萊閣傍丙寅監司金尙星所建因作記揭之曰亭於蓬萊閣之右凡一架六楹耳余日學注之君子觀德於斯則亭之名君子可也觀德亦可也而必曰喚仙抑何哉噫余於蓬萊好之甚者也重修之不足而又劫斯亭鑒方池者象十洲也而三山十洲之間又不可無萊藥之舟則每風清月明之夜携妓載船奏羽衣之曲飄霓裳之舞以彷彿乎童男童女之遊者雖然蓬萊而無仙則是亦假蓬萊也爲按使者坐於斯則坐仙也臥於斯則臥仙也睡於斯則睡仙也醉於斯則醉仙也以至琴棊射壺無事非仙則吾未知神仙喚我也我喚神仙耶仙之爲我我之爲仙者譬如莊周之爲蝴蝶蝴蝶之爲莊周則仙我之間又孰能辨之也哉後之學神仙者蓋於是亭也求之

⑪ 司倉四十四間

⑫ 別倉三十五間兩倉在邑內今廢

⑬ 申命主墓在州北樓門贈贊成有墓碣

⑭ 三綱行實二倫行實兵學指南等板在監營執事廳闡義昭鑑板在軍器御制百行源板成謹甫集板明義錄板欽恤典則板雲漢編等板皆在監營

⑮ 牧使金悌甲事蹟碑立北門外

⑯ 牧使李裕仁碑萬曆四十八年癸丑八月日立樓門具思稷碑萬曆三十四年五月日立樓門權慶祐碑萬曆四十一年癸丑八月日立樓門洪得一碑崇禎三年十一月日立樓門閔機碑天啓六年四月日立樓門金 碑崇禎三年十月日立樓門李培元碑崇禎九年四月日立樓門鄭維成碑壬午四月日立北門外李碑丙申四月日立北門外李峻岳碑順治十七年庚子十月日立衙門外許秩碑乙卯十月日立樓門宋時詰

碑立樓門姜琛碑癸亥十月日立樓門李益著碑一立軍需門外李奎新碑立客舍前宋基鼎碑在客舍前宣諭御使李奎碑立樓門觀察使李明漢碑在樓門尹履之碑在布政門外柳景緝碑立客舍外洪得一碑立樓門李雲徵碑立樓門柳慶昌碑立樓門鄭始成碑立樓門金致龍碑立樓門俞得一碑立樓門李台佐碑在客舍門外李時秀碑在客舍前李魯春碑在客舍前申獻朝碑在客舍前洪義謨碑在客舍前南履翼碑在客舍前申在植碑在客舍前尹命烈碑在客舍前鄭尙愚碑在樓門鄭元容碑在樓門

⑪ 中營衙舍東軒十二間三門三間翼廊五間歇所廳一間武庫九間交子弓庫四間軍物雜色庫四間火繩庫一間公須三間

⑫ 執事廳討捕廳十二間

187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關東誌』 原州牧條에는 客館(70間), 宣化堂, 親民堂, 閱武堂, 武學堂, 觀風閣, 浮萍閣, 蓬萊閣, 喚仙亭, 司倉(44間), 別倉(35間), 中營, 執事廳・討捕廳(12間) 등의 건물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앞에서 보아온 내용과 비교하여 보충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閱武堂은 원주 동쪽 2리쯤에 있는 옛 天王寺 터에 있는데, 1735년(영조 11년)에 李雨臣 원주목사가 鳳川 위쪽에 있는 넓은 터에 새롭게 만들고 閱武堂記를 지었다. 武學堂 또한 오른쪽에는 鳳川을 끼고, 앞쪽으로는 鳳山이 마주 보이는 곳에 尹滄(1751~1752년 재임)과 그의 후임 閔百行(1753~1754년 재임) 원주목사에 의해 완성되어 弘文館 校理로 있던 洪重孝가 1754년(영조 30년)에 武學堂記를 지었다. 觀風閣은 1796년(정조 20년)에 徐有防 관찰사가 처음으로 세웠다. 浮萍閣은 앞에서 보았듯이 1639년(인조 17년)에 李明漢 관찰사가 처음으로 건축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어 왔는데, 1757년(영조 33년) 沈鏞 관찰사에 의해 중수된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中營衙舍에는 東軒(12間), 三門(3間), 翼廊(5間), 歇所廳(1間), 武庫(9間), 交子弓庫(4間), 軍物雜色庫(4間), 火繩庫(1間), 公須(3間)이 있었으며, 執事廳과 討捕廳은 12間이었다. 이밖에도 三綱行實・二倫行實・兵學指南 등의 木板이 있던 監營 執事廳과 闡義昭鑑 木板이 있던 軍器庫가 확인되며, 金梯甲 목사의 事蹟碑가 있는 곳은 北門(拱北門) 밖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善政碑가 세워진 위치에서도 樓門・北門・官衙門・軍需門・客舍・布政門・客舍門 등의 건물 명칭이 확인된다.

2) 江原監營 補修・重記 記錄

(1) 光緒元年十月日江原監營各公 修補物力區別成冊

- ① 甲戌四月日營役餘在別庫留置錢壹千肆百肆拾壹兩捌 玖分
- ② 別庫留置清錢換賣來壹萬柒千肆百陸拾兩陸分
- ③ 京邸留置清錢換賣來貳千貳百參兩伍 伍分
- ④ 各邑留置清錢換賣來壹千壹百伍拾兩參 參分
- ⑤ 車牛貳隻還賣錢壹百拾兩
- ⑥ 灰馬貳匹還賣錢柒拾兩
- ⑦ 中營收贖錢肆拾伍兩
- ⑧ 麟蹄前縣監任百憲助役錢壹百兩
- ⑨ 楊口縣監李種永助役錢壹百兩
- ⑩ 狼川縣監李承肯助役錢壹百兩
- ⑪ 杆城郡守李周鈺助役錢壹百兩
- ⑫ 平海郡守李教德助役錢壹百兩
- ⑬ 蔚 縣令金振永助役錢壹百兩
- ⑭ 麟蹄民人自願赴役代錢貳百伍拾兩
- ⑮ 平康民孫千順自願出義錢參百兩
- ⑯ 三陟民全時榮自願出義錢參百兩
- ⑰ 江陵民趙君七自願出義錢參百兩
- ⑱ 楊口民金成用自願出義錢參百兩
- ⑲ 麟蹄麥圃發賣錢參千柒百貳拾肆兩玖 貳分
- ⑳ 狼川鐵店收稅錢壹千兩
- ㉑ 金城鉛店收稅錢柒百肆拾陸兩
- ㉒ 江陵毀撤書院田畝價壹千柒百貳拾參兩參
- ㉓ 平海毀撤書院田畝價捌百捌拾肆兩伍
- ㉔ 杆城七鄉願納錢參千參百玖拾柒兩肆 貳分
- ㉕ 江陵新儒願納錢壹千伍百兩
- ㉖ 麟蹄民金錫圭處查徵清錢換賣來肆百肆拾兩
- ㉗ 洪川六倉色吏作奸錢查徵柒百貳拾玖兩
- ㉘ 春川木物搜驗色吏濫捧錢查徵壹百兩

- ②⑨ 江陵民趙重一等行賂錢屬公貳千兩
- ③⑩ 江陵民鄭重直行賂錢屬公壹千兩
- ③⑪ 平海民黃滌行賂錢屬公壹千伍百兩
- ③⑫ 橫城民洪錫汝非理幻弄錢屬公壹百兩
- ③⑬ 楊口民金成民行賂錢屬公壹千兩
- ③⑭ 江陵民金啓明行賂錢屬公貳千兩
- ③⑮ 鐵原民李基孫橫徵債錢屬公肆百參拾貳兩柒錢捌分
- ③⑯ 原州民咸時良橫徵債錢屬公肆百兩
- ③⑰ 江陵民李海秀穀價濫捧錢屬公伍百捌拾伍兩玖
- ③⑱ 淮陽吏宋鳳俊作奸錢查徵壹千肆百陸拾伍兩肆錢伍分
- ③⑲ 寧越所捉修粧板執錢貳百拾伍兩參
- ④① 合錢肆萬玖千肆百柒拾伍兩肆錢柒分
- ④② 錢壹萬柒千陸百拾兩宣化堂參拾壹間改建
- ④③ 玖百兩吸唱房陸間改建
- ④④ 壹千玖百兩內衙拾玖間重修
- ④⑤ 參千玖百捌拾兩內行閣貳拾捌間改建
- ④⑥ 壹千兩澄清門伍間改建
- ④⑦ 壹千兩中三門伍間改建
- ④⑧ 壹百兩公事門壹間改建
- ④⑨ 壹百貳拾兩外三門陸間重修
- ④⑩ 玖百兩門直房陸間改建
- ⑤① 壹千柒百兩留仙館拾伍間改建
- ⑤② 參百貳拾兩茶仙館柒間重修
- ⑤③ 陸百兩喚仙亭參間改建
- ⑤④ 壹百陸拾兩訪仙門貳間改建
- ⑤⑤ 陸拾兩蓬萊閣陸間重修
- ⑤⑥ 壹百貳拾兩觀風閣拾貳間重修
- ⑤⑦ 貳拾兩六隅亭壹間重修
- ⑤⑧ 參拾兩白雲門貳間重修

- ⑤⑧ 陸百兩裨將廳拾伍間重修
- ⑤⑨ 壹千貳百伍拾兩行閣及書者廳玖間改建
- ⑥⑩ 玖百兩都房子廳陸間改建
- ⑥⑪ 貳百兩寫字官廳貳間改建
- ⑥⑫ 壹千肆百肆拾兩檢律堂玖間改建
- ⑥⑬ 參百兩通引廳伍間改建
- ⑥⑭ 參百兩執事廳拾間重修
- ⑥⑮ 壹千捌百兩別軍官廳玖間改建
- ⑥⑯ 壹百柒拾兩出身廳陸間改建
- ⑥⑰ 陸拾兩別武士廳陸間重修
- ⑥⑱ 壹千貳百捌拾兩營吏廳參拾貳間重修
- ⑥⑲ 壹千參百捌拾兩衙前廳參拾伍間重修
- ⑦⑩ 參千拾兩營庫貳拾壹間改建
- ⑦⑪ 貳千兩補營庫拾間改建
- ⑦⑫ 壹百玖拾兩軍餉庫柒間重修
- ⑦⑬ 壹百伍兩補膳庫貳拾壹間重修
- ⑦⑭ 伍拾兩營繕庫拾間重修
- ⑦⑮ 肆百兩行閣捌間改建
- ⑦⑯ 壹千肆百貳拾兩補蔘庫捌間改建
- ⑦⑰ 壹百拾兩軍牢廳玖間重修
- ⑦⑱ 捌拾兩使令廳捌間重修
- ⑦⑲ 壹千貳百兩巡令手廳捌間改建
- ⑧⑩ 參百陸拾兩細樂手廳拾貳間重修
- ⑧⑪ 壹百柒拾兩屯倉貳拾陸間重修
- ⑧⑫ 肆拾兩討捕廳捌間重修
- ⑧⑬ 壹百柒拾兩翼廊肆間改建
- ⑧⑭ 合下錢肆萬玖千伍百伍兩內
- ⑧⑮ 肆萬玖千肆百柒拾伍兩肆 柒分入錢除
- ⑧⑯ 加下貳拾玖兩伍 參分補營庫入下

⑧ 本官東軒行閣冊室官奴廳修補與客舍重修所入合貳千伍百柒拾陸兩貳錢自本州以民赴錢用下

⑨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尹

1875년(고종 12년) 10월 11일에 제작된 『光緒元年十月日江原監營各公廨修補物力區別成冊』(이하 '1875년 보수 기록'으로 표기함)은 강원감영에서 이 해 감영의 각 공을 보수하는데 든 비용을 入·出金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 비용으로 보수한 건물명과 間數 등의 사항을 적어 놓아 당시 강원감영 건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때의 강원도 관찰사는 尹秉鼎(1873.3~1875.11 재임)으로 직함은 嘉善大夫 江原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原州牧使였다. ①에서 ④까지는 강원감영 건물을 대대적으로 改建 또는 重修하기에 앞서 1874년(고종 11년) 4월에 마련한 49,475兩47分の 내역이다.

營役餘在別庫留置錢(1,441兩89分), 別庫留置淸錢換賣來(17,460兩6分), 京邸留置淸錢換賣來(2,203兩5錢5分), 各邑留置淸錢換賣來(1,150兩3錢3分), 車牛貳隻還賣錢(110兩), 灰馬貳匹還賣錢(70兩), 中營收贖錢(45兩), 麟蹄前縣監任百憲助役錢(100兩), 楊口縣監李種永助役錢(100兩), 狼川縣監李承肯助役錢(100兩), 杆城郡守李周鉦助役錢(100兩), 平海郡守李教德助役錢(100兩), 蔚縣令金振永助役錢(100兩), 麟蹄民人自願赴役代錢(250兩), 平康民孫千順自願出義錢(300兩), 三陟民全時榮自願出義錢(300兩), 江陵民趙君七自願出義錢(300兩), 楊口民金成用自願出義錢(300兩), 麟蹄麥圃發賣錢(3,724兩9錢2分), 狼川鐵店收稅錢(1,000兩), 金城鉛店收稅錢(746兩), 江陵毀撤書院田畝價(1,723兩7錢), 平海毀撤書院田畝價(884兩5錢), 杆城七鄉願納錢(3,397兩4錢9分), 江陵新儒願納錢(1,500兩), 麟蹄民金錫圭處查徵淸錢換賣來(440兩), 洪川六倉色吏作奸錢查徵(729兩), 春川木物搜驗色吏濫捧錢查徵(100兩), 江陵民趙重一等行賂錢屬公(2,000兩), 江陵民鄭重直行賂錢屬公(1,000兩), 平海民黃滯行賂錢屬公(1,500兩), 橫城民洪錫汝非理幻弄錢屬公(100兩), 楊口民金成民行賂錢屬公(1,000兩), 江陵民金啓明行賂錢屬公(2,000兩), 鐵原民李基孫橫徵債錢屬公(432兩7錢8分), 原州民咸時良橫徵債錢屬公(400兩), 江陵民李海秀穀價濫捧錢屬公(585兩9錢), 淮陽吏宋鳳俊作奸錢查徵(1,465兩4錢5分), 寧越所捉修粧板執錢(215兩3錢)

④에서 ⑨까지는 위의 금액으로 당시에 강원감영 건물을 보수한 건물명과 間數, 改建·重修의 구별 및 修補에 따른 비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에는 間數와 비용(단위:兩)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改建된 建物

宣化堂(31, 17,610), 吸唱房(6, 99), 內行閣(28, 3,980), 澄清門(5, 1,000), 中三門(5, 1,000), 公事門(1, 100), 門直房(6, 900), 留仙館(15, 1,700), 喚仙亭(3, 600), 訪仙門(2, 160), 行閣及書者廳(9, 1,250), 都房子廳(6, 900), 寫字官廳(2, 200), 檢律堂(9, 1,440), 通引廳(5, 300), 別軍官廳(9, 1,800), 出身廳(6, 170), 營庫(21, 3,010), 補營庫(10, 2,000), 行閣(8, 400), 補蔘庫(8, 1,420), 巡令手廳(8, 1,200), 翼廊(4, 170)

重修된 建物

內衙(19, 1,900), 外三門(6, 120), 茶仙館(7, 320), 蓬萊閣(6, 60), 觀風閣(12, 120), 六隅亭(1, 20), 白雲門(2, 30), 裨將廳(15, 600), 執事廳(10, 300), 別武士廳(6, 60), 營吏廳(32, 1,280), 衙前廳(35, 1,380), 軍餉庫(7, 190), 補膳庫(21, 105), 營繕庫(10, 50), 軍牢廳(9, 110), 使令廳(8, 80), 細樂手廳(12, 360), 屯倉(26, 170), 討捕廳(8, 40)

위의 내용으로 볼 때 1875년 10월에 윤병정 강원도 관찰사에 의해 개건 또는 중수된 강원감영의 건물은 宣化堂, 吸唱房, 內衙, 內行閣, 澄清門, 中三門, 公事門, 外三門, 門直房, 留仙館, 茶仙館, 喚仙亭, 訪仙門, 蓬萊閣, 觀風閣, 六隅亭, 白雲門, 裨將廳, 行閣及書者廳, 都房子廳, 寫字官廳, 檢律堂, 通引廳, 執事廳, 別軍官廳, 出身廳, 別武士廳, 營吏廳, 衙前廳, 營庫, 補營庫, 軍餉庫, 補膳庫, 營繕庫, 行閣, 補蔘庫, 軍牢廳, 使令廳, 巡令手廳, 細樂手廳, 屯倉, 討捕廳, 翼廊으로 43棟, 459間이었다. 이때 소요된 비용은 49,505兩으로 본래의 비용인 49,475兩4錢7分 보다 29兩5錢31分이 더 소요되어, 이 비용은 補營庫에서 지출하였다.

이밖에 本官의 東軒 · 行閣 · 冊室 · 官奴廳의 보수와 客舍의 重修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 2,576兩2錢은 原州 民赴錢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 이 당시 강원감영 또는 원주목에 있었던 건물의 棟數와 間數는 더욱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 光緒十七年十月日東營重記

鄭等重修秩

① 客舍

殿大廳內七兩外三抱拾捌間

東大廳柱三抱貳拾間

西大廳柱三抱拾陸間

左右翼廊拾間

內三門柱三抱拾捌間

清陰堂單翼弓拾捌間重修改丹牘

西翼軒柱三抱拾陸間

賓興門壹間重修

外三門單翼弓玖間重修丹牘

② 宣化堂柱三抱參拾伍間重修改丹牘

急唱房伍間新備

澄清門參間

外三門捌間反瓦改丹牘

③ 布政樓拾貳間反瓦

④ 喚仙亭肆間重修

⑤ 觀風閣蓬塘船隻

東西虹橋新備今無

⑥ 補膳庫拾陸間重修

⑦ 工庫拾肆間

⑧ 畫師房參間重修

⑨ 鳳川築修改

曹等重修秩

① 內衙

② 營倉

③ 軍器庫

④ 文龜亭

⑤ 閱武堂

⑥ 教坊廳

⑦ 觀風閣東西虹橋

尹等重修秩

- ① 戶籍庫
- ② 工庫
- ③ 藥庫
- ④ 東西虹橋

尹等重修秩

- ① 客舍壹百伍間重修
- ② 宣化堂參拾壹間改建
- ③ 急唱房陸間
- ④ 內衙拾玖間重修
- ⑤ 內行閣貳拾捌間改建
- ⑥ 澄清伍間
- ⑦ 中三門伍間
- ⑧ 公事門壹間改建
- ⑨ 外三門陸間重修
- ⑩ 門直房陸間改建
- ⑪ 蓬萊閣陸間重修
- ⑫ 留仙館拾伍間改建
- ⑬ 茶仙館柒間重修
- ⑭ 喚仙亭參間改建
- ⑮ 訪仙門貳間
- ⑯ 觀風閣拾貳間
- ⑰ 六隅亭壹間重修
- ⑱ 白雲門貳間
- ⑲ 裨將廳拾伍間重修
- ⑳ 行閣及書者廳玖間
- ㉑ 都房子廳陸間

- ②② 寫字官廳貳間改建
- ②③ 檢律堂玖間
- ②④ 通引廳伍間
- ②⑤ 執事廳拾間重修
- ②⑥ 別軍官廳玖間改建
- ②⑦ 出身廳陸間
- ②⑧ 別武士廳陸間
- ②⑨ 營吏廳參拾貳間重修
- ③⑩ 衙前廳參拾伍間
- ③⑪ 營庫貳拾壹間改建
- ③⑫ 補營庫拾間改建
- ③⑬ 軍餉庫柒間
- ③⑭ 補膳庫貳拾壹間重修
- ③⑮ 營繕庫拾間
- ③⑯ 行閣捌間
- ③⑰ 軍牢廳玖間改建
- ③⑱ 補蔘庫捌間
- ③⑲ 使令廳捌間重修
- ④① 巡令手廳捌間改建
- ④② 細樂手廳拾貳間
- ④③ 屯倉貳拾陸間重修
- ④④ 討捕廳捌間
- ④⑤ 翼廊肆間改建
- ④⑥ 中營內衙拾參間
- ④⑦ 本官內衙參拾陸癸酉年改建
- ④⑧ 本官東軒貳拾參間重修
- ④⑨ 行閣拾捌間
- ④⑩ 冊室玖間重修
- ⑤① 官奴廳柒間改建

1891년(고종 28년)에 제작된 『光緒十七年十月日東營重記』(이하 ‘1891년 중기’로 표기함)는 東營, 즉 강원감영의 소속재산 및 물품을 조사하여 정리한 일종의 인수인계서이다. ‘1891년 중기’ 가운데 戶房所 항목 앞에 있는 重修秩은 모두 鄭等重修秩·曹等重修秩·尹等重修秩·尹等重修秩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건물과 문의 명칭 및 크기, 그리고 重修 또는 改建되어진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강원감영의 규모를 알 수 있다.

鄭等重修秩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客舍에는 殿大廳(內七兩外三抱, 18間)·東大廳(柱三抱, 21間)·西大廳(柱三抱, 16間)·左右翼廊(10間)·內三門(柱三抱, 18間)·淸陰堂(單翼弓, 18間, 重修改丹)·西翼軒(柱三抱, 16間)·賓興門(1間, 重修)·外三門(單翼弓, 9間, 重修改丹)이 있었는데, 이 기록은 객사의 모습과 그에 딸린 부속건물을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宣化堂(柱三抱, 35間, 重修改丹)에는 부속 건물로 急唱房(5間, 新備), 澄清門(3間), 外三門(8間, 反瓦改丹)이 있었다. 이 밖에 중수된 건물로는 布政樓(12間, 反瓦), 喚仙亭(4間, 重修), 觀風閣(蓬塘船隻, 東西虹橋新備今無), 補膳庫(16間, 重修), 工庫(14間), 畫師房(3間, 重修)이 있고, 鳳川의 제방을 수리한 기록도 보인다.

曹等重修秩에는 內衙·營倉·軍器庫·文龜亭·閱武堂·教坊廳·觀風閣(東西虹橋)의 건물명칭이 보일 뿐 규모를 표시하지 않았고, 尹等重修秩에서 또한 戶籍庫·工庫·藥庫·東西虹橋만의 건물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의 尹等重修秩에 나타난 건물 명칭은 다음과 같다.

客舍(105間, 重修), 宣化堂(31間, 改建), 急唱房(6間), 內衙(19間, 重修), 內行閣(28間, 改建), 澄清門(5間), 中三門(5間), 公事門(1間, 改建), 外三門(6間, 重修), 門直房(6間, 改建), 蓬萊閣(6間, 重修), 留仙館(15間, 改建), 茶仙館(7間, 重修), 喚仙亭(3間, 改建), 訪仙門(2間), 觀風閣(12間), 六隅亭(1間, 重修), 白雲門(2間), 裨將廳(15間, 重修), 行閣及書者廳(9間), 都房子廳(6間), 寫字官廳(2間, 改建), 檢律堂(9間), 通引廳(5間), 執事廳(10間, 重修), 別軍官廳(9間, 改建), 出身廳(6間), 別武士廳(6間), 營吏廳(32間, 重修), 衙前廳(35間), 營庫(21間, 改建), 補營庫(10間, 改建), 軍餉庫(7間), 補膳庫(21間, 重修), 營繕庫(10間), 行閣(8間), 軍牢廳(9間, 改建), 補蔘庫(8間), 使令廳(8間, 重修), 巡令手廳(8間, 改建), 細樂手廳(12間), 屯倉(26間, 重修), 討捕廳(8間), 翼廊(4間, 改建), 中營內衙(13間), 本官內衙(36間, 癸酉年改建), 本官東軒(23間, 重修), 行閣(18間), 冊室(9間, 重修), 官奴廳(7間, 改建)

위와 같이 ‘1891년 중기’ 가운데 尹等重修秩에 보이는 강원감영의 건물을 ‘1875년 보수 기록’ 과 비교해 보면 客舍(105間, 重修), 中營內衙(13間), 本官內衙(36間, 癸酉年改建), 本官東軒(23間, 重修), 行閣(18間), 冊室(9間, 重修), 官奴廳(7間, 改建)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光緒十九年三月日東營重記

鄭等重修秩

① 客舍

殿大廳內七兩外三抱拾捌間

東大廳柱三抱貳拾間重修改丹牘

西大廳柱三抱拾陸間

左右翼廊拾間重修

內三門柱三抱拾捌間

清陰堂單翼弓拾捌間重修改丹牘

西翼軒柱三抱拾陸間

賓興門壹間重修

外三門單翼弓玖間重修丹牘

② 宣化堂柱三抱參拾伍間重修改丹牘

急唱房伍間新備

澄清門參間反瓦改丹牘

外三門捌間

③ 布政樓拾貳間反瓦

④ 喚仙亭肆間重修

⑤ 觀風閣蓬塘船隻

東西虹橋新備

⑥ 補膳庫拾陸間重修

⑦ 工庫拾肆間

⑧ 畫師房參間重修

⑨鳳川防禦修改

酉等重修秩

- ① 內衙
- ② 營倉
- ③ 軍器庫
- ④ 文龜亭
- ⑤ 閱武堂
- ⑥ 教坊廳
- ⑦ 觀風閣東西虹橋

尹等重修秩

- ① 戶籍庫
- ② 工庫
- ③ 藥庫
- ④ 東西虹橋

尹等重修秩

- ① 客舍壹百伍間重修
- ② 宣化堂參拾壹間改建
- ③ 急唱房陸間改建
- ④ 內衙拾玖間重修
- ⑤ 內行閣貳拾捌間改建
- ⑥ 澄清門伍間改建
- ⑦ 中三門伍間改建
- ⑧ 公事門壹間改建
- ⑨ 外三門陸間重修
- ⑩ 門直房陸間改建
- ⑪ 蓬萊閣陸間重修

- ⑫ 留仙牀拾伍間改建
- ⑬ 茶仙牀柒間重修
- ⑭ 喚仙亭參間改建
- ⑮ 訪仙門貳間改建
- ⑯ 觀風閣拾貳間重修
- ⑰ 六隅亭壹間重修
- ⑱ 白雲門貳間重修
- ⑲ 裨將廳拾伍間重修
- ⑳ 行閣及書者廳玖間
- ㉑ 都房子廳陸間改建
- ㉒ 寫字官廳貳間
- ㉓ 檢律堂玖間
- ㉔ 通引廳伍間改建
- ㉕ 執事廳拾間重修
- ㉖ 別軍官廳玖間
- ㉗ 出身廳陸間改建
- ㉘ 別武士廳陸間
- ㉙ 營吏廳參拾貳間重修
- ㉚ 衙前廳參拾伍間
- ㉛ 營庫貳拾壹間
- ㉜ 補營庫拾間改建
- ㉝ 軍餉庫柒間
- ㉞ 補膳庫貳拾壹間重修
- ㉟ 營繕庫拾間
- ㊱ 行閣捌間
- ㊲ 補蔘庫捌間改建
- ㊳ 軍牢廳玖間
- ㊴ 使令廳捌間重修
- ㊵ 巡令手廳捌間改建

- ④① 細樂手廳拾貳間重修
- ④② 屯倉貳拾陸間重修
- ④③ 討捕廳捌間
- ④④ 翼廊肆間改建
- ④⑤ 中營內衙拾參間
- ④⑥ 本官內衙參拾陸間癸酉年改建
- ④⑦ 本官東軒貳拾參間重修
- ④⑧ 行閣拾捌間重修
- ④⑨ 冊室玖間重修
- ⑤⑩ 官奴廳柒間改建

1893년(고종 30년)에 제작된 『光緒十九年十月日東營重記』(이하 '1893년 중기' 로 표기함)는 앞에서 본 '1891년 중기' 와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건물 명칭을 기록한 순서가 한 곳에서 서로 바뀌고 있고, 동일 건물에 대한 중수 또는 개건된 내용이 첨삭되는 정도의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면 16~18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1875년 보수 기록' (이하 '자료1' 이라 함)과 '1891년 중기' 및 '1893년 중기' (이하 '자료2' 라 함)에 나타나는 기록상의 차이점을 살펴기로 한다.

앞서 '자료1' 에서 보았듯이 1875년 10월 현재 강원감영의 건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규모는 43棟, 459間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자료1' 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규모를 알 수 없었던 本官의 東軒・行閣・冊室・官奴廳을 제외된 수치이다. 그러나 '자료2' 에는 客舍(105間, 重修), 中營內衙(13間)를 포함하여 本官內衙(36間, 癸酉年改建), 本官東軒(23間, 重修), 行閣(18間), 冊室(9間, 重修), 官奴廳(7間, 改建)의 규모가 나타나 있다. 이로서 보면 1875년 당시보다 수치상으로 7棟, 211間の 건물 규모가 추가되므로 1891년에서 1893년 현재 강원감영에 있었던 건물은 50棟, 670間 규모가 되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정황만을 밝힐 뿐 단정하지는 않겠다.

3) 『旌善叢瑣錄』에 보이는 강원감영 건물 기록

정선총쇄록은 吳宥默이 정선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작게는 날씨에서부터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여러 일들을 일기 형식을 빌어 기록한 귀중한 사료이다. 특히 1887년(고종 24년)에 정선군수로 부임 하기에 앞서 당시 鄭泰好 강원도 관찰사에게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강원감영에 들렀을 때 실제로

감영에서 보았던 건물과 각 건물에 걸쳐 있는 현판에 이르기까지 밝히고 있어 이 당시 감영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더 없이 중요한 사료이다.¹⁷⁾ 여기서는 강원감영의 건물과 관련된 내용만을 소개하였다.

정해년(1887년, 고종 24년) 윤4월 15일 아침 첫 닭이 울기에 일어나 말먹이를 먹인 뒤에 조반을 마쳤으나, 아직 날은 밝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江原監營의 거리는 상당히 멀고 산길이 극히 험하기 때문에 서둘러 출발하여야만 오늘 안으로 監司를 뵈 수 있으므로 출발을 재촉하여 砥平에서 釜沼[가마소]까지 10리 길을 지나 당도하니 이제야 아침밥 짓는 연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3리 길 되는 松峙에 이르니 이곳이 砥平 땅의 끝 경계이다. 두 松峙 사이의 거리는 4리 정도로 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사방을 둘러 있는 산은 깎아지른 듯이 험하고 樹木이 꼭 우거져 다만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 때문에 도적을 만날 우려가 있으므로 행인들은 경계하라고 하니 아, 한탄할 일이다. 간신히 고갯길을 넘어서 二云里까지 4리를 오르니 安昌里가 한 10리 길 정도 된다고 하였다. 시냇물 가까이에 있는 길은 몹시 험하였고, 앞에 큰 강물이 있어 조각배로 건너고, 또 正陽川을 건너 斫斗洞까지 거리는 4리 남짓인데 큰 수목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 宰臣 趙豐恩 相公의 祖父 山所가 있는 곳으로, 그 묘소를 수호하는 법도가 족히 사람의 자식된 정성이 극진하다고 말할 만하였다. 잠깐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 뒤 鞍峴 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고갯길은 제법 험하여 걸어서 고개를 넘어서 廣墟[광터]까지 10리 길을 지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말먹이를 먹고 곧 출발하여 萬宗里 주막을 지나 10리 길을 오니 西門까지 7리 길이 남았다. 곧 北門을 향하여 이곳을 들어가니 이곳이 바로 原州營門이며, 1,4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인물들이 번창하였고, 동쪽에는 雉巖山이 둘러 있고 서쪽으로는 蟾江이 구비쳐 흐른다. 原山城은 저 뒤쪽에 있고, 鳳川 냇물은 앞으로 흐르는 곳에 위로는 나라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鎮定하는 곳이다. 그 가운데는 넓은 들판이 펼쳐졌으니 하늘이 만든 웅대한 고을이다. 비록 견고한 雉堞은 없어도 여러 산들이 큰 들판을 둘러싸고 있으니 진실로 우리나라 동쪽의 關中이라 하겠다.

私處를 정하고 잠깐 쉬고 보니 해는 이미 한낮이 지난 것 같다. 本邑의 問安使가 印信을 가지고 왔으며, 兵事를 맡은 衙前 高錫伸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사람을 만난 뒤에 대조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먼저 馳進狀[監營에 提出하는 文書]을 드렸다. 公服을 갖추어 입고 拱手하고 北門으로 들어가 客舍인 鶴城館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兵事를 管掌하고 있는 幕僚 安道榮이 안

17) 全石萬, 1996.〈旌善叢瑣錄에 나타난 江原監營 關聯資料〉,《江原文化史研究》創刊號.

내를 맡아 주어 곧바로 監營門에 이르니 여기가 바로 關東布政衙門이다. 좌우 기둥에는 ‘澄清一道 節制三軍’ 이라고 쓴 聯句가 걸려 있었다[韓灝의 글씨이다]. 그 다음에 中三門을 들어서니 扁額[關東觀察使營門]이 있고, 기둥에는 聯句[關東雄藩 嶺西勝區, 尹師國의 글씨이다]가 있었다. 잠깐 머물러 쉬면서 陪吏에게 公狀을 드렸더니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呼名하는 명령이 있었다. 澄清門[內三門]을 따라 들어가 좁은 계단을 오르니 正堂[大廳]이 넓고 화려했는데 外額에는 ‘宣化堂’ 이라 썼고[韓灝의 글씨이다], 內額에는 ‘關東布政之堂’ [金尙集의 글씨이다]이라고 하였다. ... 난간을 오르니 한 通引이 앞에서 인도하여 사방을 살펴보니 房門 위쪽의 서쪽에 걸린 액자에는 ‘關東方面’ [尤菴의 글씨이다]이라 썼고, 남쪽에 걸린 액자에는 ‘節用愛人’ [碧海의 글씨이다]이라 썼다.

... 곧 巡相[觀察使] 鄭泰好 공께 하직하고 澄清門[內三門]을 나와서 돌아 서쪽의 夾門으로 들어가 곧 幕所로 나아가니 舍宇가 심히 편편하거나 탁 트이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百和堂’ · ‘少坐樓’ · ‘贊籌軒’ 이라는 세 개의 현판이 걸려 있었다. 兵裨 安道榮, 工裨 洪基錫을 잠깐 만나보고 나서 서쪽으로 두 개의 中門을 들어가니 여기는 茶仙館이란 곳이었다. ... 또 北門을 향해 觀風閣으로 들어가니 이 閣은 바로 宣化堂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못을 3丈 남짓하게 파고 물을 끌어들여 흐르게 하니 사방둘레가 수백 間이나 되었다. 못 가운데에 石臺를 쌓아 그 위에 우뚝 선 정자가 있었는데 만들어진 구조가 그윽하게 느껴져서 초연히 세상을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扁額에는 ‘觀風閣’ 이라 썼고, 액자 안쪽에는 ‘瀛洲館’ 이라 썼다. 바로 앞에 舟橋가 있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었고, 다리 밑에는 두 척의 배가 메여 있었다. 이는 正祖 때 부임한 觀察使 徐有防이 창건하였다. ... 못 북쪽에는 작은 섬이 있고 그 위에는 한 정자가 있는데 扁額에는 ‘蓬萊閣’ [楓臯의 글씨이다]이라 썼고, 道伯인 申琬이 건축하였다. 조각배를 타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번 구경할 수가 없다. ... 돌아서 앞에 있는 집으로 갔더니 여기가 留仙館이다. 留仙館은 못 가장자리 가까이에 있어서 자못 정취가 있었고, 巡相[觀察使]의 아들이 거처하는 집이었다. 만나서 문득 조금 이야기를 하고 堂을 내려와 降仙門에 이르니 못 북쪽에 한 臺가 우뚝 서 있어 그 넓이가 수십 보가 되었고, 이름하기를 方丈臺라 한다. ... 이어서 옛길을 찾아 다시 中營을 향하니 문에는 ‘副元帥營’ 이란 懸板이 걸려 있었고, 公堂에 들어가니 ‘統戎軒’ 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었다.

... 이 고을의 本官 李昇宰는 처음에는 서로 교분이 없어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오고 가는 사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 고을의 옛 이름은 鶴城이라 했다. 三門에 걸린 현판에는 ‘原州通判衙門’ 이라 썼고, 公堂의 현판에는 ‘原城主鎮’ 이라 썼으며, 監營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 將廳은 ‘鳴堂’ 이라 하고, 作廳을 ‘鶴城椽房’ 이라 하였고, 營之房을 ‘棠陰椽曹’ [趙鶴年の 글씨이다]라 하였으며, 營作廳은 ‘關東椽房’ 이라 하였고, 監營의 各所는 藥庫 · 營庫 · 補膳

庫・補蔘庫・營繕庫・工庫・軍器庫・補營庫・軍餉庫・營倉・屯倉이라고 하였다. … 윤4월 16일 癸卯, 東門을 나가 鳳川을 건너는데 시냇물은 넓고 다리는 길어서 완연하게 무지개를 걸쳐놓은 듯 하였다.

김 성 찬

V. 發掘調査 現況 및 露出遺構

강원감영지가 자리한 지역은 원주시 일산동 542번지 일대로 원일로를 중심으로 한 상가주택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현재의 담장을 경계로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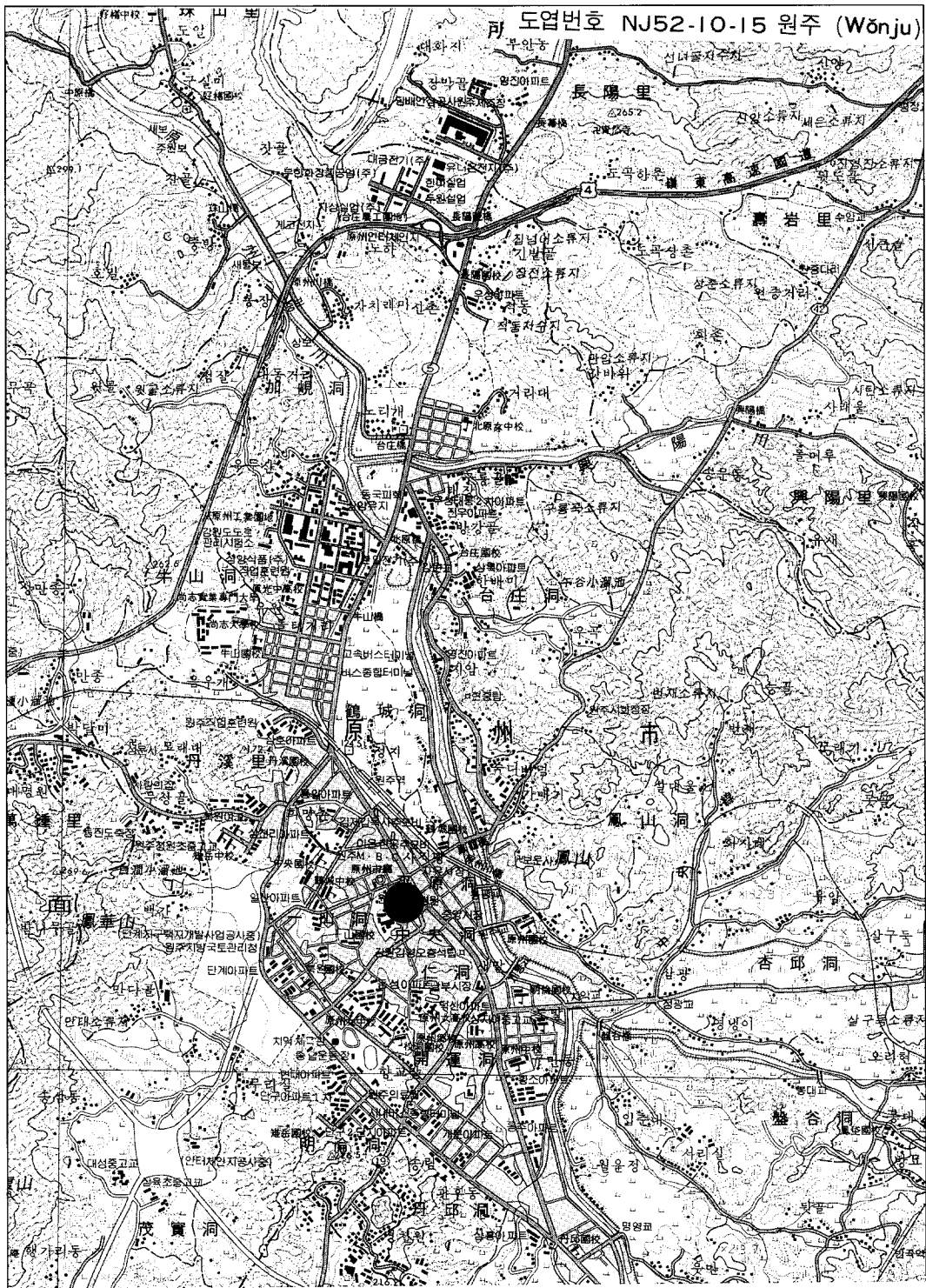
조사 전 1차적으로 원주군청 청사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혹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유구에 대하여 일정 깊이 즉 현지표까지만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통기초로된 철근콘크리트부분에 대하여는 조사단의 입회하에 제거한 결과 지표하 약 70~80cm 정도 깊이에서 감영지의 공방고로 추정되는 초석과 적심석이 노출되어 청사 건물철거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구지표 위에 전체적으로 약 50~60cm 정도로 모래와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포장된부분을 발굴조사에 앞서 장비를 동원하여 걷어 내었다. 한편 포정루 서편지역에는 불상 2구와 석탑 1기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발굴기간 중에 원주 시립박물관으로 이전 복원하였고, 근래에 조성한 순직기념비는 선화당 뒤편으로 이전해 놓았다. 또한 선화당 정면 앞에 향나무 2기는 이전하였다.

한편 원주군청 조성시 선화당을 중심으로 서쪽지역은 콘크리트 지하구조물로 인하여 현재의 담장지까지 대부분 파괴되거나 교란되었고, 크고 작은 치석된 건물석재, 건물지 기반석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강원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각종 지리지와 문헌에 기록된 강원감영의 규모와 위치를 중심으로 현재 발굴조사 구역에 있었던 건물들을 확인하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강원감영지 발굴조사에 앞서 기준선 설정과 주변 측량을 계획하고 주변지역과 강원감영지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건물의 레벨은 현 선화당 기반석 상면을 기준으로 삼았고¹⁸⁾, 기준선은



〈그림 1〉 원주 강원감영 위치도

선화당 기단석 정중앙에 기준점 0과 자남으로 기준선을 설치하고 발굴조사대상 전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10m×10m크기로 그리드를 설정하여 2m×8m크기의 탐색조사갱을 설치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구가 노출된 탐색조사갱은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전 구간에서 유구가 노출되었으나 舊 원주군청이 위치한 곳에서는 상당부분이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사진 2-②]

강원감영지의 토층조사 결과 건물지는 3차례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노출된 상층유구는 제 2층인 현 지표하 20~40cm 깊이의 암갈색 점토층에서 노출되고 하층유구는 지표하 약 100~120cm 깊이의 암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여러 곳에서 유구가 확인되며 또 다른 시기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은 지표하 200cm 깊이의 흑갈색 점토층+숫층에서 암막새편과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생토층은 지표 하 약 280cm 깊이에서 굵은 모래와 자갈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4, 사진 31-①]

현재 노출된 상층유구[그림 5]는 宣化堂(1667년)보다 늦게 축조된 조선후기(純祖~高宗代)의 건물지들로 추정되며 하층유구[그림 17]는 조선전기(15세기 중엽~16세기)에 해당하는 原州牧의 官衙建物로 여겨지는데 비교적 정연하게 잘 남아 있다.

이번 강원감영지의 발굴조사 결과 노출된 유구는 다음과 같다.

1. 上層遺構[그림 5, 사진 3-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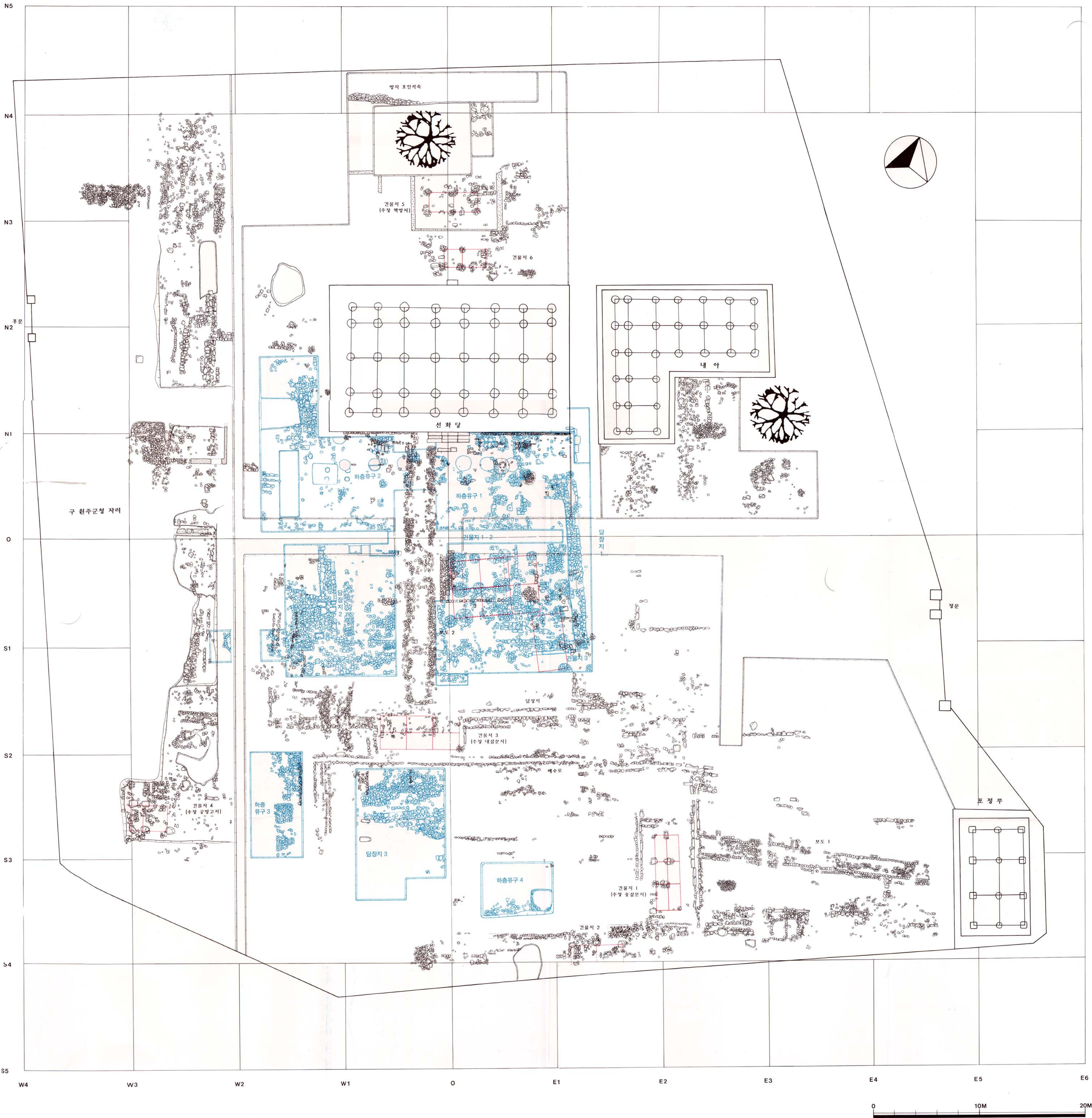
1) 布政樓[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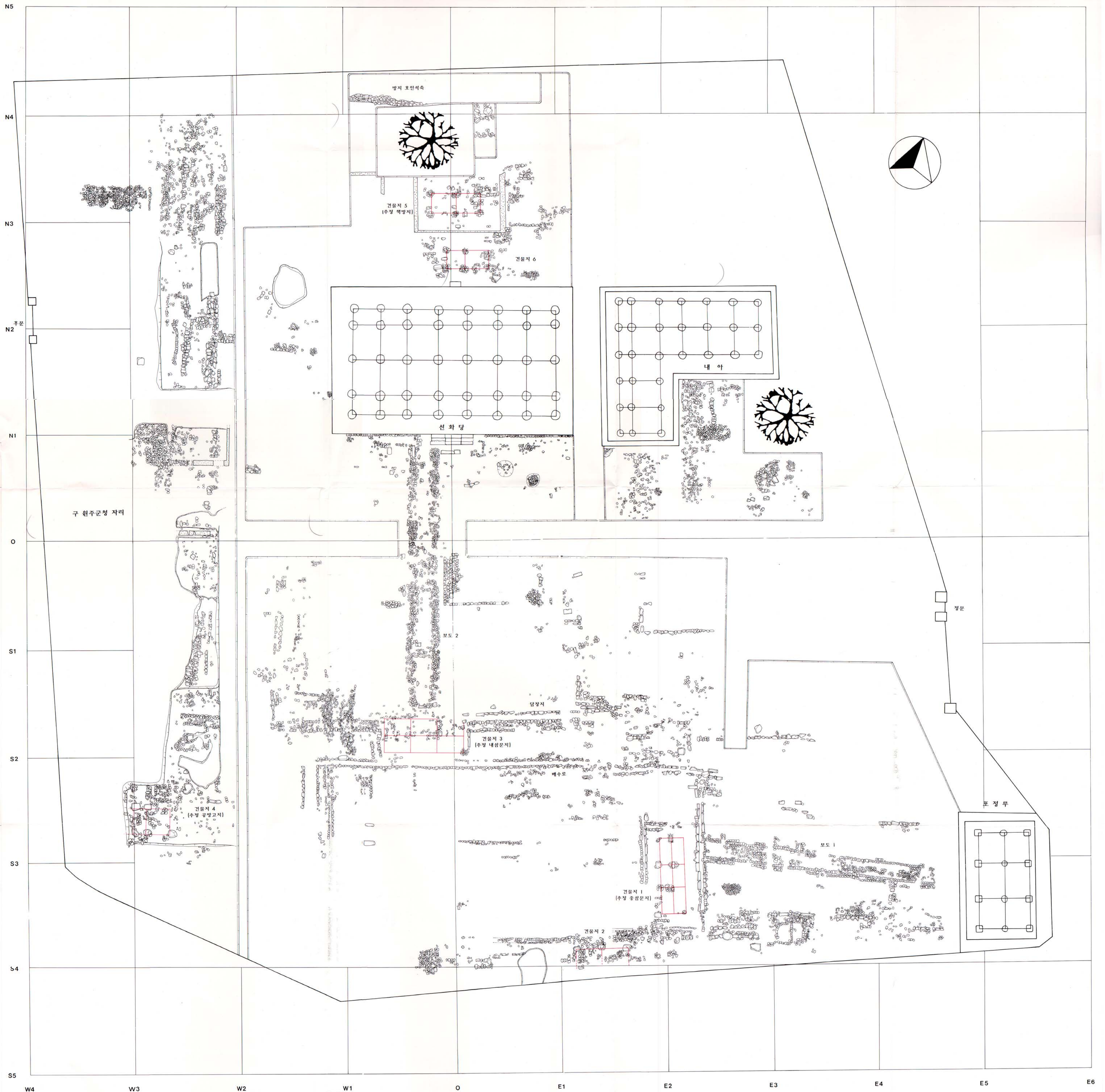
문루인 포정루는 고려 忠肅王때(1314~1330) 건립하였는데 조선 太祖 4년(1395) 선화당을 감영 객사로 하면서 포정루를 강원감영 문루로 사용하게 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초석간 거리는 측면이 230cm, 정면은 280cm, 320cm이다. 밑에는 밖으로 장초석 위에 둥근 기둥을 세웠으며 안쪽의 초석은 높이를 낮추고 두개의 기둥을 세워 판문(板門)을 달았다.

현재 안쪽의 초석은 이중으로 초석이 확인되었는데 상부 초석의 직경은 46cm, 높이는 32cm 크기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하부의 초반석(礎盤石)은 직경 40cm 높이 35cm 크기로 밑은 넷돌로 받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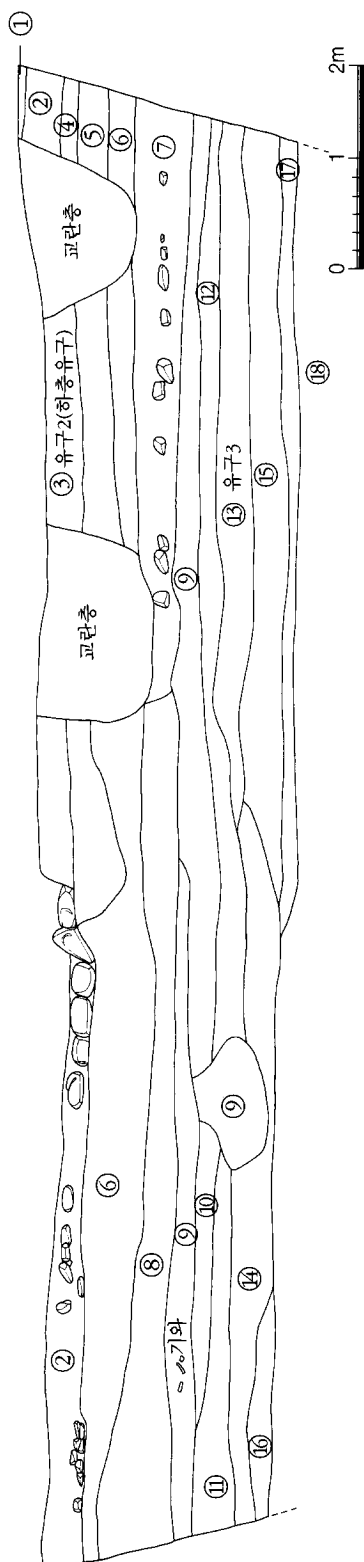
뒤쪽(서쪽)의 초석은 장초석으로 현지표하 80cm 깊이에서 초석의 하부가 확인되었는데 초석의 크기는 직경 45cm 높이 183cm 이다. 초석의 하부에는 직경 76cm 크기의 방형의 초반석이 놓여 있

18)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의 레벨은 현 선화당 건물 기단석 상면(S.L)을 기준으로하여 선화당 기단석 상면하의 레벨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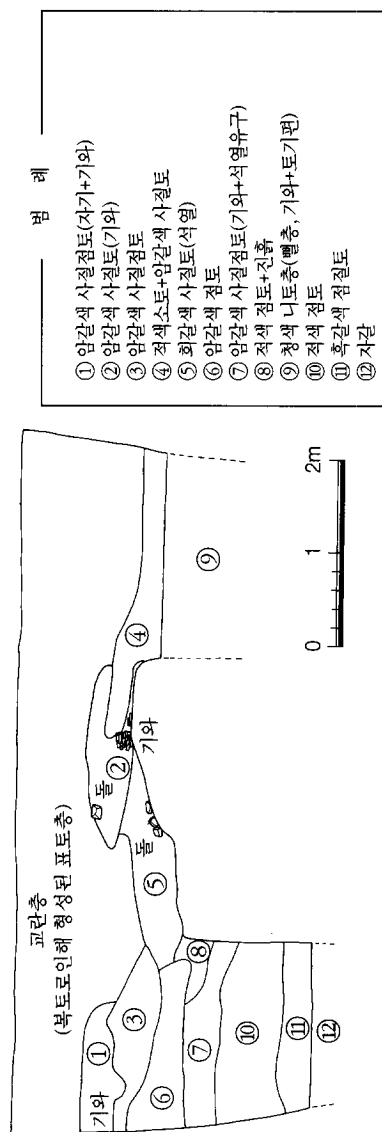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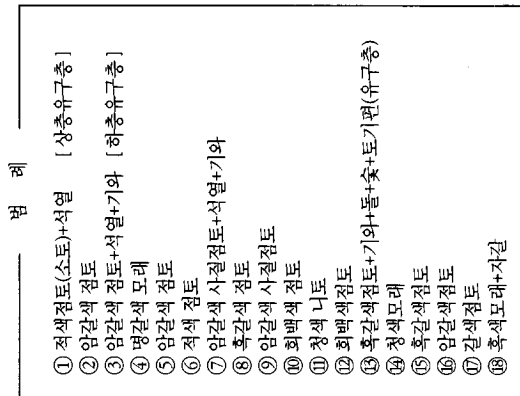




〈그림 5〉 상충유구 실측도



〈그림 3〉 S4 · W2 ~ S2 · W2 그리드 남·북 토층도



〈그림 4〉 방지 지역 토층도

고, 밑으로 직경 120cm의 적심이 확인되었다.

포정루 지역의 구지표인 암갈색 점토층은 지표하 약 60cm 깊이에서 확인되었는데 가운데 초석의 초반석 레벨보다 약간 높으며, 뒤쪽의 장초석의 하부 초반석은 당시에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선화당 기단석 하부의 높이와도 비슷하다.

2) 건물지 1(中三門址)(그림 6, 사진 5~7-①)

高宗 12年(1875) 江原監營 公廳 補修 內譯의 記事에서 보면 中三門의 칸수는 5칸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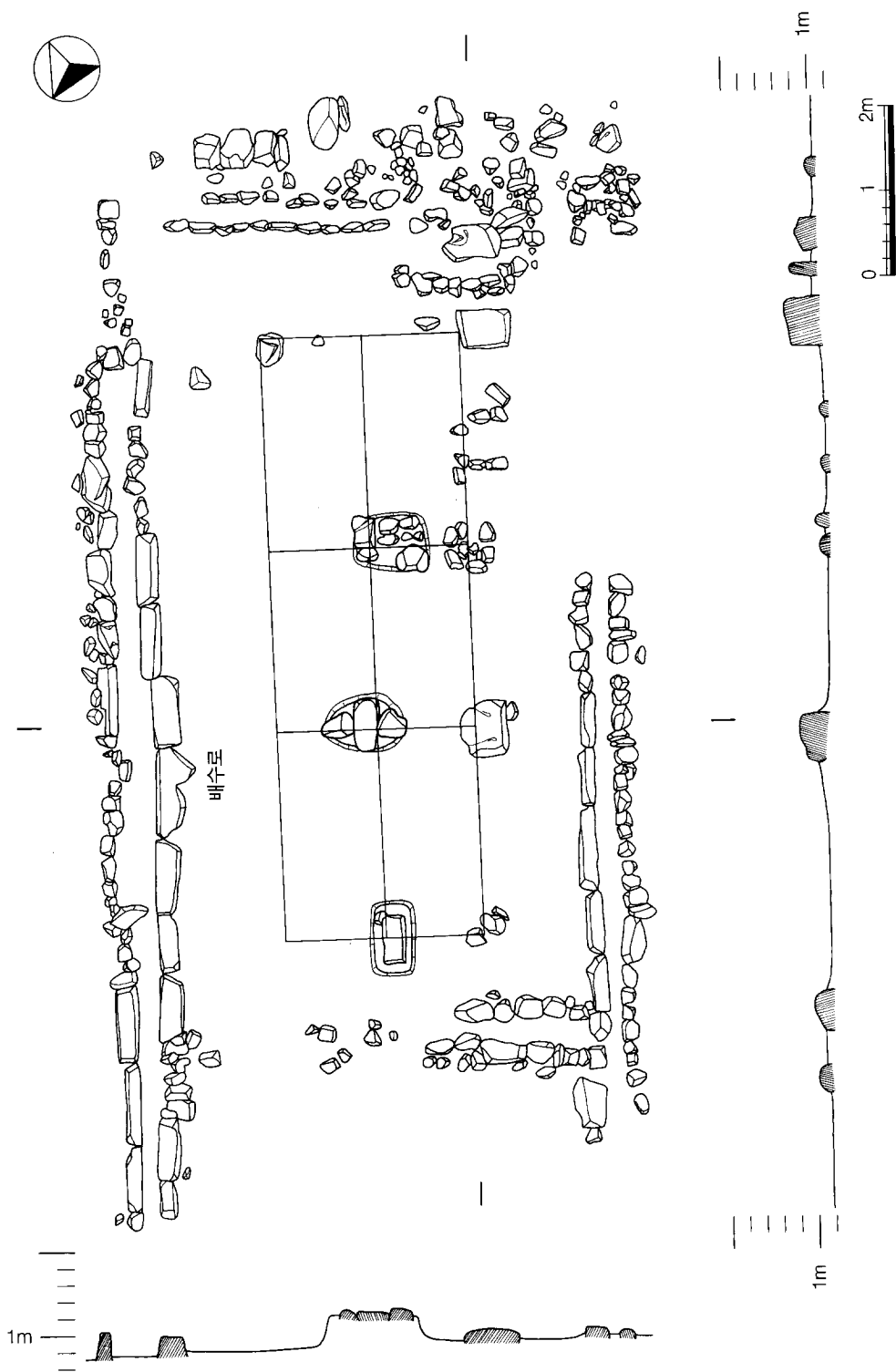
S5·E3 그리드의 확장면에서 남-북 장축으로 확인된 건물지로 현재 서편으로 측면 2칸의 초석 2개소와 적심 1개소, 동편으로는 장대석이 3개소 확인되었다. 서편의 초석간 거리는 230cm~250cm로 남쪽의 초석은 방형이고 북쪽의 초석은 장초석으로 상면이 결실되었다. 한편 남쪽의 초석과 적심 사이에서 일부 고래자리가 확인되었다. 동편의 장대석간 거리는 각각 310cm, 240cm이다.

초석 주변으로는 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초석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은 안쪽에 장대석을 쌓고 바깥쪽은 둥근 냇돌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서쪽은 현재 7.2m 가량만 남아 있고, 동쪽의 길이는 18.4m이다. 남쪽 부분은 작은 냇돌을 이용하여 쌓았고 길이는 5m이다. 한편 동편 장대석 북편으로 둥근 냇돌을 이용하여 쌓은 배수로가 서쪽 배수소에서 동쪽으로 약 2m 가량 확인되었다. 배수로의 폭은 25cm~42cm 정도로 내부에는 고운 진흙이 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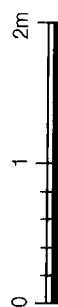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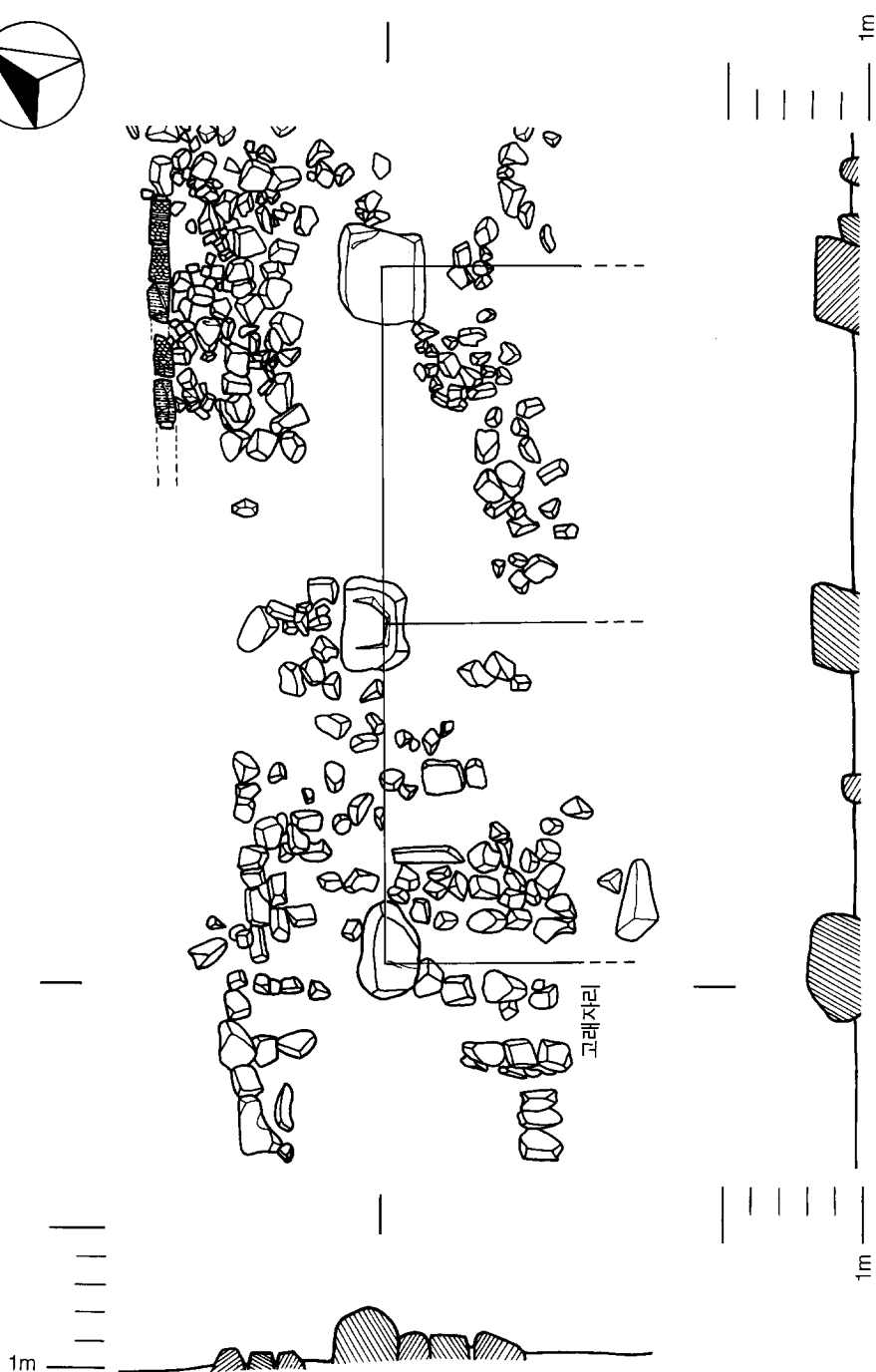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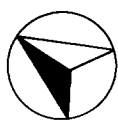
앞의 기록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삼문지는 5칸으로만 되었는데, 이는 정면 3칸, 측면 2칸을 합하여 5칸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중삼문지의 유구상태를 살펴보면, 포정루에서 중삼문지까지 나타난 도로의 방향과 중삼문지의 유구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 현재 포정루와 중삼문지는 거의 일정 축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방향이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중삼문지의 북쪽 맨 우측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주변 여건상 도로를 북측문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다던가 아니면 측면 5칸으로 북쪽으로 2칸이 더 있어서 중앙으로 연결되었다가 후에 2칸이 결실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기록이 1875년 高宗 12年の 기록이기 때문에 이전에 도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정면 5칸으로 건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좀더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중삼문지의 북쪽 끝에서 건물지의 기단석열로 보이는 유구가 일부 확인된 점으로 보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면 5칸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건물지 2(그림 7, 사진 7-②~8-①)

중삼문에서 남서쪽으로 약 2m 거리에 위치한다. 건물지의 남쪽으로는 현재의 담장이 위치하고



〈그림 6〉 상충 건물지 1(중삼문지) 실측도



〈그림 7〉 상충 건물지 2 실측도

있어 더 이상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건물지는 동-서 장축의 남향건물로 여겨지며, 정면 2칸의 초석 3개소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초석간 거리는 240cm이고, 직경은 60~70cm이다. 초석은 부정형이며 중앙의 초석은 부정형의 초석 상면의 일부를 원형으로 치석하였다. 서쪽의 초석 남쪽으로는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한편 동쪽의 초석 옆에는 길이 3.4m, 폭 1m 크기로 담장지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담장지의 북편은 수키와를 일렬로 놓아 배수시설로 이용하였다.

4) 건물지 3(內三門址(澄清門)(그림 8, 사진 8-②~9-①))

內三門은 선화당에서 남쪽으로 약 26m 떨어진 지점에서 선화당과 함께 동-서 장축 방향으로 나란히 남향하고 있다. 내삼문은 高宗 12年(1875) 江原監營 公廳 補修 內譯의 記事에서 보면 澄清門(內三門)의 칸수는 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삼문지는 현재 적심이 정면 2칸, 측면 1칸만 확인되었으나 주변에서 확인된 문지의 기단석로 보아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도상 복원된다. 건물지의 앞쪽 즉 남쪽에 위치한 적심들은 모두 결실된 상태이고 중앙열과 뒤쪽 즉 북쪽 적심석 일부만이 노출되었다. 건물지의 적심간 거리는 정면이 230cm, 측면이 120cm~130cm이고 직경은 70~8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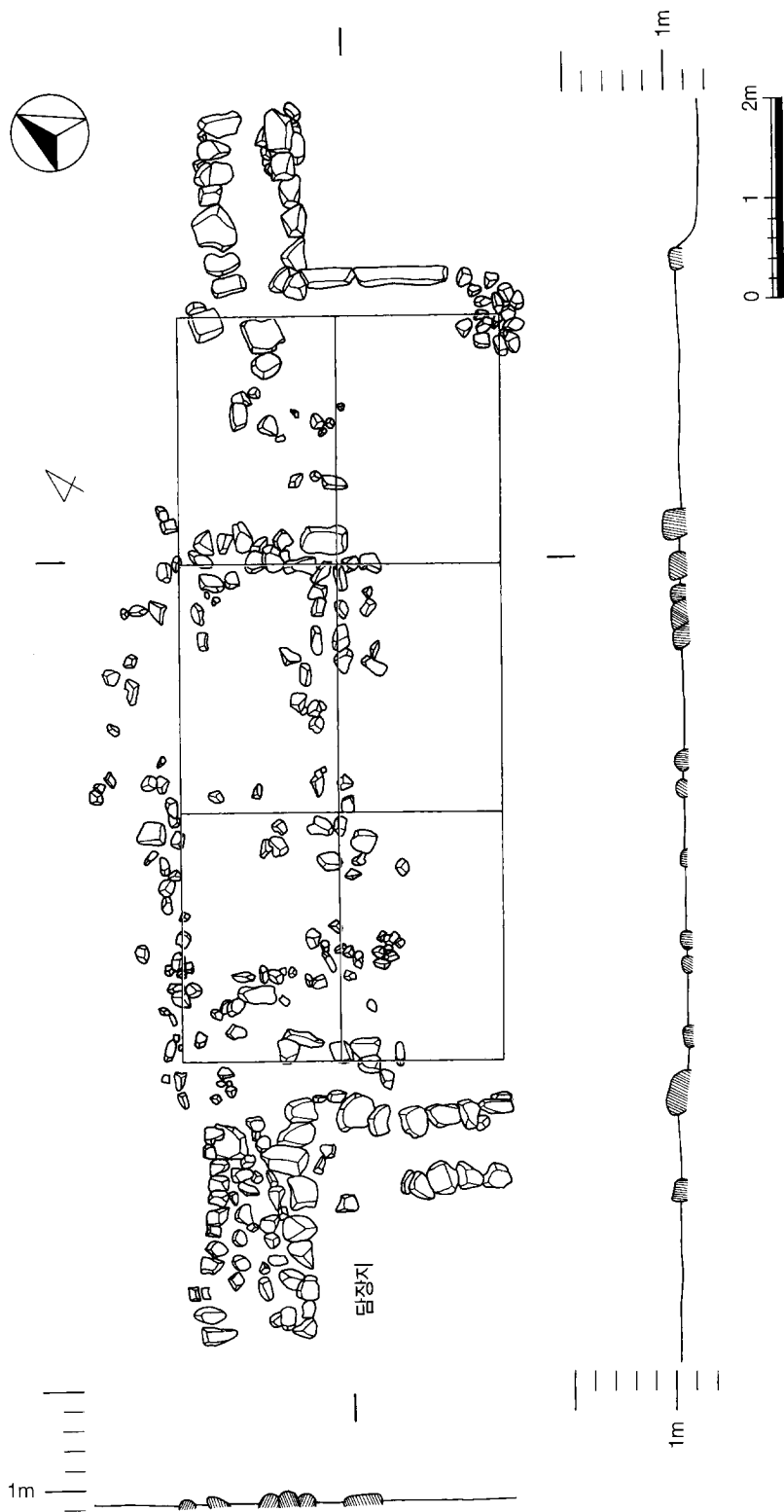
내삼문지의 동·서·남쪽은 배수로와 기단석열이 연결되어 노출되었고 동·서쪽으로는 담장지가 좌·우로 뻗어 있다. 또한 내삼문의 중앙을 지나 선화당으로 연결되고 있는 보도로 보아 기록에 보이는 내삼문의 위치와 발굴조사 결과 노출된 유구의 현상이 모두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건물지 4(工房庫址)(그림 9, 사진 9-②~10-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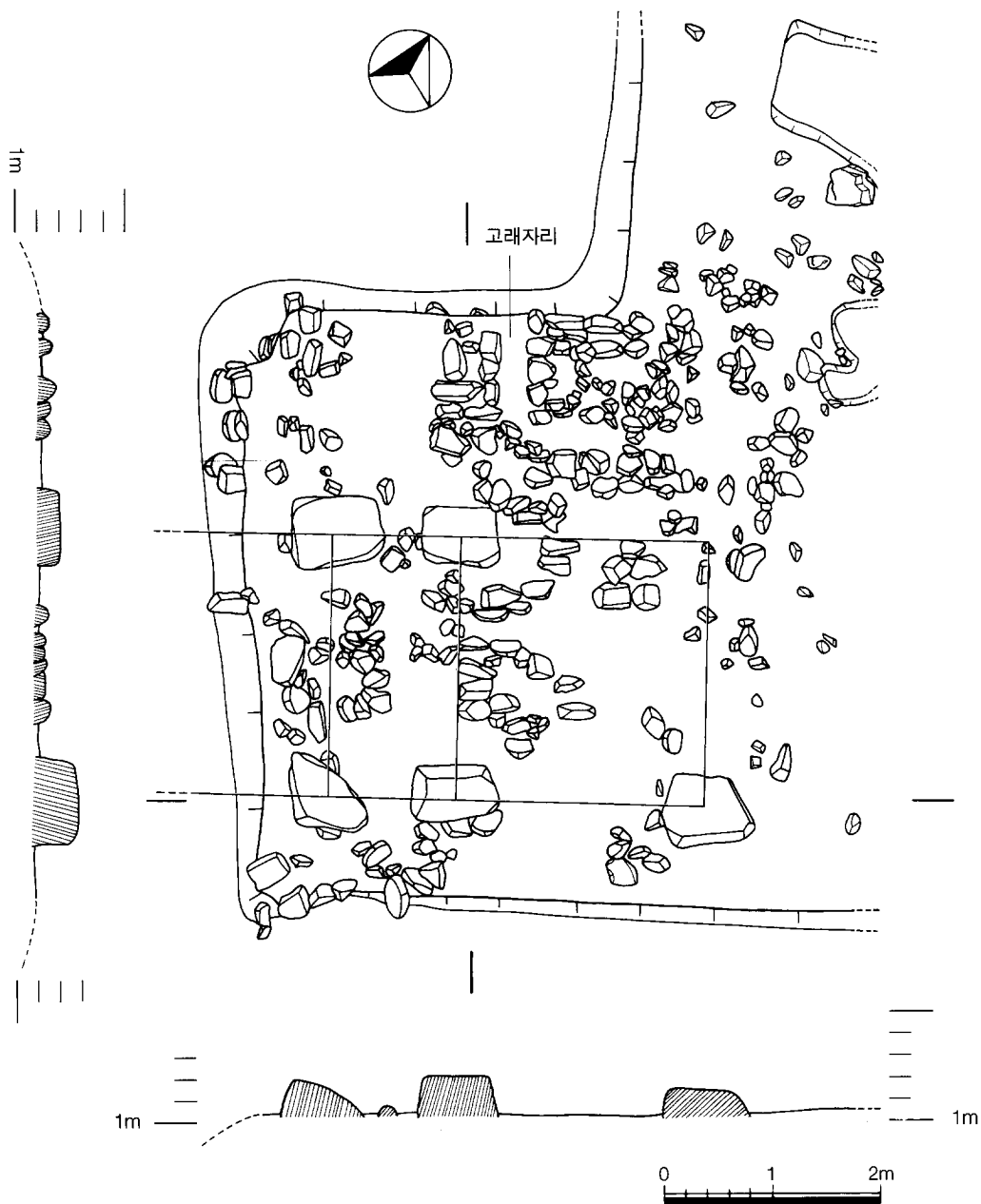
『輿地圖書 - 영조 35년(1759)』工房庫(12間)라는 건물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나『關東誌- 순조 30년(1830)』『江原監營 營誌』와 江原監營圖에서는 工庫(6間)로 표기되어 있다.

S4W2 그리드 확장면에서 현지표하 50cm 깊이의 암갈색 점토층에서 확인된 건물지로 남쪽, 서쪽 부분과 북쪽부분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공방지는 구 원주군청자리로 감영지의 공방고로 추정되는 초석과 적심석이 노출되어 청사 건물철거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정면 2칸, 측면 2칸만이 남아 있다. 정면의 초석은 부정형의 할석을 다듬어서 사용하였고 초석간 거리는 동-서 120cm~230cm이고, 측면의 초석은 방형의 초석으로 2개가 남아 있다.

내부시설로는 북쪽에서 남으로 들어오다가 서쪽으로 꺾여지는 고래시설 일부가 확인된 점으로



〈그림 8〉 상층 건물지 3(내삼문지) 실측도



〈그림 9〉 상층 건물지 4(공방고지) 실측도

보아 공방고에 난방시설이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공방지에서 중국 청대 화폐인 건륭통보 1점이 출토되었다.

6) 건물지 5(冊房址)(그림 10, 사진 10-②~12-①)

『輿地圖書』나 『關東誌』의 江原監營圖에서는 冊房이 선화당 뒤에 위치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물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

선화당 후면 기단석에서 북쪽으로 약 4.2m에 위치한다. 건물지는 동-서 방향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적심만 확인되었는데 적심간 거리는 정면은 240cm이고, 측면은 190cm이다. 건물의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고 적심만 확인되었는데 적심은 둥근 냇돌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적심의 크기는 70~80cm이다. 동쪽의 측면 적심쪽으로 약 230cm 크기의 고래시설이 동-서 방향으로 2개소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백자, 기와편과 상평통보 當五錢 2점이 출토되었다.

7) 건물지 6(그림 11, 사진 12-②)

선화당 후면 기단석에서 북쪽으로 약 1.4m, 책방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2m 지점에 위치한다.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적심만 확인되었는데 적심간 거리는 정면 180cm, 측면 180cm이다. 적심은 비교적 둥근 냇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쌓았고, 적심의 크기는 60~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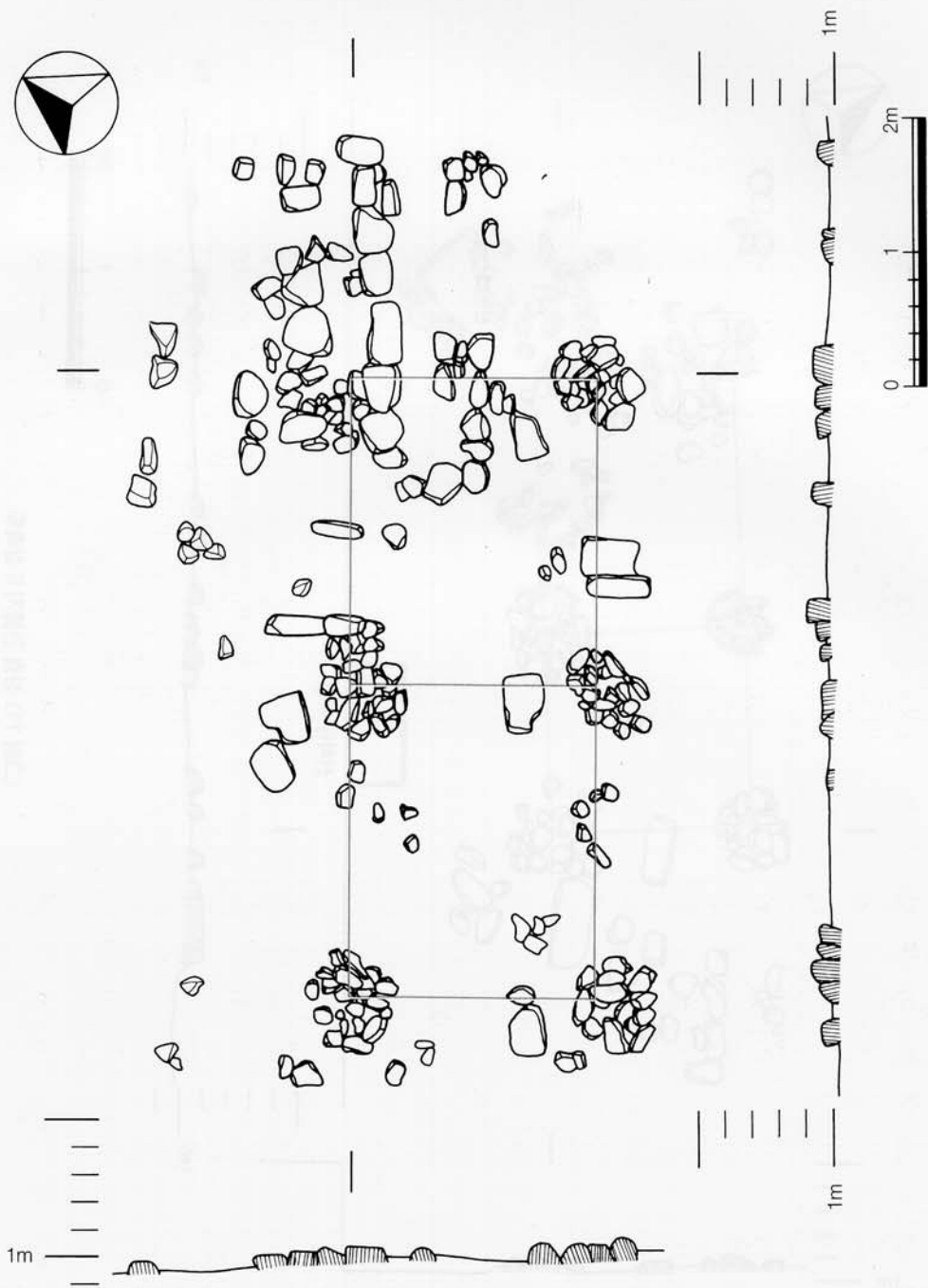
8) 배수로(그림 12, 사진 13-①)

S4·W1 그리드의 탐색조사갱에서 현지표 하 40cm 깊이의 암갈색 점토층에서 일부 확인되어 확장 결과 S4·E1 그리드 까지 ㄱ자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배수로의 중앙부분 북쪽에는 내삼문이 위치한다. 배수로의 서쪽면은 남쪽에서부터 확인되어 북쪽으로 약 7m 가량 연결되다가 다시 동쪽으로 약 26m 가량 연결되며, 이후부터 포정루 까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후대에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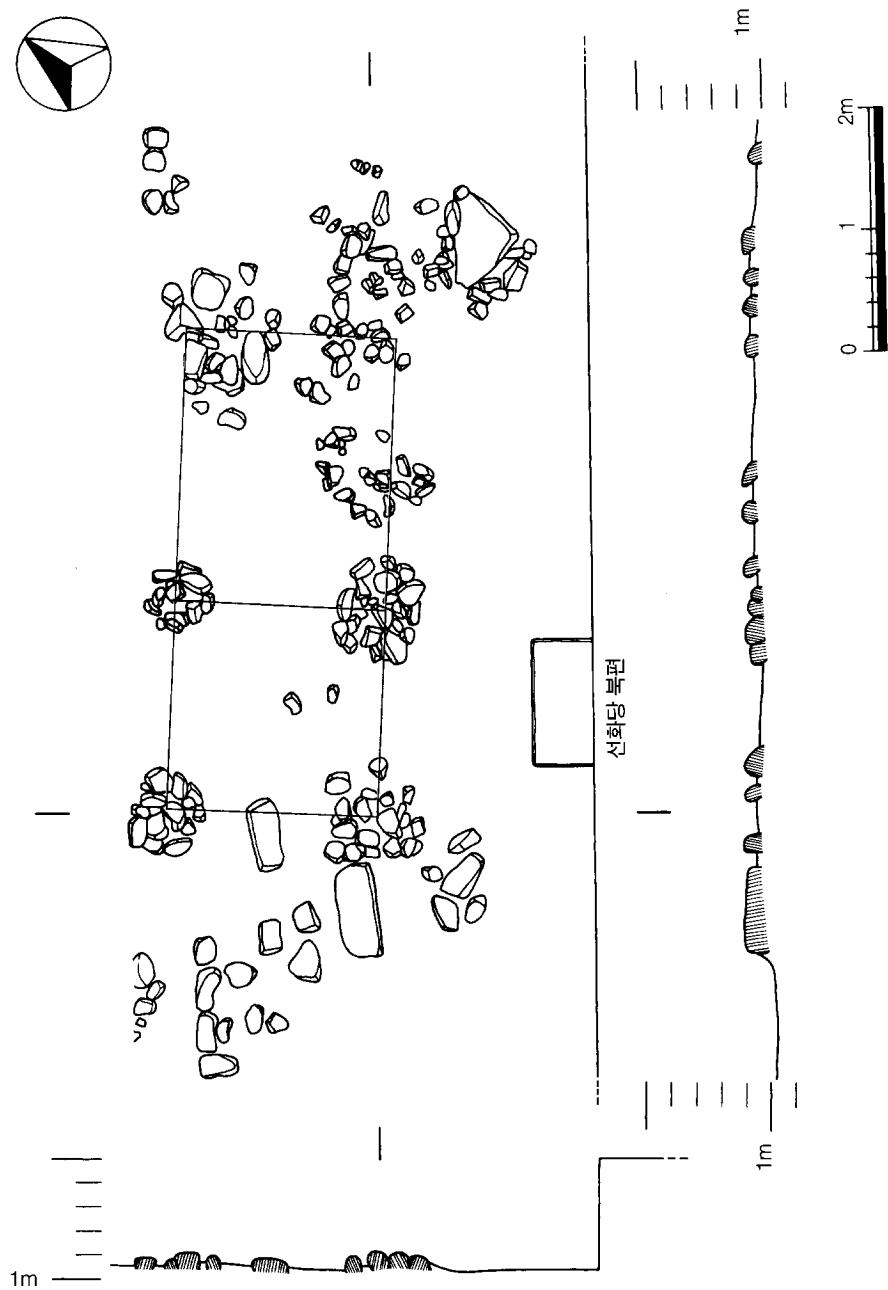
배수로는 작은 냇돌들을 안쪽 면으로 열을 맞추어 축조하였고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9) 보도 1(그림 13, 사진 13-②~1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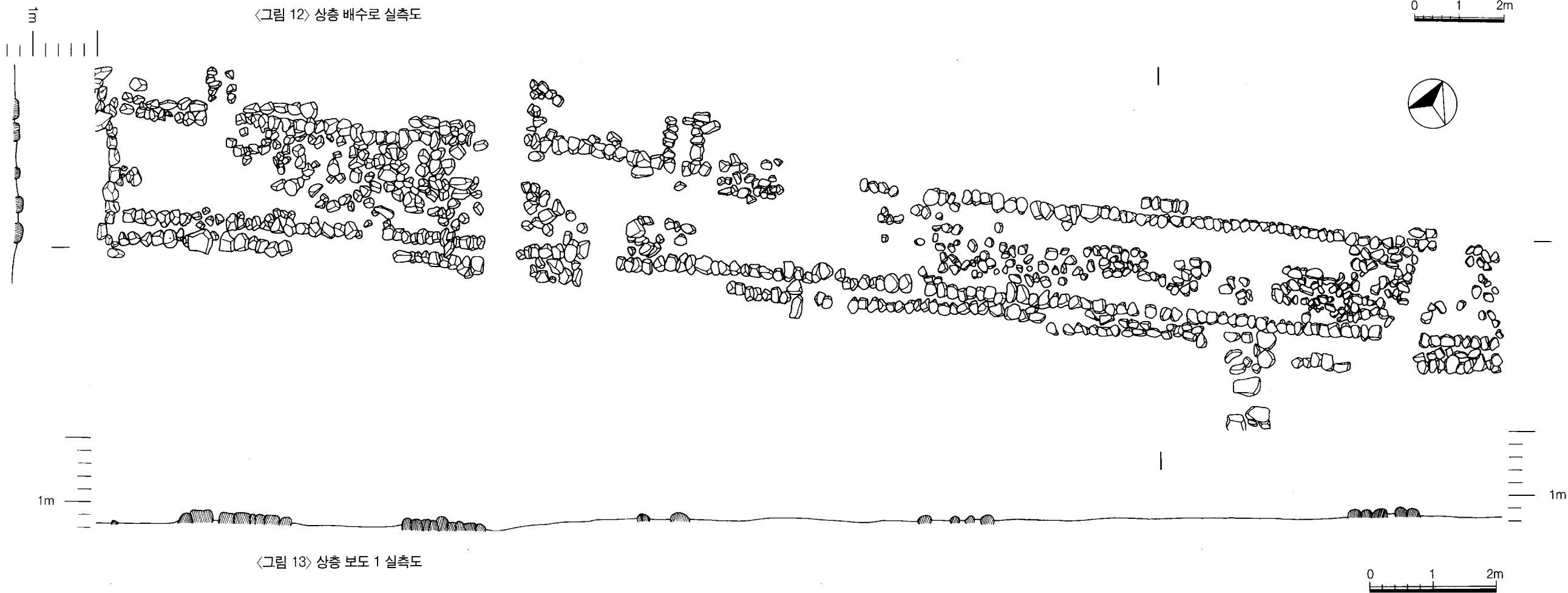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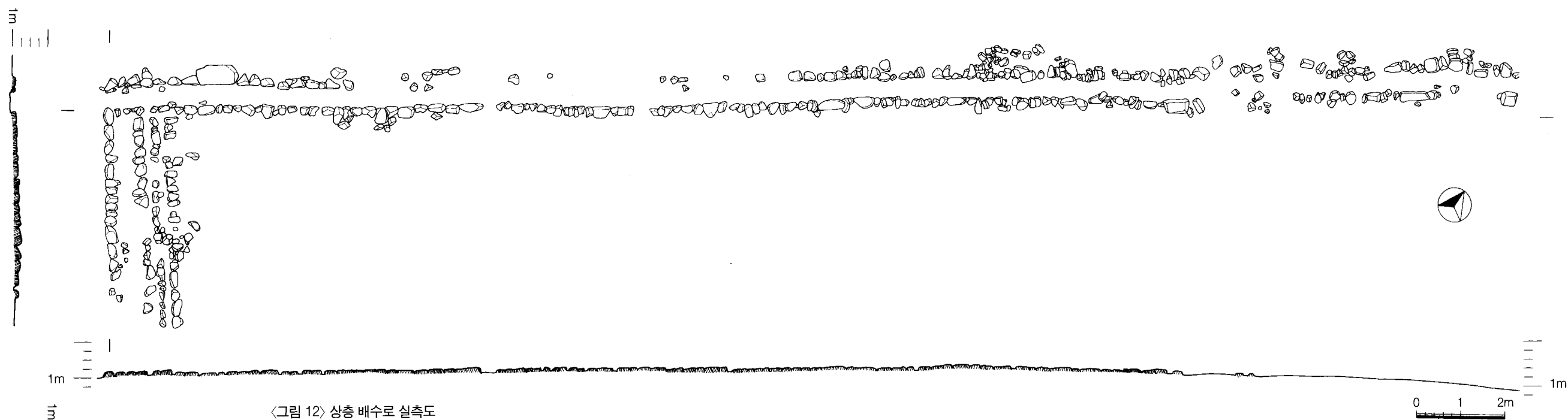
포정루에서 중삼문간 도로로 현재 노출된 길이는 동-서 22m, 폭 2m로 안쪽으로 작은 냇돌들의 바깥면을 맞추어 축조하고, 양쪽으로 1열의 냇돌을 바깥쪽으로 안쪽과 같은 방향으로 축조하였으



〈그림 10〉 상흥 건물지 5(책방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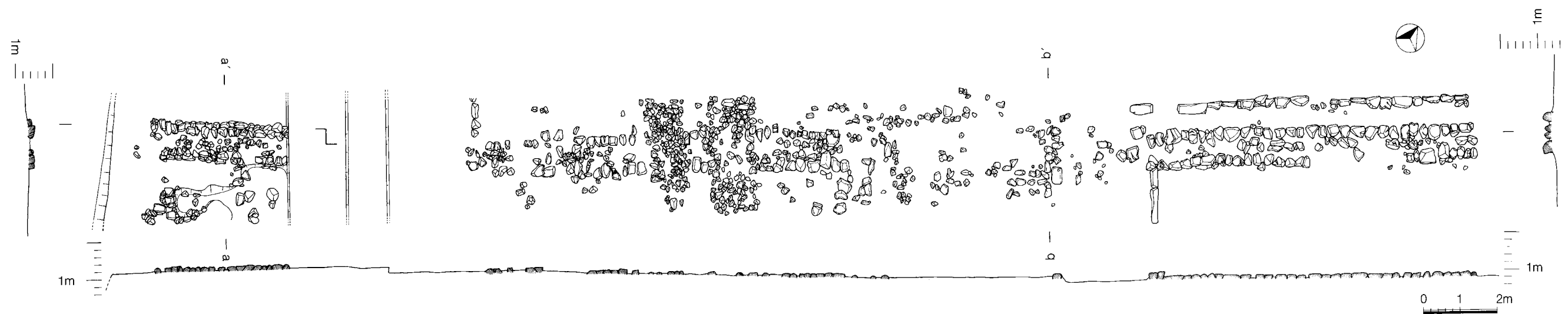


〈그림 11〉 상충 건물지 6 실측도





〈그림 14〉 상층 보도 2 실측도



〈그림 15〉 상층 담장지 실측도

나 바깥쪽의 돌들은 많이 결실되었다. 보도의 상면은 작은 자갈이 쌓여 있으나 대부분 결실되었다.

10) 보도 2(그림 14, 사진 14-②~15-①)

선화당 정면 기단석에서 남쪽으로 약 1m 앞에서 지표 하 60cm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선화당에서 내삼문을 연결하는 보도로 적색 진흙을 깔고 중앙부분은 부분적으로 돌이 확인되나 대부분 진흙만이 깔려 있고, 양쪽으로 약 1.4m 가량 냇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나 일부 기와편을 깔은 곳도 보인다. 현재 노출된 길이는 남-북 24m, 폭 2.8m이다. 한편 내삼문에서 들어오는 보도의 남쪽은 장대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막은 상태이다.

이 보도에서 동쪽으로 약 70cm 지점 지표하 70cm 깊이의 암갈색 사질토층에서 보도로 여겨지는 현재 길이 4.3m, 폭 1.4m의 크기로 내부는 둥글고 네모난 냇돌과 전이 깔려 있고, 남쪽끝에서 서편으로는 약 4.8m 가량 1열의 석열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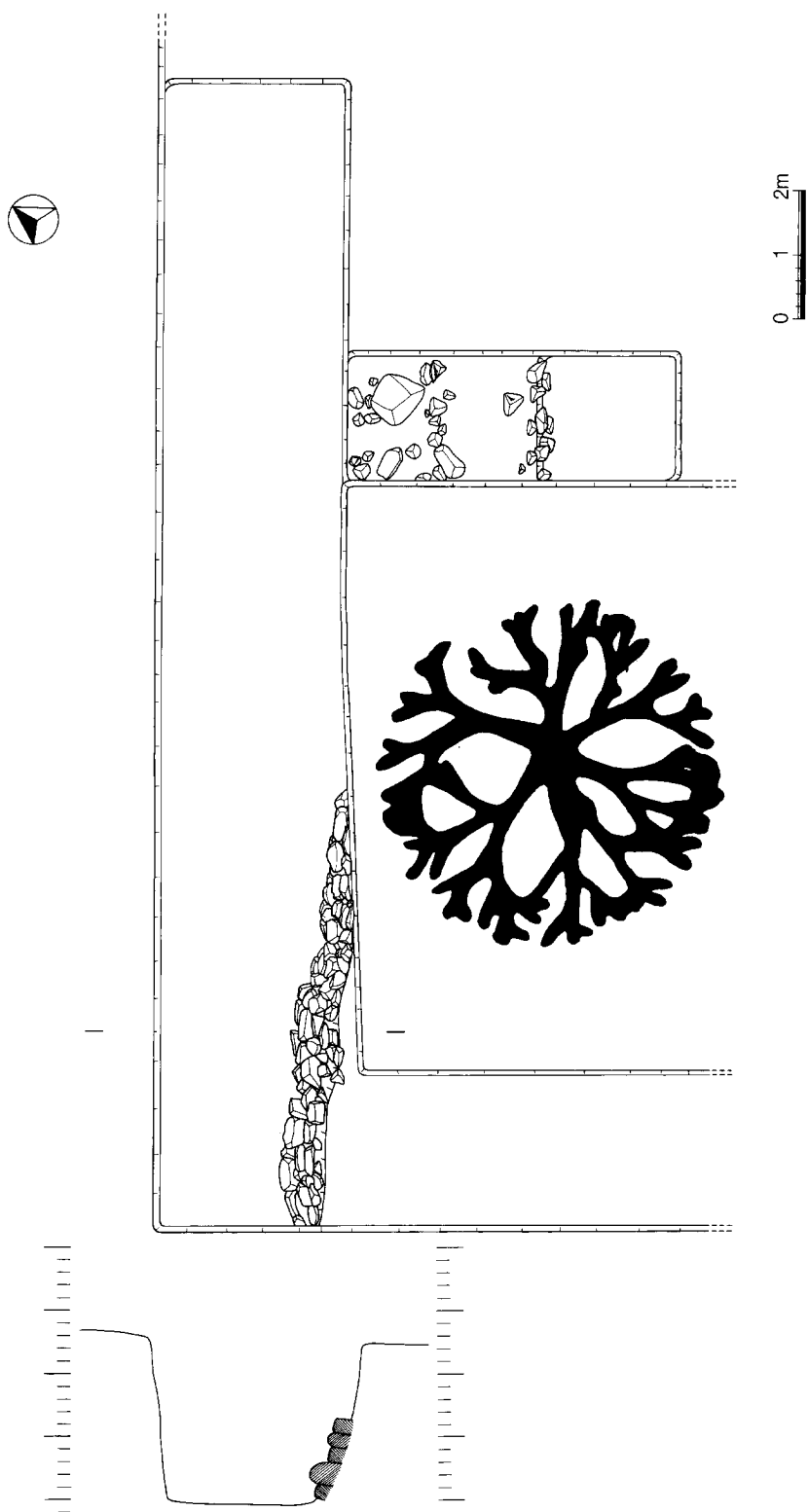
11) 담장지(그림 15, 사진 15-②~16-①)

S3·W2 그리드의 탐색조사갱에서 현지표 하 10cm 깊이의 암갈색 진흙층에서 동-서 방향으로 일부 확인되었고, 중간지점인 내삼문지역까지 약 18.5m 가량 연결되다가 8m 정도 끊기고 다시 동쪽으로 약 12m 가량 연결되다가 다시 북쪽으로 약 3.7m 가량 연결된다. 담장지의 서쪽부분의 상면에는 일부 잡석이 쌓여 있으며, 담장지의 서쪽은 약간 작은 냇돌로 2단으로 쌓았으나 동쪽부분으로 가면서 약간 낮아지며 좀더 큰 냇돌로 쌓았고 내부는 작은 돌들과 기와편으로 쌓았다. 담장지의 폭은 1.1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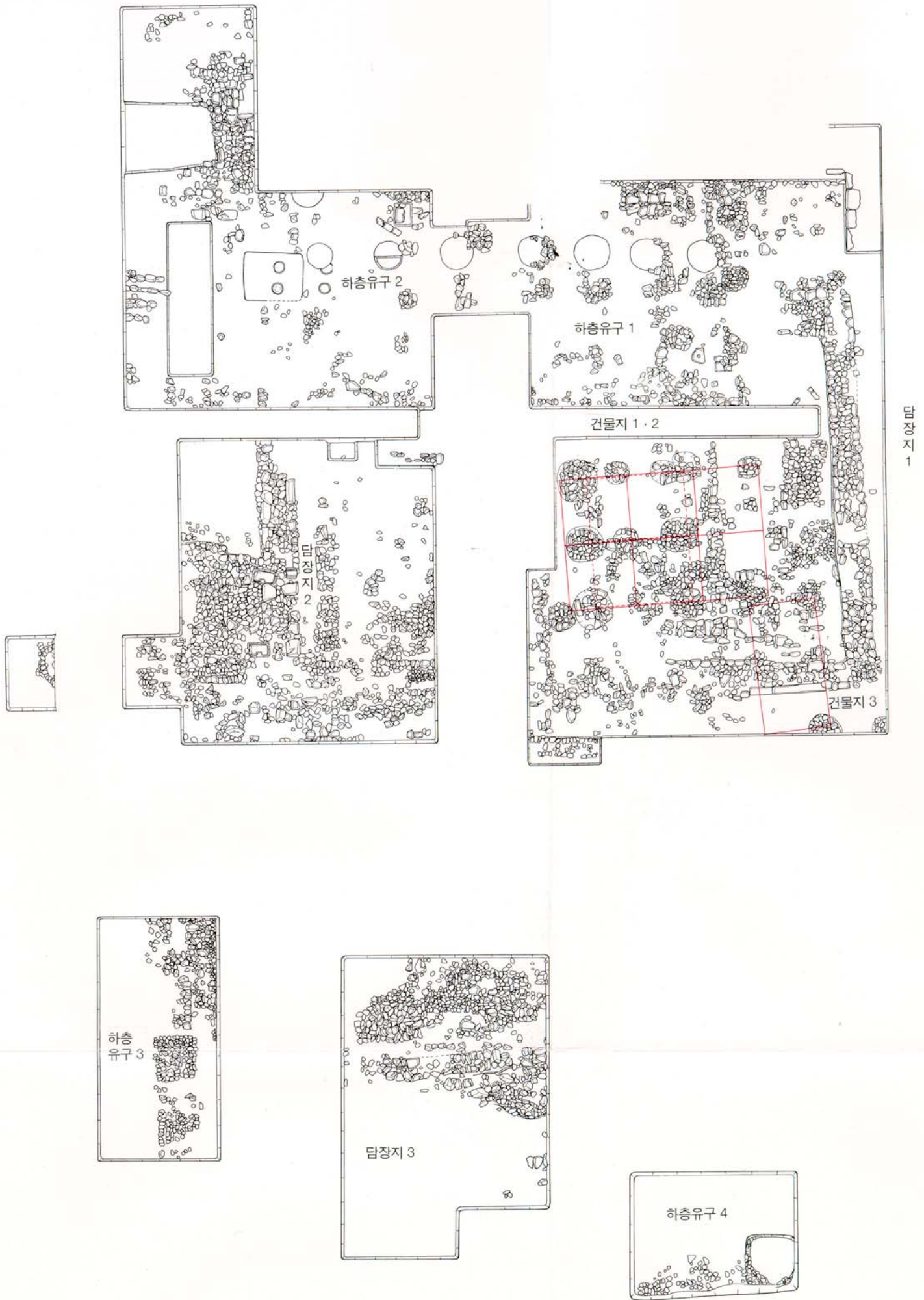
한편 내삼문지역의 동편부터 다시 시작되는 담장지 북편으로 긴 할석을 이용하여 1단으로 쌓은 기단석열이 약 12m 가량 확인되었다. 또한 담장지가 시작되는 서쪽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31m 지점인 선화당 서편에서 다시 담장지가 19m 가량 확인되며 선화당 서편 기단석 중앙지점으로 연결되는 작은 담장이 길이 10.5m 폭 0.8m 크기로 확인되었다.

12) 방지 호안석축(그림 16, 사진 16-②~18)

N3·E1 그리드 확장면의 서쪽벽의 남-북방향으로 토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표하 150cm 깊이의 III층 암갈색 사질점토(기와+석열)에서 일부 석열이 동-서 방향으로 확인되며 북쪽으로는 석열이 확인되지 않아 밑으로 하강하자 지표 하 약 2.2m 깊이에서 청색니토층(뽕층)이 확인되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서쪽으로 탐색조사갱을 확장하자 지표 하 2m 깊이의 회갈색모래층에서



〈그림 16〉 상충 방지 호안석축 실측도



〈그림 17〉 하층유구 실측도

추정 방지의 호안석축으로 여겨지는 돌들이 동-서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인된 호안석축의 길이는 6.6m 높이는 50~70cm이고 동쪽은 2~3단으로 축조하였고 서쪽으로 가면서 4~5단으로 장대석과 비교적 큰 냇돌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았다.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다. 석축의 동쪽으로는 흙과 돌을 혼합하여 쌓은 축대가 연결되며 일부에서 심발이 말목으로 사용한 나무가 거꾸로 박혀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방지 내부의 상층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백자들과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방지의 위치가 우체국 담장과 인접해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어 방지의 밑바닥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방지의 깊이라던지 호안석축조사는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방지의 정확한 규모나 성격은 현재 우체국이 위치한 지역까지 조사가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우체국이 이전되어야 만이 강원감영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下層遺構(그림 17, 사진 19)

하층유구 조사는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결과 현재 일부에서 트렌치에서 확인되는 하층유구도 복원되는 건물지 및 빈공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로 하층유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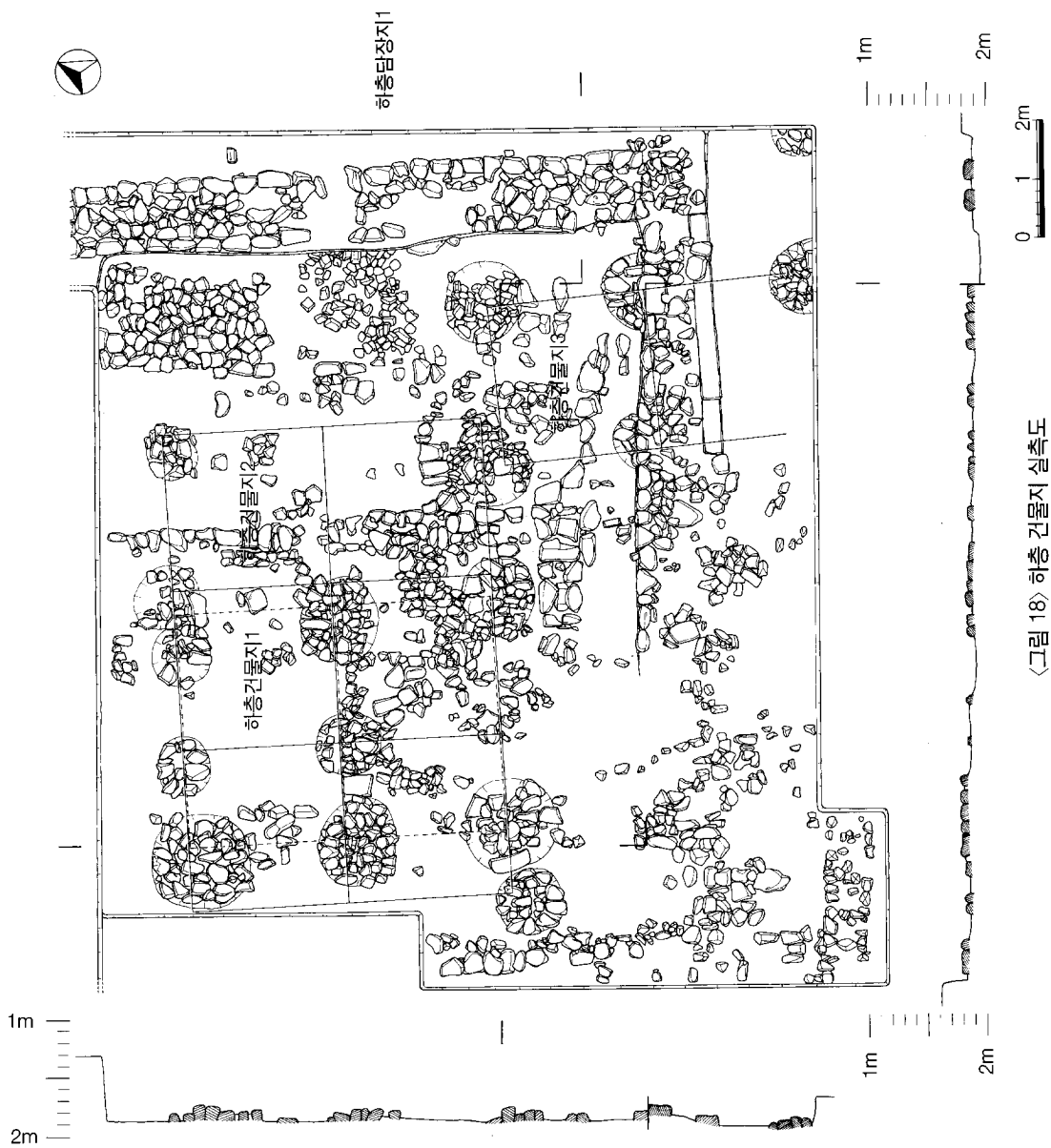
하층유구에 대한 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유구는 비교적 정연하게 잘 남아 있다. 하층유구는 건물지 3개소, 담장지 3개소에서 확인되었고 각 그리드의 확장면에서 성격을 알 수 없는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나 성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1) 건물지 1·2 (그림 18, 사진 20)

S2·E1 그리드 확장면에서 상층유구 하 60cm 깊이의 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건물지로 서로 중첩되어 있다.

건물지 1은 현재 정면 1칸, 측면 2칸의 규모로 확인되었는데 둥근 냇돌을 이용하여 쌓은 적심의 직경은 140~160cm 이고 적심간 거리는 정면 370cm이고 측면 250cm이다.

건물지 2는 현재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확인되며, 적심의 직경은 120cm, 적심간 거리는 정면 270cm, 측면 270~280cm 크기로 건물지 1의 적심 보다는 약간 작으며 건물지 2의 동편 적심석은 건물지 1의 적심과 중복되어 약간 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 1이 먼저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8〉 하층 건물지 실측도

한편 적심 동·서편으로 냇돌과 할석으로 쌓은 남-북 방향의 기단석열이 일부 확인된다. 기단석열 동쪽으로 약 3m 지점에 현재길이 2.7m 폭 1.6m 크기로 둥근 냇돌을 깔은 보도석열이 확인되고, 보도석열 남쪽으로는 후대에 형성된 돌들이 일부 확인된다.

2) 건물지 3[그림 18, 사진 21-①]

건물지 3은 건물지 1·2에서 남동쪽으로 약 1m 지점에 위치한다. 건물지는 현재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확인되는데 가운데 적심은 상층 담장지 밑에서 확인된다. 적심의 직경은 100~110cm, 적심간 거리는 정면 240cm, 측면 270cm이다.

3) 담장지 1[그림 18, 사진 21-②~22]

지표 하 100cm(상층유구 하 40cm) 깊이의 흑갈색사질토+숯층에서 그리드의 남서편에서 확인되는데 이담장지는 동-서 방향으로 S2·E1 그리드의 상층 담장지와 연결되며, S1·E1 그리드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된다. 남-북 길이 16m, 동-서 길이 29m, 폭 1m로 동-서 방향의 담장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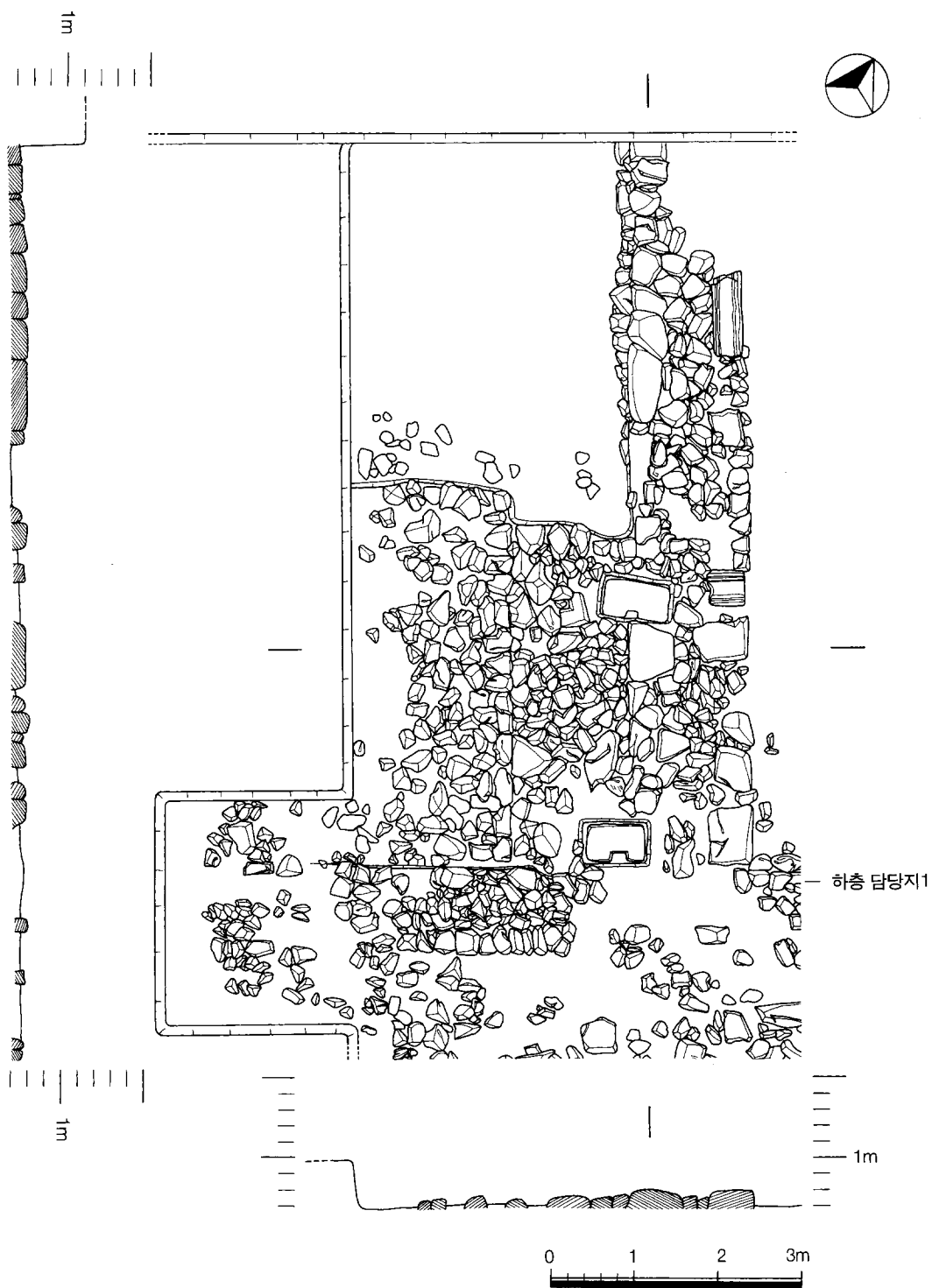
한편 S2·E1그리드의 중앙부분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남-북 방향으로 폭 60~65cm 길이 4.5m 크기로 덧댄 담장지가 일부 확인된다.

4) 담장지 2[그림 19, 사진 23~2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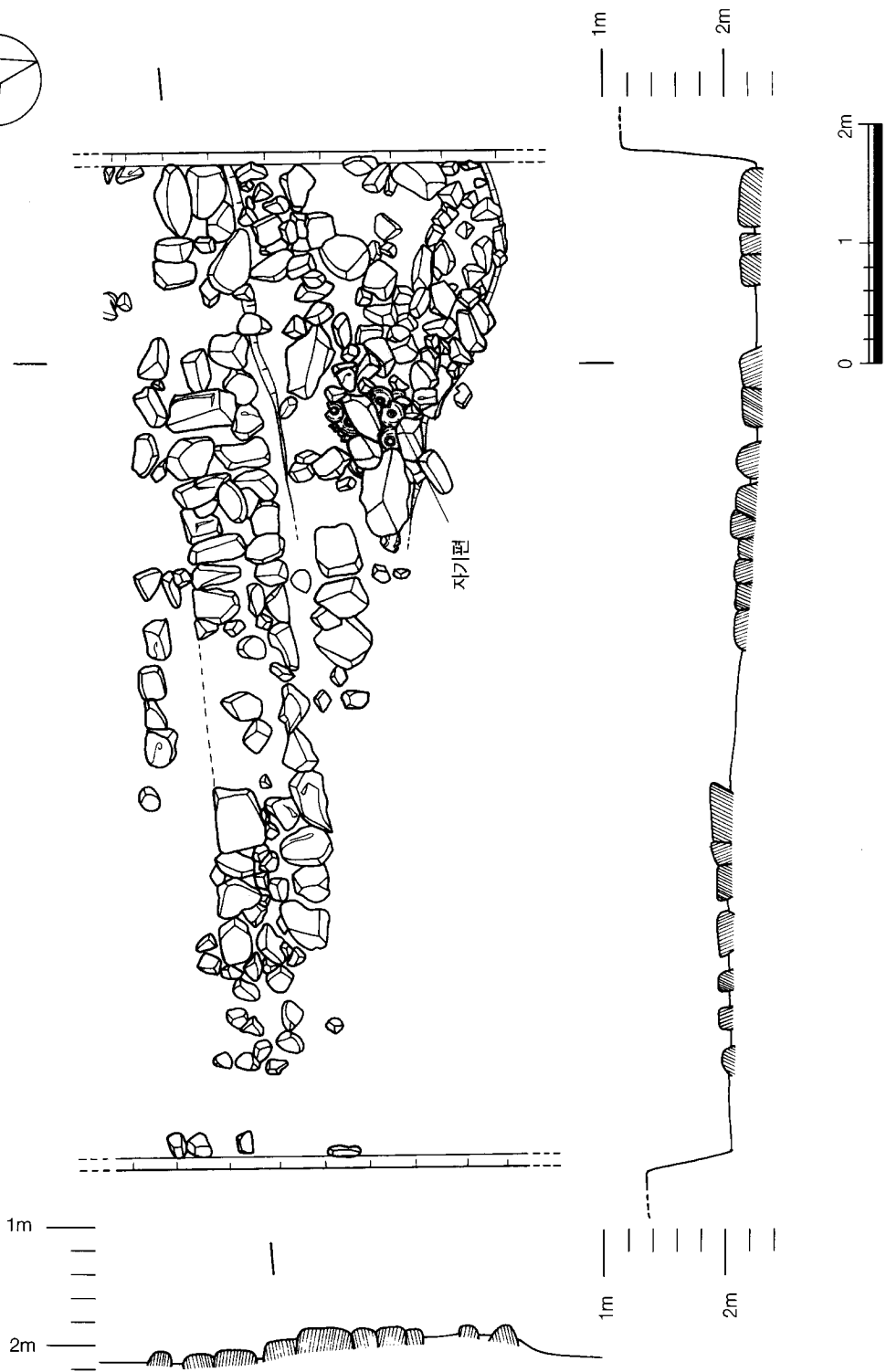
S2·E1 그리드 확장면에서 위의 담장지 보다 앞선 것으로 여겨지는 적색점토층에서 또다른 담장이 확인되는데 폭 1.6m 현재길이 9m 크기로 2단으로 축조되었는데 하단은 둥근 냇돌로 축조한 다음 상단은 약간 좁혀 양쪽으로 장대석을 놓고 안에는 둥근 냇돌을 깔았다. 담장지에서 서쪽으로 1.5m 지점에는 남-북 방향으로 일렬의 석열의 바깥면을 맞추고 안쪽으로 깔은 돌들이 확인된다.

5) 담장지 3[그림 20, 사진 24-②~26-①]

담장지 2에서 남쪽으로 약 15m 지점에서 상층유구 하 약 120cm 깊이의 암갈색 사질토층에서 그리드 중앙에서 동-서 방향으로 폭 0.9m, 현재 길이 7.2m 크기로 담장지가 확인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약간씩 낮아진다. 담장지 남동편 모서리에서 담장지 보다 나중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적색점토층에서 현재길이 3m, 폭 2m 크기로 약간 경사를 이루며 돌들이 쌓여진 상태로 확인되며 서쪽 끝부분에서는 백자가 파손된 상태로 약 10개체 분이 출토되었다. 한편 담장지 북편으



〈그림 19〉 하층 담장지 2 실측도



〈그림 20〉 하층 담장지 3 실측도

로는 크고 작은 돌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다.

6) 하층유구 1(그림 17, 사진 26-②~27)

선화당 바로 앞쪽에 위치하여 선화당과 나란하게 하층에서 노출된 건물지이다. 남쪽으로는 건물의 퇴칸으로 여겨지는 적심 6개소가 인접하여 확인되고 북쪽으로는 초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인지 적심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특이한 점은 적심의 하부구조인데 강회와 마사토를 이용하여 다졌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석 바로 밑 강회다짐의 상부에만 몇 개의 돌로 높낮이를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강회다짐 하부구조는 130cm 크기의 원형구덩이가 5개소 확인되었는데, 직경 120~150cm이고 적심간 거리는 정면 220~250cm, 측면은 150cm이다. 이 적심의 동편에서 남쪽으로 1.5m 지점에 또 다른 건물지의 적심 2개소와 돌들이 일부 확인되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리드의 동편에서 선화당 동쪽 기단석에서 남쪽으로 5m 지점에서 담장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남-북 방향으로 폭 1.2m, 길이 11.2m 크기로 S2·E1 그리드와 연결된다. 한편 담장 북편 끝에는 불맞은 돌들이 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고 여기에서 “𡩵”字와 “梵”字가 새겨진 名文瓦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선화당 정면 기단석 동편지역 아래에서는 구들자리로 여겨지는 불맞은 돌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이전의 건물지 구들로 여겨진다.

한편 현재의 선화당 정면 기단석 동쪽으로 하부의 대석과 기단석 1단(높이 약 45cm)이 확인되며 다시 ㄱ자로 꺾이면서 남-북 방향으로 약 3.1m 가량 확인된다.

7) 하층유구 2(그림 17, 사진 28~29)

선화당 정면 기단석 앞 지역으로 유구는 상층유구 하 약 40cm 깊이의 흑갈색사질토+숫층에서 확인된다.

선화당 정면 기단석 서쪽면에서 남쪽으로 약 3m 지점에 대형 항아리의 구연부와 몸통의 절반정도를 의도적으로 절단한 후 땅속에 매납한 것으로 여겨진다. 매납된 토기는 4점이 방형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출토되었으며 모두 회청색 경질토기로 아마도 앞서 설명한 강회다짐의 건물을 축조하기 전에 매납된 것으로 祭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매납된 토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토기 주변으로 토기 보다 먼저 조성된 직경 100cm 크기의 원형의 구덩이가 확인되었는데 내부는 굵은 마사토로 채워져 있다.

한편 선화당 서편 측면 기단석 아래에서는 길이 6m, 폭 2m 범위에서 남쪽부분은 작은 냇돌이 조

밀하게 깔려 있고 북쪽은 장대석과 약간 큰 냇돌을 쌓고 내부는 돌을 깔았는데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체적으로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8) 하층유구 3(그림 17, 사진 30-①)

담장지 3에서 동쪽으로 4m 지점에서 S4E1 그리드의 남쪽부분 토층조사 작업중 상층유구 하 약 140cm 깊이의 진한 암갈색 점토층에서 작은 냇돌들이 약 50cm 정도 쌓여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편 그리드의 남벽에서 안으로 약 1.5m 지점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명갈색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9) 하층유구 4(그림 17, 사진 30-②)

담장지 3 서쪽으로 4m 지점에 위치하며 상층유구 하 약 100cm 깊이의 암갈색 점토층에서 그리드의 동편으로 치우쳐 냇돌과 할석들이 약 1.5~2m 범위로 확인되어 정리하였으나 상면은 대부분 교란된 상태였다. 이 돌들 남쪽으로 직경 170cm 크기의 방형으로 둥근 냇돌이 확인되며, 남쪽에 인접하여 위의 돌들과 비슷한 형태로 돌들이 확인되는데 많이 결실되었다.

박 영 구

VI. 出土遺物

1. 上層遺構 出土遺物

발굴조사 기간 상·하층 유구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수습되었으나, 유적 및 유구의 범위와 면적에 비한다면 그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게다가 대다수 파실이 심한 편이어서, 기와의 종류와 문양·제작방식 등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 잔존상태의 양호성과 문양의 특색에 중점을 두어 총 38점의 기와 및 5점의 전을 선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수습된 기와 및 전은 크게 ‘하층유구’ 출토 유물과 ‘상층유구’ 출토 유물로 분리하였는데, 기와의 경우 막새 기와·수키와·암키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유구의 편년과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명문기와는 따로 소개하였다.

1) 瓦類

(1) 명문 기와

■ 「…禎後五己卯」銘 암키와 [그림 21-①, 사진 32-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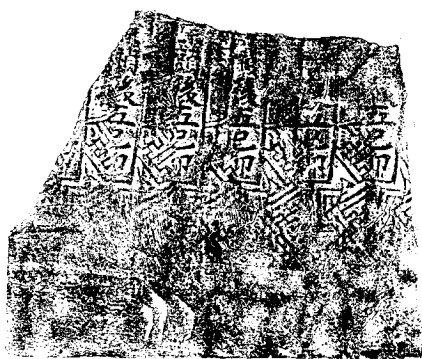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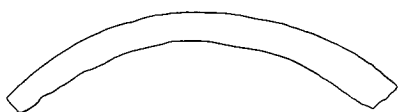
하단의 한쪽 모서리가 약간 파실되었을 뿐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은 명문 암키와이다. 이 기와는 1976년 내삼문지를 헐면서 그 기와와 목재를 재사용하여 신축된 건물인 원주 景賢祠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이다.

외면에는 5cm 내외의 일정한 간격으로 비스듬하게 시문된 종선 안에 같은 명문을 반복양각하였는데, 확인이 가능한 글자는 ‘禎後五己卯’ 다섯 자 뿐이며 앞 글자는 마모되어 알 수 없다. 이 중 ‘己卯’ 두 자는 기와의 제작 시기, 혹은 건물의 개축 및 중·보수시 기와를 올린 年度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1cm² 내에 9을 및 10을로 엮여진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남아있으며, 포목이 뭉치거나 겹쳐져 생긴 자국도 있다. 상면에는 와통을 묶었던 약 0.4cm 굵기의 띠매듭흔이 한 줄 보인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한 후 빗질과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 가량 그은 후 이등분하였는데, 한번에 그었으며 분할면의 폭이 불규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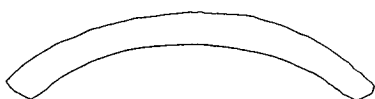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며,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①



②



0 5 10cm

〈그림 21〉 상충유구 출토유물

· 출 토 지 : 내삼문지 · 중삼문지 (경현사 채집 기와)

· 길이 : 35.8cm 너비 : 29.8cm 두께 : 1.8~2.9cm(하단두께 : 1cm)

■ 「…後五己卯」銘 암키와 [그림 21-②, 사진 32-②]

상단의 일부가 파실된 상태의 명문 기와이다. 이 기와 역시 ‘경현사’에서 수집되었으며, 명문내용 및 그 시문상태가 앞서 설명한 「…禎後五己卯」銘 암키와와 매우 유사하다.

명문은 폭 4cm의 긴 방곽 안에 양각되었는데, 앞부분은 마모되어 알 수 없고 ‘後五己卯’ 4자만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에는 1cm 내에 9을 및 10을의 비교적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남아있으며, 하단 쪽으로는 포목이 여러 줄로 겹쳐 생긴 자국도 보인다. 부분적으로 물손질하였는데, 하단은 경사지에 처리한 후 정면하였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그었으며, 측면 전체에 와도분활면이 넓게 나타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며,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내삼문지 · 중삼문지 (경현사 채집 기와)

· 현존길이 : 29.7cm 너비 : 28.6cm 두께 : 2.2~2.6cm(하단두께 : 1.4cm)

■ 「官」銘 수키와 [그림 22-①, 사진 32-③]

한쪽 측면의 일부만 남은 상태의 수키와이다.

기와 등에는 2.3×4.1cm 규격의 ‘官’ 자가 횡방향으로 4번이나 반복되어 양각되었는데 시문 간격은 불규칙하다. 명문 위 · 아래에는 수파문이 방향을 달리하여 시문되었다. 내면은 성형 후에 도구로 거칠게 다듬거나 점토를 덧붙여 물손질한 상태이나, 가장자리 쪽에는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조금씩 남아있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3/4 가량 한번에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갈색의 경질기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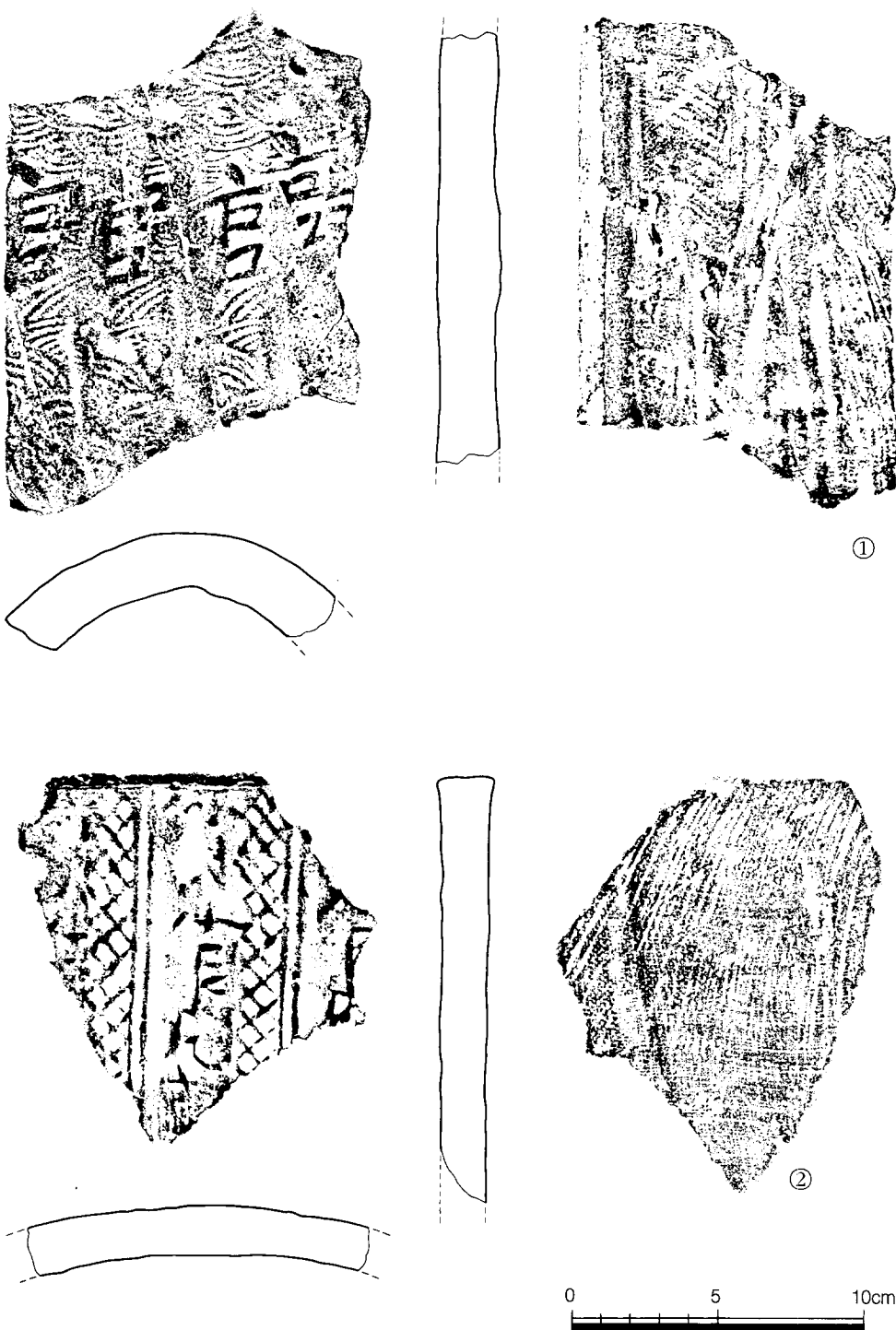
· 출 토 지 : S1 · E1 그리드

· 현존크기 : 11.4cm×14.6cm 두께 : 1.9~2.1cm

■ 「官凡…」銘 암키와 [그림 22-②, 사진 32-④]

상단의 일부만 남은 암키와이다.

문양은 두 줄의 종선으로 구획된 폭 5cm 내에 명문과 두 줄의 사격자문이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시문형식을 횡방향으로 번갈아 찍었다. 명문은 ‘官’ 자와 ‘凡’ 자가 보이며, 파실된 그 아래 부분에도 명문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양간 빈 공간은 고르게 빗질하여 정면하였다. 내면



〈그림 22〉 상충유구 출토유물

에는 1cm내에 9을 및 10을로 엮어진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나, 대부분 빗질로 정면되어 보이지 않는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잘 정선된 편이며,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건물지 6
- 현존크기 : 12cm×14.8cm 두께 : 1.7cm(하단두께 : 1.6cm)

■ 「…凡首…」銘 암키와 [그림 23-①, 사진 32-⑤]

내아 앞 조사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로, 한쪽 측면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기와 등에는 폭 3.5cm의 명문시문 공간과 폭 1.2cm의 장식시문공간을 0.2cm 두께의 종선으로 구획하면서 번갈아 찍었다. 현존부분에는 각각 두 면이 남아있는데, 두 공간의 글자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심한 마모로 인하여 한쪽 부분의 '凡首' 두 글자만을 알아볼 수 있으며, 좌우가 바뀌어 양각되었다. 문양 장식은 한 줄의 사격자문이다. 내면에는 1cm 내에 8을 및 9을로 구성된 비교적 굵고 성긴 포흔이 잘 남아있으며,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8 가량 아주 얇게 분활선을 그어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갈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0·E2 그리드
- 현존크기 : 10.3cm×11.6cm 두께 : 2.5cm

■ 「…四月十…」銘 암키와 [그림 23-②, 사진 32-⑥]

내아 앞 조사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로, 파실되어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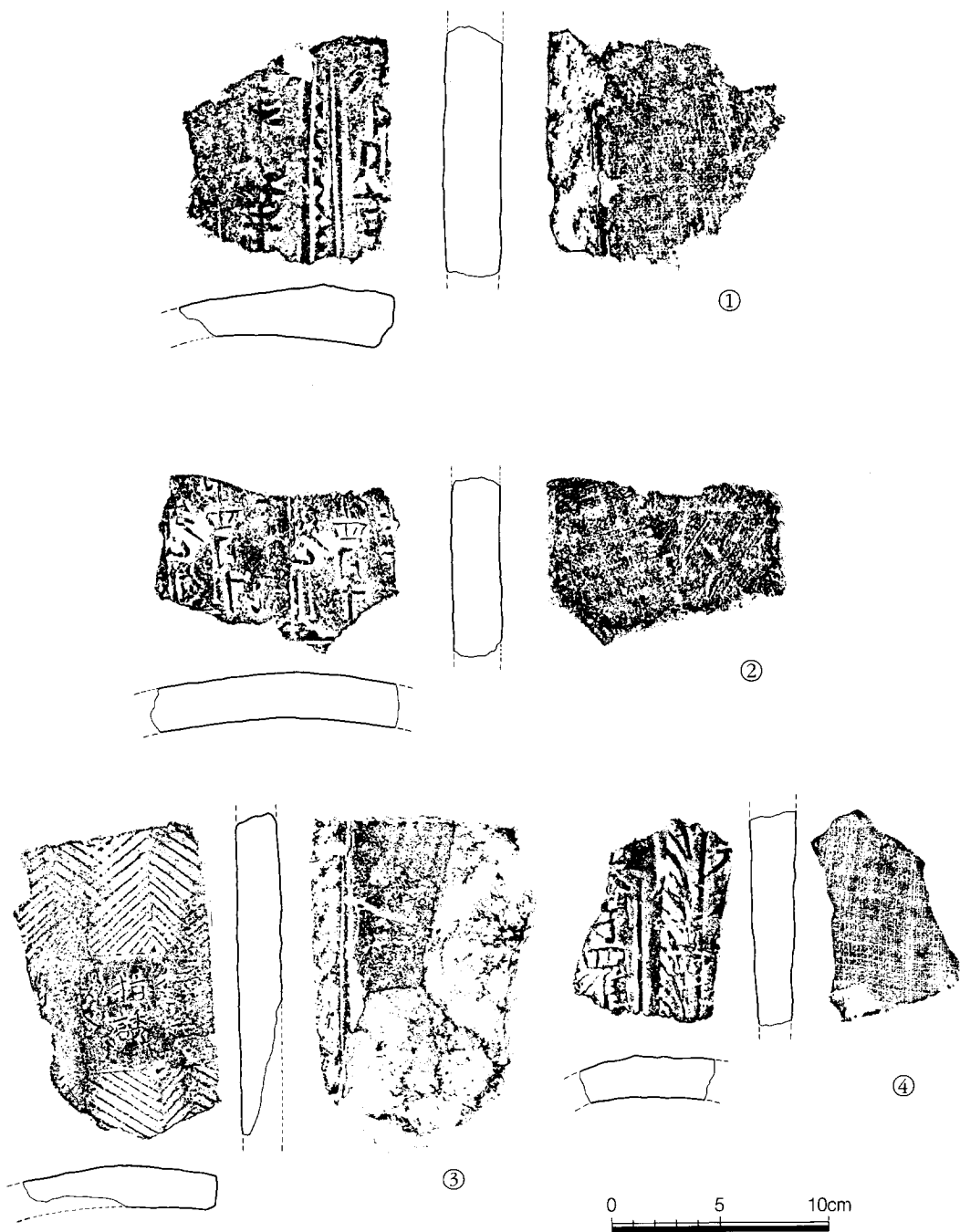
기와 등에는 폭 5.5cm 정도의 공간 내에 두 줄의 명문을 좌우가 바뀐 상태로 양각한 것을 횡방향으로 반복시문하였다. 명문은 마모가 심하여 좌측의 '四月十' 3자만 판독가능하다. 내면에는 1cm 내에 8을 및 9을로 구성된 비교적 굵은 포흔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남아있으나, 대체로 사선방향의 빗질로 인하여 지워진 상태이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갈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S1·W1 그리드
- 현존크기 : 11.7cm×8.3cm 두께 : 2.2cm

■ 「拍誘」銘 암키와 [그림 23-③, 사진 33-①]

파실되어 한쪽 측면의 일부만 남은 암키와이다.



〈그림 23〉 상충유구 출토유물

상하 폭 5cm 무문의 공간 내의 '拍誘' 두 자는 가늘고 뚜렷하게 양각되었으며, 그 위·아래로는 두께 0.07cm의 가는 결가지가 0.3~0.5cm 간격으로 뻗어나간 폭 6cm의 어골문이 그 방향을 달리하여 시문되었다. 내면은 남은 면마저도 갈라져 파손되었는데, 남은 부분에는 1cm 내에 8을 및 10을로 엮어진 포흔이 보인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4~1/5 정도로 얇게 그은 후 이동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출토지: 방지

·현존크기: 8.9cm×14cm 두께: 1.9cm

■ 「…太寺羅…」銘 암키와 [그림 23-④, 사진 33-②]

내아 주변 조사구역에서 출토된 기와편으로, 많은 부분이 파실된 상태이나 두께 및 휘어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암키와임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종방향의 명문 '太寺羅' 3자는 종선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 반복하여 양각되었다. 내면에는 1cm 내에 9을 및 11을의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출토지: S1·W1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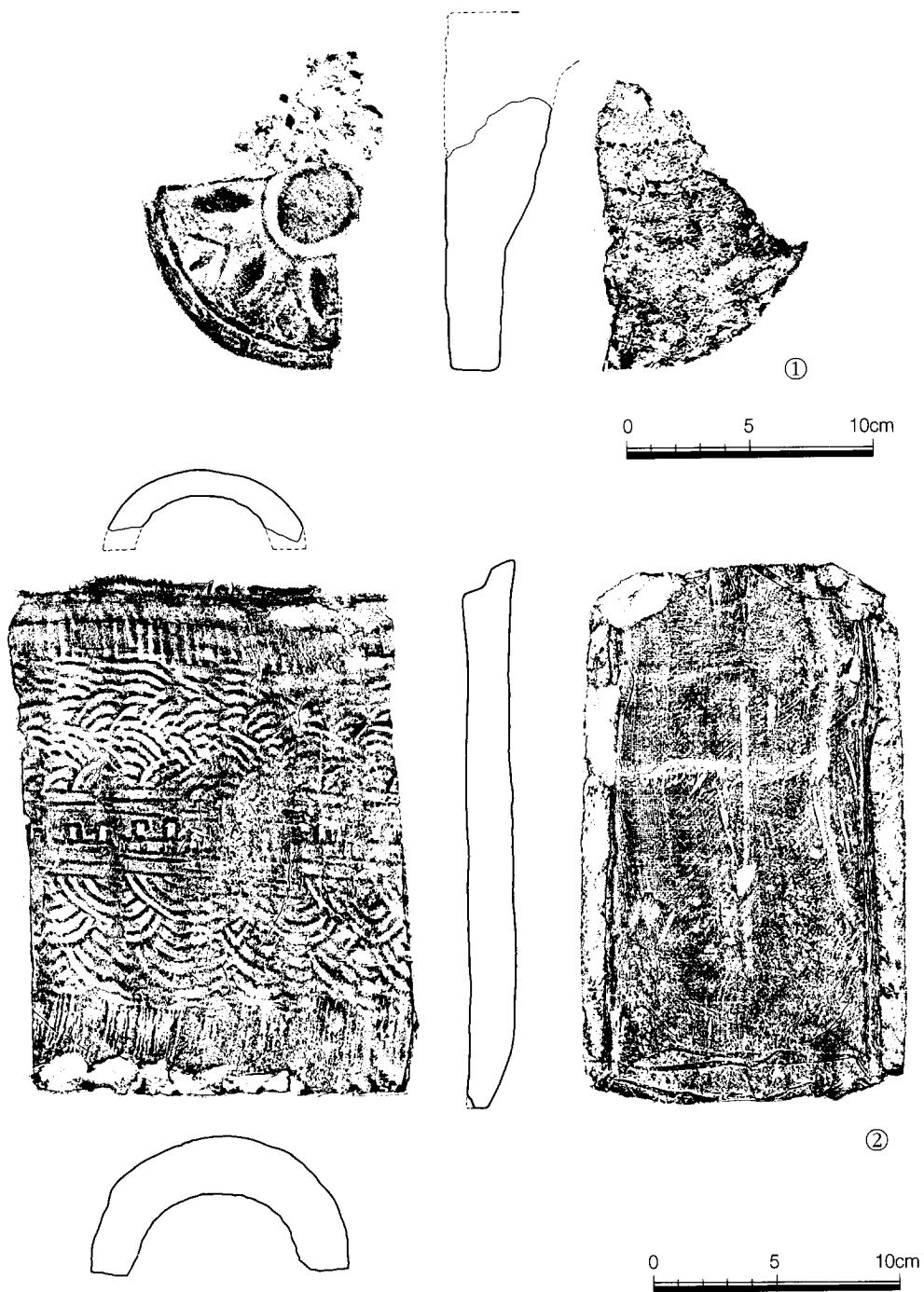
·현존크기: 6.5cm×10.2cm 두께: 1.6~2cm

(2) 막새 기와

■ 연화문 수막새 [그림 24-①, 사진 33-③]

파실되어 드림새의 약 1/4 정도만 남은 상태의 수막새이다.

드림새의 가장자리에는 모서리를 고르게 다듬어 돌려 폭 0.7cm의 주연부를 마련하였으나 장식하지 않았으며, 0.2cm 두께의 양각선을 한 줄 돌려 내구면과 경계지었다. 현재 남은 부분으로 추정해 볼 때, 드림새에는 8葉의 活瓣(길이: 폭 = 2.3: 1)의 잎을 배치하고, 그 사이마다 얇게 세 방향으로 뻗은 사잇잎을 첨가하여 '重瓣의 凸形 蓮華紋' 양식의 의장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드림새 중앙에는 3.5cm 지름의 자방을 0.2cm 돌출시켜 양감있게 표현하였으며, 별다른 장식은 없다. 자방의 외곽에는 두께 0.3cm의 양각선을 한 줄 돌렸다. 후면에는 수키와와의 접합부분이 길이 약 7.5cm 정도 남아있는데, 빗질흔이 보이고 용이한 접합을 위해 거칠게 긁어낸 흔적도 있다. 옆면은 물손질



〈그림 24〉 상충유구 출토유물

하여 매끈하게 다듬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건물지 6
- 드림새 추정지름 : 15.6cm 두께(주연부) : 1.9cm

(3) 수키와

■ 복합문(중선문+수파문+ □ 연결문+수파문+중선문) 미구수키와[그림 24②, 사진 33④]
하단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은 미구수키와이다.

등 문양은 중선문(시문 구획 길이: 1.5cm), 수파문(8cm), 3줄의 횡선문(1.5cm), □ 연결문(2.5cm), 3줄의 횡선문(2cm), 방향이 바뀐 수파문(8cm)의 차례로 미구에서 하단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 시문단위는 횡선으로 구획되었다. 기와 등의 1/3 가량은 빗질과 물질의 흔적으로 인하여 문양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1cm 내에 9울 및 9울로 구성된 비교적 굵고 성근 편의 포흔이 잘 남아있으며, 3줄의 띠흔이 보이는데 그 간격은 6cm 내외로 일정한 편이다. 또한 와통에서 분리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세로선 역시 약 4.5cm의 일정한 간격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와통쪽의 자국으로 생각된다. 하단은 경사지며, 미구는 짧은 편이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얇게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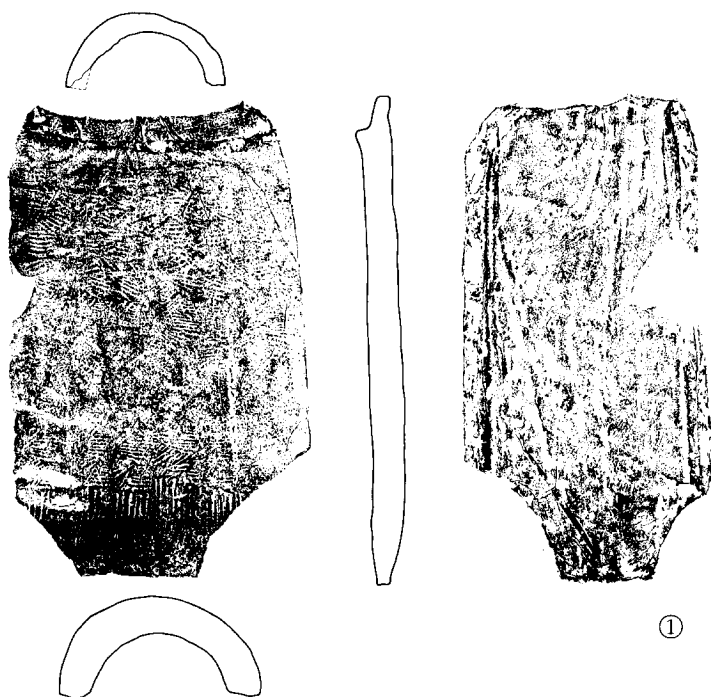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보도 1
- 길이 : 31.6cm 너비 : 14.3cm 두께 : 2.4cm (하단두께:1cm) 미구길이 :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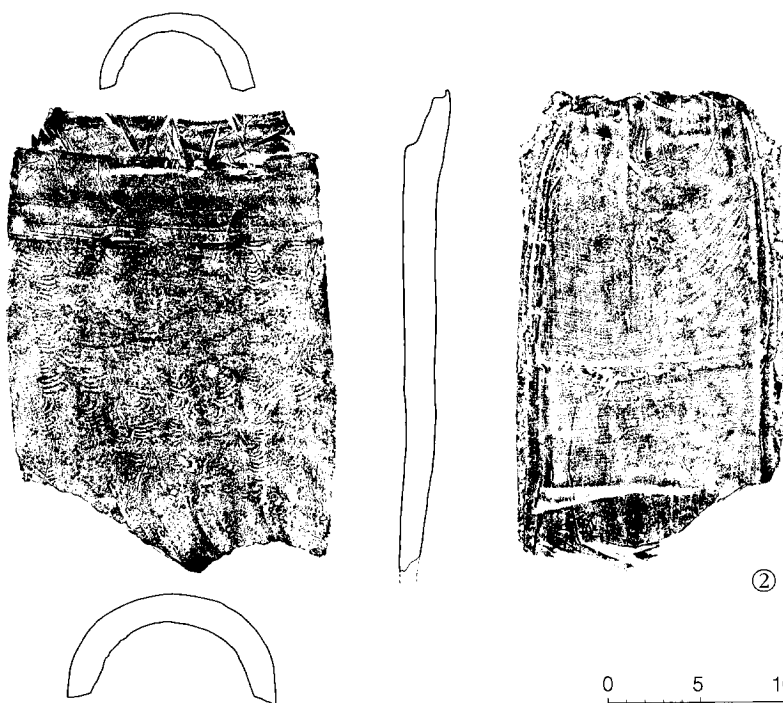
■ 집선문 미구수키와 [그림 25①, 사진 33⑤]

하단의 양쪽 모서리가 조금씩 파실되었으나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남은 미구수키와로, 미구는 안쪽으로 경사졌으며 언강의 모서리 부분이 높게 돌출하여 기와 등과 구획되었다.

등문양은 정면작업과 마모로 인하여 부분적으로만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짧은 단선을 집선하여 여러 방향으로 시문하였으며 그 하단의 3cm 정도는 중선을 그어내려 마무리하였다. 상하 4.5cm 내외의 공간은 무문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은 거칠게 다듬은 상태이나, 와통이 좁아지는 미구부분에는 포목이 접히고 뭉친 흔적이 남아있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한 후 물손질하였다. 측면에는 한번에



①



②

0 5 10cm

〈그림 25〉 상충유구 출토유물

그어내린 와도분활면이 보이는데 그 면의 두께는 불규칙하나 대체로 1/2~1/3 정도를 차지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내삼문지

· 길이 : 38cm 너비 : 15cm 두께 : 2.2~2.5cm(하단두께 : 0.9cm) 미구길이 : 2.5cm

■ 수파문 미구수키와 [그림 25-②, 사진 33-⑥]

하단의 일부가 파실된 상태의 미구수키와로, 미구는 긴 편이며 안쪽으로 경사진 형태이다.

등문양은 마모되어 거의 보이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수파문의 곡선이 남아있다. 상단의 4.4cm 정도는 시문하지 않았고 횡방향의 물손질과 빗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1cm 내에 7울 및 8울로 구성된 굽고 성근 포흔이 보이며, 두께 약 0.4cm의 띠매듭흔 두 줄이 불규칙하게 얹힌 상태로 남아있다. 미구 쪽은 점토를 덧붙여 빗질하였다. 와도분활면은 안에서 밖으로 측면의 1/2 정도이며, 몇 번으로 나누어 그었다. 이는 기와의 길이가 길어 한 번에 와도질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S1W1 그리드

· 길이 : 37.2cm 너비 : 15.7cm 두께 : 2~2.5cm 미구길이 : 4.1cm

■ 수파문 미구수키와 [그림 26-①, 사진 33-⑦]

S5·E1 그리드에서 노출된 와도(瓦道) 연결 기와 중 하나로, 하단 모서리와 미구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인데, 미구는 짧은 편으로 단면은 경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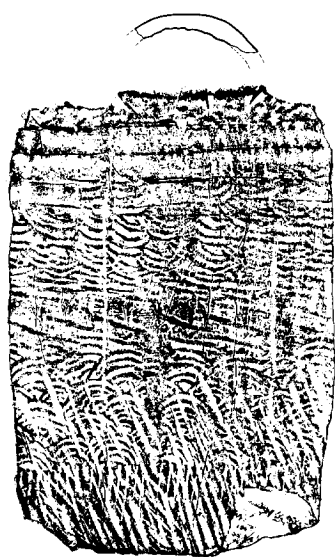
등문양은 수파문을 주 문양단위로 하는데, 상단에는 물손질 방법을 이용하여 2cm 간격의 굽고 얇게 들어간 횡선을 나타내었고, 그 아래에는 수파문 두 조가 상하를 바꾸는 형식으로 시문되었다. 수파문 각 조는 약 2cm의 무문 공간으로 구획된다. 하단부는 기와 끝까지 종선으로 마감하였다. 내면은 흙을 덧붙이거나 도구를 이용한 정면으로 인하여 거의 포흔이 남아있지 않으나, 와통이 좁아지는 미구 부분에는 포목이 접히고 뭉쳐 생긴 흔적이 있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한 뒤 도구로 거칠게 쓸어내렸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8 가량 얇게 그어 자국만 낸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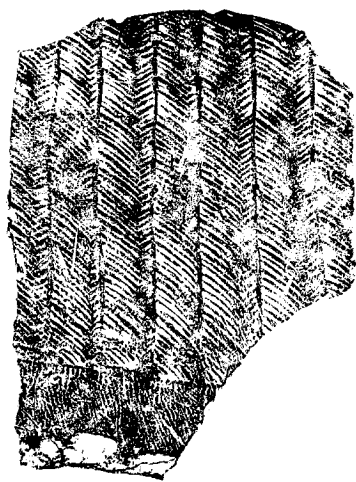
· 출 토 지 : S5·E1 그리드

· 길이 : 36.4cm 너비 : 14.3cm 두께 : 2.2~2.7cm(하단두께 : 0.8cm) 미구길이 : 1.4cm

■ 어골문 수키와 [그림 26-②, 사진 34-①]



①



②

0 5 10cm

〈그림 26〉 상충유구 출토유물

상단 및 하단의 일부가 파실되어, 2/3 가량 남은 수키와이다.

주된 문양은 폭 0.3cm의 중심뼈에서 폭 0.2~0.3cm의 결가지가 0.2cm의 간격으로 뻗어내린 어골문으로, 한쪽 가지면이 겹쳐져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시문하였다. 하단의 4.5cm 부분은 종선으로 마감하였으나 정면하면서 지워져 그 흔적만 남아있다. 내면은 도구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거칠게 다듬었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하였으며 종방향의 물손질 자국이 보인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분활면이 남아있는데, 하단의 끝부분은 깊게 와도질하여 분활면이 측면의 거의 전면을 차지하다가 점차 좁아져 1/5 가량으로 얇게 그어 자국만 낸 부분도 있다. 이는 길이가 긴 수키와의 분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토지: 방지

· 현존길이: 32.8cm 너비: 14.2cm 두께: 2~2.7cm(하단두께: 1.3cm)

■ 집선문 수키와 [그림 27-①, 사진 34-②]

유단식 수키와로, 절반가량이 파실되었다. 언강과 미구는 L자형으로 거의 직각에 가깝게 결합되었는데, 언강의 모서리 부분이 높게 돌출하여 기와 등과 구획되었다. 미구는 안쪽으로 약간 경사졌으며, 물손되었다.

기와의 등에는 사선문이 방향을 바꾸어가면서 교차적으로 반복시문되어, 여러 겹의 사다리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문방식은 어골문의 변형 양식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점토를 덧붙여 사선으로 거칠게 다듬은 흔적이 보이며, 미구부분은 물손질되었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3 가량 얇게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굵고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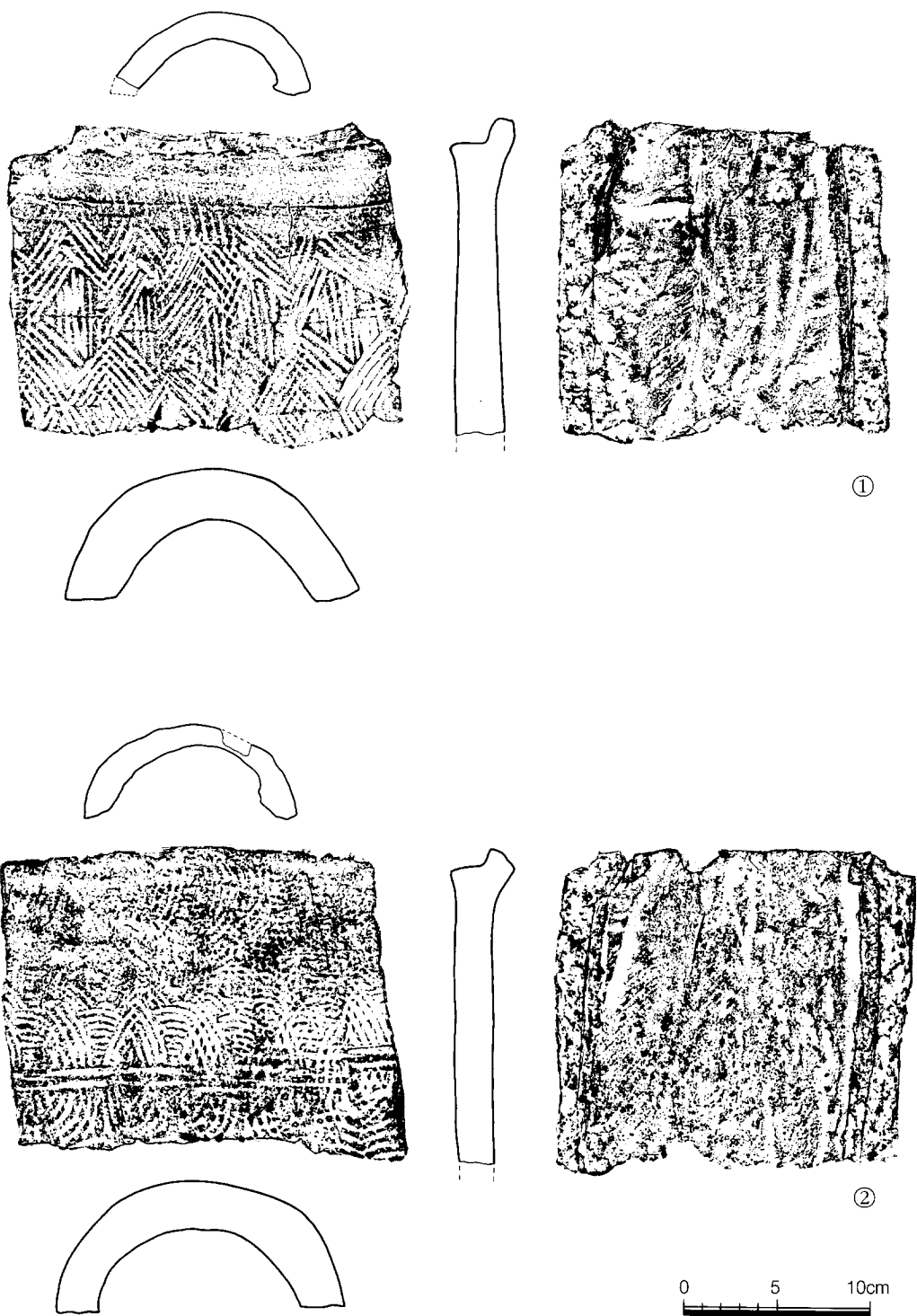
· 출토지: 방지

· 현존크기: 17cm×14.2cm 두께: 2.7cm 미구길이 1.2cm

■ 수파문 수키와 [그림 27-②, 사진 34-③]

유단식 수키와로, 절반가량이 파실된 상태이다. 언강과 미구는 L자형으로 거의 직각에 가깝게 결합되었는데, 미구는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며 거칠게 물손질되었다.

주된 문양은 횡방향으로 겹쳐진 폭 7cm의 넓고 큰 수파문 1단을 상하방향을 바꾸면서 반복 시문한 형태로, 각 단은 세 줄의 횡선문으로 구획되어진다. 내면은 거칠게 다듬어진 상태이며, 와통이



〈그림 27〉상충유구 출토유물

좁아지는 미구 부분에는 포목이 겹쳐져 뭉친 흔적이 남아있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 정도 되는 와도분활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굵고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며, 불규칙한 소성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기포와 터짐현상이 보인다.

· 출 토 지 : 방지

· 현존크기 : 18cm×15.2cm 두께 : 2.5cm 미구길이 : 1.5cm

■ 반원집선문 수키와 [그림 28-①, 사진 34-④]

파실되어 하단의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만 남은 수키와이다.

등문양은 종방향으로 반복되는 폭 6.5cm의 반원형집선문 시문구를 기와 등의 횡방향으로 연달아 찍었으며, 한 조를 이루는 문양간 폭은 약 1cm 정도로 일정하다. 하단부는 종선문으로 마무리하였다. 내면은 고르지 못한 소성과 거친 빗질로 포흔은 보이지 않으며, 경사지게 처리한 하단부에는 물손질의 흔적이 있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3 가량 얇게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보도 1

· 현존길이 : 24cm 너비 : 17.5cm 두께 : 2.9cm

■ 반원집선문 수키와 [그림 28-②, 사진 3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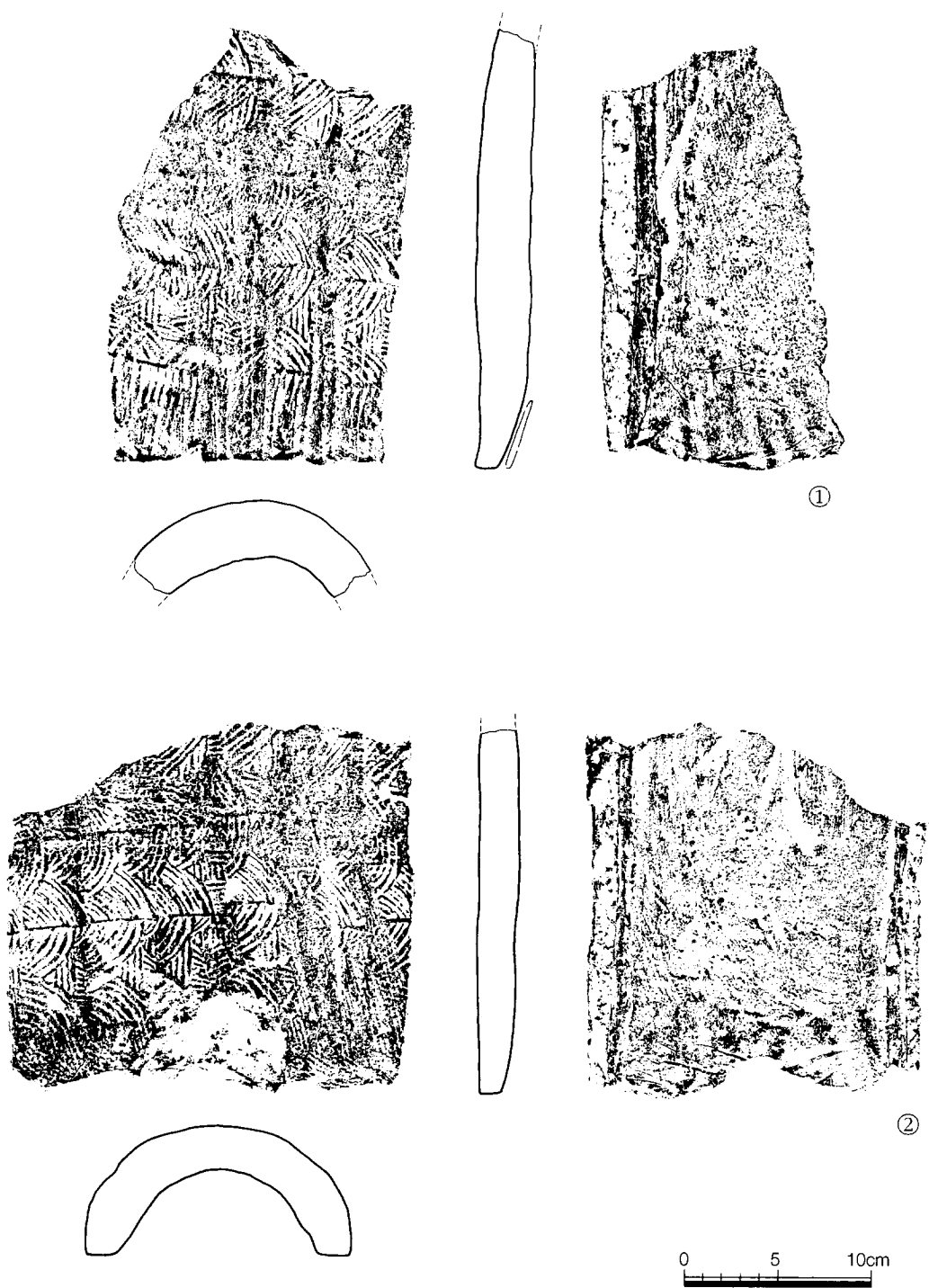
상단부가 파실되어, 절반가량만 남은 수키와이다.

등문양은 지름 6cm의 반원집선문을 횡방향으로 겹치게 배치하고, 빈 공간은 단선으로 채운 시문구를 기와의 종방향으로 반복하여 찍어내렸다. 내면은 성형 후 부분적으로 흙을 덧붙여 물손질하고 거칠게 다듬어진 상태이다. 기와의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한쪽 면은 1/2 정도, 또 다른 면은 1/3 정도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내삼문지

· 현존크기 : 19.4cm×14cm 두께 : 2cm



〈그림 28〉 상층유구 출토유물

■ 반원집선문 수키와 [그림 29-①, 사진 34-⑥]

하단의 한쪽 모서리 중심의 일부만 남은 수키와이다.

등 문양은 모양, 간격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설명한 반원집선문 기와와 동일하다. 내면에는 1cm² 내에 10울 및 11울로 구성된 비교적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남아있으며,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3 가량 얇게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보도 1
- 현존크기 : 15.4cm×13cm 두께 : 2.6cm

■ 수파문 수키와 [그림 29-②, 사진 35-①]

포정루 주변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수키와로, 파실되어 하단의 한쪽 모서리 중심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등 문양은 굽은 선으로 이루어진 폭이 넓은 모양의 수파문이 2.5cm·6cm·6cm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어 시문되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내면에는 1cm² 내에 7울 및 8울로 구성된 굽고 성근 포흔이 보이며, 경사지게 처리된 하단부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굽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갈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보도 1
- 현존크기 : 20cm×13.8cm 두께 : 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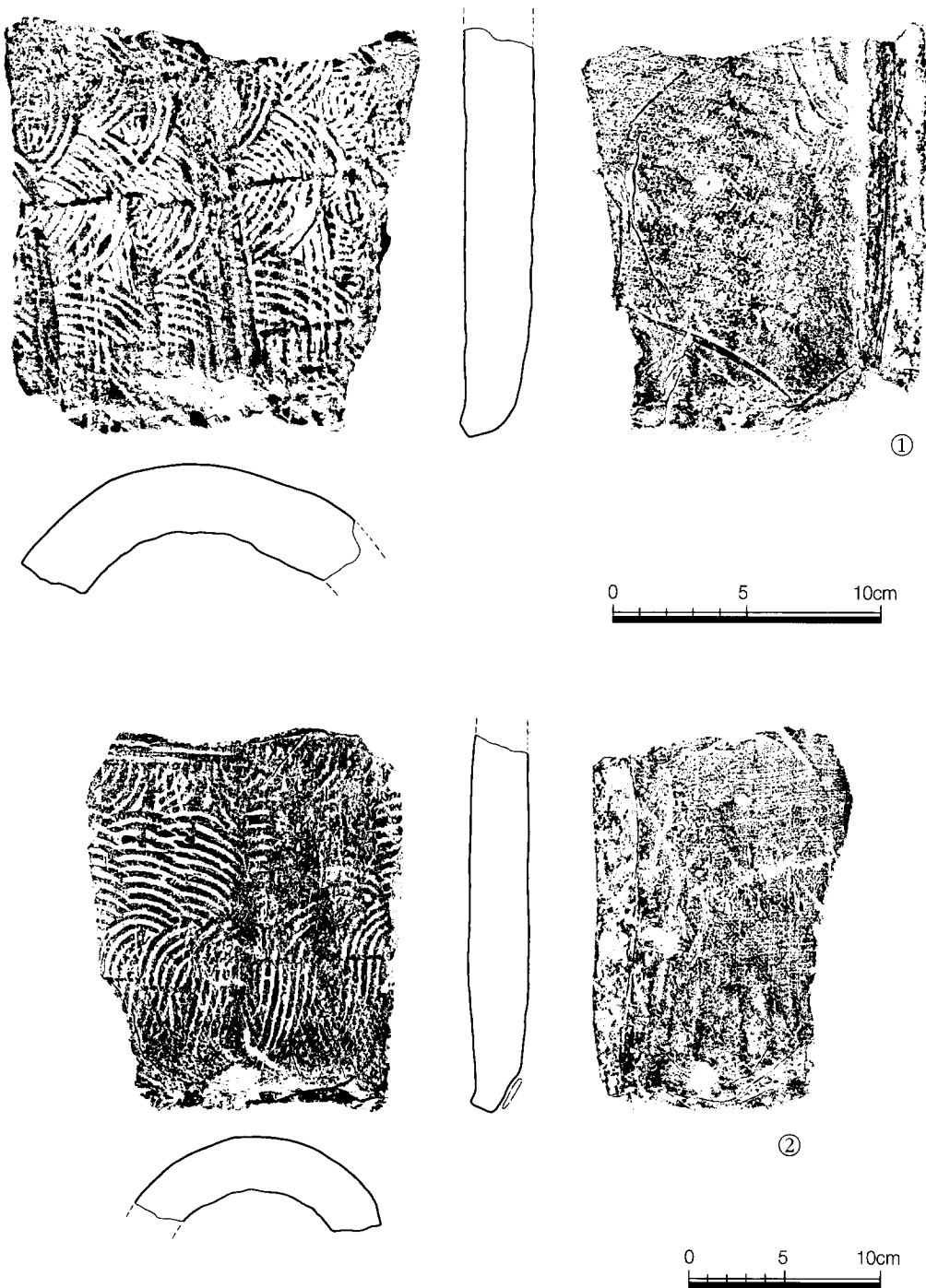
■ 집선문 수키와 [그림 30-①, 사진 35-②]

많은 부분이 파실된 상태로 그 종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께와 휘어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수키와의 일부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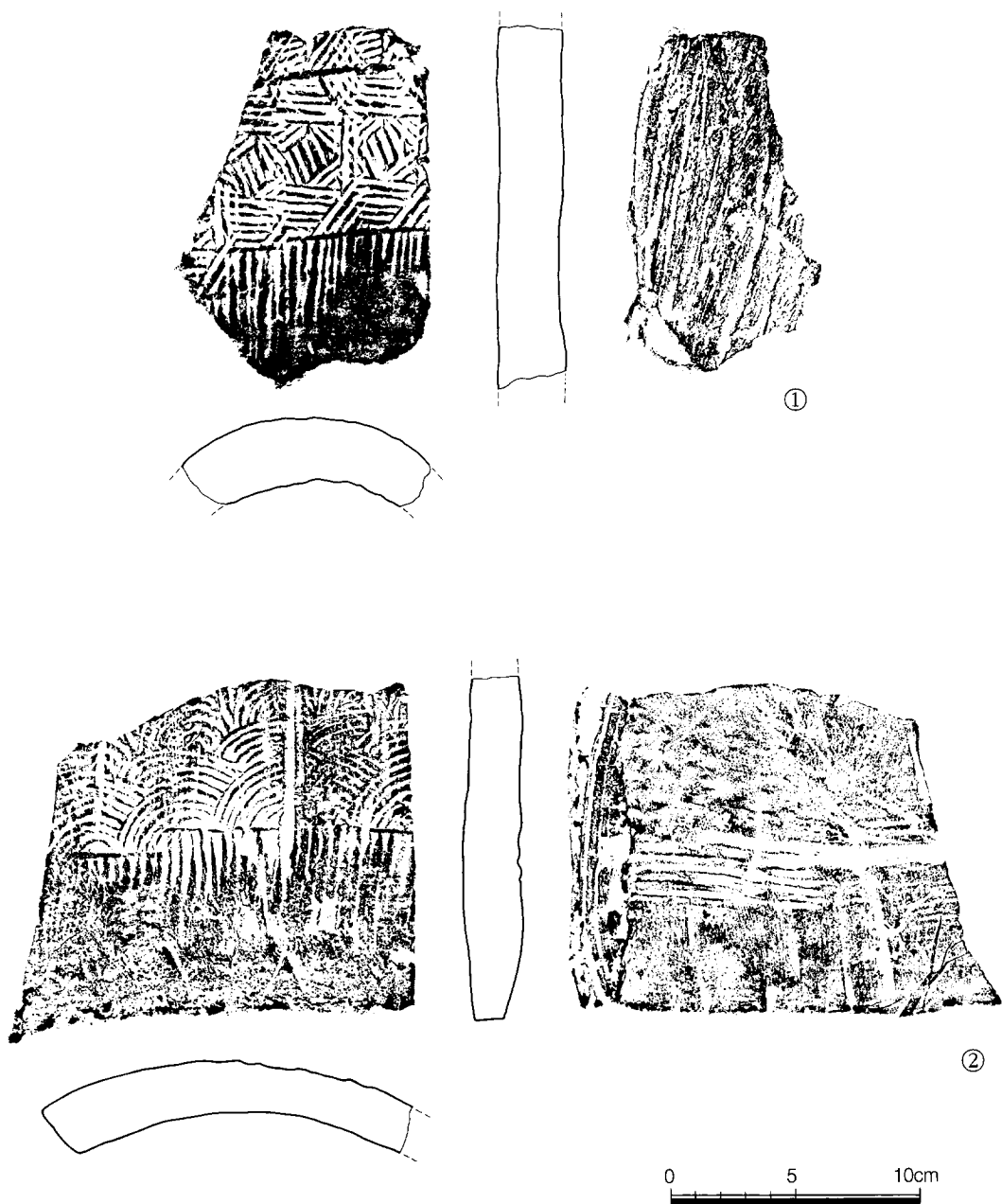
등 문양은 짧은 선을 여러방향으로 집선하였으며, 하단부로 보이는 곳에는 종방향의 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다듬어져 있어 제작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갈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내아 주변 조사지역 (0·E2 그리드 내 유구)
- 현존크기 : 9.4cm×4.7cm 두께 : 2.6cm



〈그림 29〉 상층유구 출토유물



〈그림 30〉 상충유구 출토유물

(4) 암키와

■ 수파문 암키와 [그림 30-②, 사진 35-③]

하단의 한쪽 모서리 부분만 남은 암키와이다.

외면의 문양은 수파문을 주문양으로 하며, 하단은 종선문으로 마감하였다. 내면에는 올 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남아있으며, 포목을 댄 끝 부분은 포목이 접히고 뭉친 흔적과 함께 와통의 거친 표면으로 인하여 생긴 듯한 깊은 자국이 보인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 가량 그은 후 이등분하였는데, 하단의 측면에는 그 전면에 와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와도질의 방향이 하단부에서 상단부 쪽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내면 하단은 경사지며, 물손질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토지: 보도 1

· 현존크기: 15.7cm×13.2cm 두께: 2.3cm(하단두께:1.1cm)

최영희

2) 磁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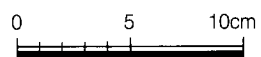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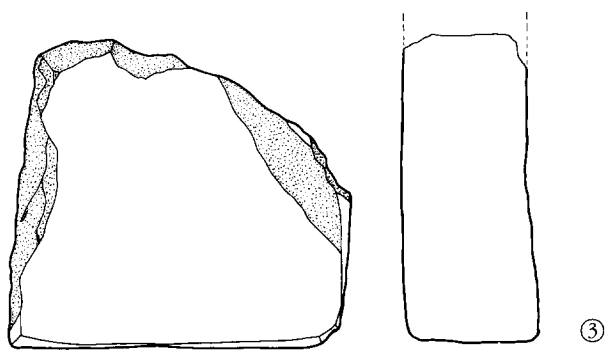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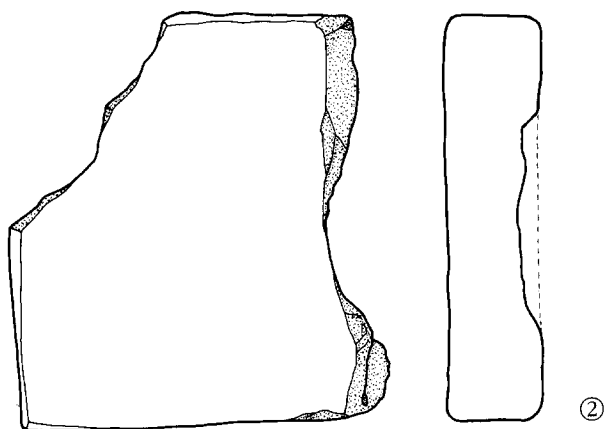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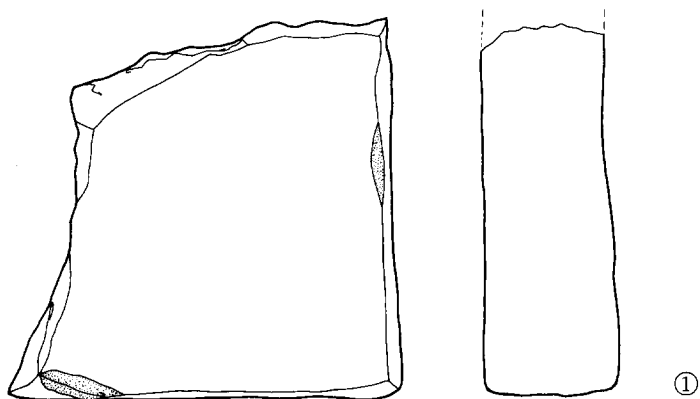
(1) 백자접시

■ 백자접시 [그림 32-①, 사진 36-①]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파실된 외반 구연 접시로 기벽은 사선을 이루면서 굽으로 이어지며, 굽과 동체부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굽은 내경하며, 굽 안은 회전 굽 깎기를 하여 중앙이 볼록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담회청색유를 시유했다. 소성은 내면의 바닥과 굽의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깔고 포개어 번조했으며, 내외면 곳곳에 터짐과 기포현상이 보인다.

높이: 3.4cm, 복원입지름: 13cm, 밑지름: 4.8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S50 그리드



〈그림 31〉 상충유구 출토유물

■ 백자접시 [그림 32-②, 사진 36-②]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로 구연은 내만되었으며, 구연부 내면에는 2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내경한 삼각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회청색유를 시유하였다. 내저면과 굽의 접지면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3.6cm, 복원입지름: 13.6cm, 복원밑지름: 5.6cm, 기벽두께: 0.3~0.7cm

· 출토지: S5 0 그리드.

■ 백자접시 [그림 32-③, 사진 36-③]

$\frac{1}{3}$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내만 구연접시로 내면은 곡면을 이루며 군데군데 굽은 모래가 보인다. 굽은 높고 상면에서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굽 상면에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 안은 소성과정에 일어난 터짐현상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연한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빙열이 있다. 접지면에 굽고 작은 모래를 받쳐 번조했다.

높이: 3.7cm, 복원입지름: 11.3cm, 밑지름: 5.4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배수로

■ 백자접시 [그림 32-④, 사진 36-④]

구연 일부가 파실된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고 외면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굽은 삼각굽으로 상면에는 원각이 돌아간다. 굽 안은 회전 굽 깎기를 하여 중앙이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회청색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소성은 굽의 접지면과 안쪽에 유약을 훑어낸 후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3.1cm, 입지름: 9.2cm, 밑지름: 5.1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공방고지

■ 백자접시 [그림 32-⑤, 사진 36-⑤]

구연 일부가 파실된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구연 밑 외면에는 물레성형에 의한 꺾임이 보인다. 굽은 삼각굽에 가깝고 굽 안 중앙에는 굽 깎기에 의한 돌출부가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저화도 소성으로 적갈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했다. 소성은 내저면에 모래받침을 하고 접지면에는 태토와 모래를 혼입해서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3.8cm, 입지름: 10.6cm, 밑지름: 5.3cm, 기벽두께: 0.4~1.2cm

· 출토지: 배수로

■ 백자접시 [그림 32-⑥, 사진 37-①]

3/4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직립 구연의 접시로 기벽은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으로 이어진다. 굽은 직립굽이고 굽의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가며, 내저 중앙과 굽 안에는 터짐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표면에는 잡티가 많이 보인다. 유약은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굽 안과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했다.

높이: 3.7cm, 복원입지름: 13cm, 밑지름: 6.6cm, 기벽두께: 0.4~1.1cm

·출토지: 공방고지

■ 백자접시 [그림 32-⑦, 사진 37-②]

3/4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기벽은 완만한 사선을 이룬다. 굽은 삼각굽에 가까운 직립이고 굽 안은 회전 굽 깎기에 의해 중앙이 돌출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접지면과 굽 내외면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2.6cm, 입지름: 9.2cm, 밑지름: 4.7cm, 기벽두께: 0.3~0.5cm

·출토지: N1W2 그리드

■ 백자접시 [그림 32-⑧, 사진 37-③]

직립 구연의 소형 접시로 외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내저 중앙에는 청화「福」자가 전서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굽은 낮은 오목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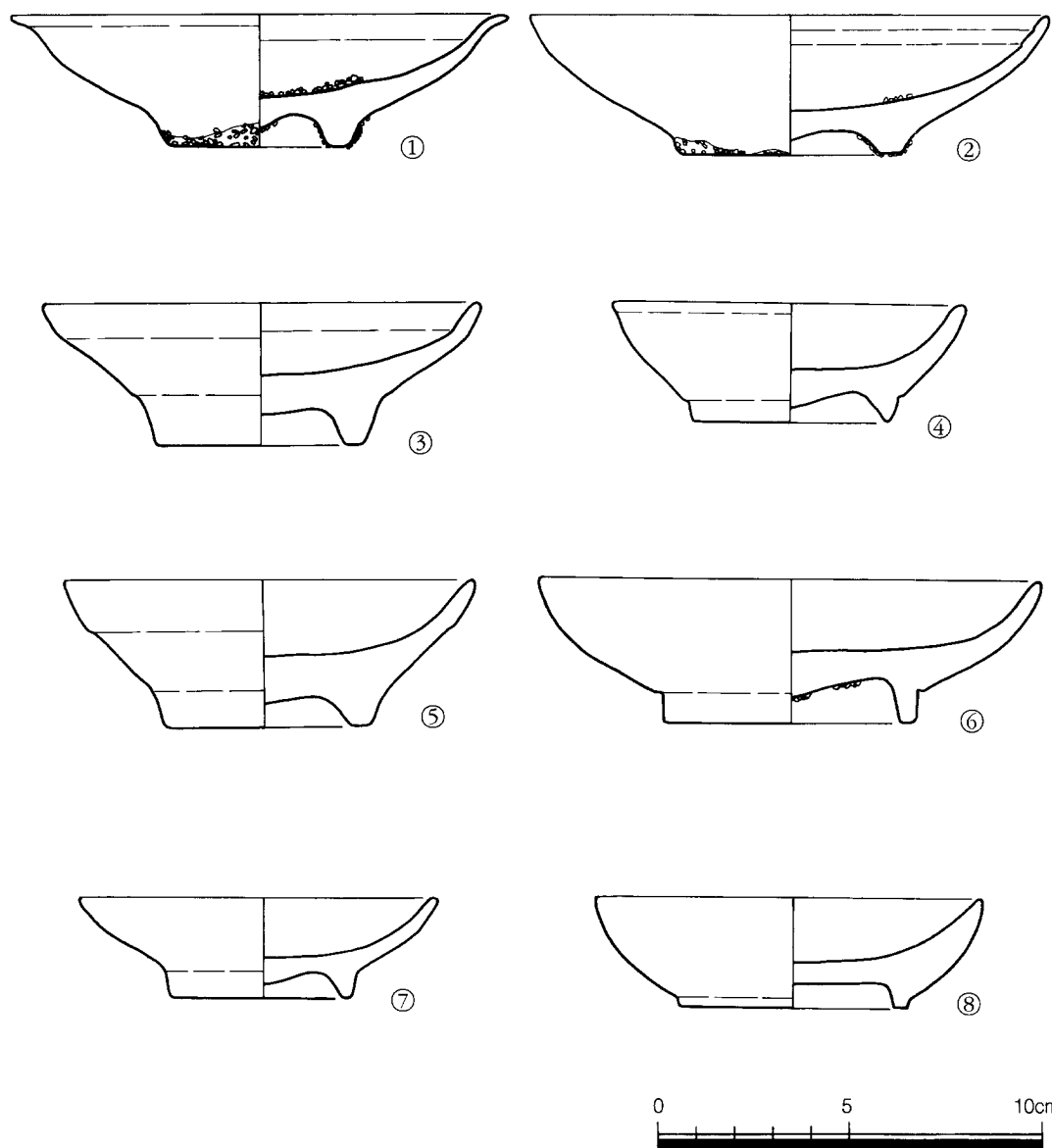
높이: 2.8cm, 입지름: 10cm, 밑지름: 5.9cm, 기벽두께: 1.0cm

·출토지: 방지

■ 백자접시 [그림 33-① 사진 37-④]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내면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내저에는 청화 명문이 일부 보이거나 식별할 수 없다. 굽은 낮은 굽이고 접지면은 반듯하며, 회전 굽 깎기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회백색유를 시유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3.5cm, 복원입지름: 9.9cm, 밑지름: 5cm, 기벽두께: 0.5~0.8cm



〈그림 32〉 상층유구 출토유물

· 출토지: 0·W2 그리드

■ 백자접시 [그림 33-②, 사진 37-⑤]

3가량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은 곧으며, 구연 밑에서 약간 꺾여져 완만하게 굽으로 내려간다. 굽은 높은 수직굽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내면에는 굵은 모래를 받치고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와 모래를 혼입해서 깔고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1cm, 복원입지름: 11.9cm, 밑지름: 5.4cm, 기벽두께: 0.3~0.7cm

· 출토지: 0·W2 그리드

■ 백자접시 [그림 33-③, 사진 38-①]

직립 구연의 소형 접시로 동체 일부만 파실되었을 뿐 완형이다. 기벽은 사선을 이루며, 굽은 삼각굽에 가깝다. 내저면은 포개굽지 않아 반듯하며, 굽 안은 소성과정에서 일어난 터짐현상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가 연한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내외면에는 빙열이 있고 광택이 나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6cm, 입지름: 11cm, 밑지름: 5.8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내삼문지

■ 백자접시 [그림 33-④, 사진 38-②]

직립 구연의 소형 접시로 기벽은 두텁고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굽은 낮은 오목굽이다. 내저면에는 청화 「福」자가 전사체로 쓰여져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띤다. 유약은 담청색 투명유를 전면적으로 고르게 시유했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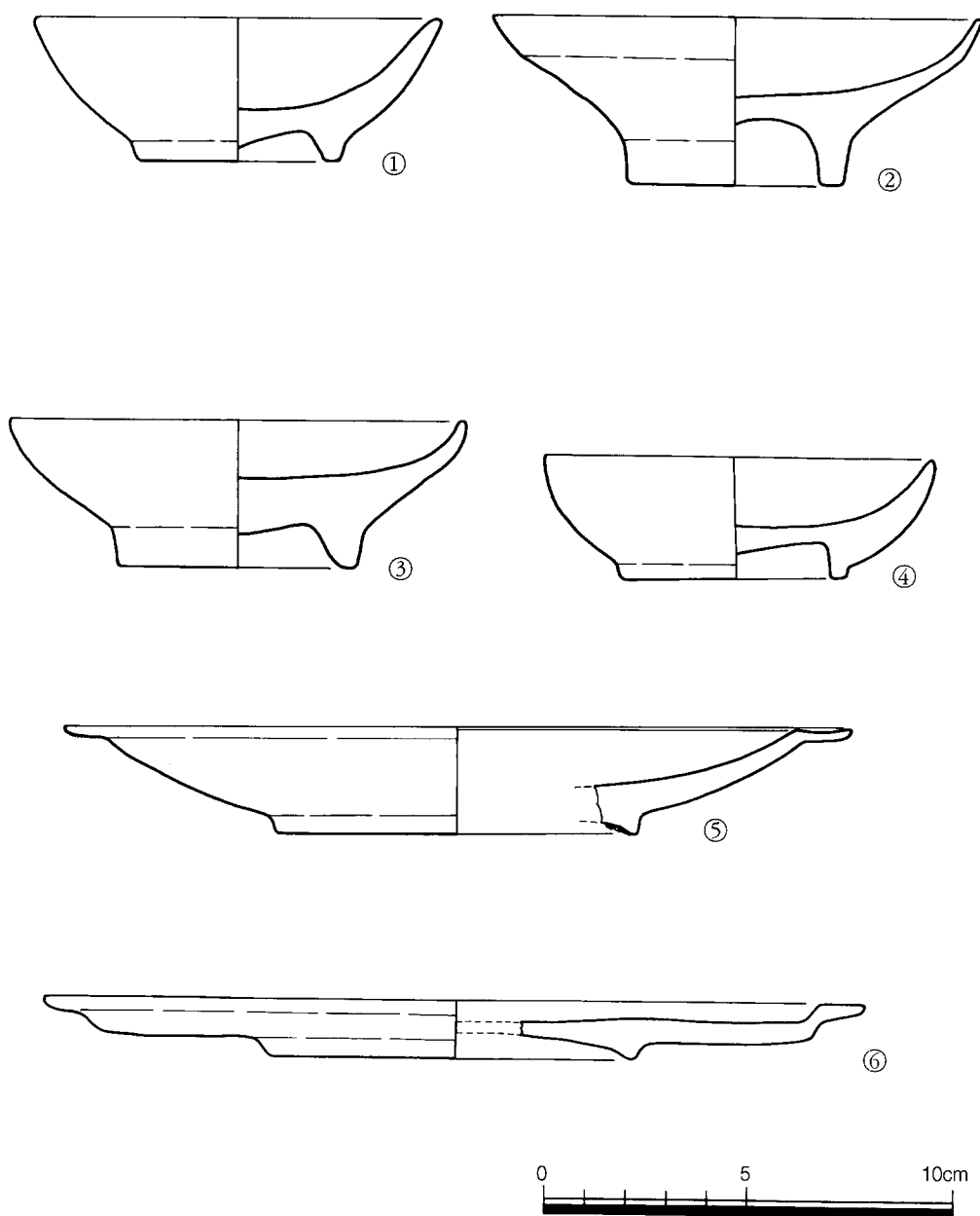
높이: 3cm, 입지름: 9.5cm, 밑지름: 5.5cm, 기벽두께: 0.5~0.9cm

· 출토지: S1E2 청운당 앞

■ 백자전접시 [그림 33-⑤, 사진 38-③]

3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전 접시편으로 구연은 수평으로 넓게 바라지며, 굽은 낮은 직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세립의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내외면에는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고 전면적으로 빙열이 보인다. 기저면에 다량의 모래를 깔고 번조했다.

높이: 2.6cm, 복원입지름: 19.2cm, 밑지름: 9cm, 기벽두께: 0.3~0.9cm



〈그림 33〉 상충유구 출토유물

· 출토지: 공방고지

■ 백자전접시 [그림 33-⑥, 사진 38-④]

3/4량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전의 꺾임이 급격하고 내면이 반듯하며, 굽은 낮은 삼각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전체적으로 시유했으며, 빙열이 있다. 소성은 접지면과 인접한 굽 안에 1.3cm 넓이로 모래를 두텁게 깔고 번조했다.

높이: 1.4cm, 복원입지름: 20.1cm, 복원밀지름: 9cm, 기벽두께: 0.4~0.5cm

· 출토지: 담장지

■ 백자굽접시 [그림 34-①, 사진 38-⑤]

1/2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곧고 외면 밑으로 꺾임이 보이며, 그 밑으로 음각선 2개가 알게 돌아간다.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굽 상면에는 팔각을 주기 위해 눌러서 밑으로 꺾었으며, 기지면으로 가면서 삼각으로 다시 정면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접지면과 내저면에는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8cm, 복원입지름: 11.8cm, 굽높이: 2.3cm, 복원밀지름: 7.7cm, 기벽두께: 0.4~1.0cm

· 출토지: S50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4-②, 사진 39-①]

3/4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굽접시로 구연은 곧고 외면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벌어진다. 굽 외면은 면각을 주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은 조잡한 형태로 팔각 굽을 형식적으로 표현했다. 굽 안은 회전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는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가 시유되었는데, 고르게 시유되지 않고 군데군데 뭉쳐서 흘러내린 곳이 보인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5.1cm, 복원입지름: 12.3cm, 굽높이: 2.6cm, 밀지름: 6.8cm, 기벽두께: 0.3~1.2cm

· 출토지: 중삼문지

■ 백자굽접시 [그림 34-③, 사진 39-②]

구연 일부가 파실된 원형 굽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구연 밑에서 꺾여져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굽과 경계되는 곳에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약간 외반되었고 굽 안은 회전 굽 깎기를 하여 중앙이 볼록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소성

은 내저면과 접지면 4곳에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8cm, 입지름: 11.4cm, 굽높이: 2cm, 밑지름: 6.6cm, 기벽두께: 0.4~1.2cm

· 출토지: 공방고지

■ 백자굽접시 (그림 34④, 사진 39③)

½ 정도 파실된 굽접시로 구연은 곧고 외면이 사선을 이루며, 굽은 원형의 직립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소성은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깔고 접지면에는 태토와 굵은 모래가 혼입된 것을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2cm, 입지름: 11cm, 굽높이: 1.9cm, 밑지름: 6.2cm, 기벽두께: 0.5~0.9cm

· 출토지: N1W2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4⑤, 사진 39④)

½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이 약간 외반되고 외면은 사선을 이루며, 굽은 팔각 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바닥 속심은 저화도 소성으로 적갈색 색조를 띤다. 유약은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빙열이 있다. 소성은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깔고 접지면에는 태토와 굵은 모래가 혼입된 것을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5.9cm, 입지름: 13.4cm, 굽높이: 2.8cm, 밑지름: 7.3cm, 기벽두께: 0.5~1.0cm

· 출토지: N2W2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4⑥, 사진 39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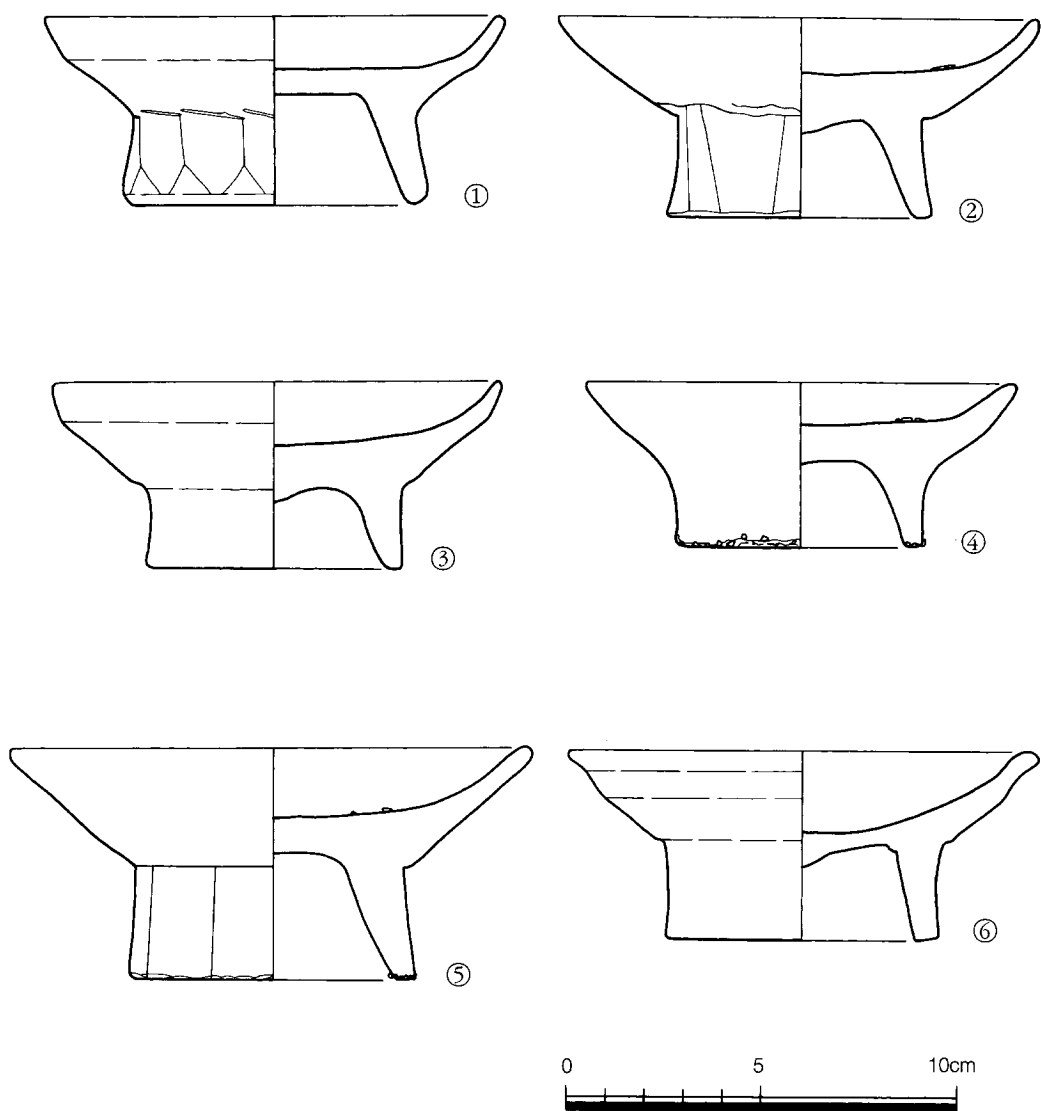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원형 굽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구연 밑에서 꺾여져 내려간다. 굽의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 접지면이 반듯한 직립굽이며, 굽 안 중앙은 회전 굽 깎기로 돌출되었다. 내저면에는 청화 명문이 남아 있는데 일부만 잔존하여 정확히 관독할 수 없지만 「福」자로 추정된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8cm, 복원입지름: 11.9cm, 굽높이: 2.5cm, 밑지름: 6.9cm, 기벽두께: 0.4~1.0cm

· 출토지: N2W2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5①, 사진 40①)

구연이 약간 파실된 굽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구연 밑에서 꺾임이 보인다. 굽은 직립으로 외면에



〈그림 34〉 상충유구 출토유물

13면각을 주었으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가 시유되었다. 소성은 내저면 6곳에 굵은 모래를 깔고 접지면에도 6곳에 태토와 굵은 모래가 혼입된 것을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8cm, 입지름: 10.9cm, 굽높이: 2.4cm, 밑지름: 6.1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방지

■ 백자굽접시 [그림 35-②, 사진 40-②]

구연 일부가 파실된 굽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굽은 직립이고 접지면은 반듯하며, 외면에는 7면각을 주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유가 시유되었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6cm, 입지름: 11.5cm, 굽높이: 2.2cm, 밑지름: 6.1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책방지

■ 백자굽접시 [그림 35-③, 사진 40-③]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곧으며, 외면은 직사선으로 내려간다. 굽은 원형 굽으로 거의 직립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회백색유가 시유되었다. 내저면에 포개어 번조한 굵은 모래받침이 남아 있다. 소성은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깔고 접지면에는 태토와 굵은 모래가 혼입된 것을 받쳐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5.1cm, 복원입지름: 11.9cm, 굽높이: 2.4cm, 복원밑지름: 6.5cm, 기벽두께: 0.5~0.7cm

· 출토지: S1E1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5-④, 사진 40-④]

구연과 동체부 일부가 파실된 굽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구연 밑에서 꺾여져 직사선으로 내려간다. 굽은 직립이고 외면에 팔면각을 주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빙열이 있고 광택이 난다. 내저면에는 5곳에 굵은 모래받침을 하고 접지면 4곳에는 굵은 모래받침을 하고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5cm, 입지름: 12.1cm, 굽높이: 2.5cm, 밑지름: 5.9cm, 기벽두께: 0.4~0.5cm

· 출토지: 배수로

■ 백자굽접시 (그림 35-⑤, 사진 40-⑤)

구연이 $\frac{1}{3}$ 정도 파실된 팔각 굽의 접시로 구연은 약간 외반되고 외면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내저면에는 청화안료로 원문을 그리고 그 안에 「壽」자를 썼다. 굽은 직립이고 안은 굽 깎기를 반듯하게 하였으며, 소성과정에서 일어난 균열이 보인다. 굽 외면은 8면을 불규칙하게 정면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연한 회백색을 보이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빙열이 있고 광택이 나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3cm, 입지름: 11.9cm, 굽높이: 3.2cm, 밑지름: 7.1cm, 기벽두께: 0.4~0.7cm

· 출토지: S1E2 그리드

■ 백자굽접시 (그림 35-⑥, 사진 41-①)

구연 일부만 파실된 굽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구연 밑으로 2번의 꺾임이 있다가 직사선으로 내려간다. 굽은 직립이고 8면을 깎아서 정면했으며, 내저면은 거의 반듯하다. 태토는 정선된 것을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전면적으로 시유하였다. 빙열이 있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9cm, 입지름: 11.9cm, 굽높이: 2.1cm, 밑지름: 5cm, 기벽두께: 0.4~0.8cm

· 출토지: S1E2 청운당 앞

(2) 백자대접

■ 백자대접 (그림 36-①, 사진 4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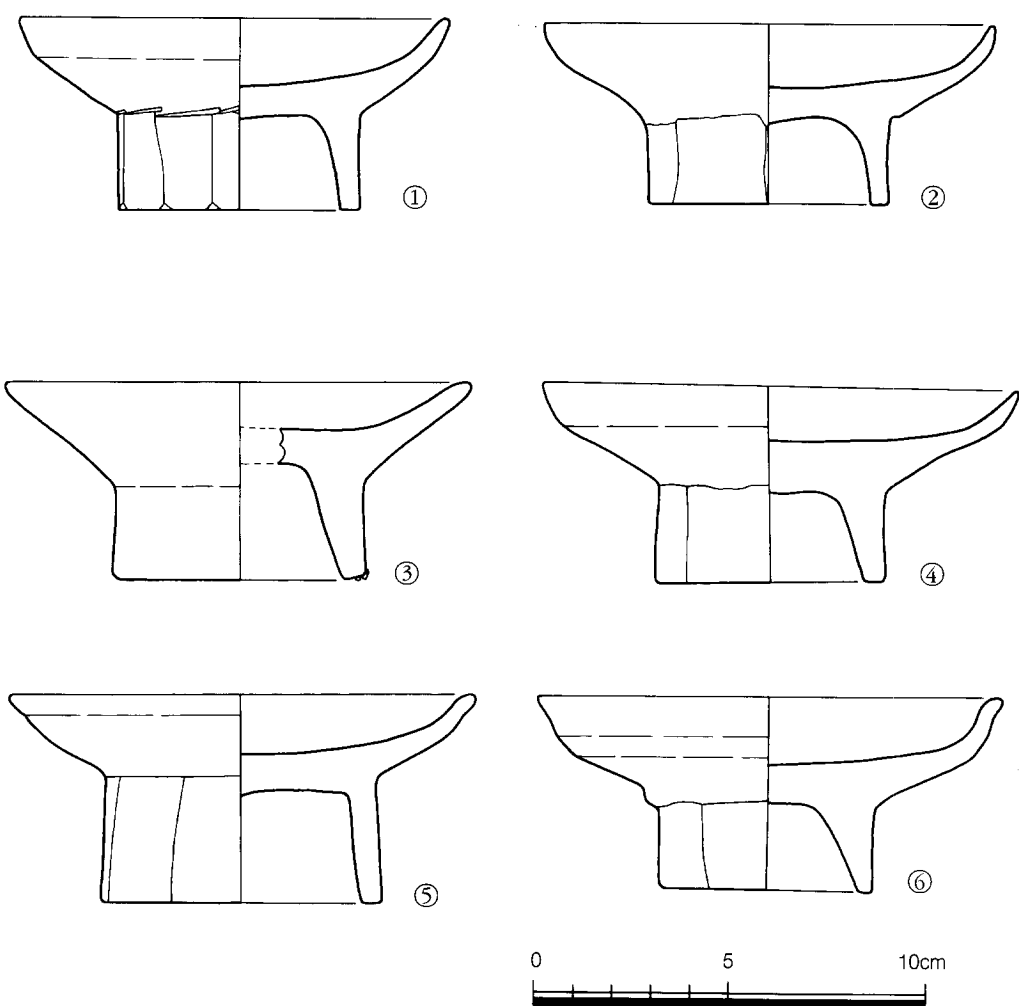
$\frac{1}{2}$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직립이고 외면은 완만한 사선으로 내려가다 굽에서 곡면을 이룬다. 굽은 직립으로 낮으며, 굽 안을 깊게 굽 깎기하였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군데군데 유약이 묻쳐서 흘러내린 곳이 보인다. 소성은 굽의 접지면에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6.4cm, 복원입지름: 11.3cm, 밑지름: 6.5cm, 기벽두께: 0.4~1.2cm

· 출토지: 내삼문지

■ 백자대접 (그림 36-②, 사진 41-③)

$\frac{1}{2}$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약간 내만되고 구연 밑 내면에는 물레성형에 의한 꺾임이 보이며, 내저곡면을 이룬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으로 내려가며, 굽은 삼각굽이



〈그림 35〉 상층유구 출토유물

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잡물이 많이 섞여 있다. 유약은 담청색 투명유가 전면적으로 시유되었는데, 군데군데 유약의 뭉침과 흘러내림이 보인다. 굽은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6.3cm, 복원입지름: 13.6cm, 밑지름: 5.1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S5W2 그리드

■ 백자대접 [그림 36-③, 사진 41-④]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외면은 곡선을 이룬다. 굽은 삼각굽으로 굽 안 중앙은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곡면을 이루고 내저면에는 모래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연한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가 전면적으로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은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6.5cm, 복원입지름: 12.3cm, 복원밑지름: 5cm, 기벽두께: 0.3~1.3cm

· 출토지: 0 W2 그리드

■ 백자대접 [그림 36-④, 사진 41-⑤]

½ 이상 파실된 대접으로 구연은 직립이고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기벽이 얇다. 굽은 내경한 삼각굽으로 굽의 외면상단에는 넓은 음각선이 돌아간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회청색유를 시유했으며, 내면에는 빙열이 보인다. 내저면에는 4곳에 굽은 모래받침을 하고 접지면 4곳에는 굽은 모래와 태토를 혼입해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9.1cm, 입지름: 15.4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4~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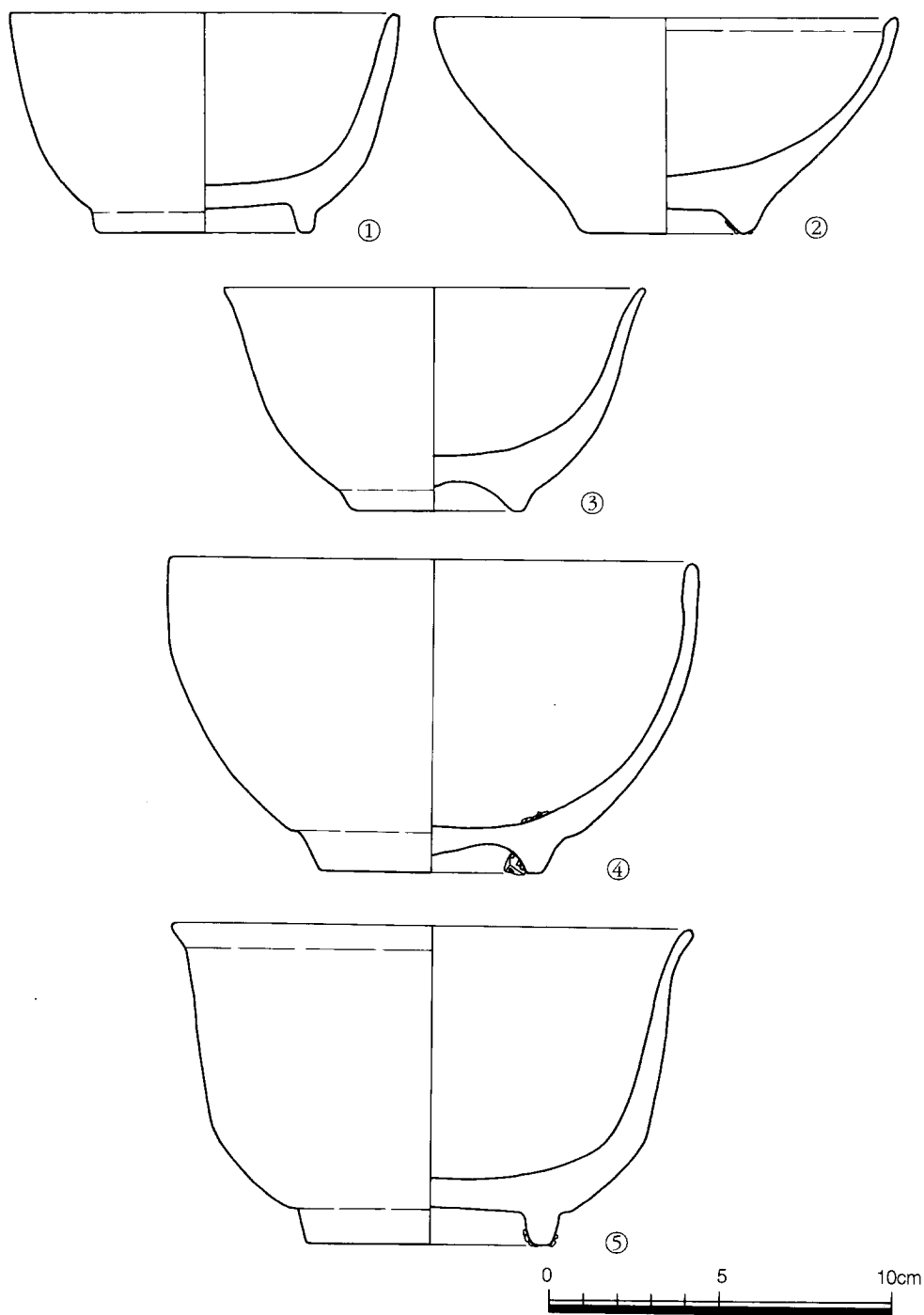
· 출토지: 배수로

■ 백자대접 [그림 36-⑤, 사진 42-①]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외반되고 사선으로 내려가다 동체부 하단에서 저부쪽으로 급격히 꺾여진다. 굽은 죽절굽이고 상단에는 음각선이 깊게 돌아가며, 내저곡면을 이루고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했다.

높이: 9.3cm, 복원입지름: 15.2cm, 복원밑지름: 7.1cm, 기벽두께: 0.3~1.4cm

· 출토지: 배수로



〈그림 36〉 상충유구 출토유물

■ 백자대접 [그림 37-①, 사진 42-②]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은 곧고 내저원각이 있으며, 외면은 직사선으로 내려가다 동체부 하단에서 볼륨있는 곡선을 이룬다. 굽은 직립에 오목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내저면에는 포개어 번조하기 위해 깔았던 모래가 있으며, 굽에도 태토와 모래를 섞어서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높이: 6.4cm, 복원입지름: 11cm, 복원밑지름: 5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공방고지

■ 백자대접 [그림 37-②, 사진 42-③]

⅔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곧게 직립하여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기벽은 두터우나 바닥은 얇으며, 굽은 낮은 수직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회백색유를 시유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8.9cm, 복원입지름: 13.8cm, 복원밑지름: 8cm, 기벽두께: 0.5~1.1cm

· 출토지: N1W2 그리드

■ 백자대접 [그림 37-③, 사진 42-④]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대접으로 구연은 곧으며,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굽은 직립으로 낮으며, 굽 안은 회전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띠고 전면적으로 담유백색유를 고르게 시유했으며, 빙열이 있다. 기벽은 두터운 편이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한 후 접지면을 갈았다.

높이: 7.8cm, 복원입지름: 18.4cm, 밑지름: 7.7cm, 기벽두께: 0.6~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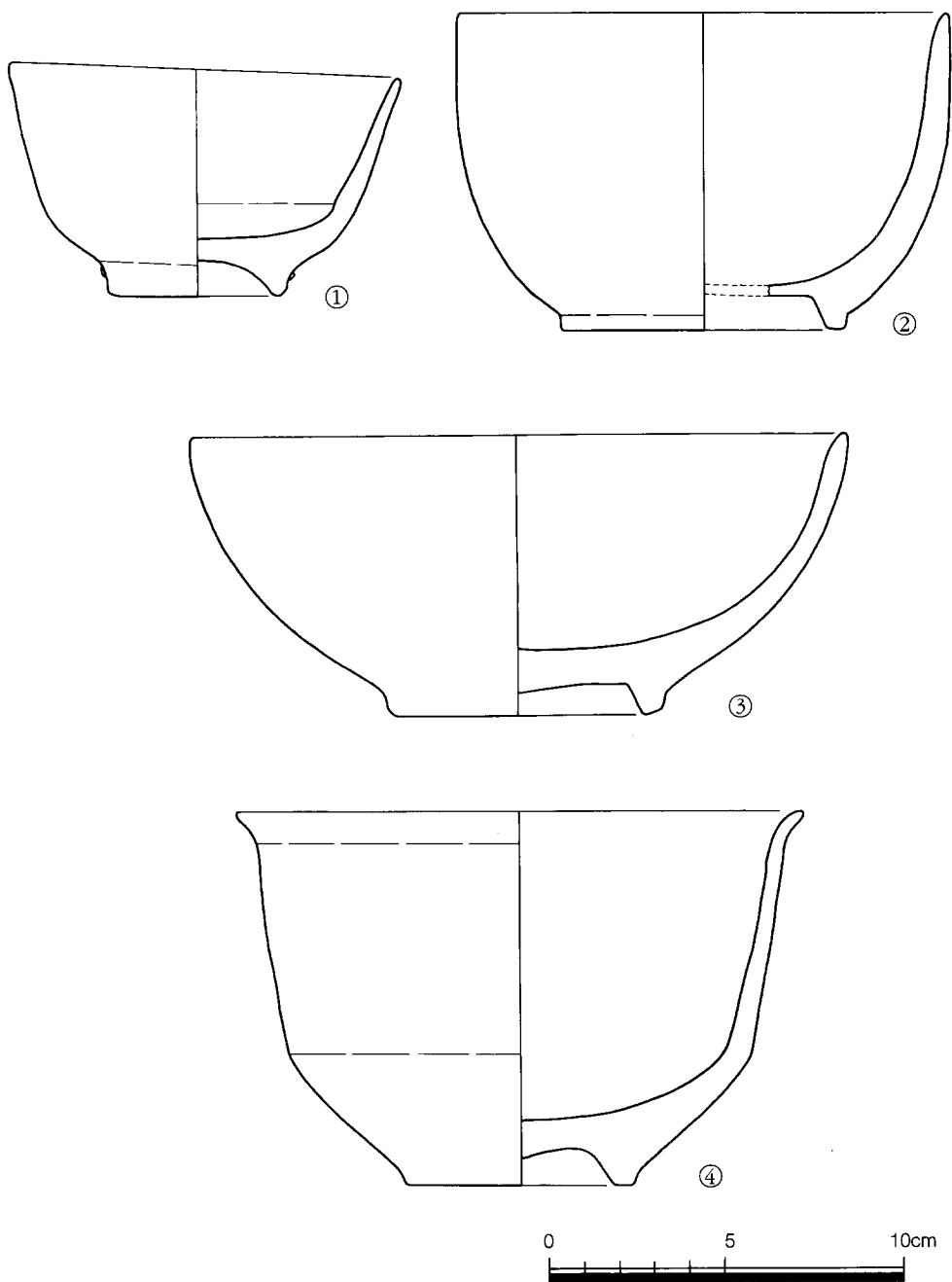
· 출토지: N2W2 그리드

■ 백자대접 [그림 37-④, 사진 42-⑤]

½이상이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외반되고 외면이 직사선으로 내려오다 동체부 하단이 급격히 꺾여진다. 내저곡면에 낮은 굽으로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유를 시유했으며, 군데군데 뭉쳐서 흘러내린 곳이 보인다. 빙열이 있으며, 접지면에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10.5cm, 복원입지름: 16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3~1.4cm

· 출토지: 방지



〈그림 37〉 상충유구 출토유물

■ 백자대접 [그림 38-①, 사진 42-⑥]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외반되고 외면이 수직으로 내려오다 동체부 하단에서 급격히 꺾여져 굽으로 이어진다. 굽은 삼각굽에 가깝고 내저곡면을 이룬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빙열이 있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9.5cm, 복원입지름: 15.2cm, 밑지름: 6.7cm, 기벽두께: 0.5~1.0cm

· 출토지: 책방지

■ 백자대접 [그림 38-②, 사진 43-①]

구연과 동체 일부 파실된 소형의 대접으로 구연은 곧고 외면이 완만한 사선으로 내려간다. 굽은 직립이고 접지면은 반듯하며, 회전 굽 깎기를 하여 중앙부 돌출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저화도 소성으로 적갈색을 띠며, 담청색유가 시유되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7cm, 입지름: 10.9cm, 밑지름: 5.4cm, 기벽두께: 0.4~1.1cm

· 출토지: 담장지

■ 백자대접 [그림 38-③, 사진 43-②]

구연과 저부 일부가 파실된 대접으로 구연은 곧고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굽은 낮고 직립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연한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가 전면적으로 시유되어 있다. 빙열이 있고 광택이 나며, 모래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7.9cm, 입지름: 17cm, 밑지름: 7.5cm, 기벽두께: 0.5~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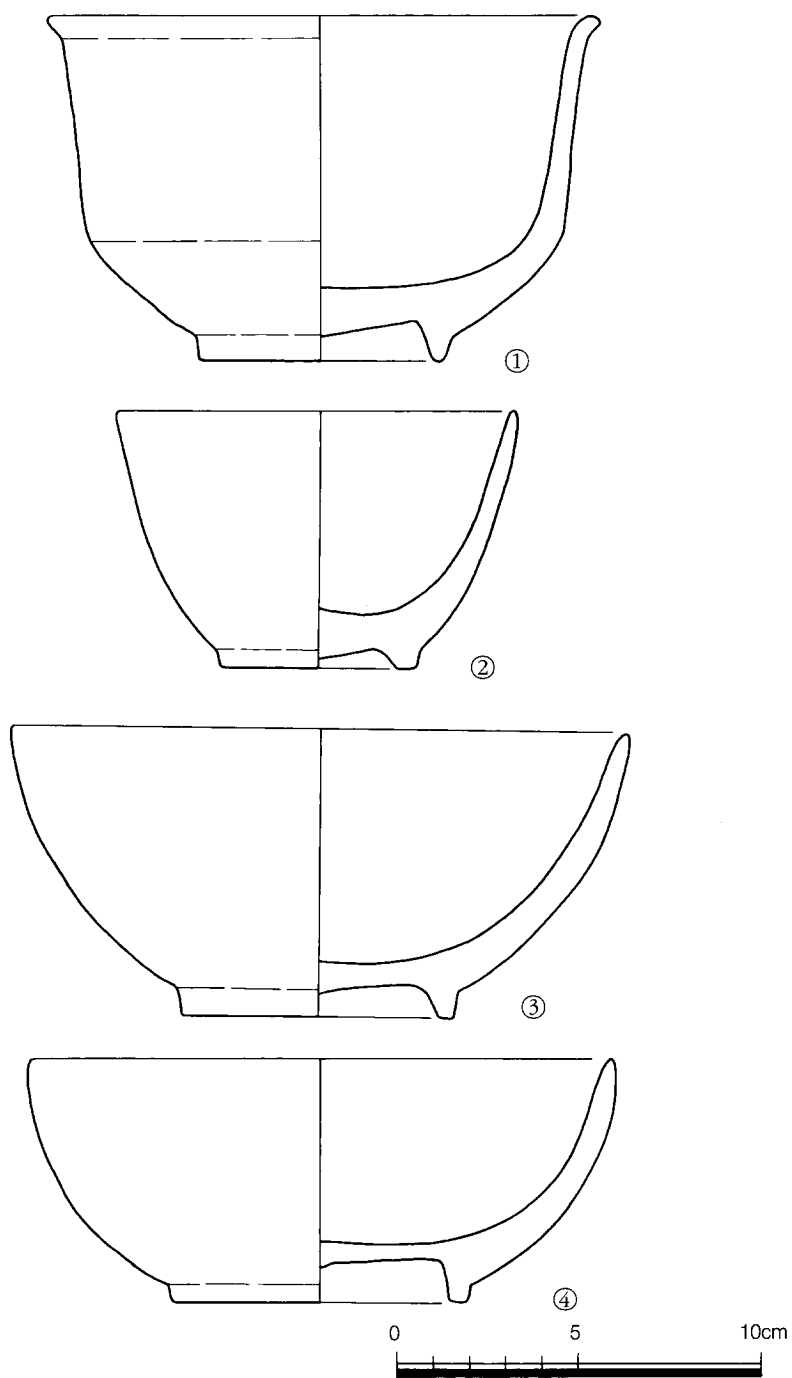
· 출토지: S1E2 그리드

■ 백자대접 [그림 38-④, 사진 43-③]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곧고 외면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은 낮은 굽에 오목굽이다. 내저면에는 청화안료로 「福」자가 쓰여져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연한 회백색을 띠며, 담회색유를 고르게 시유하였다. 기벽이 두껍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6.2cm, 복원입지름: 16.2cm, 밑지름: 8.1cm, 기벽두께: 0.6~1.0cm

· 출토지: S3W2 그리드



〈그림 38〉 상충유구 출토유물

■ 백자대접 [그림 39-①, 사진 43-④]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은 곧으며,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굽은 낮은 오목굽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빙열이 있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8.7cm, 복원입지름: 15.5cm, 복원밑지름: 6.5cm, 기벽두께: 0.5~1.0cm

· 출토지: S1E2 청운당 앞

■ 청화백자대접 [그림 39-②, 사진 43-⑤]

½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직립이고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청화초엽문이 그려져 있다. 굽은 직립으로 낮으며, 기벽이 두껍다. 기면에는 유약에 담글 때 손가락으로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유약은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7cm, 복원입지름: 16cm, 복원밑지름: 7.4cm, 기벽두께: 0.7~1.2cm

· 출토지: 방지

■ 철화백자대접 [그림 39-③, 사진 44-①]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직립이고 내저곡면을 이루며, 외면에는 화엽문이 그려져 있다. 굽은 접지면으로 가면서 약간 벌어지고 기벽이 두텁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빙열이 있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8.9cm, 복원입지름: 13.6cm, 밑지름: 7.2cm, 기벽두께: 0.7~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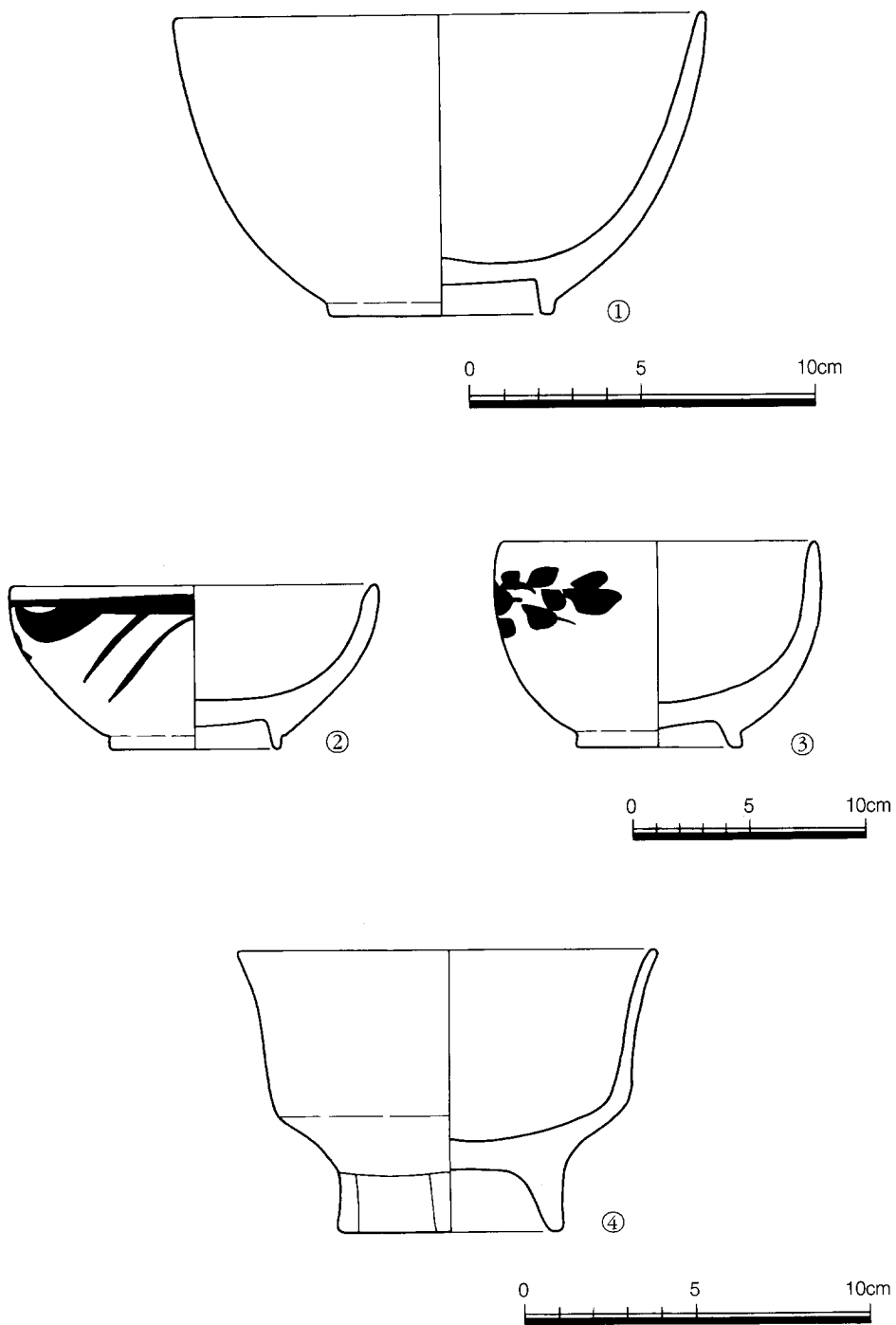
· 출토지: 방지

■ 백자굽대접 [그림 39-④, 사진 44-②]

칠각굽의 대접으로 동체부는 대부분 파실되었지만 도면 복원되었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고 동체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하단에서 급격히 꺾여져 굽으로 이어진다. 굽의 면썩기는 불규칙하고 조잡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연한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내저면에는 4곳에 굽은 모래받침을 깔고 접지면에는 세립의 모래받침을 깔고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8.2cm, 복원입지름: 12.2cm, 굽높이: 1.7cm, 밑지름: 6.6cm, 기벽두께: 0.3~0.6cm

· 출토지: S1E2 그리드



〈그림 39〉 상총유구 출토유물

(3) 백자잔

■ 백자잔 [그림 40-①, 사진 44-③]

구연은 직립이고 내저곡면을 이루며, 굽이 거의 없는 평저이다. 접지면은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
가 있으며, 그 안에 굵은 모래가 태토와 혼입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띠며, 담유
백색 유약을 시유했다. 소성은 기저면에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cm, 입지름: 7cm, 밑지름: 3.4cm, 기벽두께: 0.2~0.4cm

· 출토지: 중삼문지

■ 백자잔 [그림 40-②, 사진 44-④]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직립이고 굽은 삼각굽이며, 굽 안 중앙은 불룩하
게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곡면을 이루며, 내저면에 잡물이 군데군데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
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외면에는 유약에 담글 때 손가락으로 잡은 흔적이
남아 있다. 내외면에는 빙열이 보이며, 소성은 굵은 모래와 태토를 혼입하여 번조했다.

높이: 5.1cm, 복원입지름: 8.3cm, 밑지름: 4.6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중삼문지

■ 백자잔 [그림 40-③, 사진 44-⑤]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이 곧고 동체부 하단이 꺾여져 저부로 내려가며, 굽은
낮은 삼각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굽 안과 접지
면에는 모래를 깔고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높이: 4cm, 복원입지름: 6.6cm, 밑지름: 3.6cm, 기벽두께: 0.3~0.8cm

· 출토지: 배수로.

■ 백자잔 [그림 40-④, 사진 44-⑥]

½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것으로 구연은 약간 외반된 느낌을 주고 외면은 사선으로 내려
간다. 내저곡면이며, 굽은 낮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
다. 굵은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6cm, 복원입지름: 8.2cm, 밑지름: 3.3cm, 기벽두께: 0.4~1.0cm

· 출토지: S1W2 그리드

■ 백자잔 [그림 40-⑤, 사진 45-①]

구연은 곧게 직립하고 내저곡면을 이루는 잔으로 $\frac{1}{2}$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굽은 낮고 굽 상면에 음각선을 돌렸으며, 굽 안은 회전 굽짜기로 중앙이 돌출되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회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5cm, 복원입지름: 7.4cm, 밑지름: 4.2cm, 기벽두께: 0.4~1.1cm

· 출토지: S4W2 공방고지

■ 백자잔 [그림 40-⑥, 사진 45-②]

$\frac{1}{2}$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잔으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저곡면을 이루며, 굽이 없이 약간 들린 바닥을 보여준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바닥 전면에 굽은 모래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높이: 4.7cm, 복원입지름: 8.9cm, 밑지름: 5.1cm, 기벽두께: 0.3~1.0cm

· 출토지: N1W2 그리드

■ 백자잔 [그림 40-⑦, 사진 45-③]

구연은 직립이고 구연 내면 밑에는 물레성형에 의한 꺾임이 보이며, 내저곡면을 이룬다. 굽은 낮은 굽으로 회전 굽 짜기로 중앙부 돌출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 유가 시유되었다. 일부 빙열이 보이며, 모래와 태토를 혼입하여 번조했다.

높이: 6.1cm, 입지름: 8.2cm, 밑지름: 4cm, 기벽두께: 0.4~1.0cm

· 출토지: 책방지

■ 백자잔 [그림 40-⑧, 사진 45-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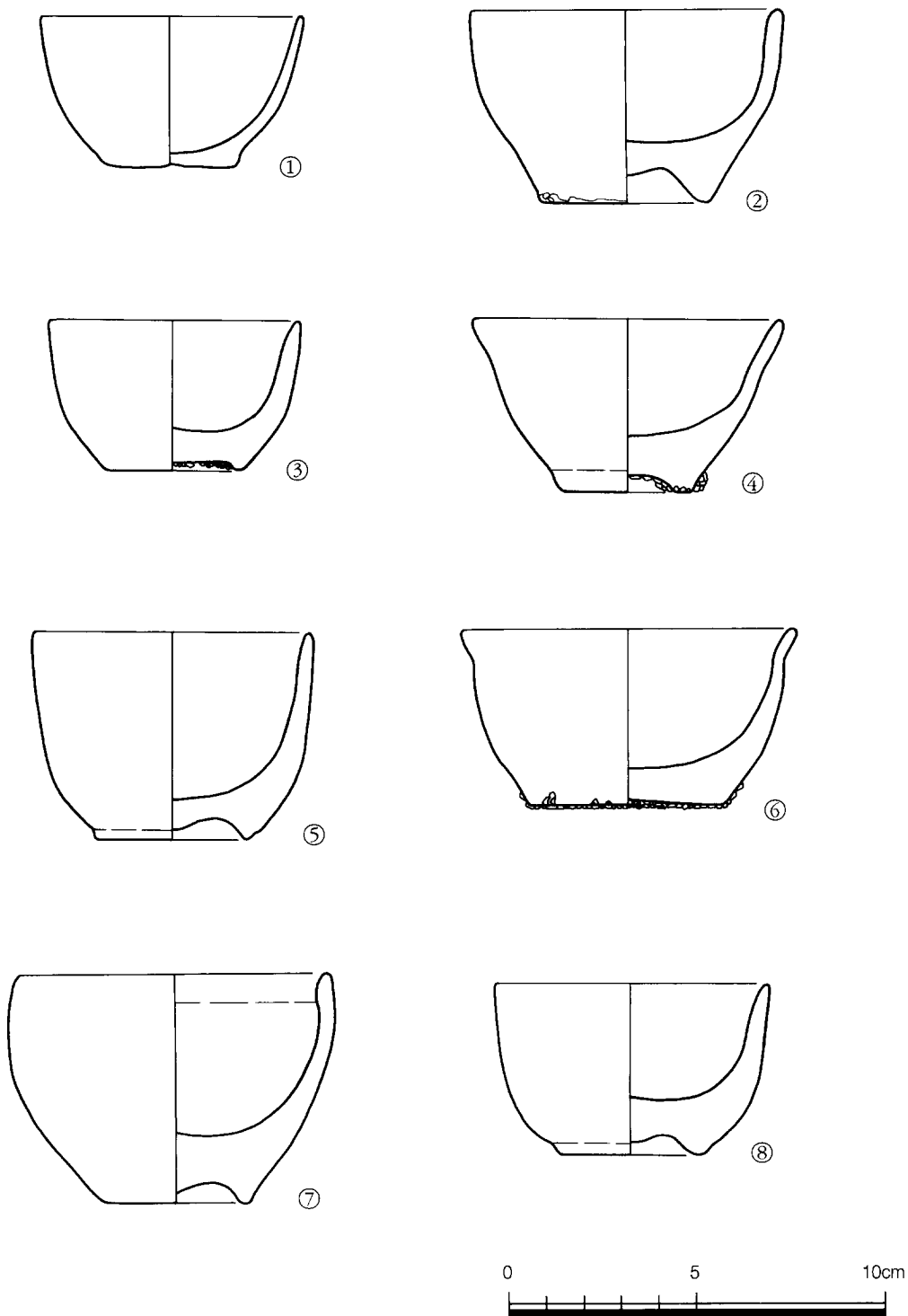
$\frac{1}{2}$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구연은 직립이며, 외면이 수직으로 내려오다 하단에서 곡선을 이루며 굽과 이어진다. 굽은 오목굽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6cm, 복원입지름: 7.3cm, 밑지름: 3.7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S1W2 그리드

■ 백자잔 [그림 41-①, 사진 45-⑤]

구연과 동체부 일부가 파실되었고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내저원각이 깊게 돌아간다. 동체 하단



〈그림 40〉 상충유구 출토유물

에서 급격히 꺾여져 저부로 이어진다. 기벽이 얇고 삼각 오목굽이며, 굽 안을 매끄럽게 다듬지 않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를 시유했다. 태토와 모래를 혼입하여 번조했다.

높이: 4.9cm, 입지름: 9cm, 밑지름: 3.8cm, 기벽두께: 0.2~0.4cm

· 출토지: 배수로

■ 백자굽잔 [그림 41-②, 사진 46-①]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파실되었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고 내저면에는 청화원문이 그려지고 그 안에 「福」자가 쓰여져 있다. 굽은 직립이고 외면에 8면을 깎아서 정면했으며, 굽 안은 원각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백색을 띠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빙열이 있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6cm, 복원입지름: 8.5cm, 굽높이: 1.8cm, 밑지름: 5.5cm, 기벽두께: 0.3~0.8cm

· 출토지: 중삼문지

(4) 백자병

■ 백자병 [그림 41-③, 사진 46-②]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일부 도면 복원했다. 목은 잘록하고 구연으로 가면서 외반되어 동체부 상단에서 약간 꺾여져 내려간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외면에는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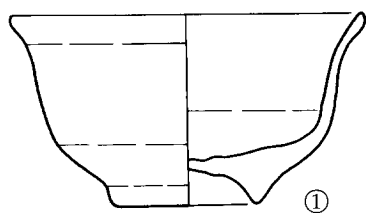
잔존높이: 7.5cm, 복원목지름: 3.2cm, 기벽두께: 0.5~0.6cm

· 출토지: 중삼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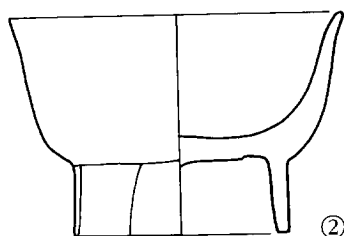
■ 백자병 [그림 41-④, 사진 46-③]

동체부 일부가 파실된 병으로 구연은 외반되고 목은 짧으며, 기벽이 상당히 두껍다. 내저면은 움푹 들어갔으며, 물레성형을 하였다. 외면에는 다른 기물이 붙었다가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 색조를 보이며,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내면 일부에는 유약이 발려 있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빙열이 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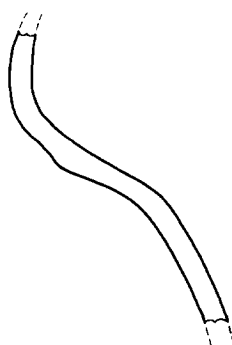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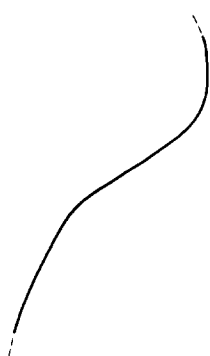
높이: 19.9cm, 입지름: 6.1cm, 목지름: 4cm, 몸통지름: 13.5cm, 밑지름: 6.8cm, 기벽두께: 0.6~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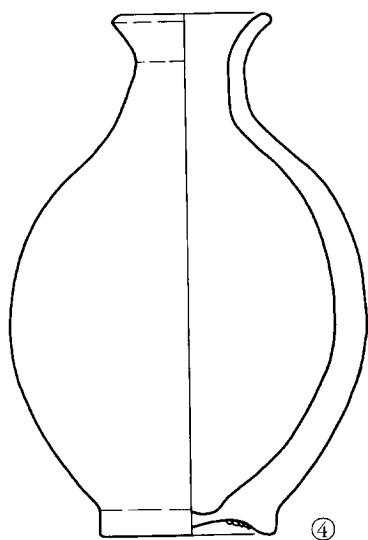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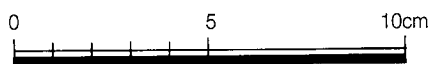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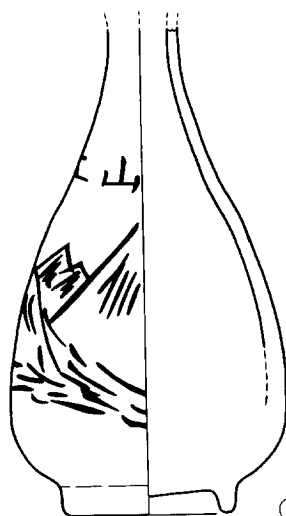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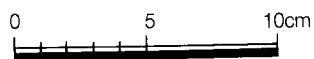
③



④



⑤



〈그림 41〉 상충유구 출토유물

· 출토지: 담장지

■ 분청자기음각문병 [그림 41-⑤, 사진 46-④]

구연이 파실된 병으로 외면에는 「江山」명과 산, 물, 포도, 국화문 등을 음각하였다. 전체적인 중심은 굽 쪽에 있어 안정감을 준다. 굽은 낮은 직립굽으로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색을 띠고 담청색유가 시유되었으며, 잔잔한 빙열이 있다. 열판 소성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18.6cm, 몸통지름: 10.5cm, 밑지름: 6.6cm, 기벽두께: 0.4~0.7cm

· 출토지: 방지

(5) 백자항아리

■ 백자항아리 [그림 42-①, 사진 47-①]

½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단지로 구연은 말린 듯 외반되고 배가 부르다. 외면에는 유약에 담그면서 생긴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으며, 저부는 잔존하지 않아 굽의 형태를 알 수 없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청색 투명유가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잔잔한 빙열이 있다.

잔존높이: 10.4cm, 복원입지름: 9.7cm, 굽높이: 2.3cm, 복원몸통지름: 14.9cm, 기벽두께: 0.4~0.9cm

· 출토지: 공방지

■ 백자항아리 [그림 42-②, 사진 47-②]

갈색 색조를 띠는 항아리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외반되었고 입술면은 뽕족하다. 외면과 구연부 내면에는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는데, 고르지 못하고 뭉쳐서 흐른 곳이 보이며, 빙열이 있다. 성형은 윤적기법으로 하였다.

잔존높이: 5.8cm, 복원입지름: 11.7cm, 복원목지름: 10.5cm, 기벽두께: 0.7cm

· 출토지: 보도 1.

■ 백자항아리 [그림 42-③, 사진 47-③]

용도불명의 항아리 저부편으로 구연과 동체부가 파실되었다. 굽은 원형으로 바닥은 평저며, 동체와 굽의 경계부분은 깎기 수법으로 다듬었다. 동체로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며, 윤적기법으로 성형되었다. 굽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녹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외면에는 소성시 잡물이 붙어

원래 손잡이가 달렸다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황갈색을 띠며, 모래반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10.6cm, 밑지름: 9cm, 기벽두께: 1.0~1.5cm

· 출토지: S1W2 그리드

3) 陶器類

■ 도기구연부 [그림 42-④, 사진 47-④]

기형을 알 수 없는 적갈색 경질 도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완전히 바라졌고 구연 외측면은 물결 무늬로 돌출 시켰으며, 물결문양 밑에는 손가락의 지문자국이 남아 있다. 물레성형을 하였고 기벽이 얇으며, 정선된 태토를 사용했다.

잔존높이: 6.8cm, 기벽두께: 0.4cm

· 출토지: S1 0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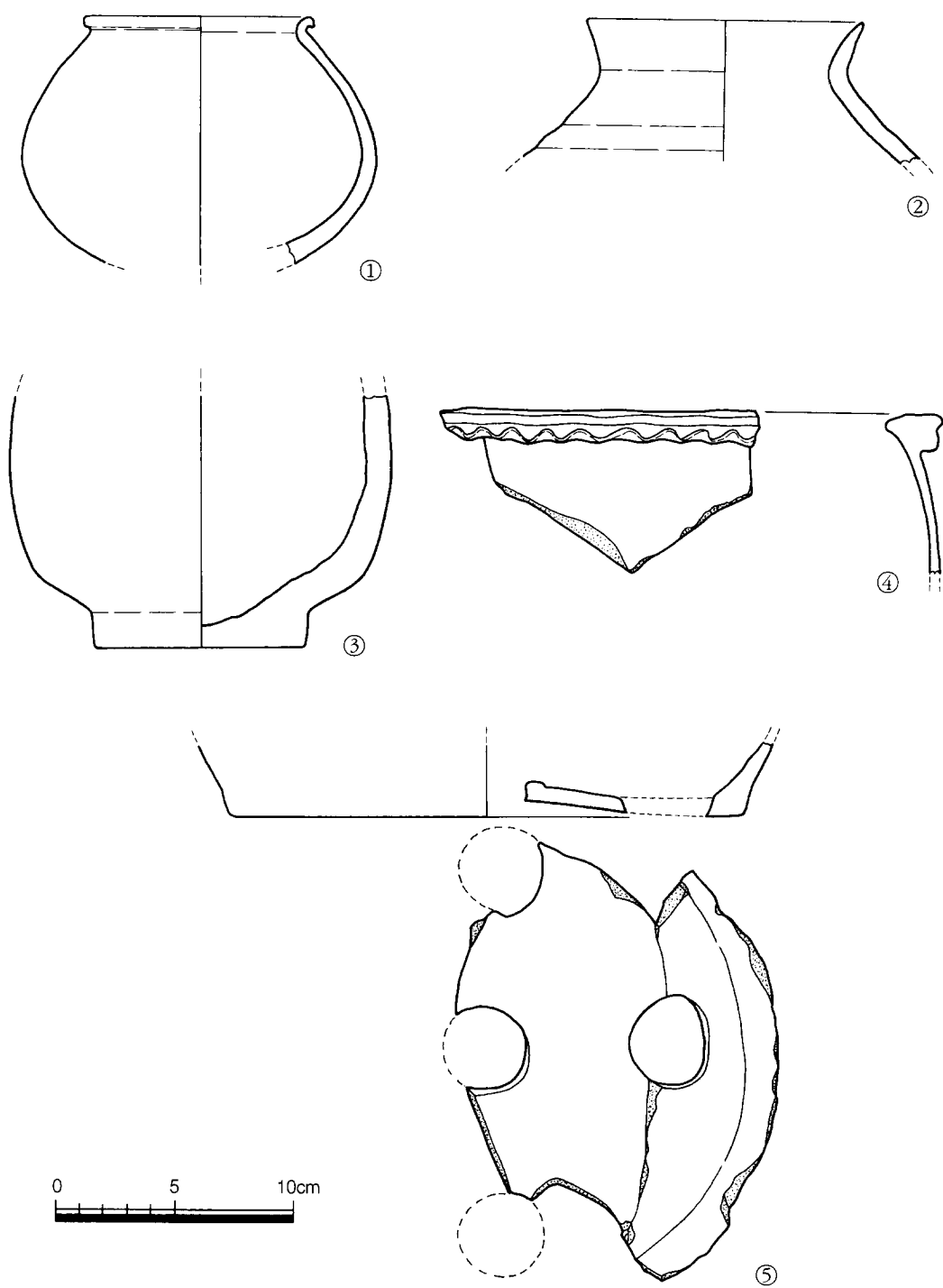
■ 도기시루저부 [그림 42-⑤, 사진 47-⑤]

흑회색 경질도기 시루의 바닥편이다. 바닥이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결과 바닥에는 중앙의 원형구멍을 중심으로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배치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구멍은 안에서 바깥으로 뚫었다. 태토는 흑회색 색조를 띠며, 물레성형을 하였다.

잔존높이: 3.1cm, 복원밑지름: 21.6cm, 기벽두께: 0.4cm

· 출토지: S2E2 그리드

윤석인



〈그림 42〉 상충유구 출토유물

4) 貨幣類

화폐는 중국 청나라 고종때(1736~1796)의 화폐인 乾隆通寶 1점과 상평통보 12점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별로 보면 공방고에서 중국화폐인 건륭통보 1점, 책방에서는 고종때 주조된 상평통보 당오전 2점이 출토되었고, 보도 1에서 상평통보 2점이 출토되었다.

표 1. 강원감영지 출토 화폐목록

번호	화폐명	출토위치	특징	크기			사진
				직경 (cm)	두께 (cm)	무게 (g)	
1	乾隆通寶	S4W2(공방고)	淸(고종-1736~1796), 상태양호	2.4	0.25	4	48-①
2	常平通寶	S3W2 Tr.	戶三-戶曹에서 주조, 左部日標, 하부 숫자순 상태양호	2.4	0.25	4	48-②
3	常平通寶	S1E2 Tr.	戶日-戶曹에서 주조, 하부 천자문순, 청동녹이 심한 상태	3.1	0.3	6	48-③
4	常平通寶	S1W2 Tr.	當一錢, 惠三-宣惠廳(순조6년(1806)에서 주조, 하부 숫자순, 청동녹이 있으나 판독가능	2.4	0.3	4	48-④
5	常平通寶	S1W2 Tr.	當一錢(순조 6년(1806), 惠一-宣惠廳에서 주조, 하부 숫자순, 청동녹 약간	2.4	0.25	4	48-⑤
6	常平通寶	S4E3(보도1)	□八, 청동녹 약간	2.4	0.3	4	48-⑥
7	常平通寶	S4E3(보도1)	五□天-하부천자문순, 청동녹 약간	2.4	0.25	4	48-⑦
8	常平通寶	N1W2 Tr	□寒-하부천자문순, 청동녹약간	2.9	0.3	6	48-⑧
9	常平通寶	N1W2 Tr	청동녹이 심한 상태로 판독 불가능함	2.9	0.3	6	49-①
10	常平通寶	N1E1(책방)	當五錢(고종(1883~1894), 當五均□ -均役廳에서 주조	3.2	0.3	8	49-②
11	常平通寶	N1E1(책방)	當五錢當五□荒-하부천자문순	3.2	0.3	8	49-③
12	常平通寶	N1W2 Tr	當五錢, □五□□	3.2	0.3	8	49-④
13	常平通寶	N2W2 Tr	當五錢, 當五□三, 청동녹이 약간 있으나 판독가능함	3.2	0.3	8	49-⑤

박영구

2. 下層遺構 出土遺物

1) 瓦塼類

(1) 명문 기와

■ 「𠂔」+ 梵字文 銘 암키와 [그림 43-①, 사진 50-①]

선화당 앞 서편의 하층유구에서 출토된 암키와로, 하단의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외면에는 한 줄의 종선으로 구획된 폭 5.5cm의 공간 내에 지름 약 6cm 원곽을 두르고 梵字를 명문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이중의 작은 방곽을 마련하여 4.1cm×4.1cm의 '𠂔' 자를 넣었다. 하단의 2.5cm 공간은 무문상태로 남겨 횡방향의 빗질과 물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1cm 내에 7울 및 8울로 구성된 비교적 굽고 성근 포흔이 보이며, 0.7cm 두께의 띠매듭흔이 뚜렷이 보이는데 얇은 두 줄을 고르게 꼬은 형태이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아주 얇게 그어 자국만 낸 뒤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매우 정선되었으며,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1

· 현존크기 : 13.3cm×11.4cm 두께 : 2.4cm

■ 「官?…」銘 암키와 [그림 43-②, 사진 5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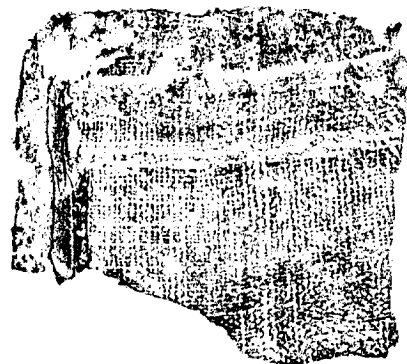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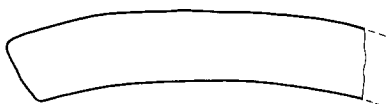
상단의 한쪽 모서리 일부만 남은 상태의 암키와이다.

등문양은 사선문을 장식한 아래에 '官...' 자를 양각한 폭 4.8cm의 시문구를 기와의 종방향으로 반복시문하였다. 시문구의 표면과 두께가 고르지 않아 시문높이가 불규칙하다. '官' 자 아래에는 기와의 파실로 인하여 약 1/2 정도만 남은 글자가 있는데, '白' 자로 추정되며 '自' 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단의 끝은 빗질로 다듬어져 있으며, 일부분에는 내면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아주 조밀한 포흔 자국이 있는데 의도적인 시문은 아닌 듯하다. 내부에는 1cm 내에 7울 및 8울로 구성된 비교적 굽고 성근 포흔이 남아있으며, 상단에는 0.8cm 두께의 띠매듭흔이 보이는데 그 꼬임과 두께가 불규칙하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가량 그은 후 이등분하였는데, 와도흔이 불규칙하게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 나누어 와도질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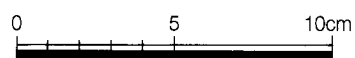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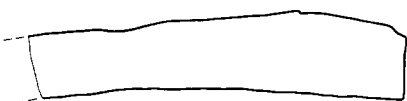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①



②



〈그림 43〉 하층유구 출토유물

- 출 토 지 : 하층유구 1
- 현존크기 : 12cm×1.6cm 두께 : 2.3cm

(2) 막새 기와

■ 회안문 막새 [그림 44-①, 사진 50-③]

토층 작업 도중 '흑갈색 점토+숫층' 에서 노출된 막새의 드림새편으로 심하게 파실·마모되어 그 정확한 종류 및 용도를 알 수 없다.

드림새에는 둥근 테두리를 한 줄 두른 후, 그 중앙에 반구형을 높이 돌출시킨 회안문을 의장하였다. 현재 남은 부분으로 추정해볼 때, 주변에 다른 종류의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순수 회안문 막새인 듯 하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정선된 편이며,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흑갈색 점토+숫층' (S1·W3 그리드)
- 반구지름 : 4cm 반구높이 : 1cm 원권지름 : 6cm 원권두께 :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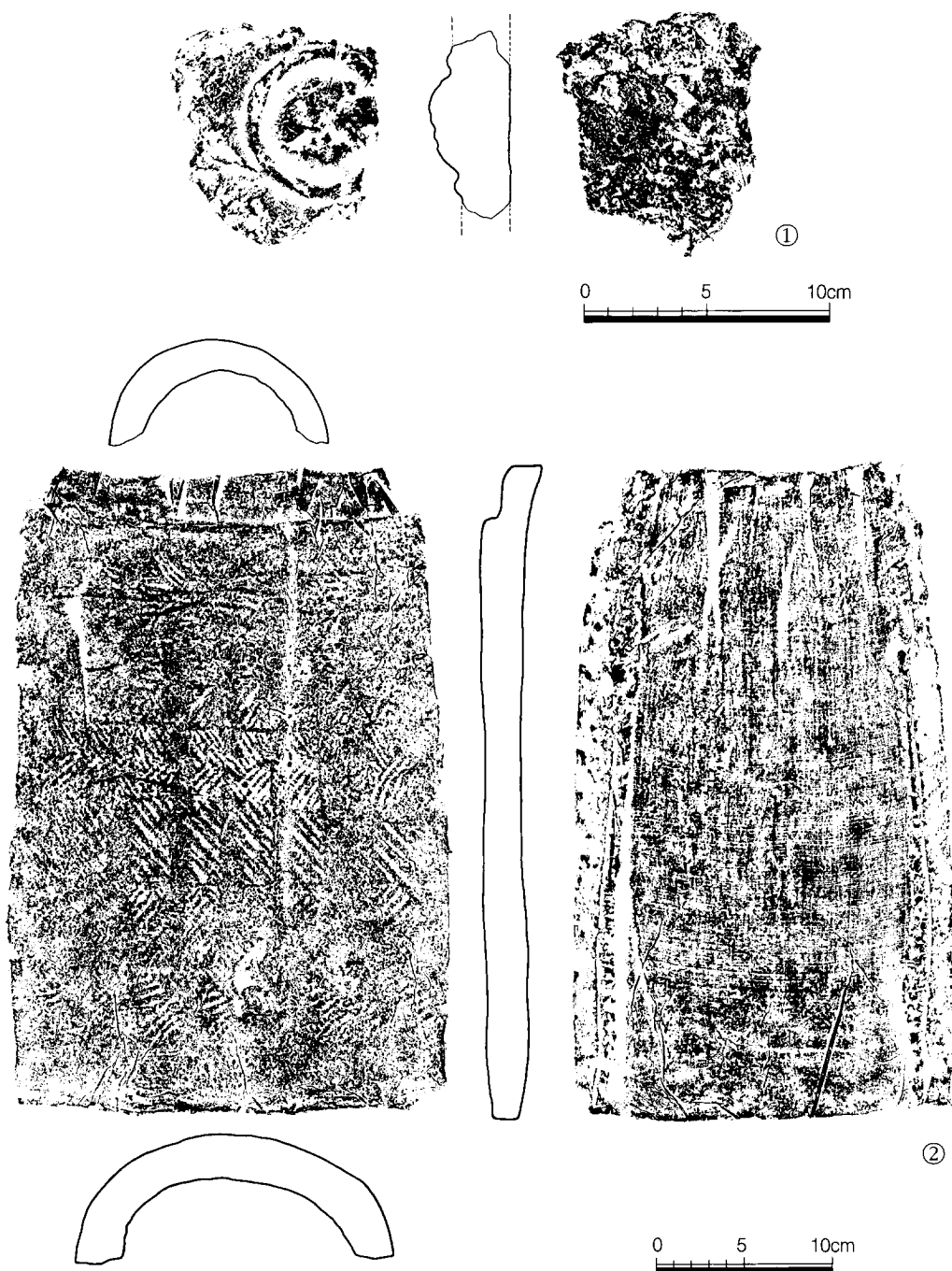
(3) 수키와

■ 집선문 미구수키와 [그림 44-②, 사진 50-④]

완전한 상태의 수키와로, 미구는 긴 편이며 미구 상단면은 평평하다.

등 문양은 정면과 마모로 인하여 그 시문방식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골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방향을 바꾸며 시문되면서 십자선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겹의 방곽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에는 1cm 내에 12울 12울로 구성된 비교적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하단부의 약 7cm 위까지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와통이 좁아지는 미구부분에는 포목이 겹쳐져 뭉친 자국이 보인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하였으나 다른 수키와에 비해 그 경사도가 작은 편이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상단의 1/3부분까지)~1/3(1/3 아래 부분) 가량 그은 후 이등분하였는데, 미구에서 약 1/3부분까지 먼저 와도질한 후 다시 그 아래부분을 나누어 그은 것으로 여겨진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그림 44〉 하층유구 출토유물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길이 : 38cm 너비 : 18.2cm 두께 : 2~2.5cm(하단두께 : 0.8cm) 미구길이 : 3cm

■ 반원집선문 미구수키와 [그림 45-①, 사진 50-⑤]

미구와 하단의 일부가 파실된 상태의 수키와로, 미구는 짧은 편이다.

등 문양은 종방향으로 연결된 폭 5cm의 반원집선문을 기와의 횡방향으로 반복시문하였으나 그 간격이 불규칙하다. 시문 후 기와의 상단은 빗질과 물질로 정면하였고, 하단의 6cm 가량은 시문하지 않고 종방향의 물손질로 다듬었다. 내면은 거칠게 다듬어져 있으며, 양 측면을 비롯한 일부분은 진흙을 덧붙인 흔적이 남아있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한 뒤 진흙을 고르게 덧붙여 종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약 1/2 정도 얇게 그은 후 이등분하였으나, 그 두께가 불규칙한 편이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1

· 길이 : 34cm 너비 : 15cm 두께 : 2.2~2.5cm(하단두께:1.3cm) 미구길이 : 1.5cm

■ 집선문 수키와 [그림 45-②, 사진 5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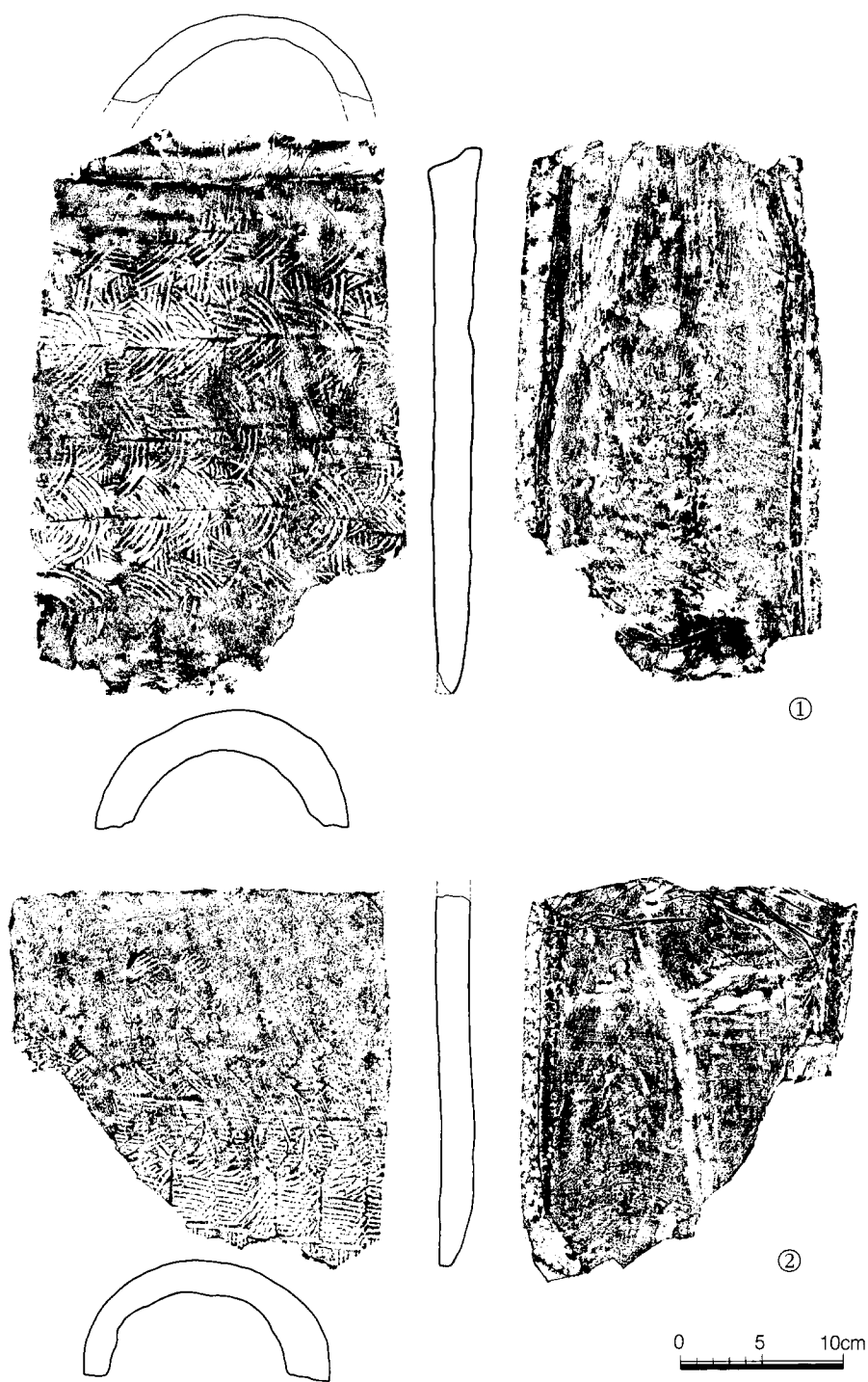
상단부가 파실되어 전체의 1/2정도만 남은 수키와이다.

등문양은 약 4.5cm 간격의 횡선문 사이사이에 짧은 선을 여러방향으로 집선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다섯 잎의 단풍잎 문양을 횡방향으로 반복 시문하였다. 그러나 표면의 많은 부분이 시문 후 빗질로 다듬어져 그 모습이 희미하다. 내면에는 1cm 내에 9을 및 10을로 구성된 가는 포흔과 함께 와통에서 분리시 생긴 횡종선의 굵고 깊은 홈이 보인다. 내면 하단은 경사지며, 하단면에는 안쪽 모서리를 와도로 깎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양 측면은 그 두께가 일정치 않으나, 양면 모두 1/2 가량의 와도 분활면이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며, 기와등에는 지붕에 얹혀졌을 때 솟아나는 부분만, 각 양쪽 끝의 4.5cm씩을 제외한 면에 투명유를 두껍게 시유하였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현존크기 : 24.6cm×14.8cm 너비 : 14.8cm 두께 : 2cm



〈그림 45〉하층유구 출토유물

■ 수파문 수키와 [그림 46-①, 사진 51-②]

상단 및 하단이 파실되어, 전체의 1/2 정도만 남은 수키와이다.

등 문양은 넓고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는 폭 7cm의 반타원형 기본 형식을 반복시문한 수파문으로, 그 상단에는 종선문을 연결하였으나 물손질로 정면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1cm² 내에 8울 및 8울로 구성된 비교적 굵고 성근 포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또한 측면과 중앙에는 종방향으로 길게 파인 자국이 보이는데, 이 자국에도 포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손질이나 잘못된 성형에 의해서가 아닌 와통의 거친 표면 내지는 와쪽의 자국으로 여겨진다. 분할 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 가량 한번에 얇게 그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매우 정선되었으며, 적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1

· 현존크기 : 22cm×13cm 두께 : 2.6cm

■ 선문 수키와 [그림 46-②, 사진 51-③]

한쪽 측면을 중심으로 일부분만 남은 상태의 수키와이다.

등 문양은 0.2cm 내외 두께의 종선이 약 0.3cm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과 마모로 인하여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빗질과 물질로 정면되어 있으며, 약 3cm 간격의 종선이 보이는데 성형시 와통쪽이 찍힌 자국으로 추정된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그은 1/3 가량의 와도분할면이 뚜렷이 남아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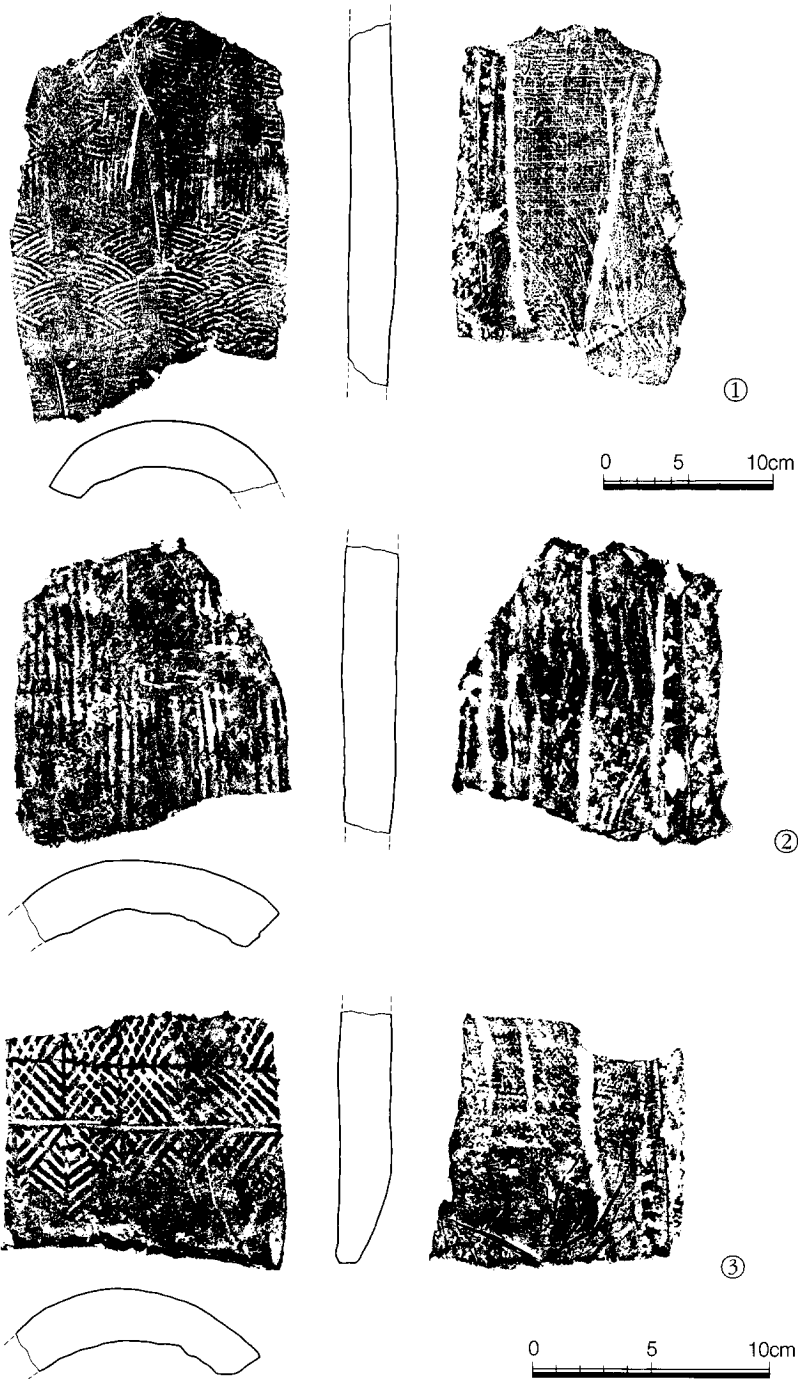
· 출 토 지 : 담장지 3

· 현존크기 : 10.8cm×12.9cm 두께 : 2.3cm

■ 집선문 수키와 [그림 46-③, 사진 51-④]

하단의 한쪽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만 남아 있는 수키와이다.

등 문양은 폭 5.2cm의 시문단위 내에 어골문의 상하를 바꾸어 번갈아 채워넣음으로써, 십자선을 중심으로 집선되어 5겹의 마름모꼴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형식으로 하고 있다. 어골문은 양 가지의 일부분이 서로 겹쳐져 마름모꼴 사이사이의 공간은 사격자문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문양 양식은 어골문양의 한 변형으로 여겨진다. 시문은 하단부 끝까지 이루어졌으나, 하단의 약 2cm정도는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져 흔적만 남아있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1cm² 내에 5울 및 6울



〈그림 46〉 하층유구 출토유물

로 엮여져있어 비교적 굵고 성긴 편이다. 성형시 와통 표면에서 찍혀 생긴 듯한 깊게 파인 종선을 정면하기 위하여 빗질한 흔적이 보인다. 하단은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2 가량 그은 후 이동분 하였으며, 와도질의 경사도로 보아 하단에서 미구방향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투명유를 두껍게 시유하였으나, 불규칙한 소성으로 일부분이 변색되었다.

· 출 토 지 : 담장지 3

· 현존크기 : 10.6cm×11.1cm 두께 : 2.2cm(하단두께 : 1.1cm)

(4) 암키와

■ 복합문 (어골문+동심원문+어골문+집선문+어골문)암키와 [그림 47-①, 사진 51-⑤]

완전한 상태의 암키와이다.

등문양은 어골문이 주를 이루는데, 가지를 뺀어올린 어골문·중심축의 양쪽으로 7겹의 선을 맞닿아 그은 '동심원'·가지를 뺀어내린 '어골문'·7×7cm의 방곽을 X자의 4면으로 나누고 각각 마주보는 형태로 선방향을 바꾸어 시문한 '집선문'·가지를 뺀어내린 '어골문'을 한 조로 연결하여 상단에서 하단의 방향으로 시문하였다. 하단의 8cm 정도는 시문하지 않았다. 폭 7cm·길이 35.5cm 내외 크기의 시문구는 그 면이 거칠고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시문 높이가 불규칙하며 반복 시문한 경계에는 두꺼운 자국이 솟아있다. 시문구로 도드라진 부분과 상·하단에는 물손질 흔적이 뚜렷이 보이며, 문양 시문 부분에도 지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표면 손질이 많았으며 그만큼 제작에 공을 들인 기와임을 알 수 있다. 상단의 면이 시작되는 모서리에는 진흙을 고르게 덧붙여 다듬었다. 내면에는 1cm 내에 9울 및 9울로 구성된 비교적 가늘고 조밀한 포흔이 뚜렷이 남아있으며, 하단부의 4cm 위까지만 나타난다. 상단에서 11.2cm 내려온 지점에는 0.8cm 두께로 고르게 꼬은 한 줄의 실매듭흔이 보인다. 하단은 약간 경사지며 정면되었다. 와도분활면은 안에서 밖으로 1/2 ~ 1/3 정도로 한번에 그었는데, 그 두께 차이로 볼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정선된 편이며,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길이 : 39.3cm 너비 : 28.3cm 두께 : 1.9~2.5cm

■ 방곽문 암키와 [그림 47-②, 사진 52-①]

한쪽 측면 중심의 일부만 남은 암키와로, 외면의 문양은 상하의 2.5cm 길이의 종선문 사이에 횡방향으로 반복되는 겹방곽문을 2단으로 시문하였다. 각 단 방곽문의 모습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대 4.7×5.5cm 크기의 방곽문을 5겹으로 마련하고, 가운데 방곽은 종선으로 채워넣었다. 내면에는 1cm 내에 7울 및 8울로 엮어진 굵고 성긴 포흔이 일부 남아있으며, 사선의 빗질과 물질로 정면되었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3 가량 한번에 그은 후, 이등분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백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현존크기 : 17cm×17.6cm 두께 : 2.5~3.1cm

■ 집선문 암키와 [그림 47-③, 사진 52-②]

상단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의 암키와로, 외면 문양의 기본 형식은 길이 4.9cm · 두께 0.3cm의 중심가지에서 좌우 3.5cm 간격으로 뻗어내린 두께 0.3cm · 간격 0.15cm의 어골문으로, 그 기본 시문단위는 폭 5cm의 간격마다 상하와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 시문됨으로써 십자축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방곽을 형성하였다. 어골문의 가지는 횡방향으로 간격을 두어 서로 겹침이 없다. 내면에는 1cm 내에 7울 및 7울의 굵고 성긴 포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상단부에서 11cm 내려온 지점에는 얇은 줄을 꼬은 실매듭흔이 0.3~0.4cm 두께로 보인다. 분활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4가량 얇게 한번에 그은 후 이등분하였는데, 분활면은 매우 균일하다. 또 종방향으로 곧게 파인 자국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포흔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형 및 와도분활 후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손질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매우 정선되었고,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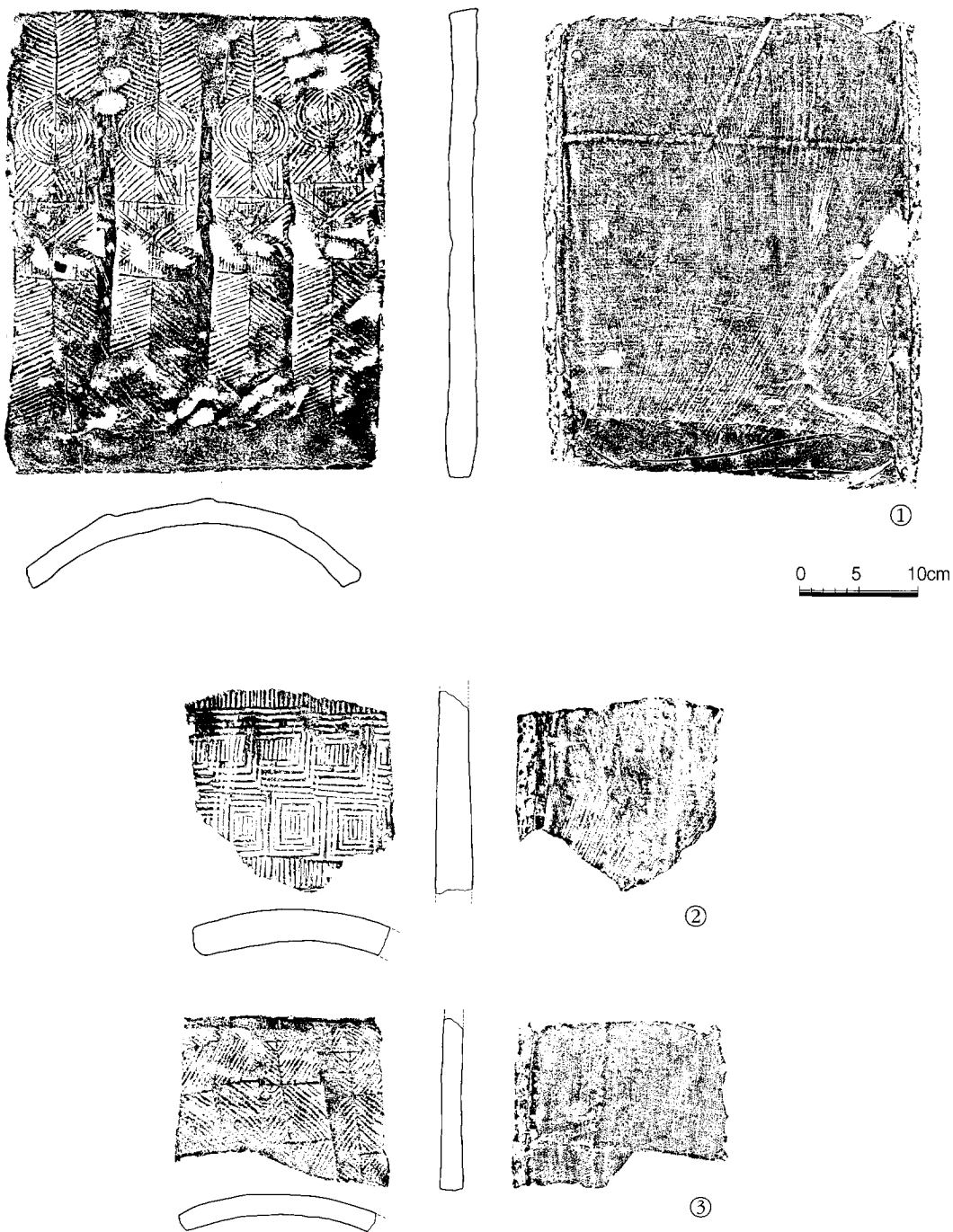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현존크기 : 17.5cm×14.6cm 두께 : 1.8cm

■ 어골문 암키와 [그림 48-①, 사진 52-③]

순수 어골문 암키와로, 상단부를 중심으로 일부만 남고 파실된 상태이다.

외면에는 폭 7cm 내외의 어골문을 횡방향으로 연속 시문하였으나, 전반적인 시문방식을 알기는 어렵다. 어골문은 두께 0.3cm의 중심뿔을 두고 두께 0.2~0.3cm의 가지뿔들이 0.3cm 간격의 사선 방향으로 뻗어 올라간 형태이다. 상단부의 3.5cm 구간은 시문하지 않았다. 내면에는 두 종류의 포



〈그림 47〉 하층유구 출토유물

흔이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1cm² 내에 5울 및 7울로 엮어진 것과 7울 및 9울로 엮어진 것 두 종류로 그 조밀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굵고 성긴 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빗질과 마멸로 인하여 포흔이 지워진 상태이므로 다른 종류의 포목간 연결상태는 알 수 없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1/2 가량 얇게 그어 이등분한 와도분활면이 남아있으며, 상단부의 면은 한번에 자른 후 정면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현존크기 : 15.7cm×15.5cm 두께 : 0.7cm

■ 어골문 암키와 [그림 48-②, 사진 52-④]

순수 어골문 암키와로, 파실되어 상단부를 중심으로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외면에는 폭 7cm 내외의 어골문을 연속적으로 시문하였는데, 어골문의 형태와 시문방법은 함께 출토된 다른 어골문 암키와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두 기와의 현존 상태에 남은 문양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주 시문단위는 어골문을 두 번 겹쳐찍는 형식으로, 약 0.5cm의 간격을 두고 반복 시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은 불규칙한 소성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표면을 정면하기 위한 흔적으로 인하여 포흔을 확인할 수 없으며, 측면 역시 파손되어 분활면을 찾을 수 없다. 상단부의 면은 한 번에 자른 후, 정면하였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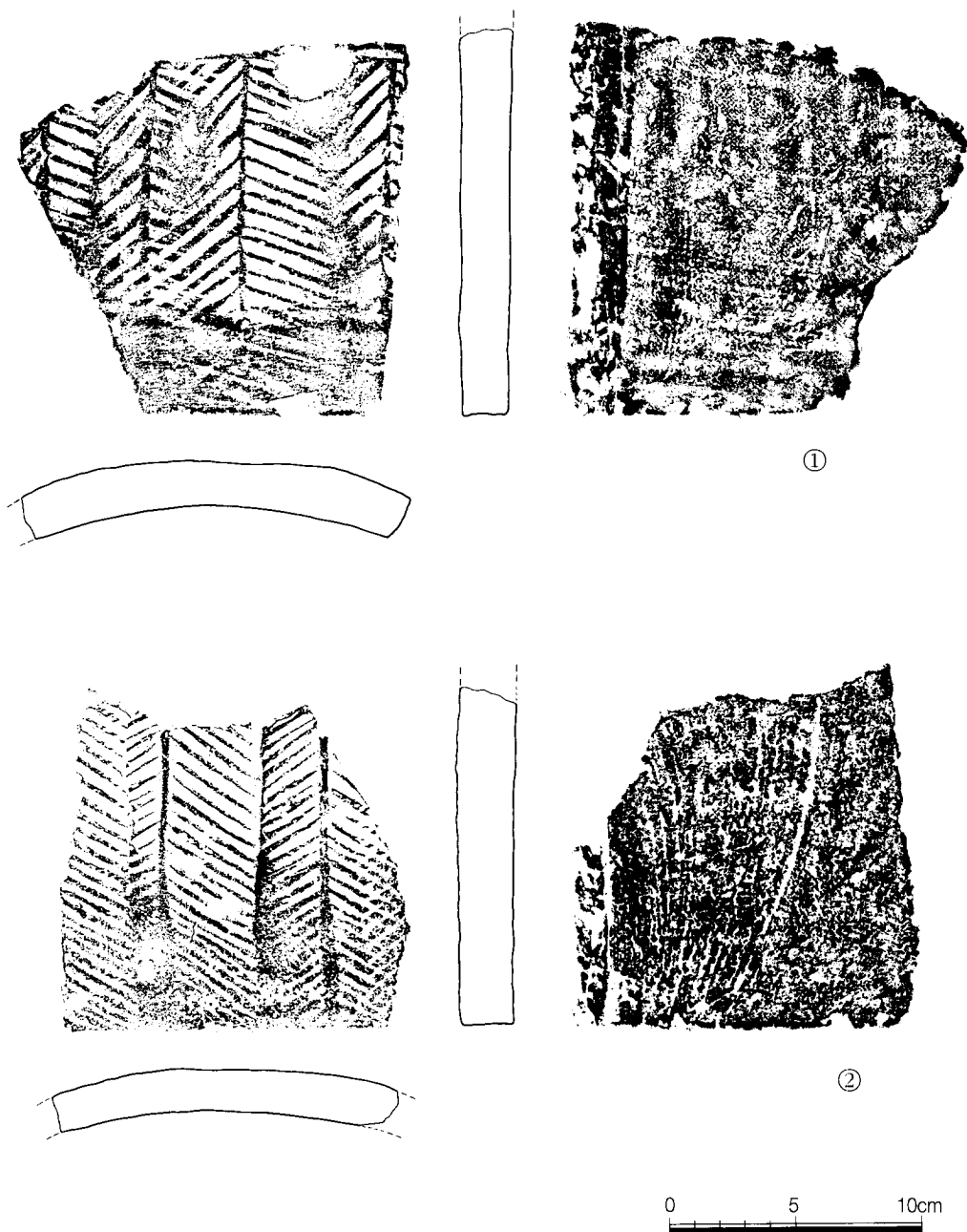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 현존크기 : 14cm×14.3cm 두께 : 1.5cm

■ 복합문(방곽문+중선문+어골문) 암키와 [그림 49-①, 사진 52-⑤]

많은 부분이 파실되어 일부만 남은 상태의 기와편으로, 두께 및 양 면의 휘어진 정도로 미루어보아 암키와로 추정된다.

등 문양은 4cm 간격으로 겹쳐진 최대 4.7cm×5.5cm 크기의 5겹 방곽문을 횡방향으로 반복시문한 아래에, 약 2cm 길이의 중선문을 연결한 모습이다. 또한 그 아래에는 사선방향 어골문의 좌우를 바꾸어 시문하는 형식으로 마감하였으나 그 간격과 폭은 일정치 않다. 하단부로 여겨지는 가장 아래쪽에는 1cm² 내에 10울 및 13울로 엮어진 포흔이 찍혀있는데 의도적인 시문갈지는 않으며 내면의 포흔과도 차이가 있다. 내면에는 1cm² 내에 7울 및 9울로 엮어진 굵고 성긴 포흔이 뚜렷이 보인다. 사



〈그림 48〉 하총유구 출토유물

방의 면이 파실되어 분할방법이나 하단처리 방법을 알 수 없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청색의 경질기와이다.

· 출 토 지 : 담장지 3

· 현존크기 : 11.7cm × 14.6cm 두께 : 2.2~2.7cm

■ 복합문(사선문+종선문) 암키와 [그림 49-②, 사진 52-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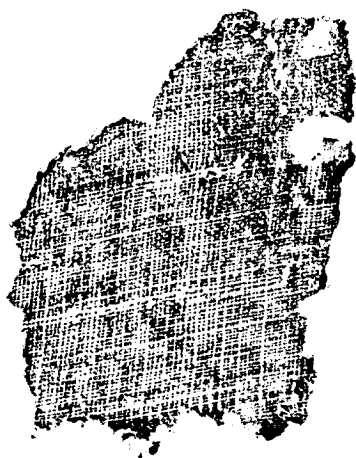
선화당 앞 서편 하층유구에서 출토된 암키와로, 상단의 한쪽 모서리 중심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외면의 주문양은 사선문과 종선문의 복합형식으로, 상단의 3.5cm 까지는 두께 0.05cm · 0.15cm 간격의 가는 사선문이, 그 아래에는 두께 0.2cm · 0.2cm 간격의 종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폭 3.5cm의 시문단위는 2cm 간격을 두고 횡방향으로 반복된다. 내면에는 1cm 내에 8을 및 8을로 구성된 비교적 굵고 성근 포흔이 뚜렷이 남아있으며, 상단에서 5.2cm 내려온 지점에는 0.3cm 두께의 실 매듭흔이 보이는데 두 줄의 가는 끈을 고르게 꼬은 상태이다. 분할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1/9 정도로 아주 얇게 그어 자국만 낸 뒤 이등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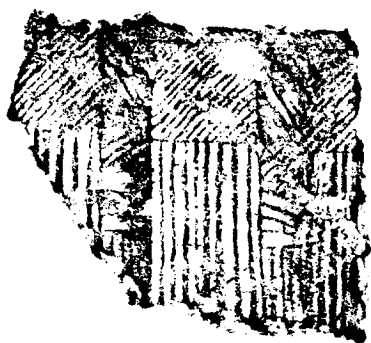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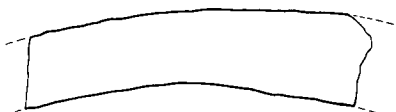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매우 정선되었으며, 회백색의 경질기과이다.

· 출 토 지 : 하층유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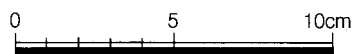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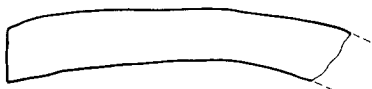
· 현존크기 : 10.8cm × 10.2cm 두께 : 1.8cm



①



②



〈그림 49〉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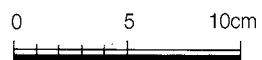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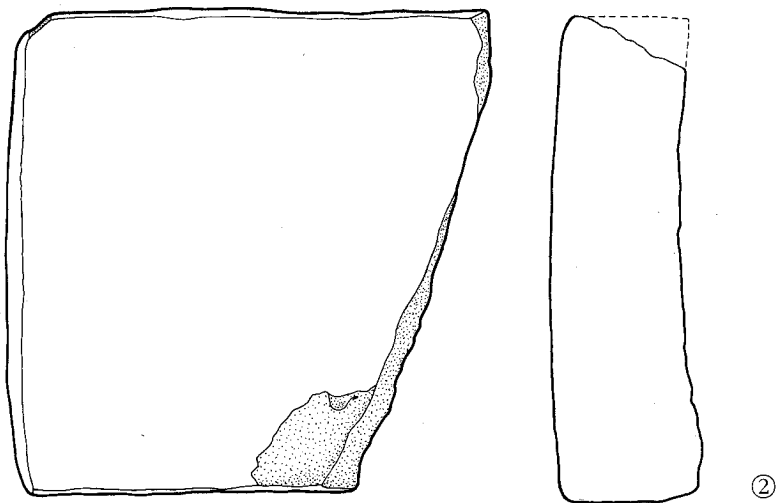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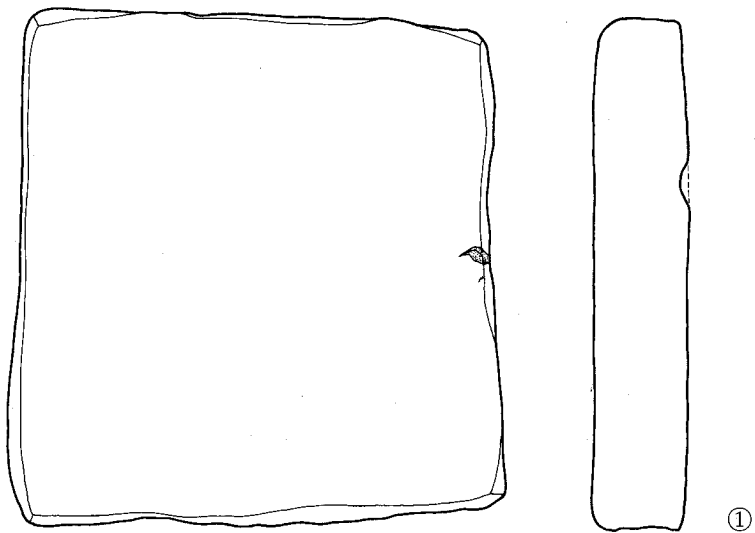
(5) 전

발굴조사 지역에서 출토된 전은 모두 無紋의 토제 전으로, 하층유구에서 2점 · 상층유구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전에 대한 설명은 표2와 같다.

표 2. 강원감영지 출토 전 목록

	유물명	출토지	크 기	태 토	특 징	그림	사진
상 층	무문전	내아 주변 조사지역 (S1 · E2 그리드)	현존크기: 17.2×16.8 두께: 5.9	가는석립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위아래면 모두 각짐 * 한쪽면만 정면됨	31-①	53-①
	무문전	내아 주변 조사지역 (S1 · E2 그리드)	현존크기: 14.2×18.4 두께: 4.2	굵고가는석립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위아래면 모두 각짐 * 한쪽면만 정면됨	31-②	53-②
	무문전	보도 2 (S1 · W1 그리드)	현존크기: 14.8×13.9 두께: 5.6	굵고가는석립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위아래면 모두 각짐 * 한쪽면만 정면됨	31-③	53-③
하 층	무문전	담장지 1 (S2 · E1 그리드)	가로: 21.8 세로: 23 두께: 4.1	정선된 편 가는석립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아래면은 전틀에 찍혀 각진 모양, 윗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손질됨	50-①	53-④
	무문전	담장지 2 (S2 · W1 그리드)	길이: 21.4 현존너비: 20.8 두께: 6	정선된 편 가는석립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아래면은 전틀에 찍혀 각진 모양, 윗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손질됨 * 아랫면에 1cm 내 7×9울의 굵고 성근 포흔	50-②	53-⑤

최영희



〈그림 50〉 하층유구 출토유물

2) 磁器類

(1) 분청사기

■ 분청사기상감국화문접시〔그림 51-①, 사진 54-①〕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편으로 내저면 중앙에는 원문과 국화문양이 있고 국화문과 연결되어 흑백 상감의 잎문양이 시문되었으며, 외면은 무문양이다. 굽은 삼각 굽에 가깝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으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적으로 담회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고 광택이 나며, 빙열이 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2.2cm, 복원밑지름: 6cm, 기벽두께: 0.8cm

· 출토지: 하층유구 2

■ 분청사기인화문접시〔그림 51-②, 사진 54-②〕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편으로 문양은 내면의 경우, 내저면 중앙의 국화문을 중심으로 우점문을 가득 압인하고 다시 주위에 나비문을 돌렸다. 외면에는 굽 둘레에 「ㄴ」 무늬대를, 동체하부에는 원문과 연관문양이 있다. 굽은 직립이고 굽 안을 반듯하게 깎았으며, 중앙에는 음각된 한자가 희미하게 보이나 파악할 수 없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적으로 회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한 후 접지면을 갈아서 다듬었다.

잔존높이: 2.4cm, 복원밑지름: 6cm, 기벽두께: 0.6~0.7cm

· 출토지: 하층유구 4

■ 분청사기인화문접시〔그림 51-③, 사진 54-③〕

분청사기 접시 저부편으로 동체부와 구연부는 파실되어 기형은 알 수 없다.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내저면에는 국화문과 원문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내외면이 흑회색을 띠고 속심이 암갈색을 보이며, 회청색유를 시유했다.

잔존높이: 2.6cm, 밑지름: 5cm

· 출토지: 건물지 1

■ 분청사기인화문접시 [그림 51-④, 사진 54-④]

분청사기 접시 저부편으로 굽은 직립이며, 기벽은 완만하게 바라져 내저면이 반듯하고 넓다. 문양은 외면의 경우 2줄의 원문을 돌린 위에 인화문을 넣었다. 내면에는 3단의 시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은 2줄의 원문으로 구획하였으며, 중앙에는 국화문을 중심으로 점렬문 등을 압인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고, 내외면에는 전체적으로 담회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성형은 물레성형을 하였고,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3.1cm, 복원밀지름: 5.2cm, 기벽두께: 0.4~1.1cm

· 출토지: 담장지 2

■ 분청사기인화문접시 [그림 51-⑤, 사진 54-⑤]

3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소형의 분청사기 접시로 구연은 곧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내면에는 원문과 소국화문이 있으며, 외면에도 원문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태토의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담회청색 투명유를 시유했다. 빙열이 있고 광택이 나며, 굽에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3.7cm, 복원입지름: 10.7cm, 복원밀지름: 4.7cm, 기벽두께: 0.3~0.4cm

· 출토지: 하층유구 2

■ 분청사기인화문대접 [그림 52-①, 사진 55-①]

분청사기 대접 구연부편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구연은 외반되고 내면에는 평행원문과 소국화문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암갈색을 띠며, 회청색유가 시유되었다.

잔존높이: 4.2cm, 복원입지름: 18.3cm, 기벽두께: 0.3~0.4cm

· 출토지: 건물지 1

■ 분청사기인화문대접 [그림 52-②, 사진 55-②]

분청사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이 외반되고 완만한 사선으로 내려간다. 문양은 외면의 경우, 굽기가 불규칙한 여러 겹의 원문을 돌리고 내면 역시 여러 겹의 원문을 돌린 아래에 점렬문을 넣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며, 내외면에는 담회녹색의 유약을 시유했다. 부분적으로 유약이 뭉쳐 흘러내린 곳이 보이며, 잔잔한 빙열이 있다. 성형은 물레성형을 하였다.

잔존높이: 4.7cm, 복원입지름: 17.2cm, 기벽두께: 0.4~0.7cm

· 출토지: 담장지 2

■분청사기상감·인화문동체부편〔그림 52-③, 사진 55-③〕

기형을 알 수 없는 분청사기 동체부편으로 외면에는 여러 겹의 원문과 우점문 그리고 연입문이 상감·인화되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갈색이며, 유약은 외면에만 담회녹색 투명유를 시문했다. 외면에는 잔잔한 빙열이 보이며, 물레성형을 하였다.

잔존높이: 6.8cm, 기벽두께: 0.3~0.5cm

· 출토지: 담장지 2

■분청사기인화문구연부편〔그림 52-④, 사진 55-④〕

구연이 곧고 입술면이 둥글며, 내외면에는 원문과 당초문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며, 전면적으로 담회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잔존길이: 2.6cm, 기벽두께: 0.5cm

· 출토지: 담장지 3.

■분청사기인화문구연부편〔그림 52-⑤, 사진 55-⑤〕

외면에는 원문이 있고 내면에는 원문과 물결무늬가 그려져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갈색이며, 담회녹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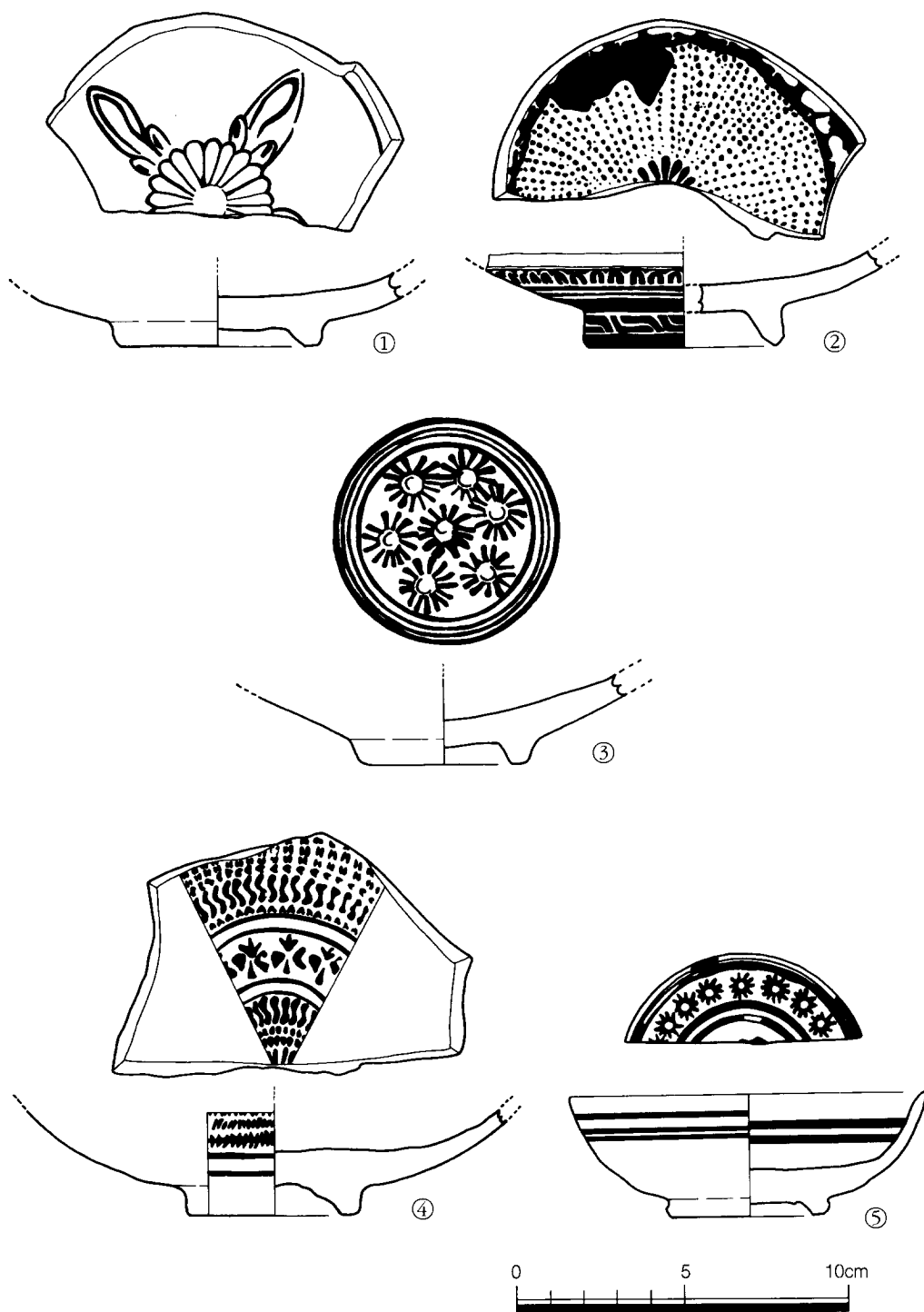
잔존길이: 4.1cm, 기벽두께: 0.4~0.5cm

· 출토지: 담장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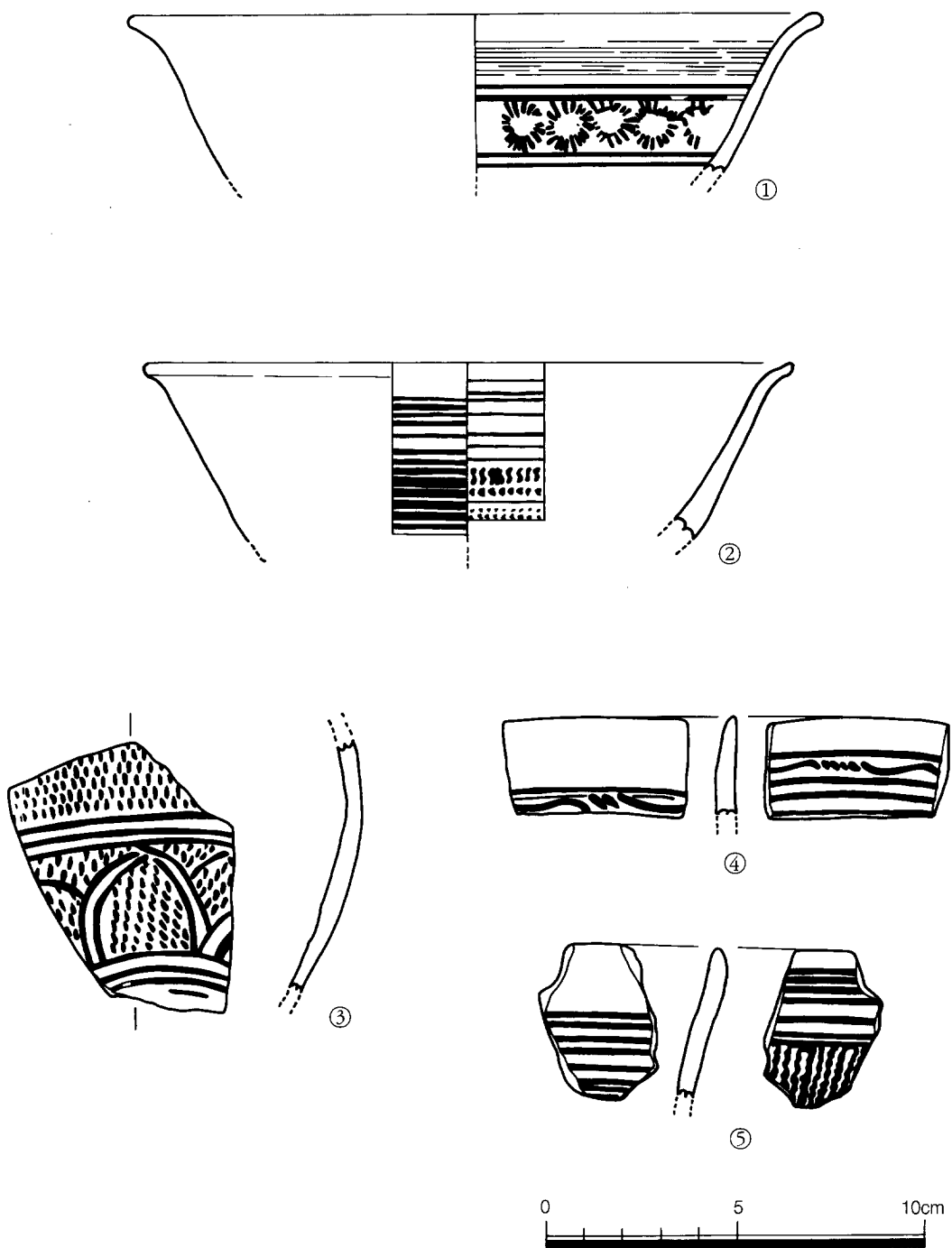
(2) 백자접시

■ 백자접시〔그림 53-①, 사진 56-①〕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외면은 거의 사선으로 내려가서 굽과 연결된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는 태토비짐눈이 떨어진 흔적이 보이며, 회전 굽 깎기에 의해서 굽 안 중앙이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포개구웠던 태토비짐눈 자국 4곳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고 담회백색 투명유를



〈그림 51〉 하층유구 출토유물



〈그림 52〉 하층유구 출토유물

시유하였으나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높이: 3.9cm, 복원입지름: 13cm, 내저원각지름: 8.2cm, 밑지름: 4.7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그림 53-②, 사진 56-②)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가는 접시로 구연은 파실되었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은 반듯하고 회전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내저면에는 태토비짐눈이 4개 보이며, 굽 안에는 묵서인「片」자가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며, 담회백색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는데, 외면에는 일부 뭉친 곳이 보인다. 소성은 접지면과 굽 안에 유약을 훑어내고 번조했다.

잔존높이: 2.3cm, 내저원각지름: 11.9cm, 밑지름: 5.7cm, 기벽두께: 0.5~0.9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그림 53-③, 사진 56-③)

½ 정도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었고 동체부의 외면에는 물레성형에 의한 물손질 자국이 거칠게 남아 있으며, 굽은 직립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며, 모래가 섞여 있다. 유약은 담회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는데, 굽과 굽 안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내저면에는 4곳에 태토비짐눈 자국이 있어 포개어 번조했음을 알 수 있다. 굽의 접지면에도 태토비짐눈 자국이 남아 있다.

높이: 3.8cm, 복원입지름: 13.6cm, 복원밑지름: 5.4cm, 기벽두께: 0.3~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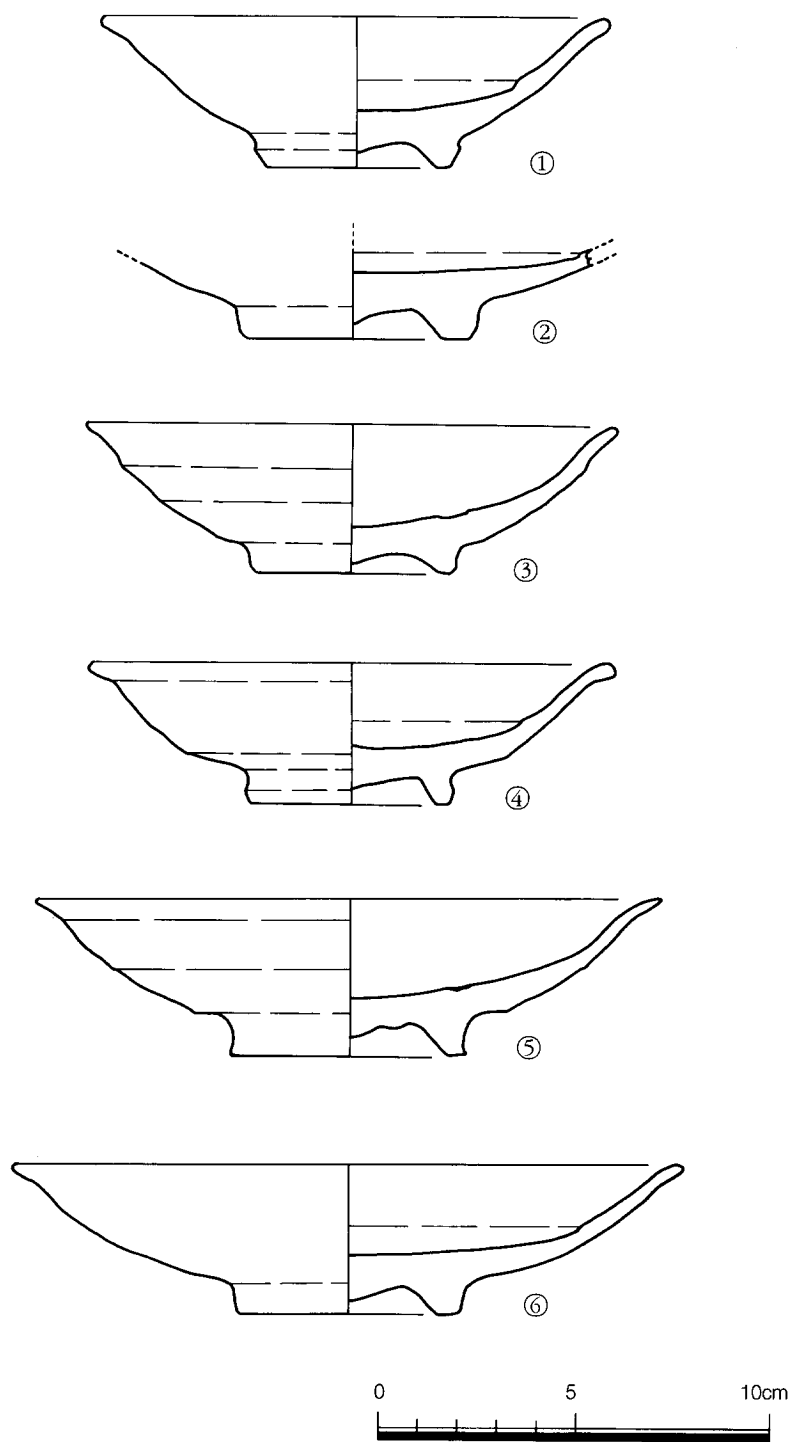
· 출토지: 하층유구 4

■백자접시(그림 53-④, 사진 56-④)

½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소형의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저원각이 넓게 보이며, 외면은 동체부 하단에서 급격히 꺾여져 굽으로 내려간다. 굽 상면에는 음각선이 있고 죽절굽이며, 굽 안은 회전 굽깎기를 하여 중앙부가 돌출되었다. 굽 안에는 묵서로 된 글자가 있으나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과 황갈색을 띠고 담회색유를 시유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면에는 포개어 번조한 태토비짐눈 자국이 있으며, 굽과 안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번조했다. 소성도는 낮다.

높이: 3.6cm, 복원입지름: 13.4cm, 내저원각지름: 8.8cm, 밑지름: 5.1cm, 기벽두께: 0.3~0.7cm

· 출토지: 건물지 1



〈그림 53〉 하층유구 출토유물

■백자접시 [그림 53-⑤, 사진 56-⑤]

구연의 일부가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외면은 물레성형에 의한 물손질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굽은 직립이며, 내저면에는 4곳에 태토비집눈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굽과 안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담회녹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구연부의 일부분에는 유약이 묻쳐서 흘러내린 곳도 보인다. 태토비집눈받침으로 포개어 번조했다.

높이: 4cm, 입지름: 16cm, 밑지름: 6cm, 기벽두께: 0.3~1.0cm

· 출토지: 담장지 2

■백자접시 [그림 53-⑥, 사진 57-①]

구연부 일부가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가며, 내저면에 태토비집눈 자국이 4곳 남아 있다. 외면에는 물레성형으로 인한 손질 흔이 거칠게 남아 있으며, 굽은 직립으로 접지면에 태토비집눈을 땀 자국이 있다. 굽 안은 회전 굽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이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담청색유를 시유하였다. 굽의 접지면과 안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으며, 굽 안에는 「ㄴ」자형의 목서가 있다.

높이: 3.8cm, 입지름: 17.2cm, 내저원각지름: 12cm, 밑지름: 5.6cm, 기벽두께: 0.3~0.8cm

· 출토지: 하층유구 2.

■백자접시 [그림 54-①, 사진 57-②]

구연부 일부만 약간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기형에 비해 좁으며, 굽의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접지면은 반듯하고 안쪽은 회전 굽 깎기를 바깥에서 중앙으로 하였으며, 중앙은 볼록하게 돌출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담회백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빙열이 있고 굽과 구연부에는 유약에 담그면서 손가락으로 잡은 흔적이 보인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cm, 입지름: 18.9cm, 내저원각지름: 13.2cm, 밑지름: 6.5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4-②, 사진 57-③]

구연부 일부가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약간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외면

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기형에 비해 좁으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의 형태를 보여준다. 굽의 접지면은 반듯하고 안쪽은 회전 굽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전면적으로 담회백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으며, 잔잔한 빙열이 있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9cm, 입지름: 18.9cm, 내저원각지름: 13.6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3~1.2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4③, 사진 57-④]

구연부 일부가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기형에 비해 좁으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굽 안은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이며, 굽 상면에 음각선이 돌아간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적으로 시유하였으며, 빙열이 있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6cm, 입지름: 18.5cm, 내저원각지름: 12.7cm, 밑지름: 6.2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4④, 사진 5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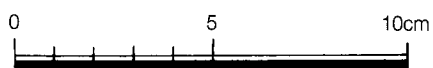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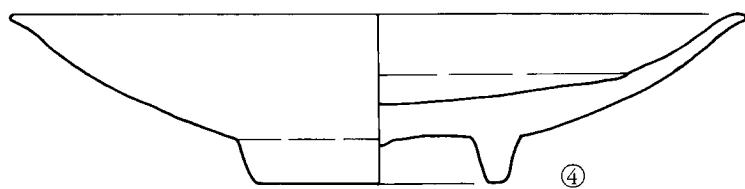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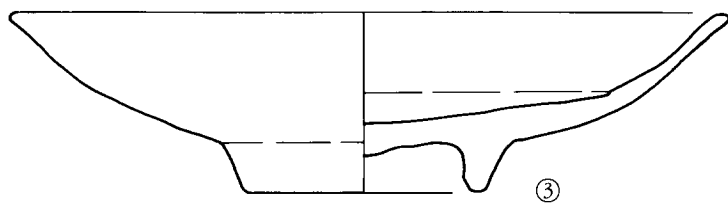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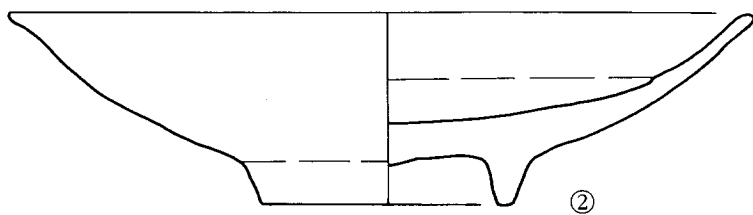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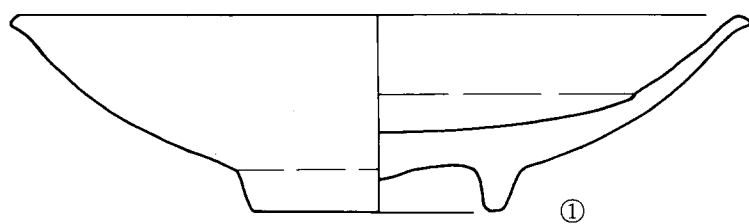
구연이 일부 파실된 상태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기벽은 완만한 곡선으로 좁아지다가 굽으로 이어진다. 굽은 기형에 비해 좁으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좁아지다가 반듯한 접지면을 이룬다. 굽 안은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적으로 얇게 시유하였으며,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세립이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3cm, 입지름: 18.8cm, 내저원각지름: 13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4⑤, 사진 58-②]

약 1/3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기형에 비해 좁으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다. 굽의 접지면은 좁고 반듯하며, 굽 안은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외면에는 전면적으로 담회황색 투명유를 고르



〈그림 54〉 하층유구 출토유물

게 시유하였으며, 빙열이 보인다. 굽의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가며,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7cm, 복원입지름: 18.9cm, 내저원각지름: 13.8cm, 밑지름: 6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5-①, 사진 58-③]

¼ 정도 파실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넓게 돌아간다.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굽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가고 굽 안은 굽 꺾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내외면에 전면적으로 담회백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기면에는 잡물이 붙어 있고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4.3cm, 입지름: 18.6cm, 내저원각지름: 13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5-②, 사진 58-④]

구연이 일부 파실된 상태이다. 구연부는 곧으며, 내부에는 굽 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내저원각이 회미하게 보인다. 기벽은 직사선에 가까운 경사로 내려오며, 굽과 만나는 부분에는 음각선이 돌아가는다. 굽은 기형에 비해 좁은 편이며,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다. 굽의 내면에는 유약에 담그면서 잡은 손가락 자국이 보인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담회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빙열은 보이지 않는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8cm, 입지름: 18.2cm, 내저원각지름: 7.4cm, 밑지름: 6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5-③, 사진 59-①]

약 ½ 정도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지 않고 곧게 올라가며 입술면은 둥글다. 내면에는 굽의 넓이와 비슷한 내저원각이 회미하게 돌아가며 내저 중앙은 약간 볼록하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며, 굽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간다. 굽 안쪽에는 소성과정에서 터짐현상이 일어났으며, 유약에 담그면서 잡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담회청색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하였

으며, 빙열이 없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3cm, 복원입지름: 19.2cm, 밑지름: 5.6cm, 기벽두께: 0.3~1.2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5-④, 사진 59-②]

$\frac{1}{2}$ 정도가 파실된 상태이다. 구연부는 곧게 올라가며, 내저면에는 굽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원각이 돌아간다. 기벽은 직사선에 가까운 경사로 내려와 굽과 연결된다.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고, 굽 안은 회전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이며, 소성과정에 생긴 터짐 현상이 심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담청색유를 시유하였으며, 잔잔한 빙열이 보인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6.1cm, 복원입지름: 19.6cm, 내저원각지름: 7.6cm, 밑지름: 6cm, 기벽두께: 0.3~0.8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5-⑤, 사진 59-③]

$\frac{1}{3}$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로 구연은 외반되지 않고 곧으며, 입술면은 둥글다. 내면에는 굽의 지름과 비슷한 내저원각이 희미하게 보이며, 굽의 상면에는 깊은 음각선이 보이며,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굽 안은 회전 굽 깎기에 의한 중앙 돌출이 보이며, 굽 내면에는 유약에 담그면서 손으로 잡은 손가락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회청색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하였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6cm, 복원입지름: 17.6cm, 내저원각지름: 7cm, 밑지름: 6.4cm, 기벽두께: 0.3~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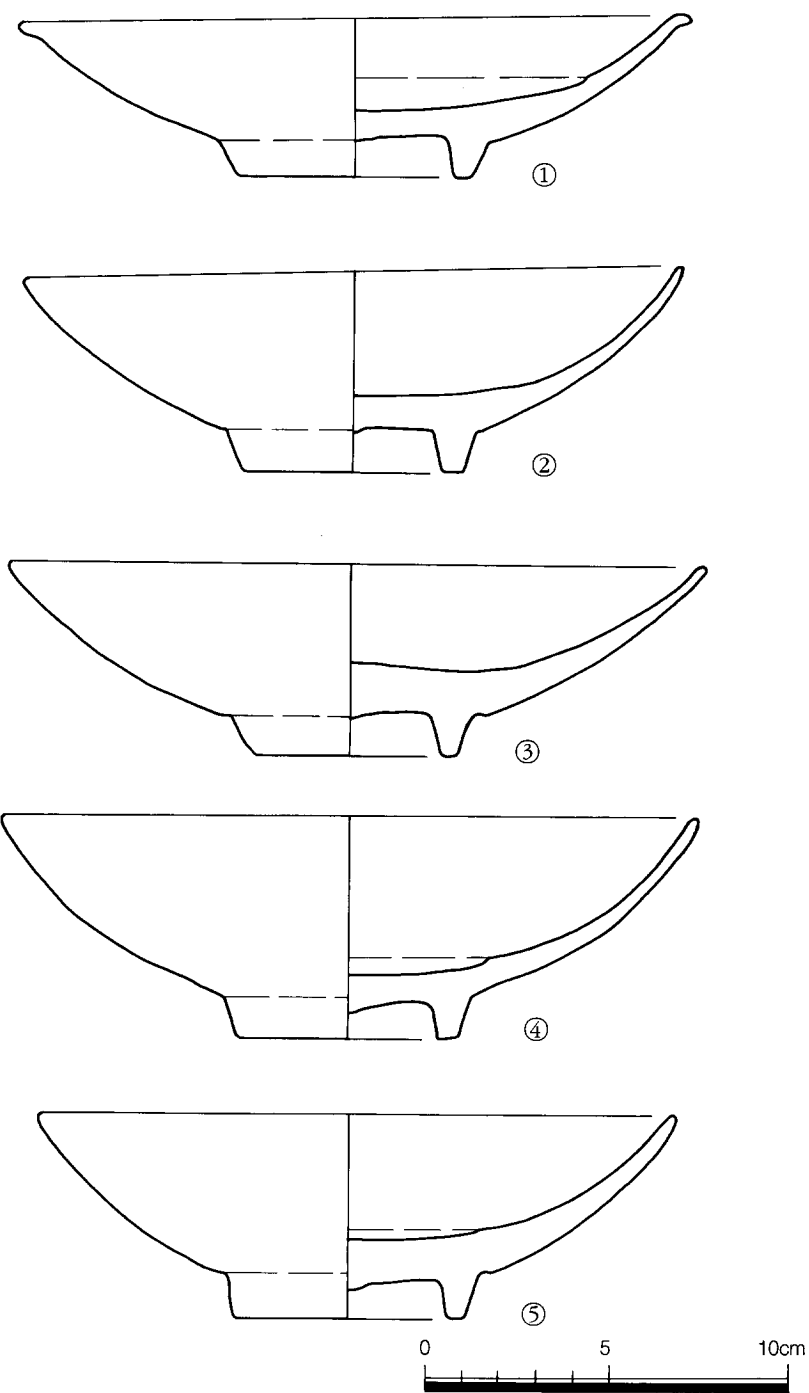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접시 [그림 56-①, 사진 59-④]

$\frac{2}{3}$ 정도가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편으로 구연은 곧으며,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죽절삼각굽으로 굽 상면 내외에 음각선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했고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보이며, 전면적으로 담회색 투명유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2cm, 복원입지름: 18.5cm, 내저원각지름: 8.2cm, 밑지름: 6.8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건물지 1



〈그림 55〉 하층유구 출토유물

■백자접시 [그림 56-②, 사진 60-①]

구연과 동체부 대부분이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접시로 구연은 수직 정면하여 곧으며, 내저원각이 굽 지름보다 넓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삼각 굽에 가깝다. 굽 상면에는 깊지 않은 음각선이 돌아가며, 굽 안은 회전 굽 깎기 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담회백색 투명유를 전면적으로 고르게 시유하였다. 광택이 있고 빙열이 보이며,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8cm, 복원입지름: 20.3cm, 내저원각지름: 10.8cm, 밑지름: 6.9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2

■백자접시 [그림 56-③, 사진 60-②]

구연이 약간 외반된 접시로 $\frac{1}{2}$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했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이 두껍다. 굽은 죽절굽이고 접지면과 굽 안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유백색을 띤다. 유약은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며, 잔잔한 빙열이 있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3.8cm, 복원입지름: 12.1cm, 복원밑지름: 5.4cm, 기벽두께: 0.4~0.8cm

· 출토지: 담장지 2

(3) 백자대접

■백자대접 [그림 56-④, 사진 6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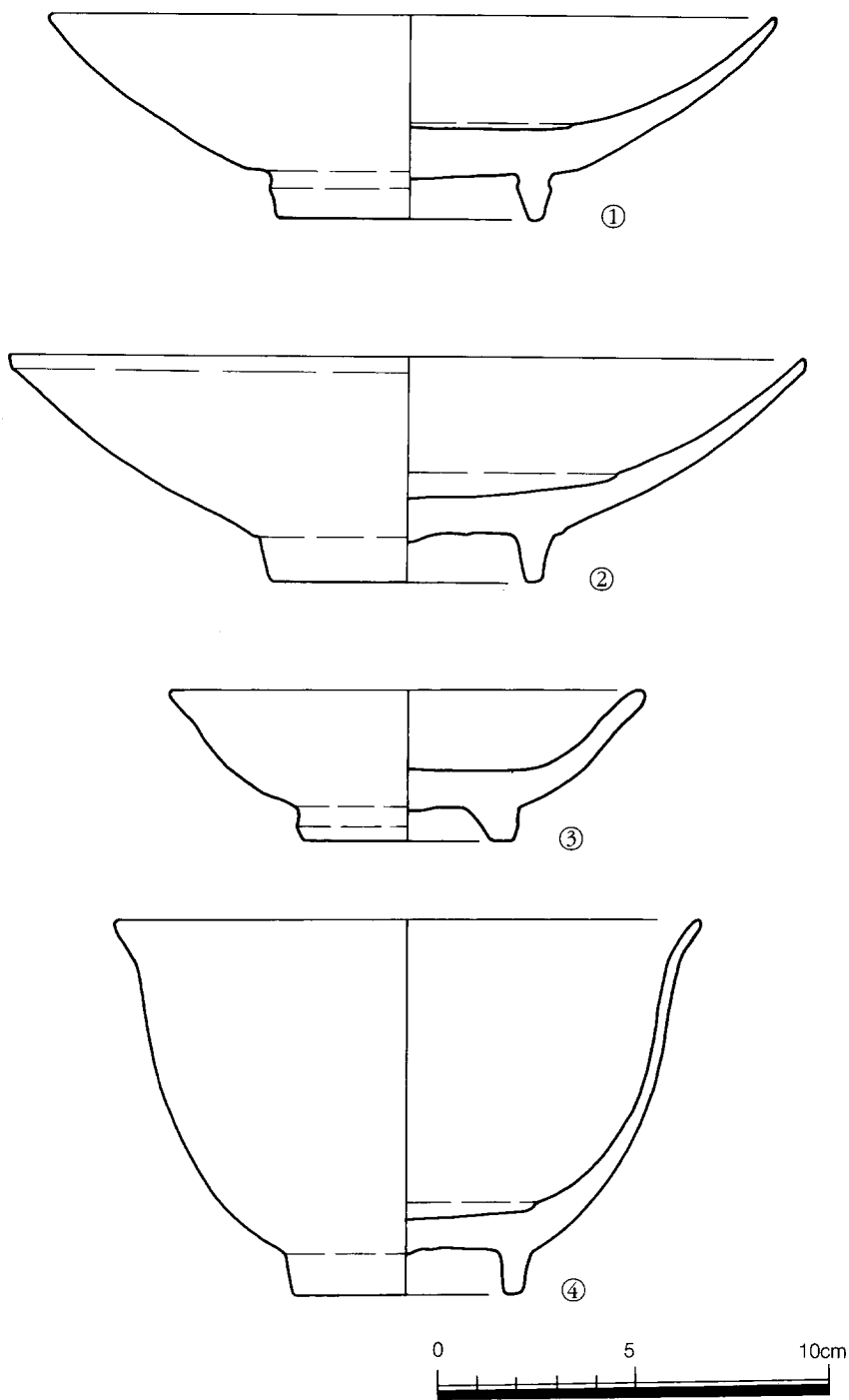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파실된 상태이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내저면에는 굽의 지름과 비슷한 원각이 있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약간 내경하는 직립굽이며, 굽의 높이가 높은 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내외면으로 담청색의 투명유가 얇고 고르게 시유되었다. 빙열이 있고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9.6cm, 복원입지름: 15cm, 내저원각지름: 6.5cm, 밑지름: 6cm, 기벽두께: 0.3~1.1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대접 [그림 57-①, 사진 60-④]

$\frac{1}{2}$ 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대접으로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약간



〈그림 56〉 하층유구 출토유물

넓다.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굽은 직립이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했으나 고르지 못하다. 소성은 굵고 작은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8cm, 복원입지름: 14cm, 내저원각지름: 7.2cm, 밑지름: 5.4cm, 기벽두께: 0.3~1.0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대접 [그림 57-②, 사진 61-①]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파실된 상태이다. 구연은 외반되었고, 외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내저원각이 굽지름과 비슷하고, 굽은 약간 내경하는 삼각굽이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굽 상면에는 음각선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전면적으로 담회백색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군데군데 빙열이 보이고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9cm, 복원입지름: 14cm, 내저원각지름: 5.6cm, 밑지름: 5.8cm, 기벽두께: 0.3~1.0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백자대접 [그림 57-③, 사진 61-②]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대접으로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으며, 내저원각이 넓고 얇게 돌아간다. 동체부 내면 중간에도 물레성형으로 인한 원각이 보인다. 내저면에는 포개어 번조한 태토 비점눈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는 회전 물손질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굽은 직립으로 굽 안을 굽 깎기하여 중앙이 돌출되어 있으며, 접지면은 반듯하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담회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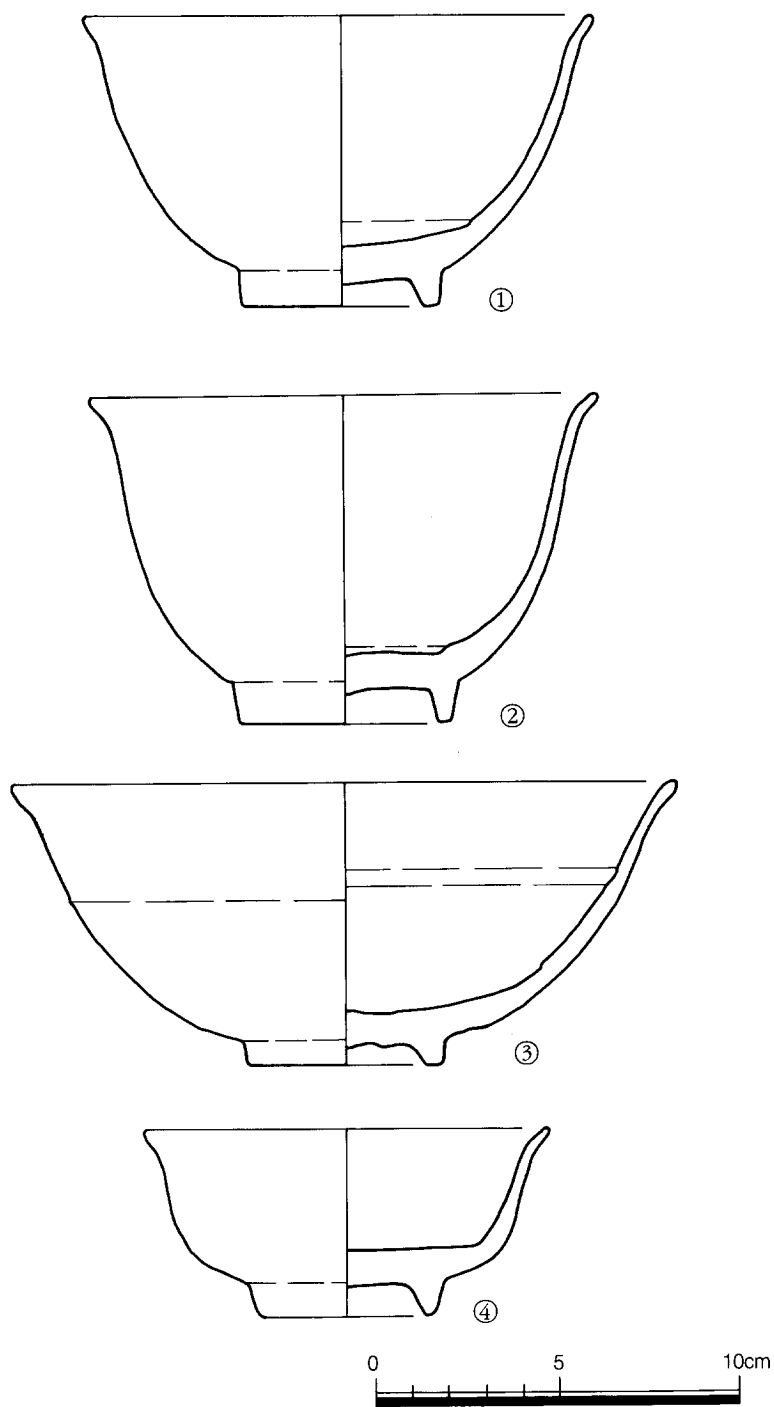
높이: 7.7cm, 복원입지름: 18.2cm, 내저원각지름: 10.8cm, 밑지름: 5.4cm, 기벽두께: 0.3~0.8cm

· 출토지: 하층유구 2

(4) 백자잔

■백자잔 [그림 57-④, 사진 61-③]

½이상 파실된 것을 도면 복원한 잔으로 구연은 외반되고 내저면은 반듯하다. 외면은 완만한 S자형의 곡선을 이루며,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내외면에는 전면적으로 담청색유를 얇게 시유했다. 빙열이



〈그림 57〉 하층유구 출토유물

있고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높이: 5.2cm, 복원입지름: 11.2cm, 밑지름: 4.8cm, 기벽두께: 0.3~0.9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5) 백자항아리

백자항아리 저부 [그림 58-①, 사진 61-④]

구연부와 동체부 대부분은 파실되어 기형을 알 수 없다. 성형은 윤적기법으로 하였으며, 내외면에 굴곡이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형태이고 바닥두께가 얇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과 갈색을 띠며, 소성도가 좋지 않다. 유약은 회청색유를 시유하였는데 고르지 못하며, 흘러내리거나 뭉친 곳이 보인다. 바닥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14.1cm, 복원밑지름: 10cm, 기벽두께: 0.8~1.8cm

· 출토지: 담장지 3 유구

■ 백자항아리 저부 [그림 58-②, 사진 62-①]

저부만 남고 상부가 파실된 대형의 항아리로 바닥은 평저이며, 외면에는 타날 격자문이 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저화도 소성으로 적갈색을 띠며, 윤적성형을 하였다. 유약은 회색유를 시유했으나 고르지 못하며, 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소성시 터짐과 기포현상이 일어났다.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16.8cm, 밑지름: 20.7cm, 기벽두께: 1.0~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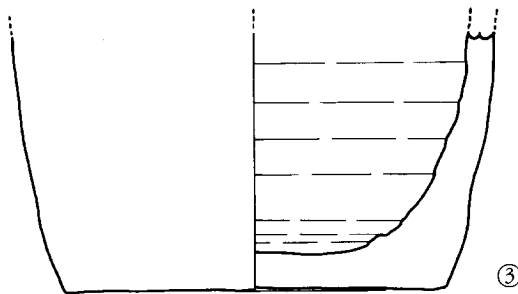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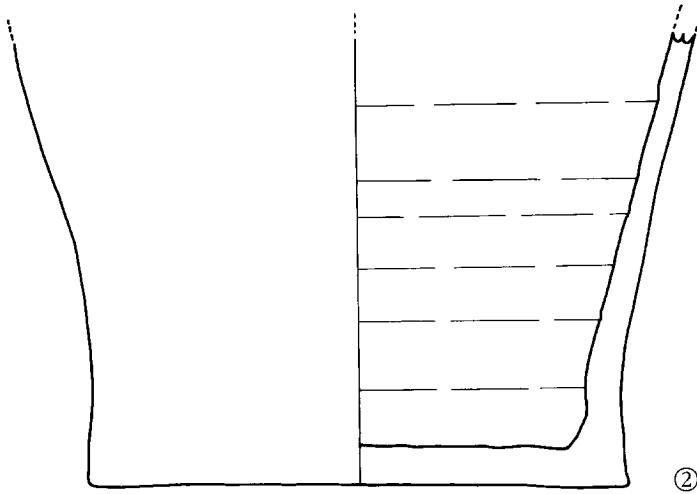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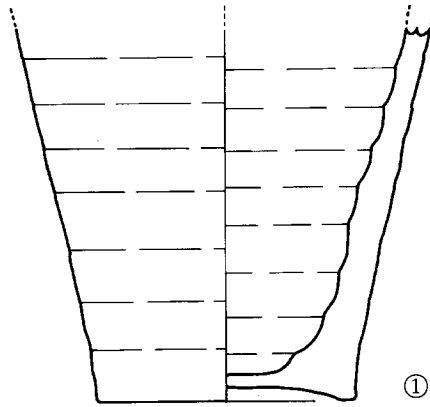
· 출토지: 하층유구 2

■ 백자항아리 저부 [그림 58-③, 사진 62-②]

구연과 동체부는 파실되었고 저부도 반 이상 없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바닥은 평저고 성형은 윤적기법으로 하였으며, 내면에는 윤적면을 거칠게 정면하였다. 태토는 세립의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도가 낮아 회백색과 적갈색 색조를 띤다. 유약은 회청색유를 시유했고 내면과 바닥에는 시유하지 않았으며,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잔존높이: 9.8cm, 복원밑지름: 14.6cm, 기벽두께: 1.0~1.5cm

· 출토지: 담장지 2



〈그림 58〉 하층유구 출토유물

3) 陶器類

■도기항아리 [그림 59-①, 사진 62-③]

매납용토기로 여겨지는 대형의 회청색 경질도기로 상면이 결실되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밑동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밑동과 몸통의 접합부는 밋밋하게 연결되며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몸통에는 종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면서 타날되었다. 태토는 작은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했으며, 윤적성형 후 회전물레를 사용했다.

잔존높이: 20.7cm, 밑지름: 28cm, 기벽두께: 0.7~1.5cm

· 출토지: 하층유구 2.

■도기항아리 [그림 59-②, 사진 62-④]

매납용토기 여겨지는 회청색 경질도기로 상면과 몸통의 $\frac{1}{3}$ 가량이 결실되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밑동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밑동과 몸통은 밋밋하게 연결되며 내면에는 손누름 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몸통에는 종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가면서 타날되었고 횡방향으로 길게 음각선이 남아 있으며, 손잡이는 떨어져 나갔다. 태토는 작은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했으며, 윤적성형 후 회전물레를 사용했다.

잔존높이: 19cm, 밑지름: 28cm, 기벽두께: 0.8~1.3cm

· 출토지: 하층유구 2

■도기항아리 [그림 59-③, 사진 62-⑤]

위의 토기와 인접하여 출토된 매납용토기 여겨지는 회청색 경질도기로 상면이 결실된 상태로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밑동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밑동과 몸통의 접합부는 밋밋하게 연결되며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몸통 하단에는 초화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뿌리가 있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줄기에는 각각 4엽~5엽의 꽃잎이 음각되어 있다. 태토는 작은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했으며, 윤적성형 후 회전물레를 사용했다.

잔존높이: 14.7cm, 밑지름: 27.4cm, 기벽두께: 0.7~1.5cm

· 출토지: 하층유구 2

■도기항아리 [그림 59-④, 사진 63-①]

매납용토기 여겨지는 회청색 경질도기로 상면이 결실되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밑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밑둥과 몸통은 맛있게 연결되며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몸통 하단에는 초화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줄기의 뿌리부분만 남아 있다. 태토는 작은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했으며, 윤적성형 후 회전물레를 사용했다.

잔존높이: 16cm, 밑지름: 28cm, 기벽두께: 0.6~1.2cm

· 출토지: 하층유구 2.

■도기항아리구연부 [그림 60-①, 사진 63-②]

흑회색 경질도기로 구연과 동체의 어깨부분만 잔존한 상태이며,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구연의 입술부분은 넓고 거의 평평하다. 목은 짧고 어깨가 넓다. 태토는 굵고 작은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했으며, 물레성형을 하였다.

잔존높이: 2.7cm, 복원입지름: 31.2cm, 기벽두께: 0.5cm

· 출토지: 담장지 3

■도기항아리구연부 [그림 60-②, 사진 63-③]

흑색도기항아리 구연부편으로 동체부와 저부는 파실되어 전체 기형은 알 수 없다. 구연은 외반되고 구연과 동체부는 접합하여 접합한 부분이 두텁고 내면이 울퉁불퉁하다. 태토는 다량의 모래가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고 내외면의 색조는 흑색을 띠며, 속심은 적갈색을 보인다.

잔존높이: 5.2cm, 복원입지름: 11.4cm, 기벽두께: 0.4~0.5cm

· 출토지: 담장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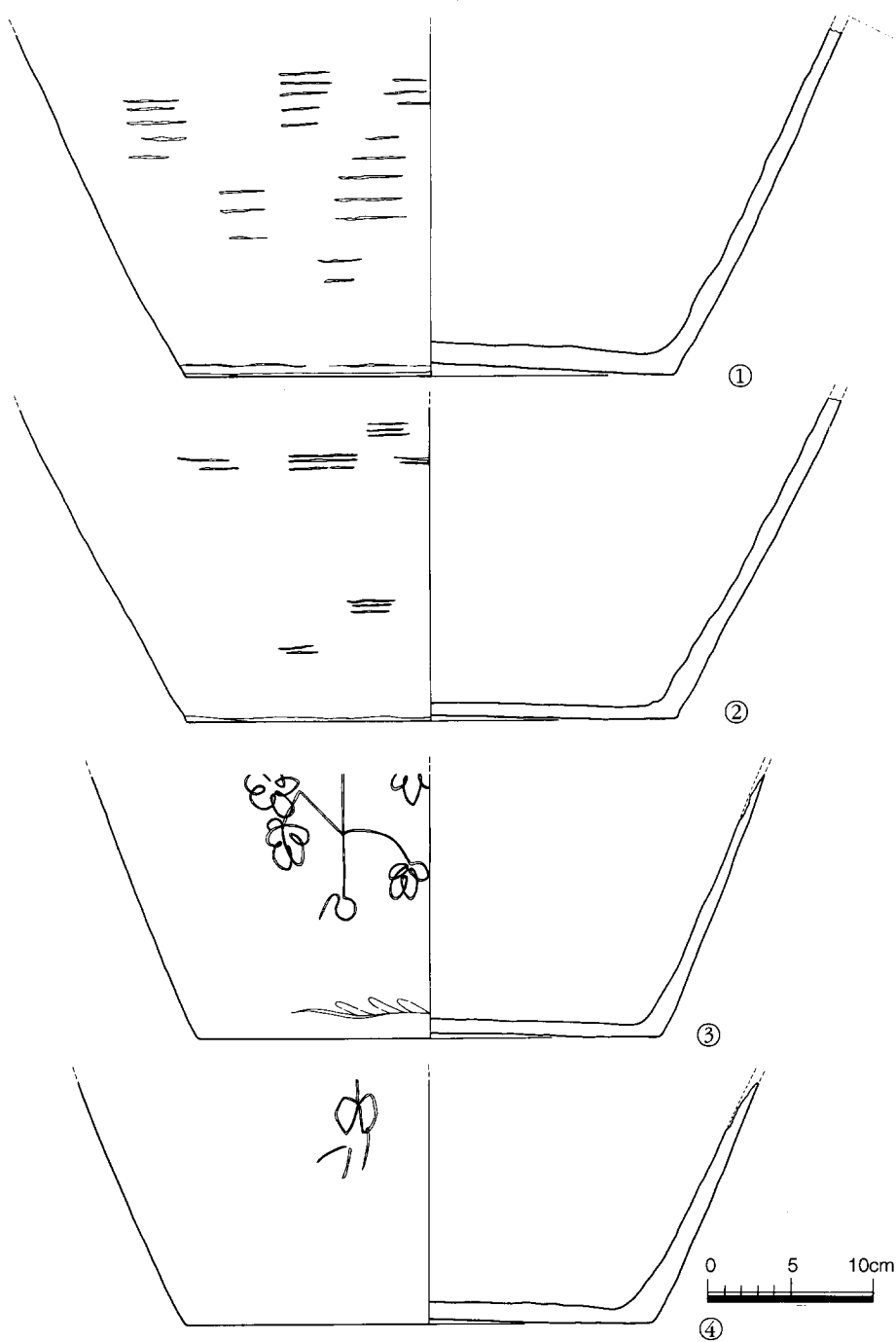
4) 其他遺物

■석제접시 [그림 60-③, 사진 63-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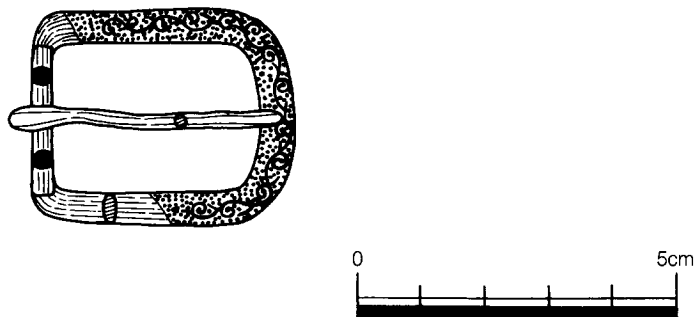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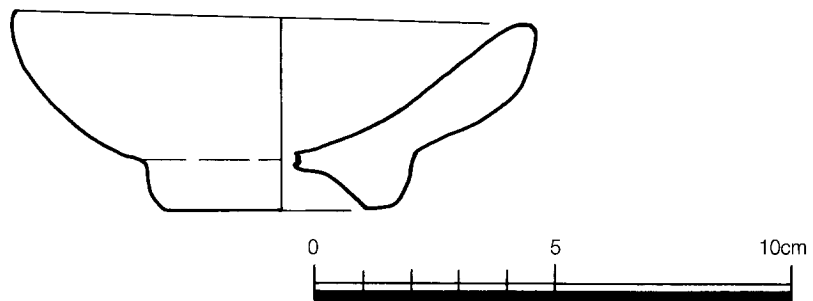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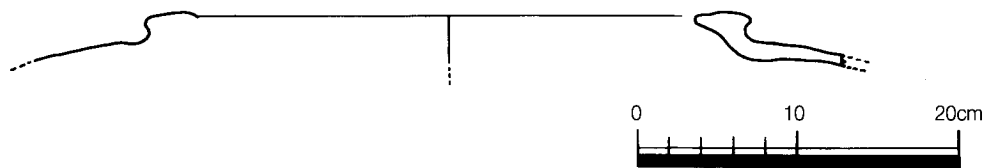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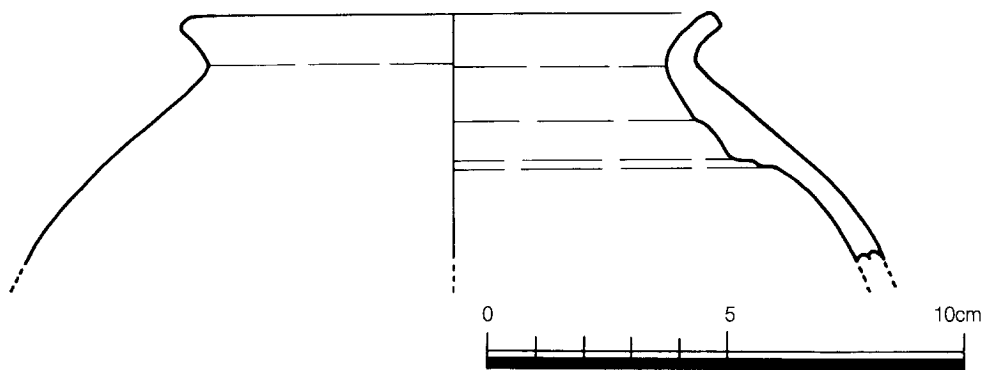
용도불명의 석제 접시로 석질은 화강암질이고 내저면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굽은 둥글고 굽 안은 거칠게 치석했다.

높이: 4cm, 입지름: 10.9cm, 밑지름: 4.9cm, 기벽두께: 0.9~1.2cm

· 출토지: 담장지 1



〈그림 59〉 하층유구 출토유물



〈그림 60〉 하층유구 출토유물

■ 금동띠고리 [그림 60-④, 사진 63-⑤]

평면상 말각방형의 금동허리띠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주된 재료는 청동으로 주조되었으며, 표면에 금박을 입혔다. 표면에는 당초문과 연주문양이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다. 테의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고리는 원형이다.

길이: 4.5cm, 테두께: 0.2cm, 고리두께: 0.2cm

· 출토지: 담장지 1

윤석인

Ⅶ. 考 察

1. 遺 構

조선전기 강원감영의 관아를 별도로 건립하지 않은 것은 관찰사가 감영 소재읍인 원주목의 목사를 겸하는 兼牧制를 시행함에 따라 원주목 관아인 객관(70간)을 함께 사용하였고¹⁹⁾, 또한 관찰사의 근무형태가 감영에 留營하지 않고 년중 대부분을 순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별도의 감영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인조 16년(1638)부터 정조 7년(1783) 사이에 관찰사가 감영에 유영하면서 춘추 2회에 1개월 이내로 순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²⁰⁾ 17세기 이후 각 도의 감영의 관아건물들은 조선초부터 관찰사가 장기간 상주하면서 수령직을 겸하였고 각 도의 감영과 같은 선화당·등청문·포정문 등의 관아시설물을 갖추고 있었던 양계지방의 평안·함경감영의 기존시설을 모방하여 19세기와 같은 규모로 시설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19) 원영환, 1994.〈조선시대 강원도 행정체제 변천에 관한 연구〉《강원사학》10, 강원대학교 사학회.

20) 이의권, 1985.〈조선후기의 관찰사와 그 통치기능〉《전북사학》9, 전북사학회.

표 3. 강원감영 관아 규모²¹⁾

官衙名	問數	建築年代	用度	官衙名	問數	建築年代	用度
宣化堂	31	顯宗 8年(1667)	正廳	營倉	45		倉庫
載恩堂	38	英祖 36年(1760)	觀察使 處所	營庫	20		〃
喚仙亭	4	英祖 22年(1746)	亭子	營繕庫	3		〃
蓬萊閣	6	肅宗 10年(1684)	樓閣	補膳庫	17		〃
布政樓	12		門樓	補營庫	9		〃
客舍	70	仁祖 12年(1634)	接賓館	雇馬庫	3		〃
浮萍閣	6	仁祖 17年(1639)	樓閣	軍需庫	62		〃
淸陰堂	12		都事營	工房庫	12		〃
中營	15		中軍 處所	永賴庫	11		〃
執事廳	20			補蔘庫	12		〃
神將廳	16			屯倉	19		〃
營吏廳	20			水明門	1	東門	
營衙前廳	16			翠滴門	1		西門
營奴房	15			鎮南門	1		南門
使令房	6			拱北門	1		北門
軍牢房	5			合 計	505		

강원감영의 관아는 숙종 6년(1665) 선화당을 창건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²²⁾. 조선후기(18세기 중반이후~19세기중·후반)에 해당하는 상충유구는 中三門址, 內三門址, 工房庫, 冊房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보도, 담장지, 배수로, 방지의 호안석축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발굴조사구역 안에 있었던 강원감영의 건물지들은 순조 30년(1830)에 편찬된 《關東志》를 보면 현재의 선화당을 중심으로 서편에는 工庫, 補膳庫, 行閣 등의 건물지, 북편에는 冊房, 남동편에는 中三門과 內三門의 출입문 등이 보여지고 있으나 발굴조사 구역의 서편지역은 구 원주군청 청사가 자리하고 있던 지역으로 건물지들이 파괴되어 알 수 없고 工庫도 결실되어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

상충유구의 건물지 중에서 건물지 4(공방고)는 영조 35년(1759)년에 편찬된 《여지도서》강원도 관찰영 공해조의 기록과 순조 30년(1830)년에 편찬된 《관동지》의 강원감영도에서도 보여지고 있어

21) 이 표는 曹昇鎬, 1998. 〈朝鮮時代 江原監營 研究〉, p.84.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인용하였다.

22) 영조 35년(1759) 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당시 원주목 공해는 客館 70칸, 宣化堂 30칸, 衙舍 42칸, 新民堂 15칸, 鄉廳 26칸, 關武堂 9칸 등 총 192칸이었다.

《여지도서》 강원도 원주목 공해조.

18세기 중엽에 건립되어 19세기 중엽에 폐기된 것으로 여겨진다²³⁾. 건물 규모는 12칸에서 나중에는 6칸으로 감소되는데 발굴조사에서는 건물지의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건물지 2와, 건물지 5(책방), 건물지 6과 건물지 1(중삼문)과 건물지3(내삼문) 등은 순조 30년(1830)년에 편찬된 《관동지》의 강원감영영지와 강원감영도와 고종 1875년(고종 12년)에 작성된 光緒元年十月日江原監營各公 修補物力區別成冊에서 확인되고 있고, 출토된 백자와 화폐도 19세기말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19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건물지들로 여겨진다.

방지의 호안석축은 장대석과 비교적 큰 냇돌을 이용하여 2~5단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나 성격은 현재 우체국이 위치한 지역까지 조사가 끝나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확인된 상층유구의 건물지들은 대부분 동-서 방향으로 축조되었고, 문지는 중삼문지가 남북 방향, 내삼문지가 동-서 방향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지는 대부분 점토만을 다져 성토하였으며, 초석은 화강석을 사용하였는데 방형의 초석과 부정형의 초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상면만을 간단히 치석하였다. 적심은 대부분 냇돌과 할석을 사용하여 1단으로 쌓았다.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하층유구에서는 건물지와 담장지 등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강원감영 이전의 원주목의 부속건물지로 여겨진다. 원주목에 관한 기록은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原州牧條에 원주목의 관아시설로는 徐居正이 重新記를 지은 객관만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1750년 경에 편찬된 『輿地圖書』 原州牧條에서 원주목 읍내에 있었던 公廨 건물로 客館(70間)·宣化堂(30間)·觀風閣·布政樓·衙舍(42間)·親民堂(東軒, 15間)·鄉廳(26間)·閱武堂(9間) 등의 건물과 倉庫는 司倉(44間)·別倉(35間)과 樓亭은 淸陰亭·浮萍閣(6間)·蓬萊閣(6間) 등의 건물이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하층에서 일부 확인된 건물지는 위의 기록에서 보여지는 18세기의 건물들 보다 이른 시기의 건물들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건물지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다만 출토유물 중 자기류 중에서 분청사기와 백자 등이 출토되고 線紋 및 魚骨文·鬼目紋 막새·梵字文 기와 등 조선시대 전기의 기와들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15세기에서 16세기에 축조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²⁴⁾.

23) 고종 12년(1875) 강원감영 공해 보수 내역기사에서 공방고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건물이 소실되거나 다른 건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고종 12년 강원감영의 공해에는 53여동의 관아건물이 존재하였다.

24) 《輿地圖書》江原道 原州目 公 客館條 參照.

현재 확인된 하층유구의 건물지중 건물지1·2는 동-서 방향으로, 건물지3은 남-북 방향으로 축조되었고, 건물지는 대부분 점토만을 다져 성토하였으며 건물지 상면이나 주변에서 확인되는 재층은 건물지의 화재와 관련된 층위로 여겨진다. 건물지의 적심은 상층유구와는 달리 2단으로 쌓았는데 하단에는 약간 길고 둥근 냇돌을 비교적 넓은 범위로 깔고 상단에는 작은 냇돌을 안쪽으로 밀려 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는데 적심이 중복되어 확인되고 있다. 기단석은 일부 범위에서 냇돌과 할석을 쌓아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토층조사 작업중 흑갈색 점토층+숫층에서 확인된 휘안문암막새는 고려시대 중기의 유물로 강원감영이 설치되기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건물지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 영 구

2. 遺物

1) 瓦類

‘기와’는 재사용의 가능성과 출토 유적의 층위적 중복관계로 인하여, 한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자체만으로는 그 유물 및 유적의 시기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개체의 동시 제작·사용으로 인한 ‘정형성’ 및 다른 유물에 비해 ‘수적인 우세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잘 이용한다면 유적의 성격과 그 중첩관계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발굴조사를 통하여 수습된 기와는 유적의 규모와 유구의 면적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며 대다수 심하게 파손되어, 그 특성을 살펴 통계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건물의 중·보수 및 폐기시, 그 부재를 옮겨 재사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문양 및 제작방식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기와 38점·전 5점의 총 43점을 선별·설명하였다. 이 중 상층에서 출토된 기와 및 전은 22점·하층에서 출토된 기와 및 전은 16점이며, 기와의 경우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 막새류 2점·수키와 19점·암키와 17점으로 분류된다. 그 중 평기와 10점은 글자가 양각된 銘文기와이다.

표 4. 강원감영지 출토 기와 구성표

	막새	수키와	암키와	전	비고	계
상층	1	13 (명문기와1)	8 (명문기와7)	3	암키와 2점 - 경현사 채집 기와	25
하층	1	6	9 (명문기와2)	2		18
계	2	19	17	5		총 43점 (명문기와 10점)

본 글에서는 우선 유적의 성격과 편년 설정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銘文기와에 대하여 알아본 뒤, 건물의 복잡한 중첩관계 속에서도 층위가 확연히 구별되는 ‘상층’과 ‘하층’의 출토 유물을 나누어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① 銘文기와 고찰 [표 5 참조]

10점의 명문기와 중 2점은 하층유구에서 · 8점은 상층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대다수 파실과 마모로 인하여 명문 전체의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명문의 시문의도를 파악하여 유물 및 유적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紀年銘을 통하여 정확한 편년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층유구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는 「梵字 + ‘己’」銘 암키와 · 「官?…」銘 암키와 두 점으로, 그 형태나 제작방식에 있어서 상층의 기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두 점의 기와는 모두 1cm 내에 6을 및 7으로 구성된 굵고 성근 편의 포흔과 약 0.7~0.8cm의 띠매듭흔이 뚜렷이 남아있어, 하층에서 함께 출토된 기와의 보편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상층의 명문 기와와는 달리 시문구의 글자 새김이 깊어 명문의 양각이 매우 뚜렷하며, 시문 간격도 일정하다.

특히 「梵字 + ‘己’」銘 암키와는 함께 출토된 기와들에 비해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하였으며, 분할방법에 있어서도 와도로 자국만을 얇게 그은 후 분리하였다. 또한 그 명문은 주로 高麗時代에서 朝鮮時代初期까지 나타나는 梵字와 ‘己’자를 함께 시문하고 있어, 고려시대 寺刹建築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기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층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 중 「…禎後五己卯」銘 · 「…後五己卯」銘 기와 두 점은 원주 景賢祠에서 채집된 것으로, 1965년 경현사 내 瞻學齋 신축시, 강원감영지의 內三門과 中三門을 헐면서 재사용된 것 중 일부이다.²⁵⁾ 이 기와는 거의 완전한 상태이나 표면의 마모로 인하여 글자 전체를 판독할 수는 없다. 그 중 ‘己卯’ 두 자는 紀年의 표기로 보이며, 내삼문 및 중삼문 건물의 존속시기를 염

두해 볼 때 ‘純祖 19年(1819)’ 혹은 ‘高宗 16年(1879)’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高宗 12年(1875)’과 ‘高宗 28年(1891년)’에 제작된 기록²⁶⁾ 중 내삼문(澄清門)과 중삼문의 改建 및 重修에 관한 내용이 보이므로, 고종 16년(1879년) 내삼문 혹은 중삼문의 重·補修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외의 명문 기와에는 주로 ‘官’·‘首’·‘凡’ 등의 글자가 보이는데, 그 체가 거의 같은 형태이며, 배열에 있어서도 대부분 1~2줄의 종방향으로 유사하다. 특히 「官凡…」銘 기와와 「…凡首…」銘 기와는 글자의 체와 배열 뿐 아니라, 중복되는 ‘凡’자 및 아래·위에 부정확하게나마 남아있는 글자의 규격 또한 일치하여, 두 기와가 함께 제작된 것이며 그 명문을 조합해 볼 때 ‘官凡首’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명문은 관청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四月十…」銘 기와의 경우와 같이 날짜를 시문한 것도 보이나 기와가 많이 파실되어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拍誘」銘 기와와 「…太寺羅」銘 기와 또한 현존 상태에서는 그 의미 파악이 어렵다.

② ‘상충’ 및 ‘하충’ 출토유물 비교

이번 발굴조사 결과, 강원감영지 유적은 여러 번의 중첩 관계 속에서도 그 층위가 확연히 구분되는 ‘상충’의 유구와 ‘하충’의 유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층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그 전반적인 특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층이 존재하였던 시간의 거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글에서는 각 층별로 나누어 출토기와 및 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막새류

강원감영지 출토 막새기와는 단 2점뿐이며, 이것 또한 파실로 인하여 내림새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다.

25) ① 景賢祠는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공산마을에 위치한 사당으로, 1965년 이 곳에 많이 거주하는 秋氏집안에 의해 건립되었다.

② 경현사 前面에 위치한 瞻學齋는 건물 신축 당시 감영 건물내의 內三文과 中三文을 헐어서 그 資材를 이용하여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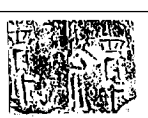
③ 현재 철학재 건물은 지붕이 일부 붕괴되고 건물이 많이 기울어져있는 상태이며, 본 글에서 제시한 두 점의 채집기와는 이 주변에서 채집된 것이다.

1997,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原道·原州市·江原郷土文化研究會, p.261.

26) 1875, 『光緒元年十月日江原監營各公 修補物力區別成冊』.

1891, 『光緒十七年十月日東營重記』.

표 5. 강원감영지 출토 銘文기와

銘 文		출토지	결합 문양	시문 특징	
상 층		…禎 後 五 己 卯	내삼문지 (경현사 채집기와)	집선문 (사선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집선)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後 五 己 卯	"	집선문 (사선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집선)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官 凡…	건물지 6	사격자문 (2줄)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사격자문과 한 조를 이루어 횡방향으로 반복됨
		官	S1 · W1 Grid	수파문	· 양각 시문 · 단 한 자만을 횡방향으로 불 규칙하게 반복 시문
		…凡 首…	0 · E1 Grid	사격자문 (1줄)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좌우 방향이 바뀜 · 사격자문과 한 조를 이루나, 각 조의 명문이 다름
		…四 月 十…	S1 · W1 Grid	.	· 종방향(2줄)의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拍 誘	방지	어골문	· 가늘고 뚜렷하게 양각됨
		…太 寺 羅…	S1 · W1 Grid	.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하 층		梵字 + '卍'	"	원곽과 방곽	· 좌우가 바뀌어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 명문이 깊고 뚜렷함
		官 …	"	사선문	· 종방향(1줄)의 양각 시문 · 횡방향으로 반복됨 · 명문이 깊고 뚜렷함

상충유구에서 출토된 蓮花紋 수막새는 8葉의 活瓣(길이:폭=2.3:1)의 앞을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세 방향으로 뻗은 가는 사잇잎을 첨가하여 ‘重瓣의 凸形 蓮華紋’을 의장하였는데, 다소 늦은 시기의 연화문 양식을 보인다.²⁷⁾

또 다른 1점의 막새는 鬼目紋 막새로, 토층 작업 중 선화당 서편의 ‘흑갈색 점토+숫충’에서 노출되었다. 이 막새는 내림새의 일부만이 남았고 마모가 심한 상태이기는 하나, 半球形을 돌출시키고 1줄의 圓圈을 돌린 모습이라든지 주변 공간에 다른 문양이 함께 시문되지 않은 점을 보아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귀목문 막새임을 알 수 있다.

■평기와 [표<6·7> 참조]

본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대체로 수키와는 2분법·암키와는 4분법의 통권작법(通卷作法)에 의해 분할제작²⁸⁾된 것으로, 수키와의 경우 상단부가 남아있는 것은 모두 언강과 미구가 형성된 有段式으로 확인되었다.

소성에 있어서도 일부 몇몇 적갈색 기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회백색 및 회청색 경질기와로, 태토의 정선도나 기와 외면의 정면상태가 좋은 편이다. 하층 유구 출토 기와 중에는 기와 등에 투명유를 두껍게 시유한 수키와가 몇 점 보이는데, 지붕에 얹혀졌을 때 서로 맞닿아 보이지 않는 양쪽 4.5cm 정도는 시유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기와의 내면에는 포목흔과 띠매듭흔 및 와통을 고정시키거나 포목을 묶기 위한 끈의 음각선대(陰刻線帶)가 가로·세로 방향으로 나타나며, 간혹 와통의 거친 표면이 찍힌 흔적도 보인다. 일부는 물손질과 도구의 거친 사용으로 그 제작과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는 상층 유구 출토 기와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하층 출토 기와는 내면에 남은 포목흔을 비롯한 제작흔적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어, 띠매듭흔의 경우 두 줄의 선이 고르게 꼬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목흔은 한 올의 길이와 너비가 평균적으로 7올~11올 정도로 나타난다.

분할방법에 있어서는 와도로 기와 두께의 약 1/2~1/3 정도 깊이로 그어올린 후 이동분하였는데,

27) ① 古式瓦當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형식분류는 대다수 蓮瓣의 구성에 따라 單瓣·復瓣·重瓣으로 구분되고 있다.

金和英, 1967, 「三國時代 蓮花紋 研究」, 『歷史學報』第34輯.

金誠龜, 1981, 「雁鴨址出土 古式瓦當의 形式的 考察」, 『美術資料』第29號.

② 본 글은 다음 논문의 연화문 와당 형식분류에 따라, 연판의 길이 對 폭의 비율과 연판수에 따른 구분법(細瓣·闊瓣·稜瓣)을 추가 사용하였다.

朴銀卿, 1988,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研究」, 『考古歷史學志』第4輯.

28)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pp. 7~10.

표 6. 강원감영지 상층유구 출토 평기와의 특징

	출토지	문양	포흔	와도분할흔	태토	기타
수 키 와	선화당 앞 동편 유구 (S1 · E1)	수파문	확인 불가 (조밀)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3/4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갈색 경질	명문 기와
	보도 1 (S4 · E3)	복합문(종선문+ 수파문+기하학문)	9×9	안에서 밖으로 - 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내면-띠흔 와통쪽흔
		반원형 집선문	7×8	안에서 밖으로 - 1/3	굵은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 · 회갈색 경질	
	내아 주변 (0 · E1)	집선문	.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갈색 경질	
	내삼문지 (S4 · E2)	집선문	.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불규칙) - 1/2~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반원형 집선문	.	안에서 밖으로 - 1/2~1/3	굵은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선화당 앞 서편 유구 (S1 · W1)	수파문	7×8	안에서 밖으로 나누어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0.4cm두께의 띠매듭흔 (불규칙)
	S5 · E1	수파문	.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자국만 - 1/8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적갈색 경질	와도 연결기와
	방지 (N2 · E1)	어골문	.	안에서 밖으로 - 불규칙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	집선문, 수파문 (2점)	.	안에서 밖으로 - 1/3	굵고가는석립이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암 키 와	채집기와 (2점)	집선문+기하학문	9×10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불규칙)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명문 기와 0.4cm두께의 띠매듭흔
	내아 주변 조사구역 (0 · E2)	종방향의 사격자문	8×9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8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갈색 경질	명문 기와
	건물지 6 (N1 · 0)	종방향의 사격자문	9×10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적갈색 경질 정선된 편	명문 기와
	선화당 앞 서편 유구 (S1 · W1)	.	8×9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갈색 경질	명문 기와
		.	9×11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명문 기와
	방지 (N2 · 0)	어골문 변형 I	8×10	안에서 밖으로 - 1/4~1/5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명문 기와
	내아 주변 (0 · E1)	집선문	.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갈색 경질	

표 7. 강원감영지 하층유구 출토 평기와의 특징

	출토지	문양	포흔	와도분활흔	태토	기타
수 키 와	선화당 앞 동편 유구 (S1·E1)	폭 5cm의 반원형 집선문의 반복시문	.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수파문+횡선문	8×8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적색 경질 정선된 편	내면-띠흔 와통쪽흔
	선화당 앞 서편 유구 (S1·W1)	집선문+수지문	9×10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불규칙)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등면-두꺼운 투명유	
	선화당 앞 서남편 유구 (S2·W1)	집선문 (어골문 변형 II)	12×12	안에서 밖으로 여러번 나누어 - 1/2~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S4·0	집선문 (어골문 변형 II)	5×6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투명유	
	"	선문	.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암 키 와	선화당 앞 동편 유구 (S1·E1)	방곽 및 원곽 내 銘文	7×8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얇게 자국만 그음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두께 0.7cm 띠매듭흔
	선화당 앞 서편 유구 (S1·W1)	방곽문	7×8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	집선문 (어골문 변형 II)	7×7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얇게 - 1/4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상단11.2cm下 두께 0.4cm 띠매듭흔
	"	순수 어골문	5×7 7×9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적갈색 경질 정선된 편	
	"	순수 어골문	.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	복합문 (사선문+중선문)	8×8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얇게 자국만 - 1/9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상단5.2cm下 두께 0.3cm 띠매듭흔
	"	사선문+銘文	7×8	안에서 밖으로 여러번 나누어 - 1/2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두께 0.8cm 띠매듭흔 불규칙
	선화당 앞 서남편 유구 (S2·W1)	복합문 (어골문 변형 i + 동심원문+집선문 +순수 어골문)	9×9	안에서 밖으로 한번에 - 1/2~1/3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백색 경질 정선된 편	상단11.2cm下 두께 0.8cm 띠매듭흔
	S4·0	복합문 (방곽문+중선문+ 어골문 변형 i)	7×9	.	가는석립이 섞인 점토 회청색 경질	

미구수키와나 규모가 큰 암키와의 경우 한번에 와도질 하지 못하여 두세 번에 나누어 분활면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층 유구 출토 기와의 경우, 일부 아주 얇게 자국만 낸 뒤 고르게 분활한 기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태토가 매우 정선되고 소성온도가 다른 기와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기와의 문양에 있어서는 그 모티브가 되는 基本形式이 배열 및 복합·혹은 변형되어 이루어지는 樣式의 분류방식에 의거²⁹⁾하여, 크게 “線紋·魚骨紋·水波紋·集線紋·半圓形集線紋·方廓紋·自然紋·幾何學紋”으로 나누었다. [표 8 참조]

‘선문’은 기와등 전면에 종방향으로 굵게 시문하는 전형적인 古式 선문의 경우 S4·0 Grid 하층 유구에서 단 1점 보이며, 대부분 기본형식 그대로 기와 상·하면에 배치되어 다른 문양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어골문’ 또한 중심가지와 양쪽의 곁가지가 모두 나타나도록 반복시문한 순수어골문양과 더불어 기본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방향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타문양과의 조화를 의도한 변형어골문 I 양식과 짧은 길이의 기본형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거나 반복시문하여, 십자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다리꼴의 방곽을 형성하거나 촘촘한 사격자문을 이루는 변형어골문 II 양식이 나타난다. 순수 어골문양의 경우, 하층에서의 빈도수가 높는데 상층에서는 곁가지의 굵기와 폭이 가늘고 좁으며 반복시문시 한쪽 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시문한 것이 많다. 변형 양식은 상·하층 모두 나타나는데, II 양식의 경우 상층에서의 빈도수가 더 높다.

‘수파문’은 여러겹의 반타원형 기본형식을 층층히 겹쳐 시문하는 전형적인 양식이 대다수이다. 이 문양은 상층 출토 기와에서 그 수적 비율이 더 크며, 상층에서는 기본형식을 일정한 간격으로 보다 도식화하여 배치한 변형 양식도 보인다.

‘집선문’의 경우, 하층출토 기와에서는 X자로 분활된 각각의 면 내에 짧은 단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집선한 양식으로, 상층출토 기와에서는 짧은 단선을 여러방향으로 집선하면서 불규칙한 방곽을 형성하는 양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층의 경우 그 조합이나 배열이 보다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반원형 집선문’은 중심축의 양 옆으로 여러 겹의 곡선을 집선하여 반원형을 이루는 기본형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문하는 형태이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반원형 집선문 기와는 수파문과 함께 상

29) 이 글에서 표기하는 문양의 基本形式은 form, 樣式은 style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임을 밝힌다. 또한 문양고찰 방식에 있어 ‘形式→型式→樣式’의 변천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朴洪國, 1986,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磚에 대한 一考察」, 동국대 대학원.

층 유구 출토 기와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방곽문’은 하층유구 출토 기와에서만 보이는 양식으로, 다섯 겹의 방곽을 마련하고 가운데 방곽 내에 종선을 시문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몇몇 기와의 방곽 규격이 일정하여 같은 시기에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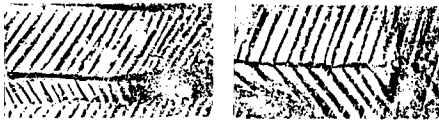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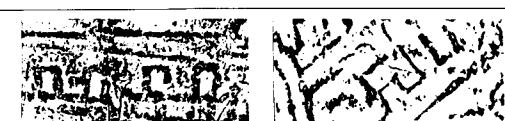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하층유구 출토 기와에는 조밀한 단선으로 잎맥을 표현한 5잎 단풍잎 모양 수지문과 같은 자연문이, 상층유구 출토 기와에는 □, 凸 모양을 연결한 기하학문이 다른 문양 사이에 복합 시문되었다.

가원감영 유적의 상·하층 유구는 건물의 연속적인 중첩과정의 일부인만큼, 두 시기 또한 연결되어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각 층의 대표적인 문양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기본형식을 이용한 시문방식을 관찰해 볼 때 그 비율 상에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순수선문 및 순수어골문·방곽문양은 하층 출토 기와에서만 보이고 있으며, 변형어골문·집선문·수파문·반원형집선문양의 경우, 상·하층에서 함께 출토되지만 그 기본형식의 다양한 변형 및 복합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선문과 방곽문의 모티브는 집선문에, 집선문의 모티브는 수파문에, 수파문과 집선문·변형 어골문의 모티브는 반원형집선문의 형성 및 변형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하층의 기와에는 수지문과 같은 자연문을, 상층의 기와에는 기하학적 문양을 첨가시키고 있다.

하 층		상 층	
선 문	복합 (시문마감)		
어골문	변형 I 변형 II		
방곽문			
	집선문	방곽 및 격자형성	
	수파문		
	반원형 집선문	도식화	
	자연문 첨가	기하학문 첨가	

표 8. 강원감영지 출토 평기와 문양분류도

문양		그림		출 토 지 역	
		상 층	하 층	상 층	하 층
선 문	순수				· S4 · 0 Grid 내 유구
	변형 및 복합			· 보도 1(S4 · E2 · S4 · E3) · 방지(N2 · E1) · 내아주변조사구역(0 · E2)	· S1 · W1 Grid 내 유구
어 골 문	순수			· 방지(N2 · E1)	· S1 · W1 Grid 내 유구
	변형 I			· 방지(N2 · W1)	· S2 · W1 Grid 내 유구 · S4 · 0 Grid 내 유구
	변형 II				· S1 · W1 Grid 내 유구 · S4 · 0 Grid 내 유구
격자문				· 건물지 6(N1 · 0) · 내아주변조사구역(0 · E2)	
수파문				· S1 · E1 Grid 내 유구 · S5 · E1 Grid 내 유구 · 방지(N2 · E1) · 보도 1(S4 · E3) · 내삼문지(S4 · E2)	· S1 · E1 Grid 내 유구
집선문				· 방지(N2 · E1) · 내아주변조사구역(0 · E2)	· S2 · W1 Grid 내 유구
반원형집선문				· 보도 1(S4 · E3) · 내삼문지(S4 · E2)	· S1 · E1 Grid 내 유구
방곽문					· S1 · W1 Grid 내 유구 · S4 · 0 Grid 내 유구
기 타				· 경현사 채집기와 (추정 내삼문지, 혹은 중삼문지) · 보도 1(S4 · E3)	· S1 · E1 Grid 내 유구

특히 보도1 조사 구역에서 출토된 5점의 기와는 조금씩 다른 문양을 가지고 있으나 시문방식의 차이일 뿐, 기본형식이 되는 수파문 및 반원형집선문의 규격이 동일하여 모두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건물지에서 출토된 같은 문양의 기와에 대해 그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塼

하층에서 출토된 2점의 경우, 전틀 바닥에 포목을 깔고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여 성형한 뒤 윗면은 모서리를 둥글게 손질하였다. 그에 비하여, 상층에서 출토된 3점은 네 면 모두 반듯하게 각이 졌지만 한 쪽 면만 정면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의 제작도와 그에 따른 제작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살펴본 결과, '상층' 과 '하층' 에서 출토된 기와 및 塼을 통해 유물 및 유적의 절대적 편년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제작방식 및 문양별 분포 비율상 구별되어지는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인 시간의 폭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하층' 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는 비록 소량이지만 하나 古式 線紋 및 魚骨文 · 鬼目紋 막새 · 梵字文 기와 등 高麗時代에 유행하여 朝鮮時代初期에는 점차 사라지는 특징을 지닌 기와들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은 상 · 하층의 시기적 상대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조선시대의 강원감영과 원주목 이전의 또 다른 건물의 존재여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최영희

2) 磁器 및 陶器類

강원감영의 하층유구에서 출토된 자기는 조선초기에 사용된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분청사기는 상감문·인화문접시, 대접편들이고, 백자는 접시, 대접, 잔, 항아리가 확인되었다. 도기는 기형을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구연부편과 저부만 출토되었다.

분청사기는 접시와 대접의 구연과 저부편들만 출토되었는데, 문양별로 살펴보면, 국화문, 연화문, 원문, 초문, 우점문 등의 상감문과 인화문이 확인되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암갈색을 띠며, 유약은 담청색투명유·담회청색유가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표면이 탈락된 것도 보인다. 소성은 굽에 유약을 바르고 모래받침을 한 것과 굽의 유약을 훑어내고 모래받침한 것이 확인되었다.

백자 항아리는 모두 저부편으로 윤적성형을 했고 바닥이 평저이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저화도 소성으로 적갈색·암갈색·회색을 띠고, 유약은 회녹색·회청색유를 시유하였는데 고르지 못하며, 바닥은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모래받침으로 번조했다. 기벽이 두껍고, 균열이 많이 보이는 조질 백자이다. 조선초기 백자항아리의 시원적인 기형으로 판단된다.

백자 접시, 대접, 잔은 크게 태토비짐눈받침과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태토비짐눈 받침으로 번조한 접시와 대접은 물레성형이 거칠게 이루어졌고 질감이 떨어지며, 대부분 포개어서 번조했다. 내저면에는 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원각이 있는 것은 굽의 지름보다 넓게 돌아간다. 구연부는 외반이 뚜렷하고 기벽이 얇으며, 태토비짐눈은 내저면과 접지면에 4개씩 받쳤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대부분 회백색이나 유백색도 보이고 유약은 담청색·담회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굽에는 시유하지 않았다. 굽 안에는 목서가 보이는데, 태토비짐눈으로 받쳐서 번조한 접시에서만 보인다. 굽은 죽절굽과 직립굽이다. 세립의 모래받침으로 번조한 접시, 대접, 잔은 대부분 양질에 속하며, 포개어 번조하지 않았다. 접시 중에는 구연이 외반된 것과 내만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외반된 접시는 내저원각이 굽지름보다 넓고 측사면이 거의 사선으로 바라지며, 내만한 접시는 내저원각이 굽지름과 비슷한 너비이고 원각이 희미하다. 대접과 잔은 구연이 외반되고 굽지름과 비슷한 너비의 내저원각이 모두 있으며, 측사면이 곡면을 이룬다. 태토는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과 연한 회백색을 띠고 담회백색·담청색·담회청색 투명유가 전면적으로 시유되었다. 굽은 접시와 대접 대부분이 접지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굽의 형태를 하고 직립굽도 보인다. 굽 안에 목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기는 흑회색 경질도기 항아리 구연부편 2점과 구연과 동체부가 결실된 4점의 저부가 출토되었다. 구연부편은 대형과 소형 항아리로 파악되는데, 대형 항아리는 태토가 굽은 모래가 다량으로 혼

표 9. 하층출토 자기 및 도기 속성 분류

명 칭	특 징							비 고
	태토(色)	유약(色)	소성 (번조)	구연	굽 (저부)	성형	내저원각	
분청 사기	· 회백색 · 암갈색	· 담청색투명유 · 담회청색유	· 모래받침	· 외반 · 직립	· 직립 · 삼각	· 물레		· 문양: 국화문, 연화문, 원문, 초문, 우점문
백자 접시	· 회백색 · 유백색	· 담청색투명유 · 담회백색투명유 · 담회청색투명유	· 태토비집 눈받침 · 세립모래 받침	· 외반 · 내만	· 직립 · 삼각 · 죽절	· 물레	· 외반 구연: 넓음 · 내만 구연: 좁음	· 태토비집눈받침: 굽 안에 목서가 있음, 굽 에 시유 안함, 포개어 번 조, 기면이 거칠다 · 모래받침: 포개어 번 조하지 않음, 기면이 매끄러움
백자 대접 (잔)	· 회백색 · 유백색	· 담회백색투명유 · 담청색투명유	· 태토비집 눈받침 · 세립모래 받침	· 외반	· 직립 · 삼각	· 물레	· 굽지름과 비슷함	· 태토비집눈받침: 기 면이 거칠고 굽에 시 유 안함
백자 항아 리	· 적갈색 · 암갈색 · 회색	· 회녹색 · 회청색	· 모래받침		· 평저	· 윤적		· 구연부와 동체가 파실됨
도기 항아 리	· 흑회색			· 외반	· 평저	· 물레 · 윤적		· 소형항아리: 구연과 동체부 접합 · 외면: 타날문과 초 화문이 시문되고 손 잡이 흔적 있음

입된 점토를 사용했고, 구연의 입술면이 넓다. 소형 항아리는 태토가 정선된 점토에 소량의 모래가 혼입되었고 구연과 동체부를 접합하여 성형했다. 4점의 흑회색 도기항아리 저부는 한 곳에서 함께 출토되었는데, 기형상 대형의 항아리로 구연과 동체부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후 매납한 것이다. 항아리 외면에는 손잡이가 달렸다가 떨어져 나간 자국과 타날문양과 초화문이 음각되어 있다.

상층에서 출토된 자기는 소형의 접시(굽접시, 청화명 접시, 전접시), 대접(청화대접, 철화대접, 굽대접, 청화명 대접), 잔, 병, 항아리 등이 확인되었고, 도기는 기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항아리 구연부편과 시루바닥편이 출토되었다.

접시는 하층에서 출토된 접시보다 작은 소형의 접시이다. 종류로는 백자접시, 청화명접시, 굽접시, 전접시 등이다. 백자접시는 굽이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구분된다. 구연은 내만한 형태가 대부분

가 제작되기 시작된다. 하층에서 출토된 백자항아리는 15세기말 광주에 관요인 분원이 설치되면서 제작되기 시작한 초기 백자항아리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세련되지 못한 기형에 소성도가 낮고 윤적성형에 반듯한 평저를 갖추고 있으며, 기벽에 격자타날문, 회녹색유가 고르게 시유되지 못하다. 이러한 특징은 절대연대를 보여주는 15세기말 백자태항아리의 외형³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작법이다. 접시와 대접은 기벽이 얇고 태토비집눈받침과 세립의 모래받침, 굽 안의 묵서, 내저원각이 있으며, 양질과 조질백자가 확인된다. 또한 태토의 소성 후 색조가 대부분 회백색을 띠고, 담회백색,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15세기말에서 16세기 초반에 운용되었던 광주의 우산리 9호³¹⁾ · 17호³²⁾가마, 번천리 5호³³⁾가마, 도마리 1호³⁴⁾가마, 건업리 2호³⁵⁾가마 등에서 출토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원주에서 운용된 15세기말에서 16세기초의 가마는 소곡리 현계산 요지와 반계리 요지가 있다³⁶⁾.

상층에서 출토된 자기 및 도기류는 18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 해당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19세기의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18세기로 추정되는 백자는 19세기의 것보다 제작과 소성에서 세련된 양상을 보인다. 접시, 대접, 병, 잔, 항아리는 태토의 소성 후 색조가 유백색, 연한회백색 색조를 띠고 유약은 유백색유, 담청색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했으며, 양질에 가깝다. 소성은 그다지 굵지 않은 모래받침으로 깔끔하게 번조했다. 19세기의 백자는 대부분 굵은 모래받침 혹은 태토와 굵은 모래를 혼입하여 번조했으며, 포개어 번조한 것이 많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가 회백색을 띠며, 담청색유, 담회청색유를 시유했다. 이 시기의 청화, 철화백자 그리고 제기로 사용된 「壽」, 「福」명 접시(굽), 대접(굽), 굽 잔은 태토의 소성 후 색조가 백색 · 연한 회백색을 띠며, 포개어 번조하지 않았다. 20세기에 제작된 자기는 열판 소성의 것이 있는데, 방지에서 출토된 분청음각문주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운용된 원주지역의 요지로는 반계리 요지, 판대리 요지, 단강리 요지가 있으며³⁷⁾, 이 요지들에서 제작된 것을 강원감영에 공납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삼릉 태실』을 참조하면, 15세기 후반 성종 왕자와 왕녀의 태항아리에서 똑같은 제작기법을 찾아 볼 수 있다.

3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32) 海剛陶磁美術館, 1999. 『廣州牛山里 白磁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33)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앞 책 pp.3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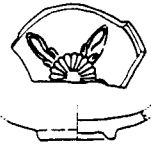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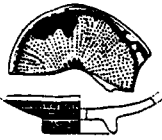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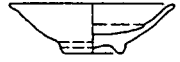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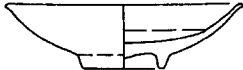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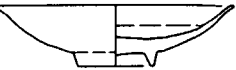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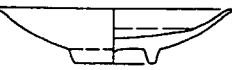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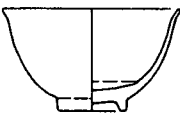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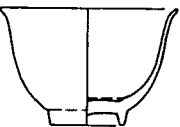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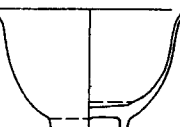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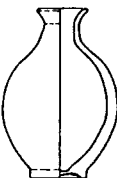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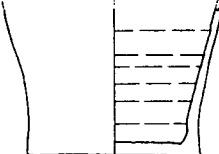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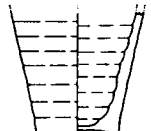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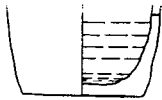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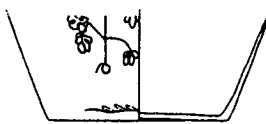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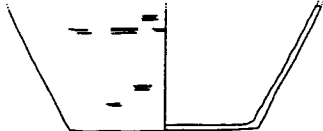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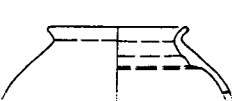
34) 國立中央博物館, 1995.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1號 窯址-』

35) 海剛陶磁美術館, 2000.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査報告書-』

36)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pp.630-633.

37)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앞 책, pp.630-633.

표 11. 강원감영지 출토 자기 및 도기 분류도

분 류	하	층	상	층
분청사기				
백자접시				
백자대접				
백자잔				
백자병				
백자항아리				
도 기				

※ 참고문헌

- 尹龍二, 1994.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 姜敬淑, 1999. 『韓國陶磁史』, 一志社.
- 淑明女子大學校博物館, 1991. 『高麗·朝鮮朝 陶磁』.
- 建國大學校博物館, 1991. 『韓國의 陶磁器』.
- 海剛陶磁美術館, 2000.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延世大學校博物館, 1982. 『韓國磁器展』.
- 國立中央博物館, 1995.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3.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 海剛陶磁美術館, 1999.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 연세대학교박물관, 1993. 『조선시대 질그릇』.
- 江原鄉土文化研究會, 1997. 『原州의 歷史와 文化遺蹟』.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9. 『西三陵 胎室』.
-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牧官衙址』.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南漢行宮址』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3) 기타유물

화폐는 상충유구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중국 청나라 고종때(1736~1796)의 화폐인 乾隆通寶 1점과 상평통보 12점이 출토되었다. 상평통보는 배면에는 鑄錢所를 알 수 있는 戶曹에서 주조된 戶三, 戶日과 宣惠廳(순조 6년-1806)에서 주조된 惠三, 惠一, 均役廳에서 주전된 均□ 등과 주조시기를 알 수 있는 고종때 주조된 當五錢³⁸⁾(1883~1894)과 千字文順³⁹⁾의 天, 寒, 荒 등의 명문이 양각된 화폐가 출토되었다.

건물지 별로 보면 공방고에서 중국화폐인 건륭통보 1점, 책방에서는 고종때 주조된 상평통보 당오전 2점이 출토되었고, 보도 1에서 상평통보 2점이 출토되었다.

석제접시 석질은 화강암질이고 내저면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굽은 둥글고 굽 안은 거칠게 치석했다.

금동허리띠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주된 재료는 청동으로 주조되었으며, 표면에 금박을 입혔다. 표면에는 당초문과 연주문양이 세련되게 표현되어 있다. 테의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고리는 원형이다.

윤 석 인

38) 계명대학교 박물관, 2000.《韓國과 中國의 古錢》, pp. 66~69.

상평통보는 발행시기에 따라 單字錢(숙종 4년-1678), 當二錢(숙종 5년-1679), 中型 錢(영조 28년-1752), 當百錢(고종 3년-1866), 當五錢(고종 20년-1883)으로 분류된 다.

39) 계명대학교, 2000. 앞의 책, pp.70~72.

상평통보는 千字文順, 五行順, 數字順, 符號順으로 세분된다.

VIII. 맺 는 말

江原監營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도 26개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관할하던 강원도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高宗 때까지 많은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소실되거나 파괴된 상태이지만 조사결과 關東誌에 보이는 감영의 건물 위치에서 행각지를 제외하곤 中三門址, 內三門址, 工房庫, 冊房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포정루와 중삼문지와 내삼문지를 거쳐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보도, 선화당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둘러쳐진 담장지, 선화당 뒤편 현 우체국자리에 위치한 방지의 호안석축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선화당을 중심으로 서편지역에 위치하였던 건물지들은 대부분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었고, 남아 있는 건물지들도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알 수 없었다.

이번 강원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하층유구에서는 건물지와 담장지 등이 일부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 강원감영 이전의 原州牧 官衙建物址로 여겨진다.

강원감영지 건물 복원에 있어 현재 발굴조사 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중 문헌 및 지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중삼문, 내삼문, 보도 그리고 일부 담장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확인된 구지표 높이인 포정루 초반석 상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인 복원 레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원레벨 조성시 현재보다 레벨이 낮아지는 관계로 반드시 배수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원감영지의 연못지인 방지의 호안석축으로 여겨지는 석축과 축대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인 범위나 형태는 현재 우체국이 위치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우체국 이전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강원감영지는 전국 감영지 중에서도 건물(선화당, 포정루, 청운당)과 유구(중삼문지, 내삼문지, 공방고지, 책방고, 보도, 담장지, 행각지)가 비교적 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 이전의 원주목 관아의 건물지 등이 하층에 그대로 잘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지정 문화재(사적지)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지 현 병

사 진



①



②

〈사진 1〉 ① 원주 강원감영 조사 전 모습(건물 철거 전)
② 원주 강원감영 조사 전 모습(건물 철거 후)



①



②

〈사진 2〉 ① 탐색조사갱 넣은 모습
② 선화당 서편지역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3〉 ① 선화당 모습

② 상충유구 조사 후 모습(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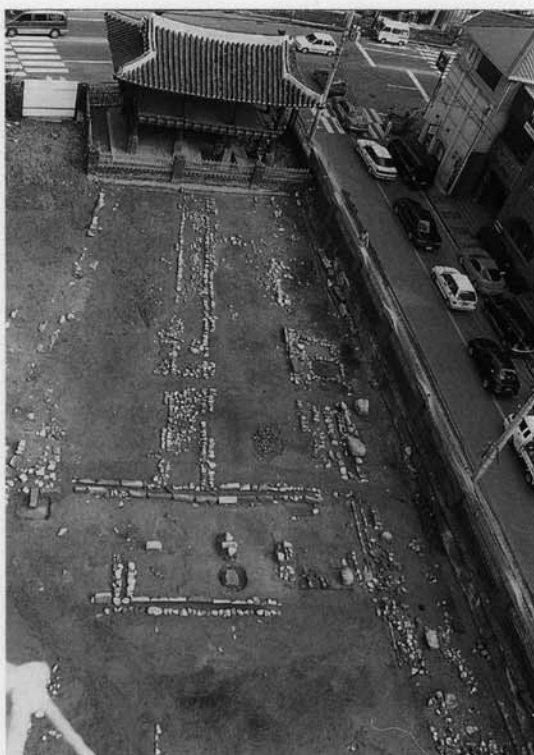


①



②

〈사진 4〉 ① 포정루 모습
② 포정루 초석 모습



①



②

〈사진 5〉 ① 포정루 주변지역 조사 후 모습(서-동)
② 건물지 1(중심문지) 모습(남-북)



①



②

〈사진 6〉 ① 건물지 1(중삼문지) 모습(북·남)
② 건물지 1(중삼문지) 초석 모습



①



②

〈사진 7〉 ① 건물지 1(중삼문지) 배수로 모습
② 건물지 2 모습(동-서)



①



②

〈사진 8〉 ① 건물지 2 초석 및 고래자리 모습
② 건물지 3(내삼문지 지역)조사 후 모습(동-서)



①



②

〈사진 9〉 ① 건물지 3(내삼문지) 모습(서-동)
② 건물지 4(공방고지) 모습(남-북)



①



②

〈사진 10〉 ① 건물지 4(공방고지) 고래자리 모습
② 건물지 5(책방지) 모습(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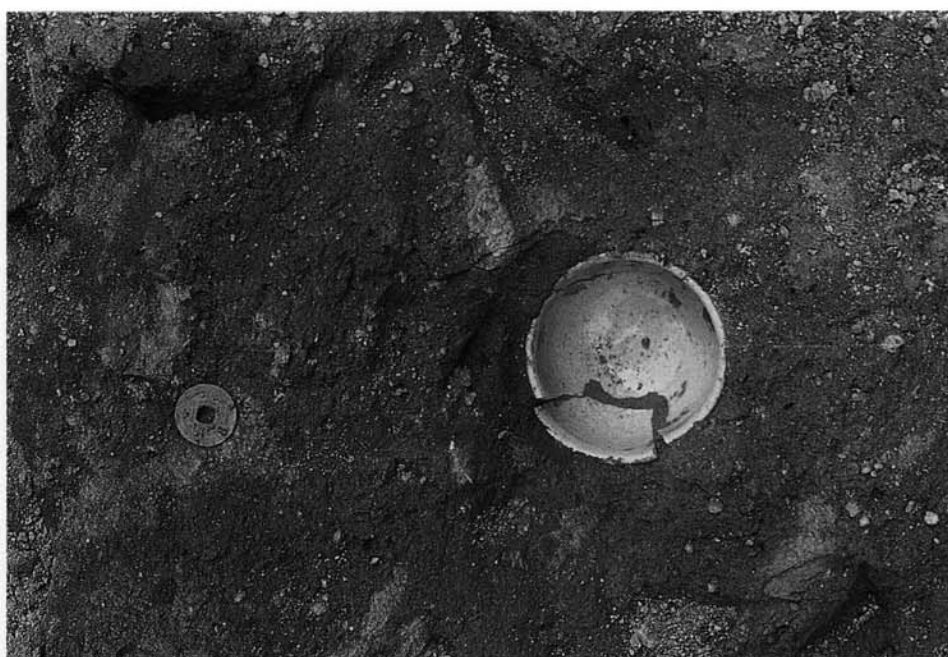


①



②

〈사진 11〉 ① 건물지 5(책방지) 모습(남-북)
② 건물지 5(책방지) 고래자리 모습



①



②

〈사진 12〉 ① 건물지 5(책방지) 유물 나온 모습
② 건물지 6 모습(동-서)



①



②

〈사진 13〉① 배수로 모습(동-서)
② 보도 1 모습(동-서)



①



②

〈사진 14〉 ① 보도 1 모습(서-동)
② 보도 2 모습(남-북)



①



②

〈사진 15〉① 보도 2 동쪽 유구 모습(북-남)
② 담장지 모습(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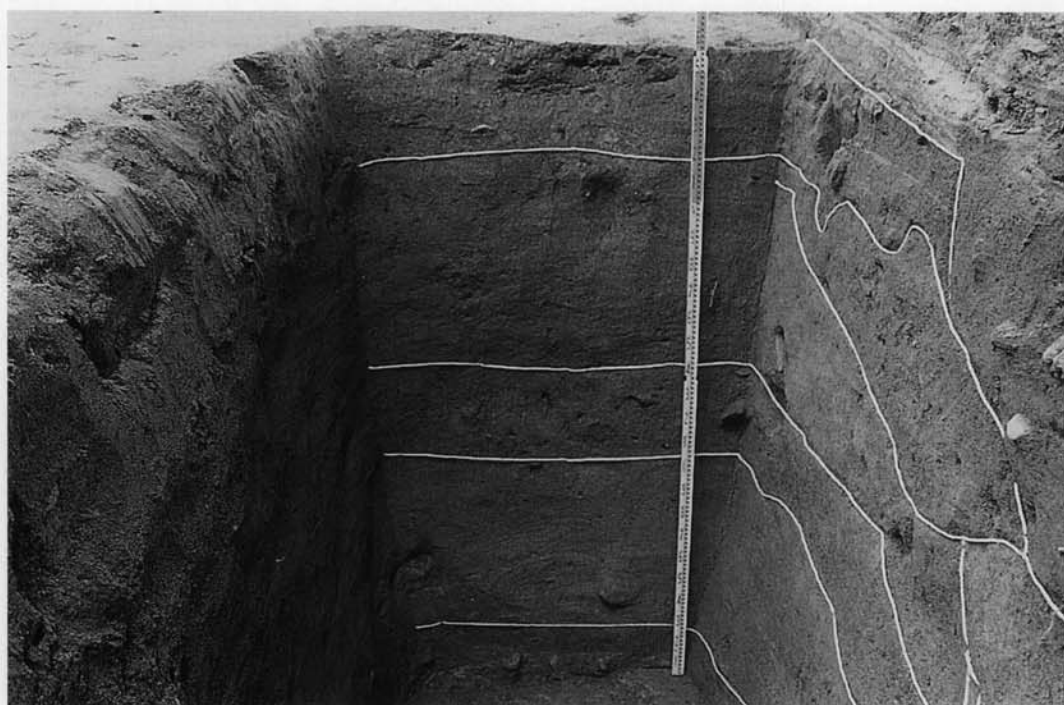


①



②

〈사진 16〉① 담장지 서편 모습
② 방지 지역 토층 모습



①



②

〈사진 17〉 ① 방지 지역 토층 모습
② 방지 호안석축 모습(서-동)



①



②

〈사진 18〉 ① 방지 호안석축 모습(동-서)
② 방지 지역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9〉 ① 하층유구 조사 후 모습(남-북)
② 하층유구 조사 후 모습(동-서)



①



②

〈사진 20〉 ① 하층 건물지 모습(동-서)
② 하층 건물지 모습(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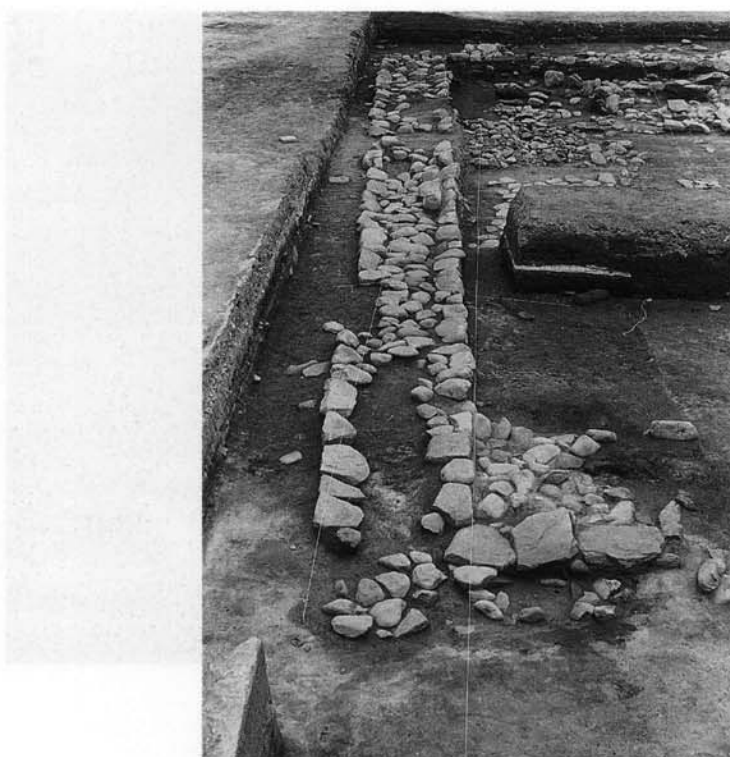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1〉 ① 하층 건물지 모습(남-북)
② 담장지 1 모습(동-서)



①



②

〈사진 22〉 ① 담장지 1 모습(북-남)
②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3〉 ① 하층 담장지 2지역 조사 후 모습
② 담장지 2 모습(남-북)



①



②

〈사진 24〉 ① 담장지 2 모습

② 담장지 3 지역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25〉 ① 담장지 3 지역 토층 모습
② 담장지 3 모습(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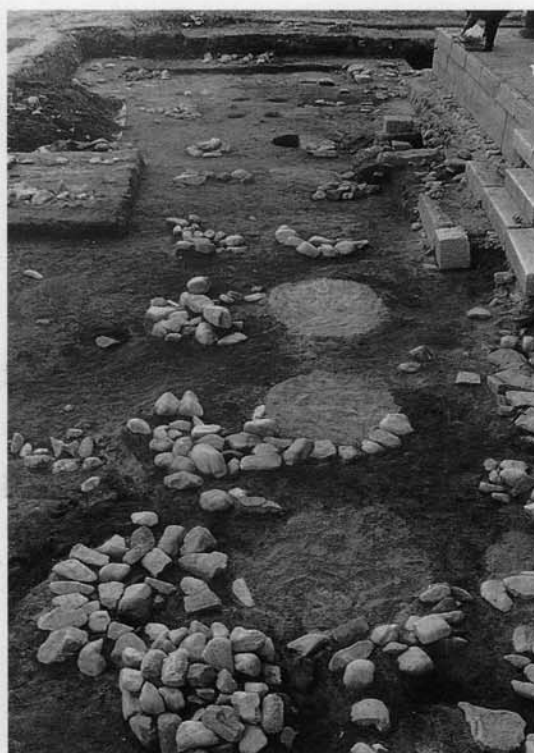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6〉① 담장지 3 남편 유구 내 유물 나온 모습
② 하층유구 1 모습(북-남)



①



②

〈사진 27〉 ① 하층유구 1 모습(동-서)
② 하층유구 1 주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8〉 ① 하층유구 2 (매납유구) 모습(동-서)

② 하층유구 2 (매납유구) 내 토기 나온 모습



〈사진 29〉 하층유구 2 주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0〉 ① 하층유구 3 모습(동-서)
② 하층유구 4 모습(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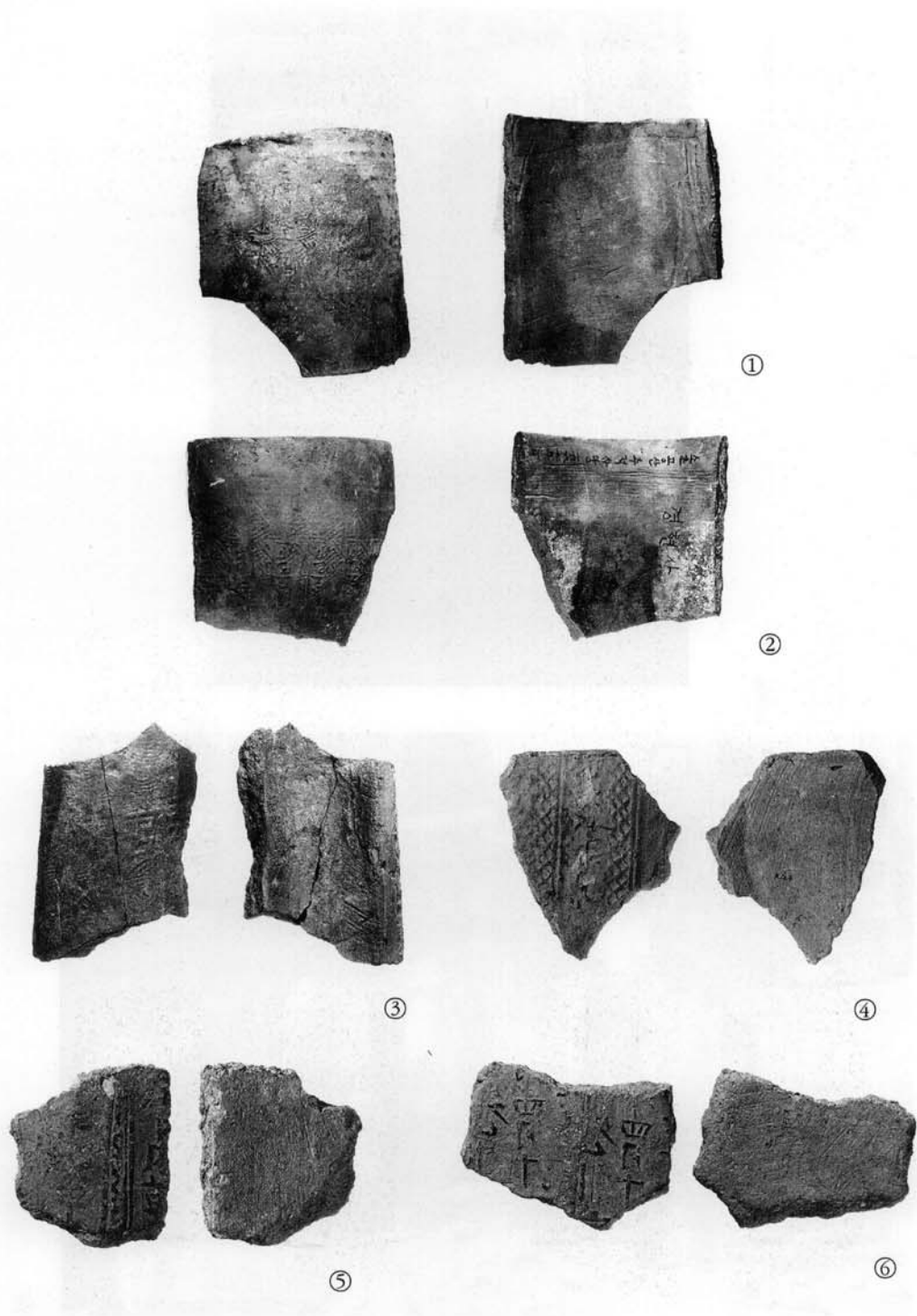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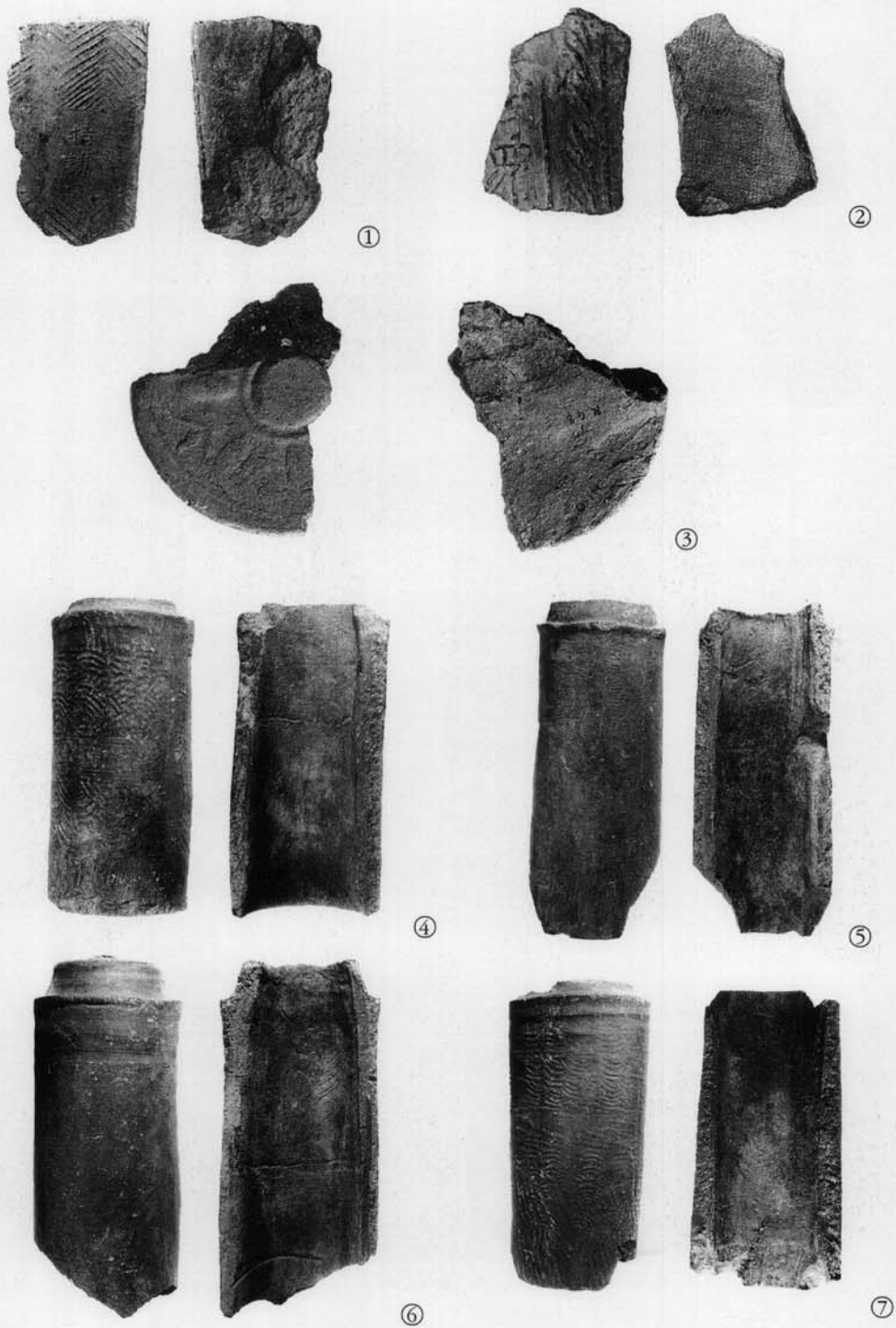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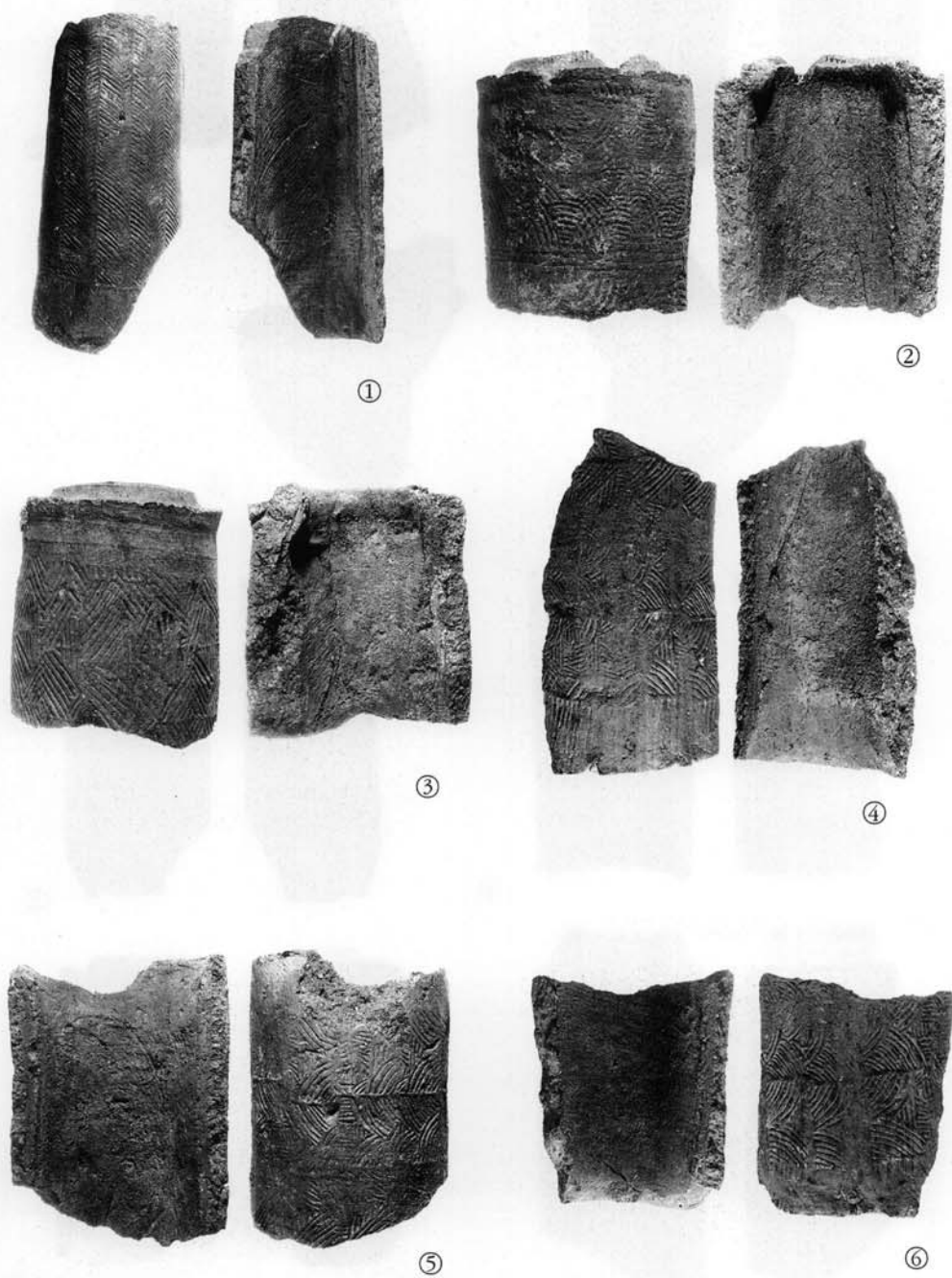
〈사진 31〉 ① 토층 단면모습
② 지도위원회의 모습



〈사진 32〉 상총유구 출토유물



〈사진 33〉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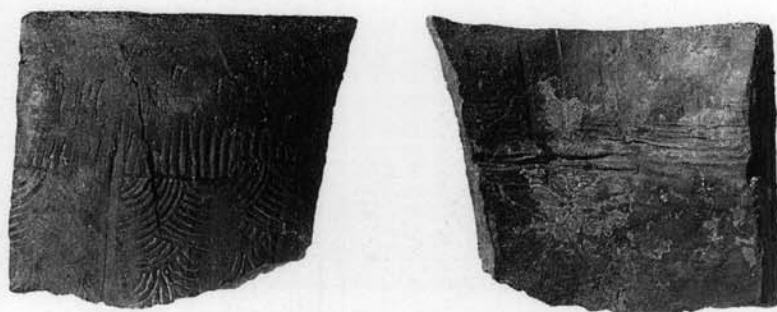
〈사진 34〉 상충유구 출토유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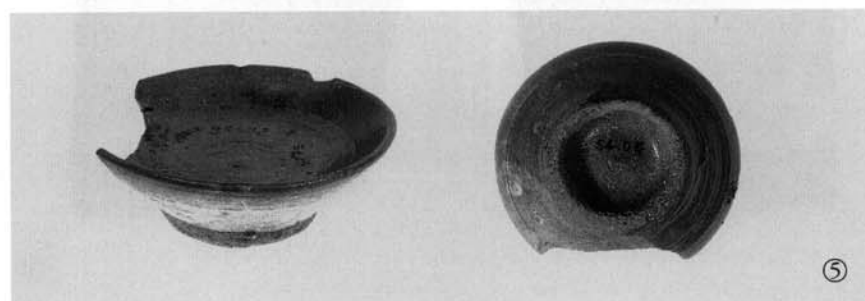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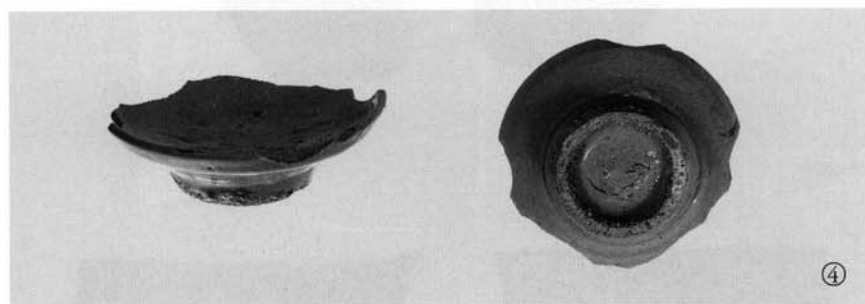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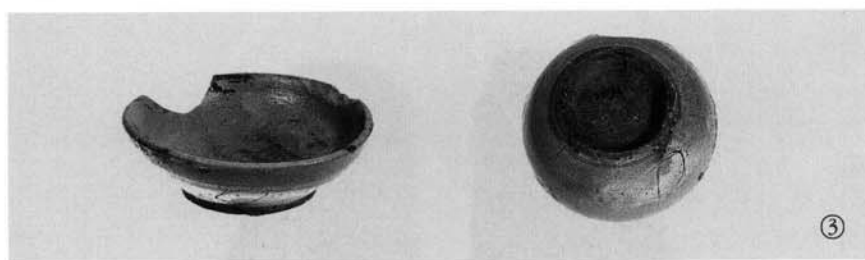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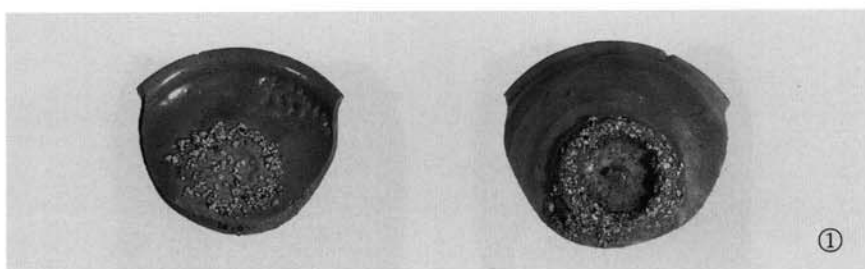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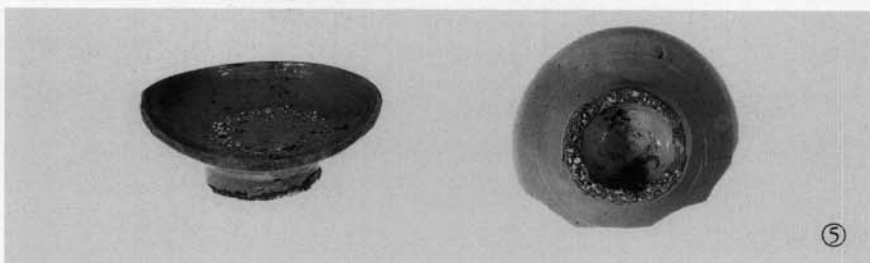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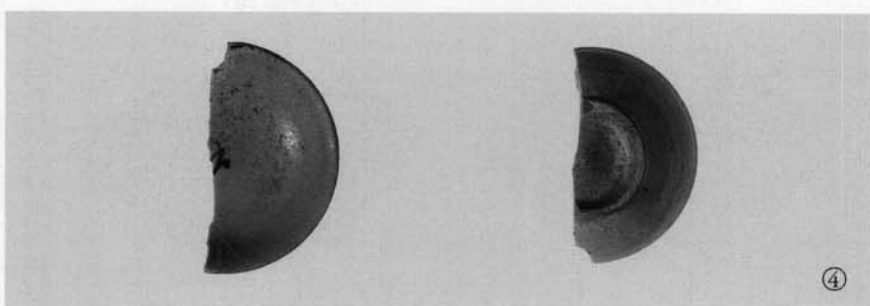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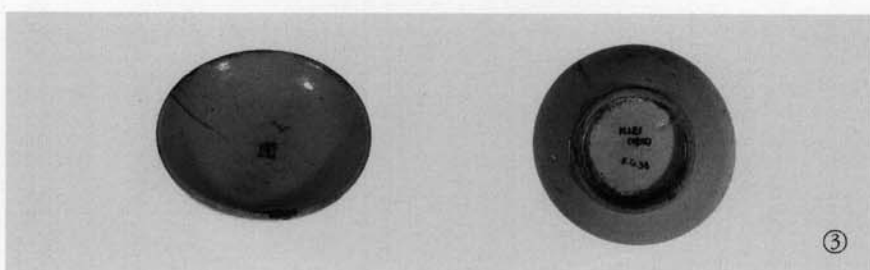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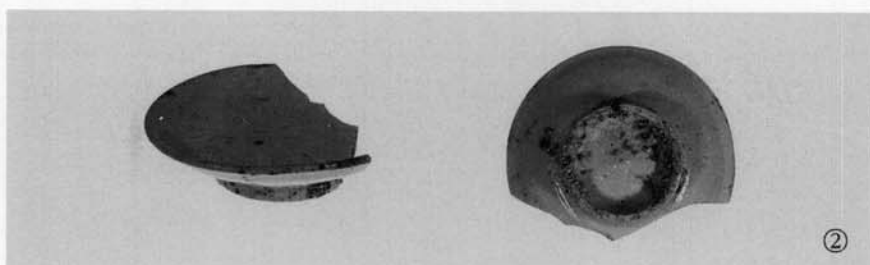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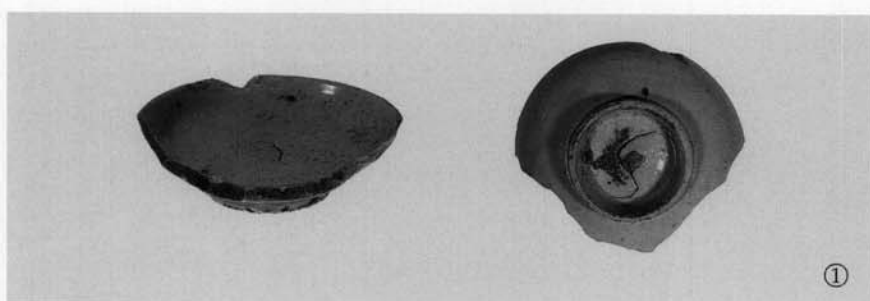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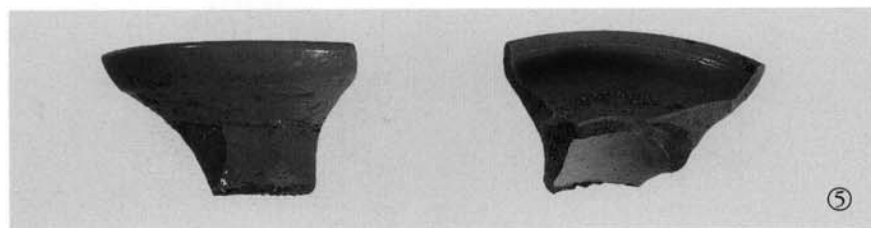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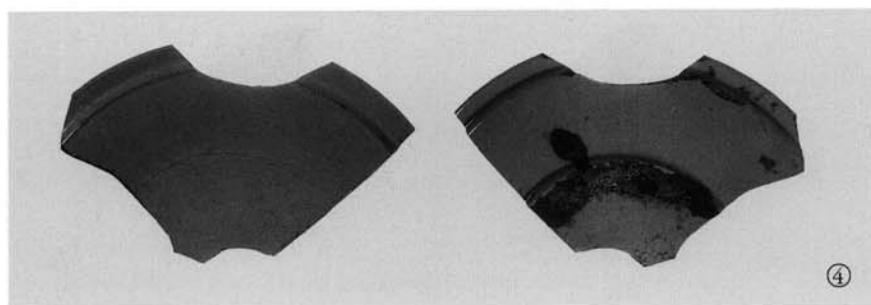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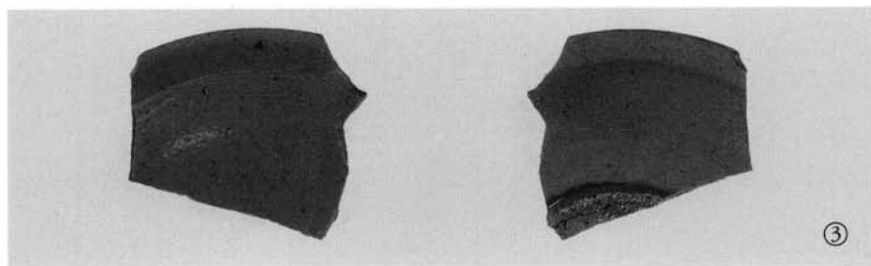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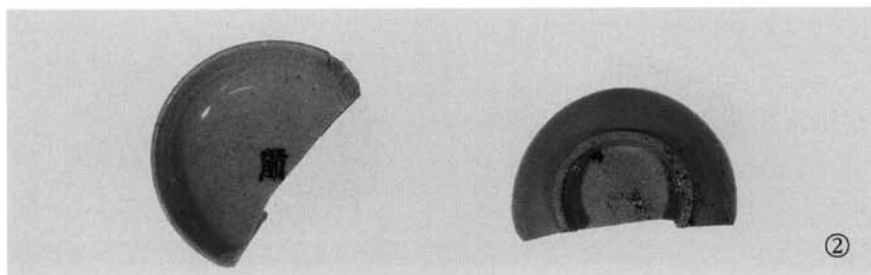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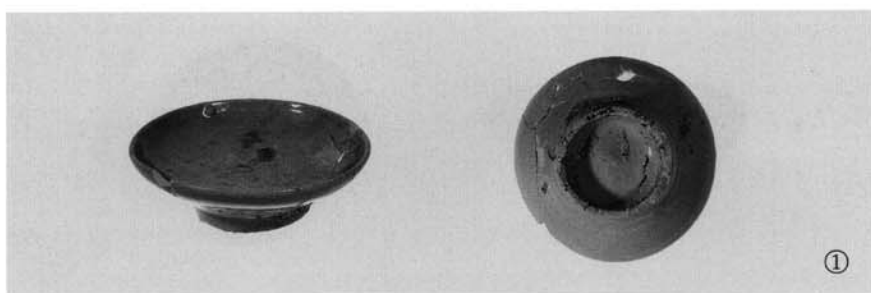
〈사진 35〉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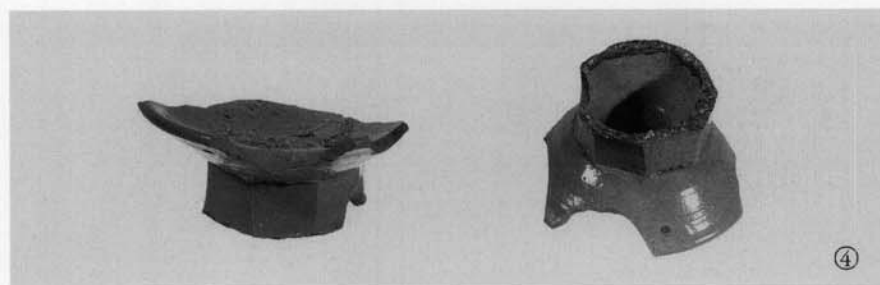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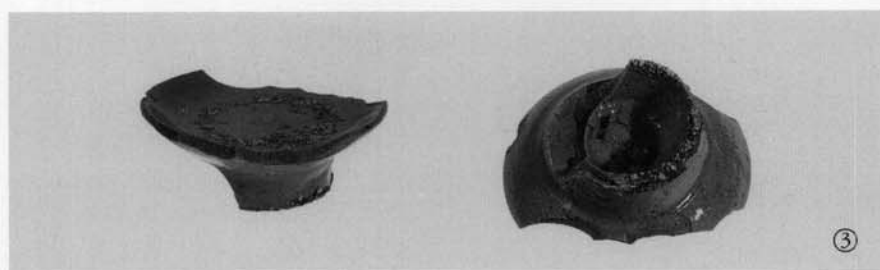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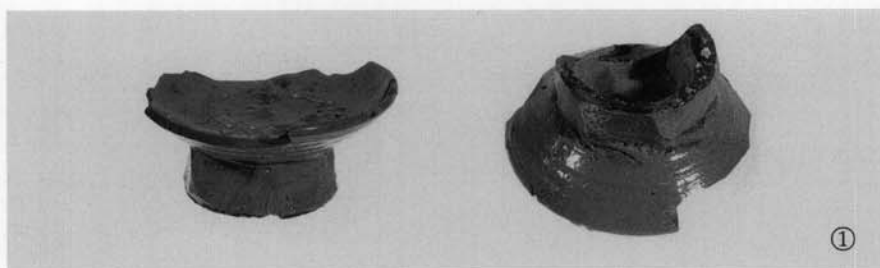
〈사진 36〉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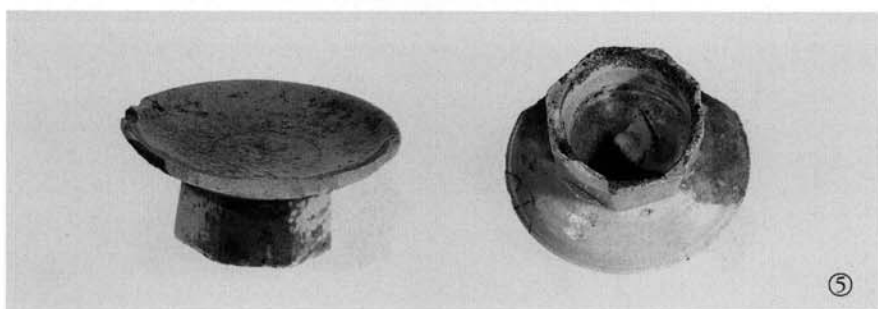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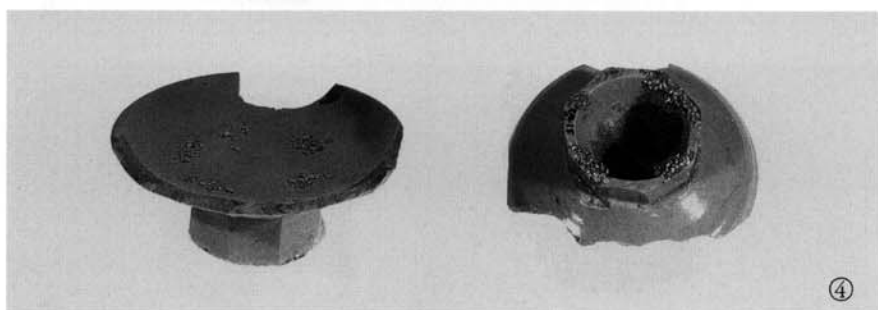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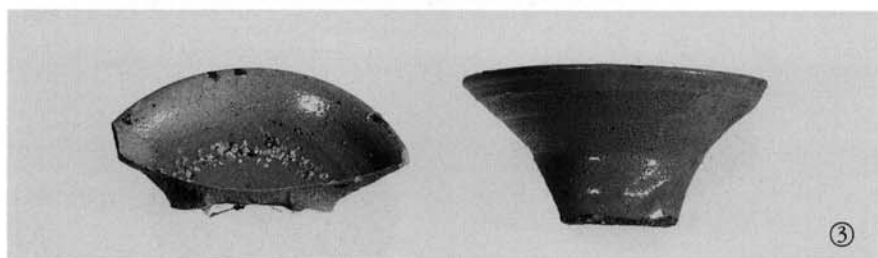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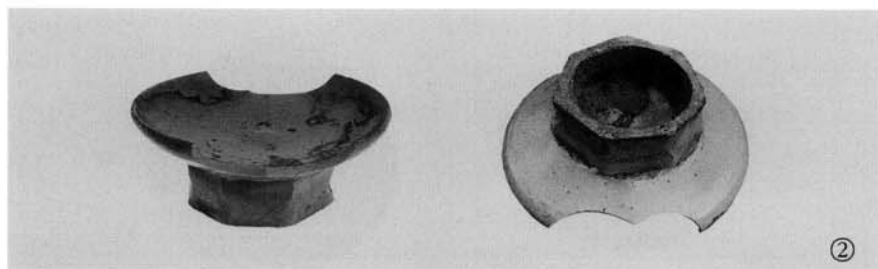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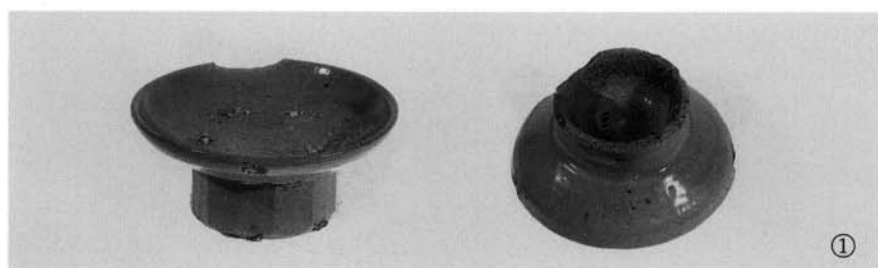
〈사진 37〉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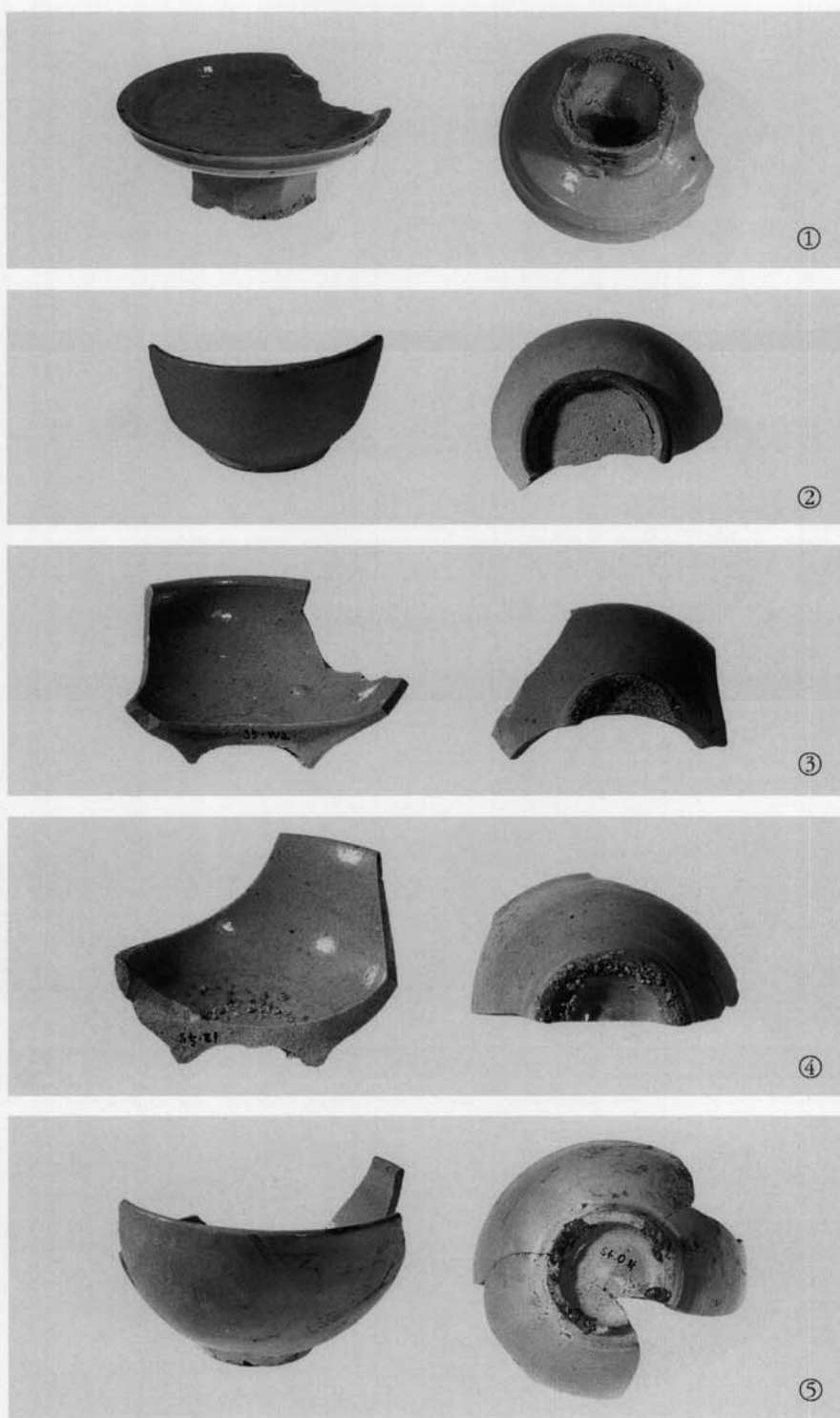
〈사진 38〉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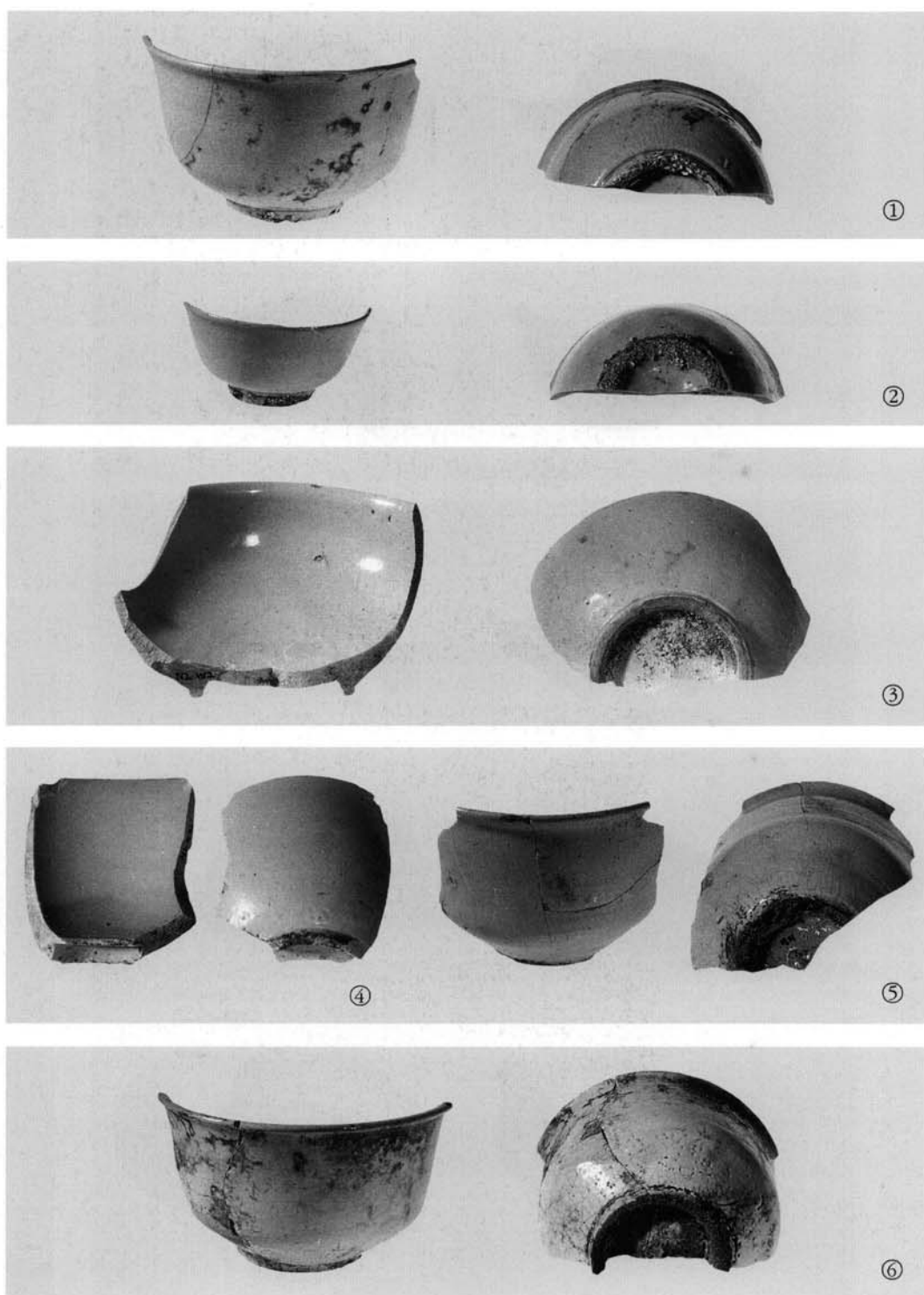
〈사진 39〉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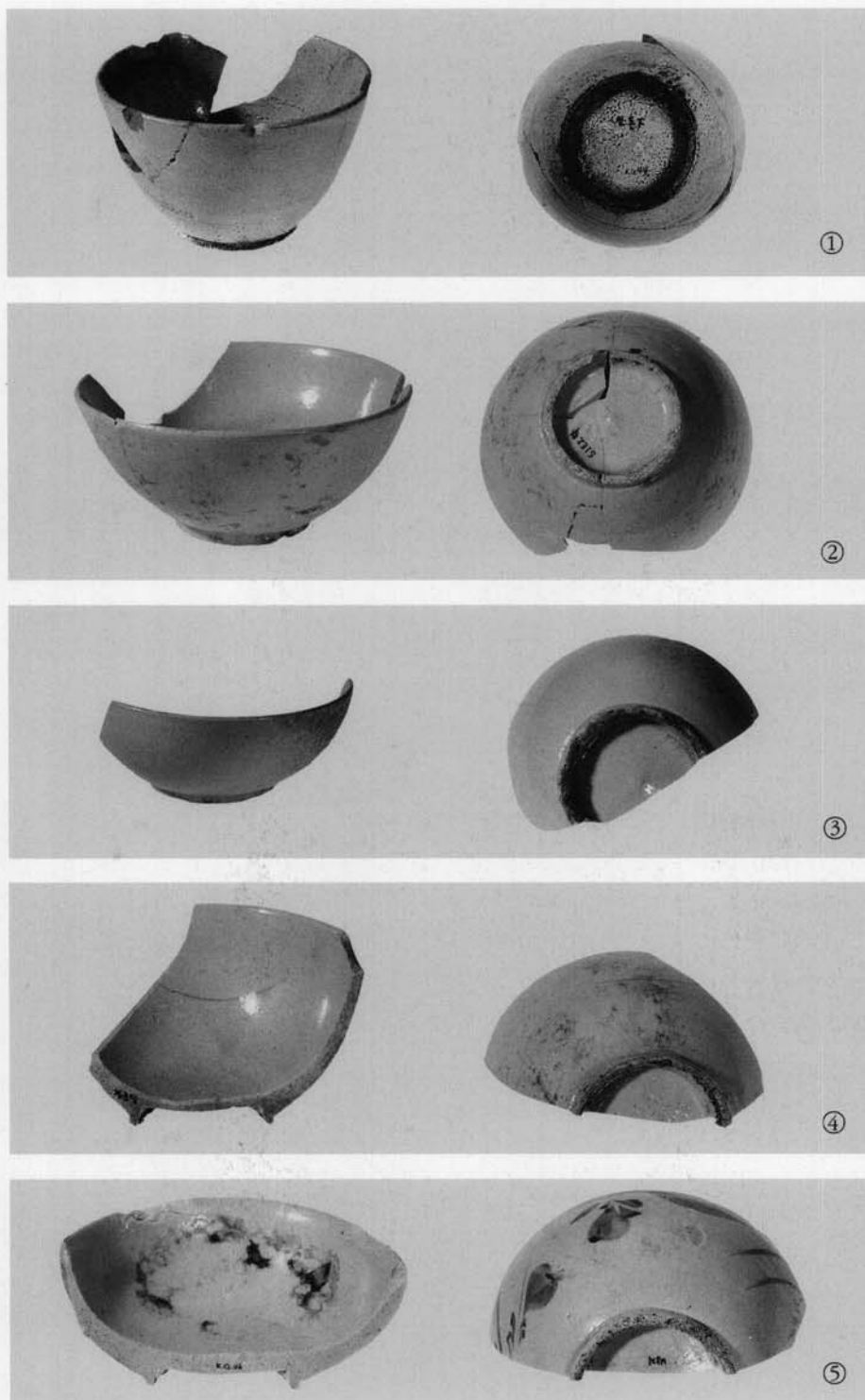
〈사진 40〉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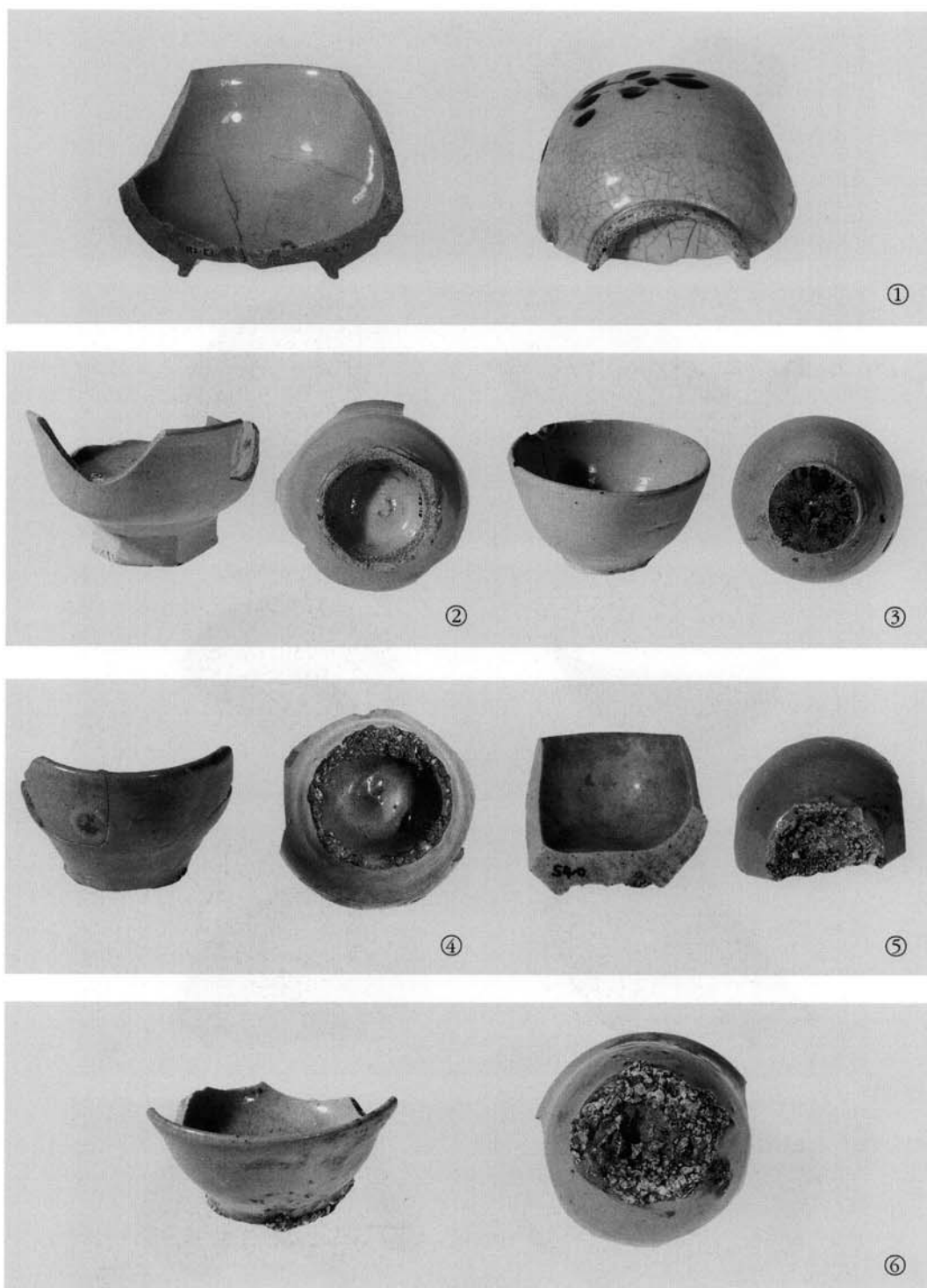
〈사진 41〉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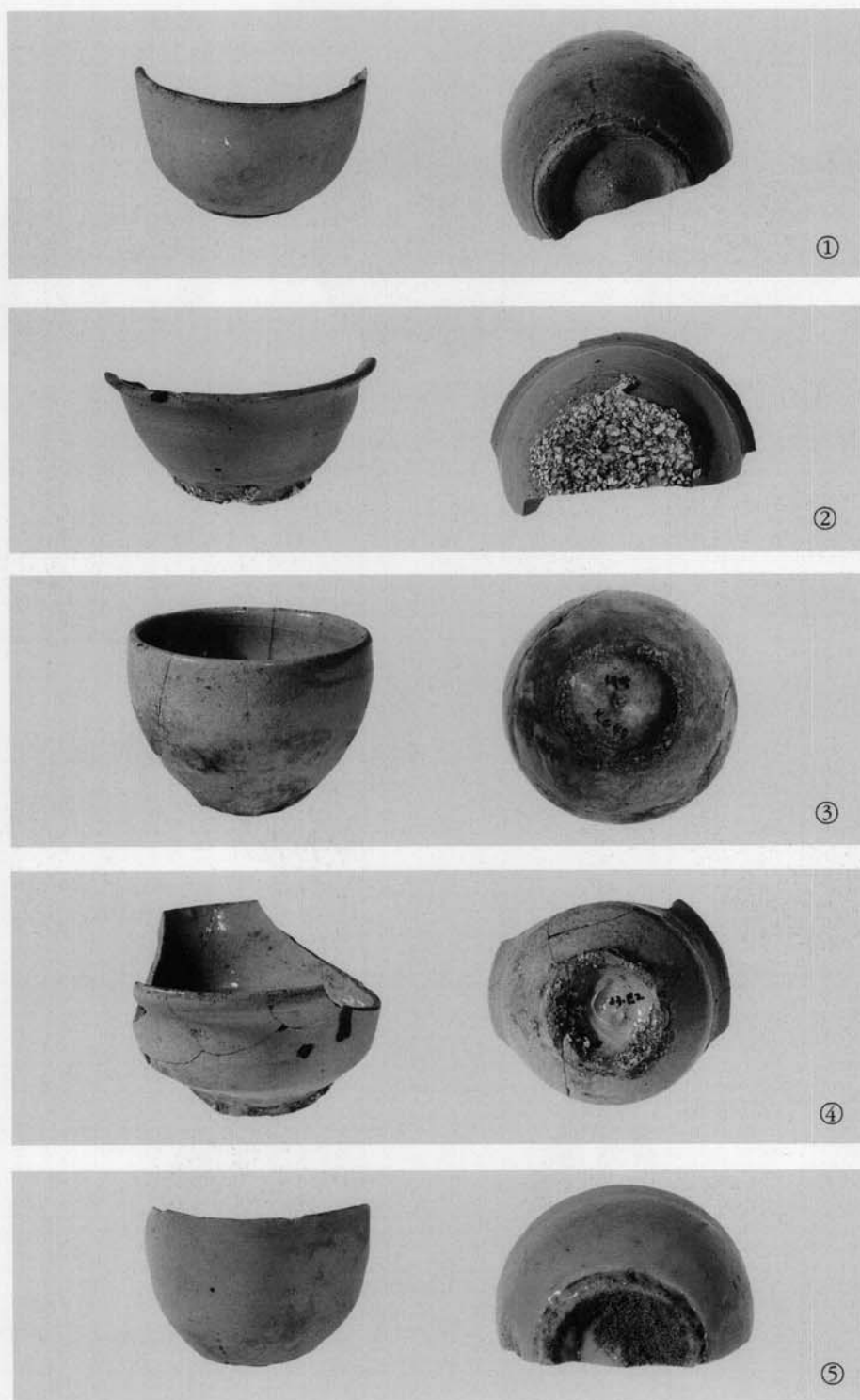
〈사진 42〉 상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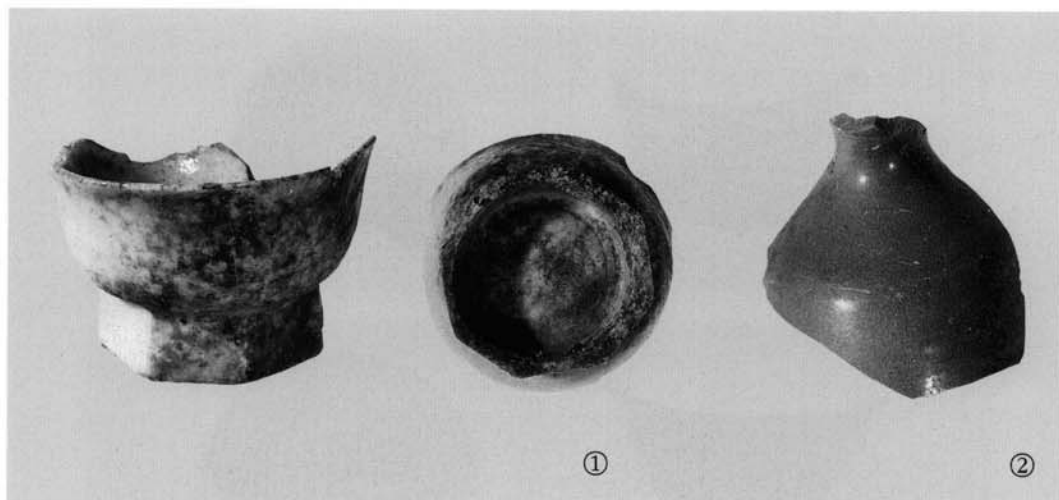
〈사진 43〉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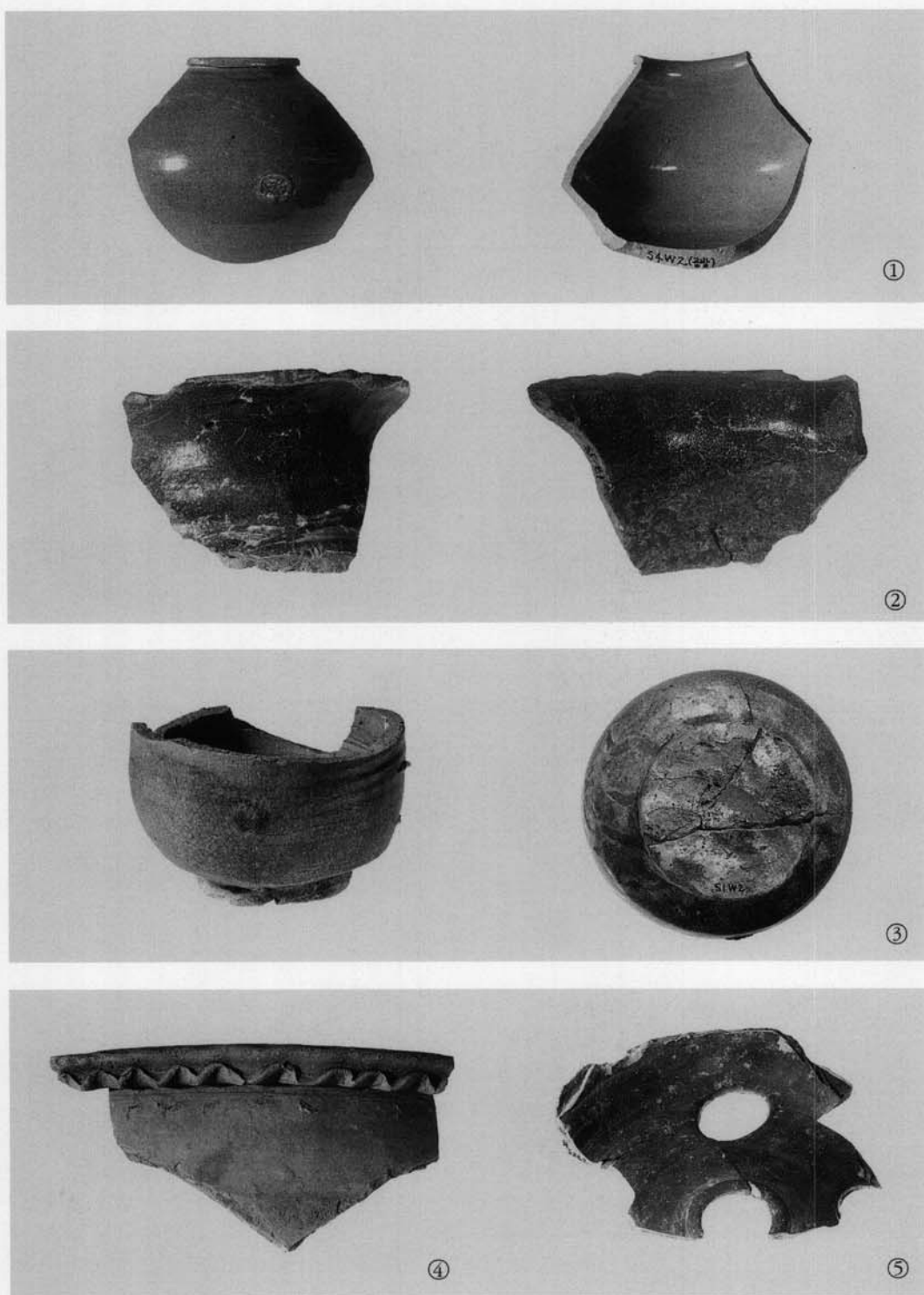
〈사진 44〉 상충유구 출토유물



〈사진 45〉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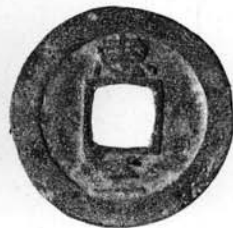
〈사진 46〉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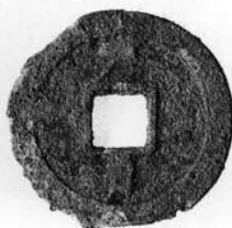
〈사진 47〉 상충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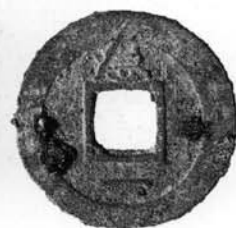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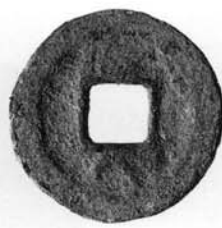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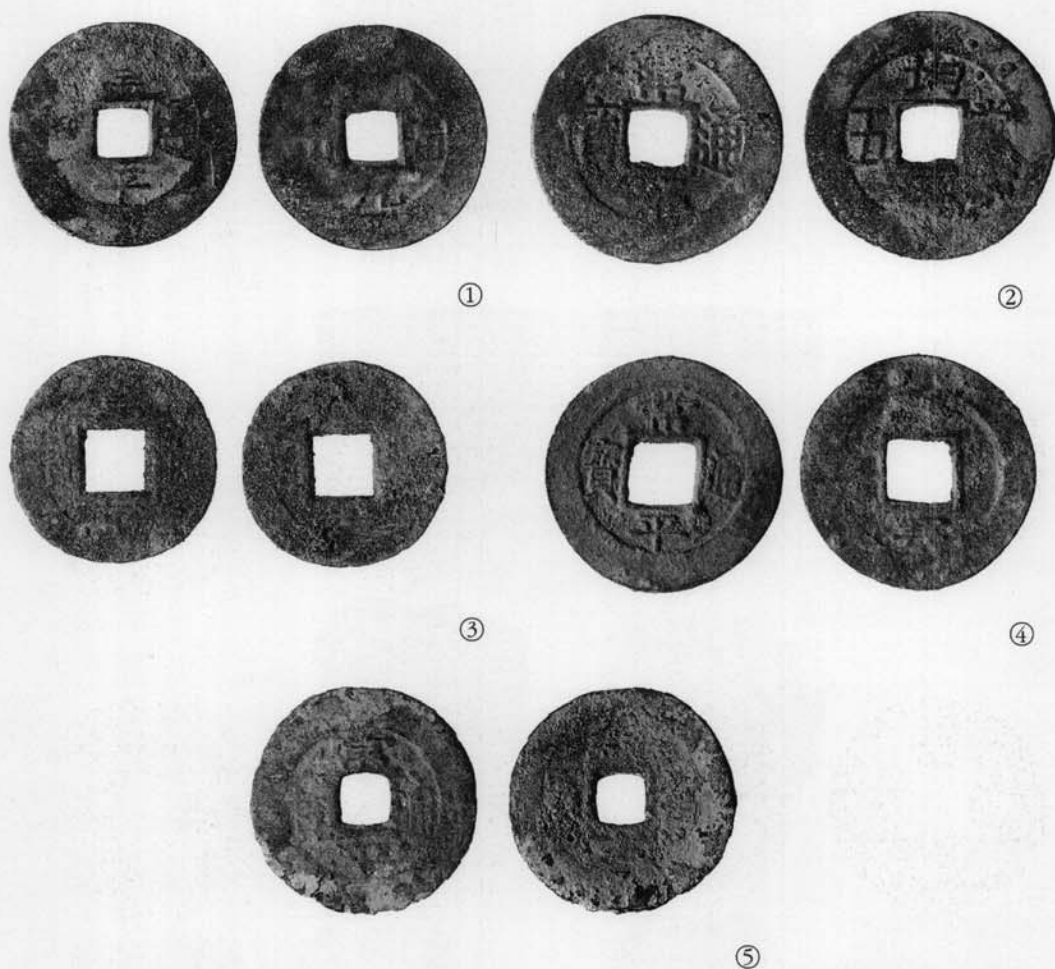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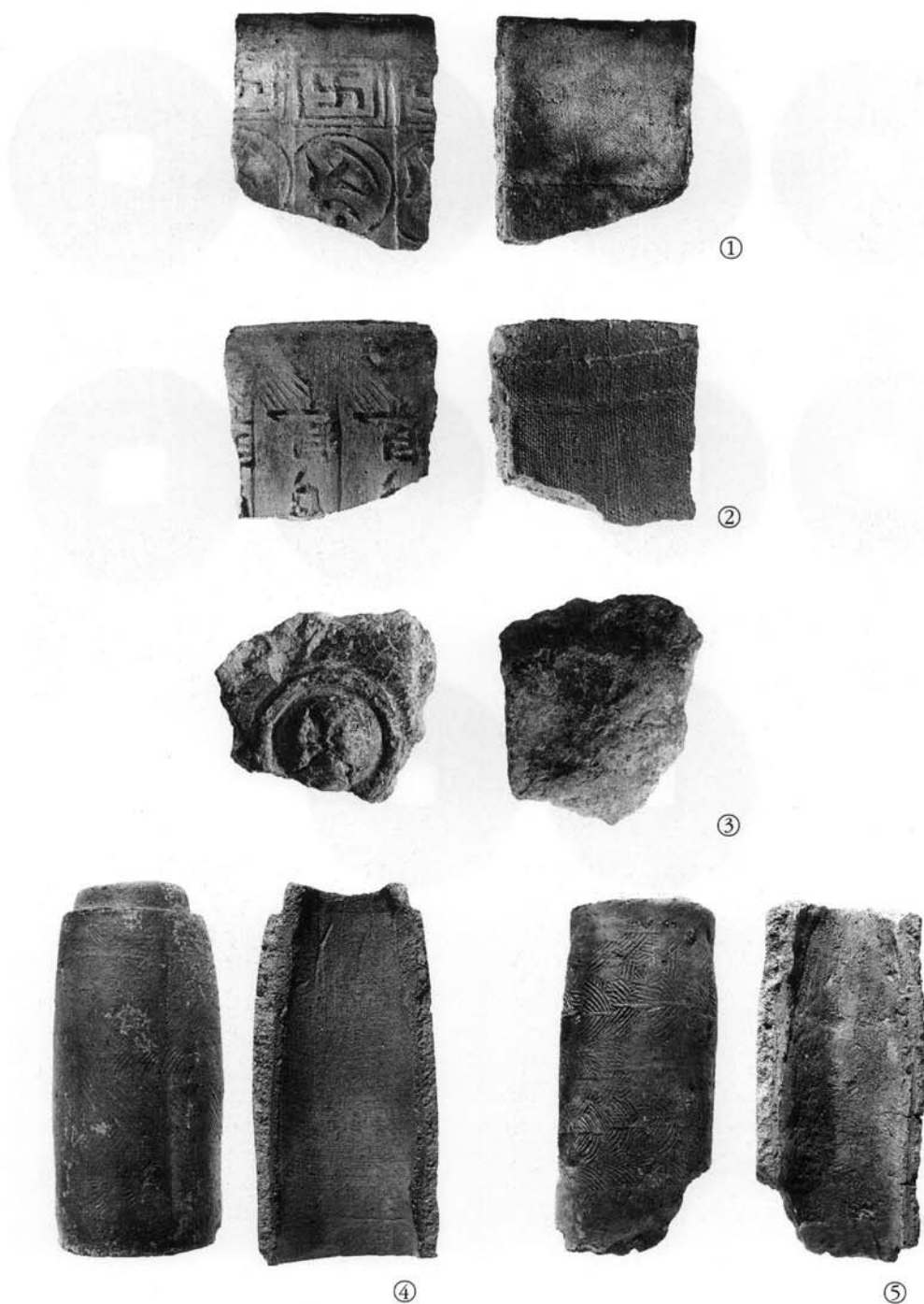


⑧

〈사진 48〉 상충유구 출토유물



〈사진 49〉 상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50〉 상층유구 출토유물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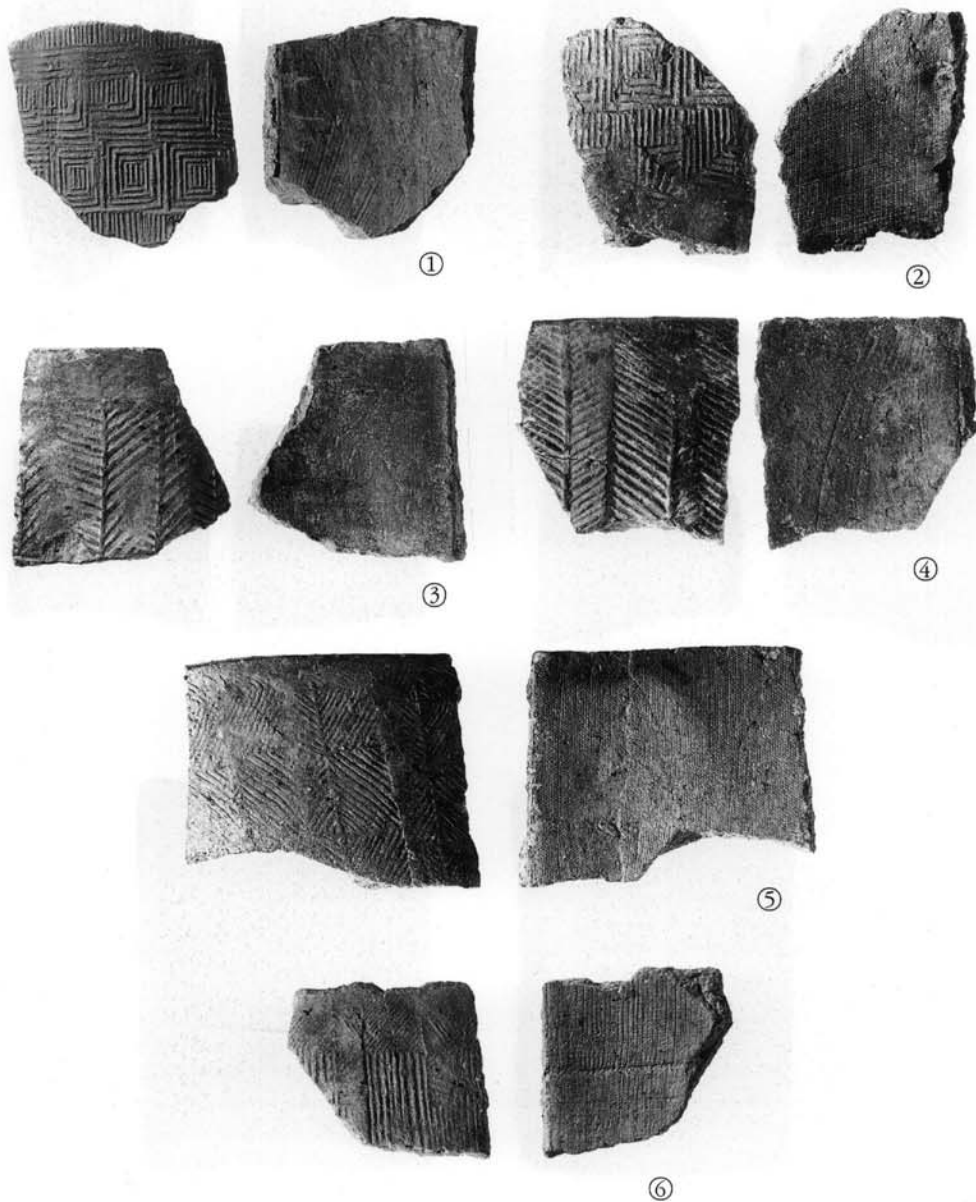


④



⑤

〈사진 51〉 하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52〉 하층유구 출토유물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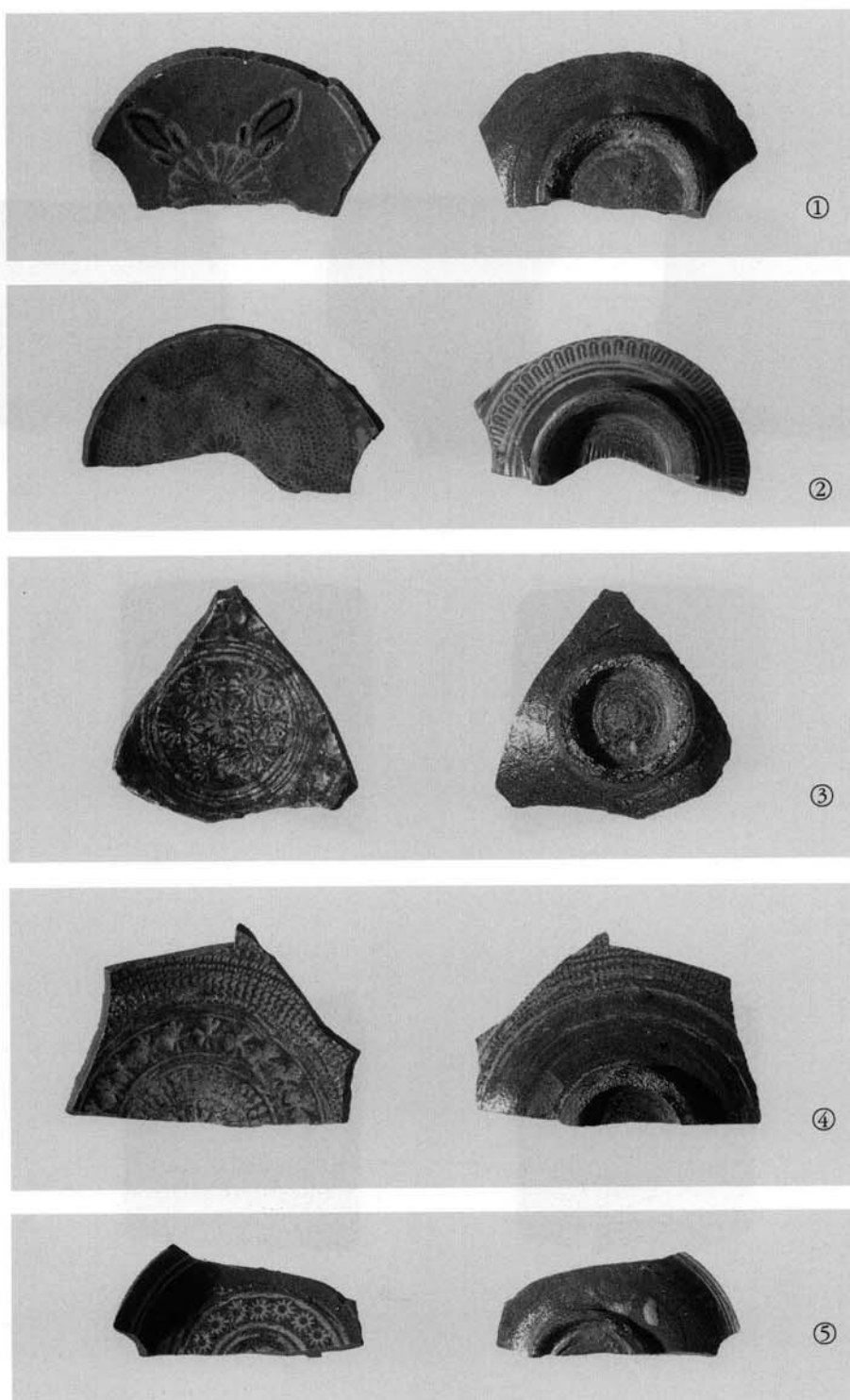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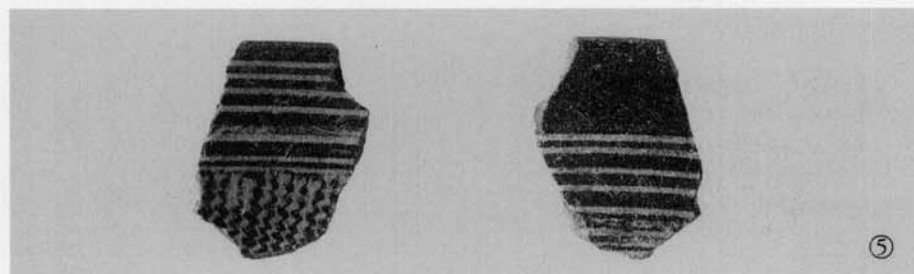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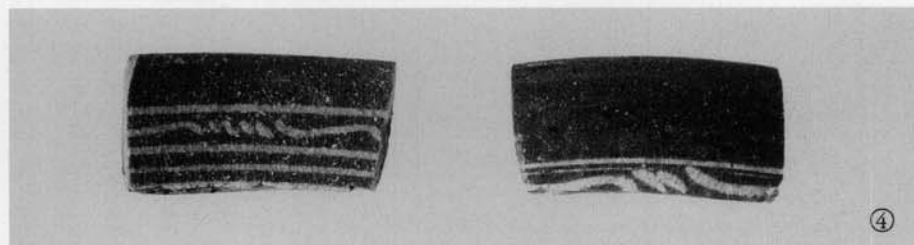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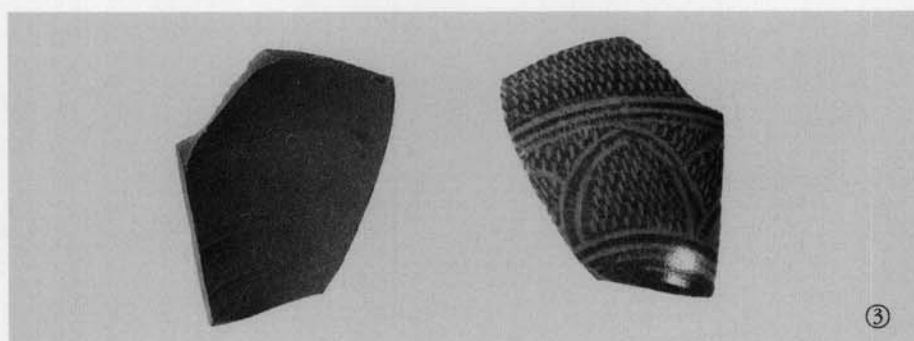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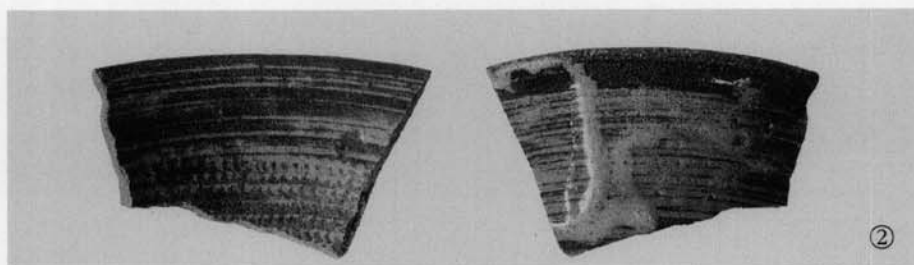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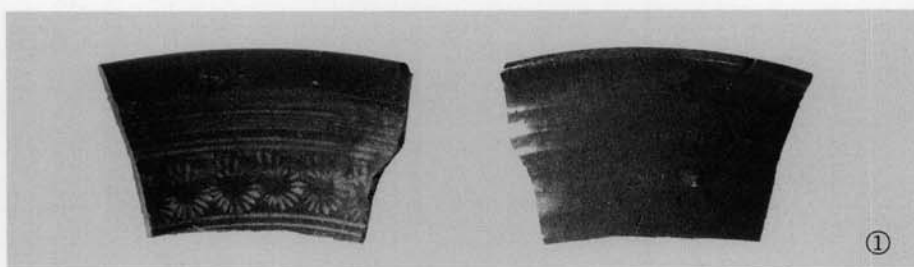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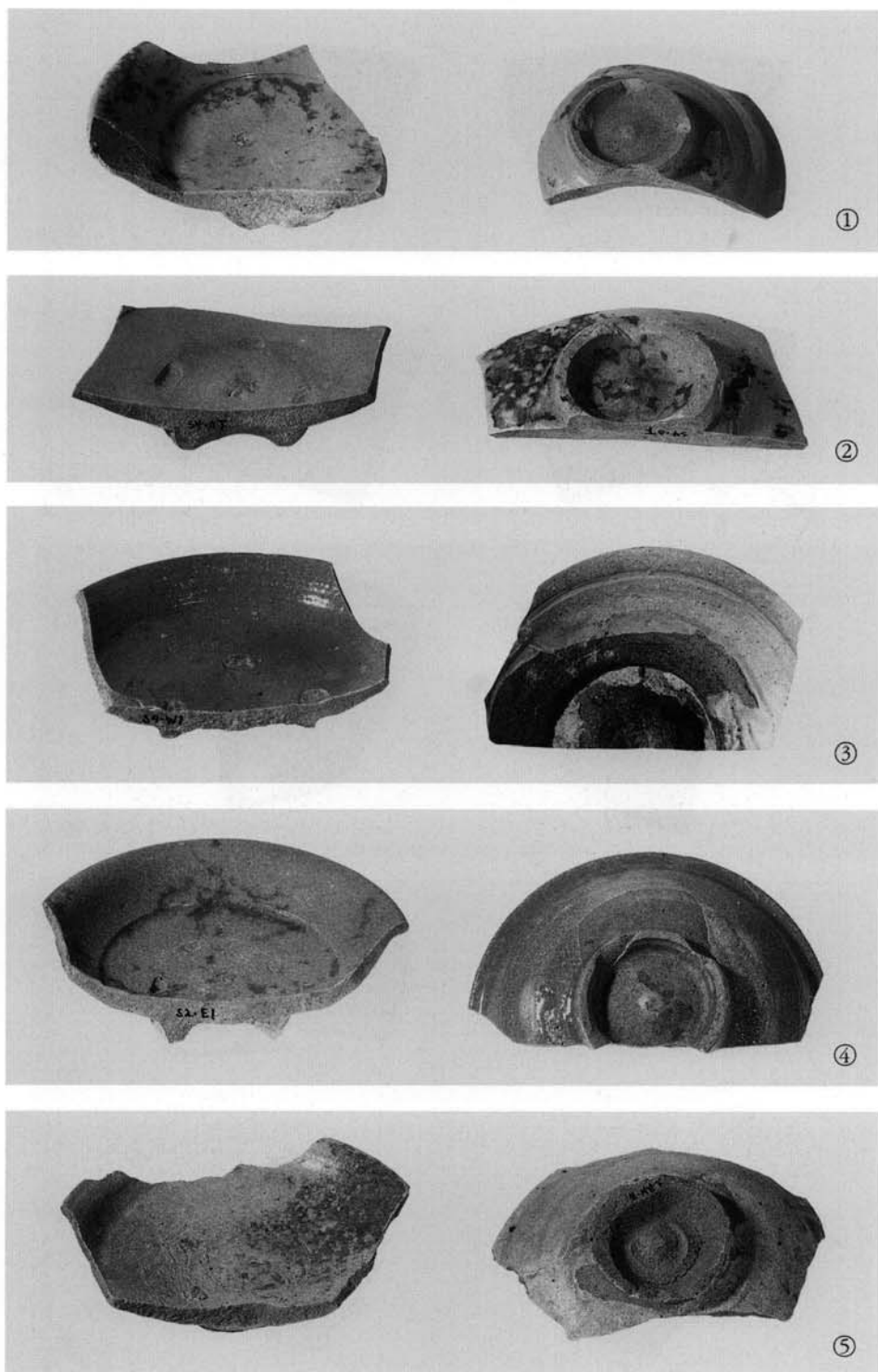
〈사진 53〉 ①~③ 상층유구 출토유물
④~⑤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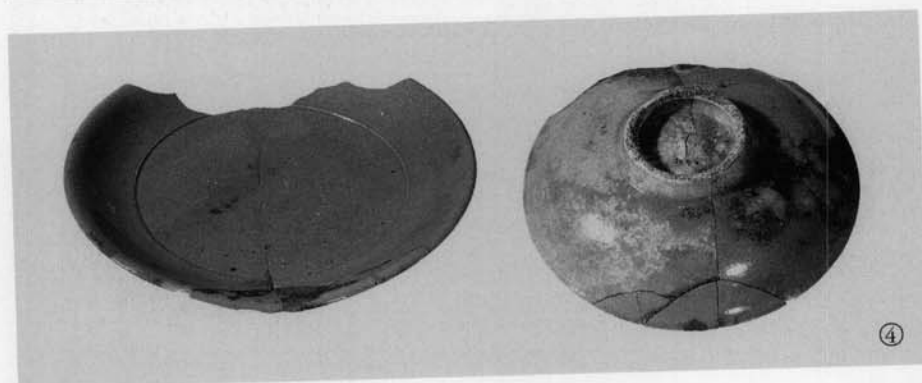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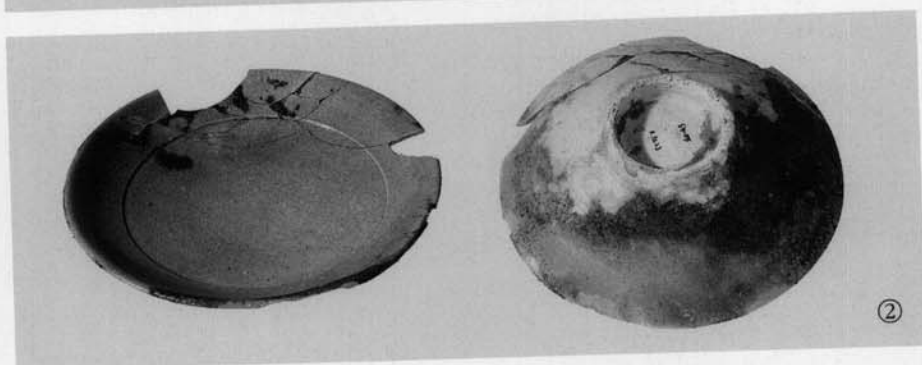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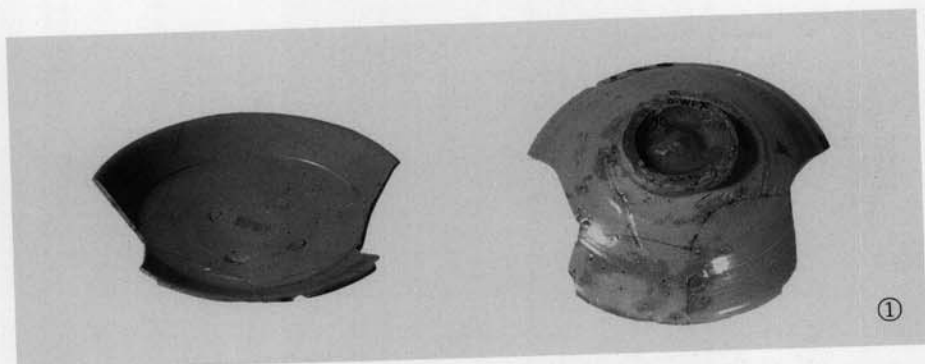
〈사진 54〉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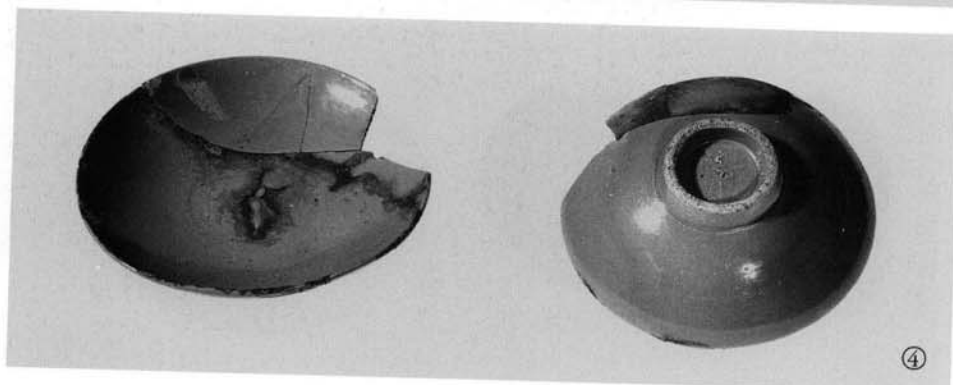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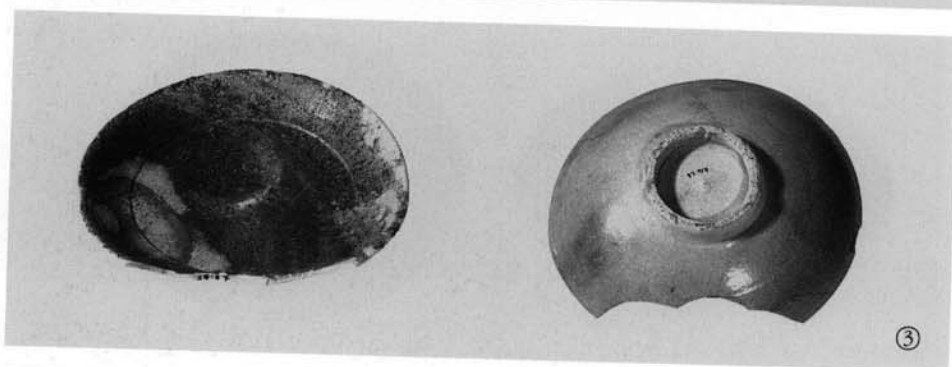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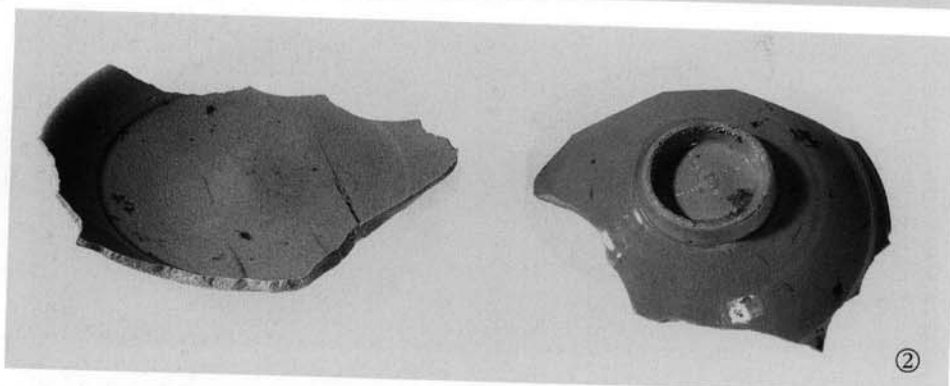
〈사진 55〉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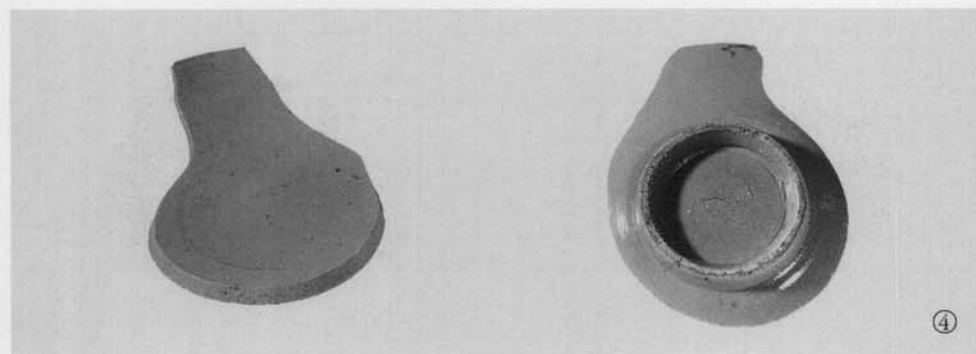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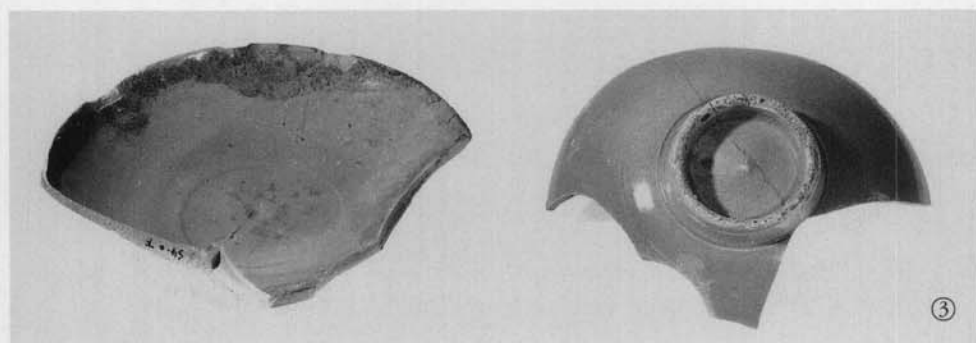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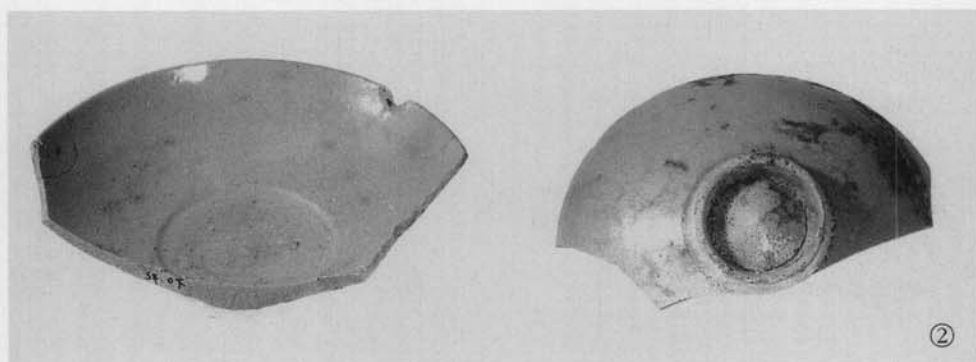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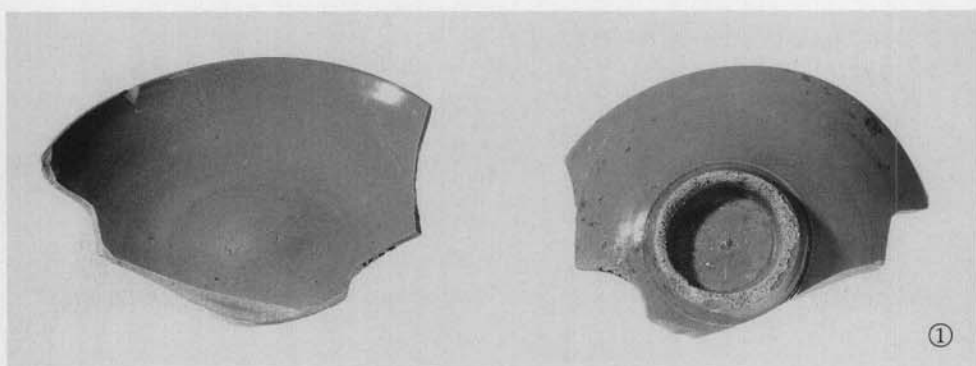
〈사진 56〉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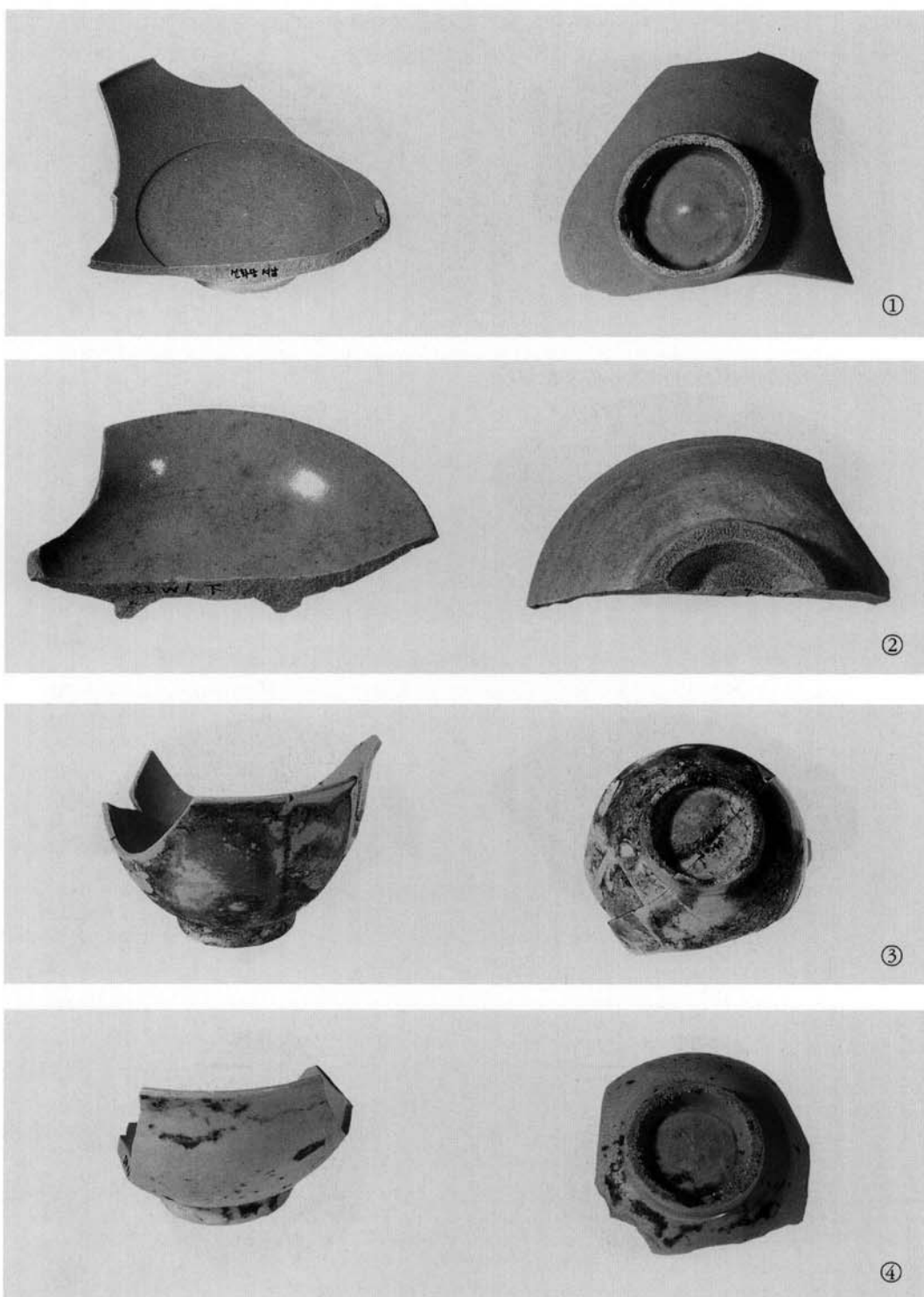
〈사진 57〉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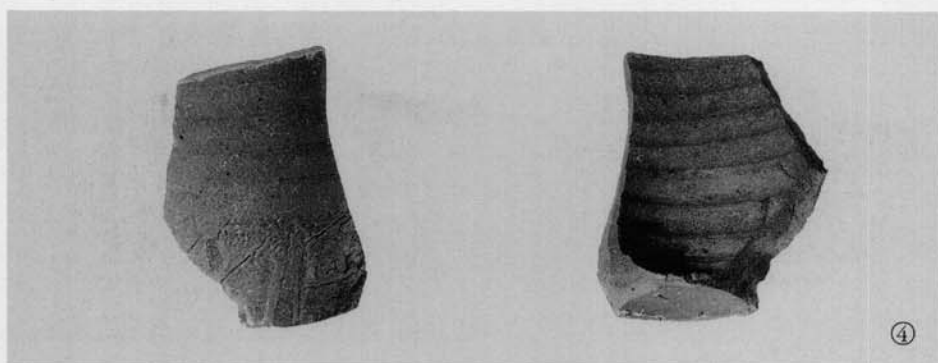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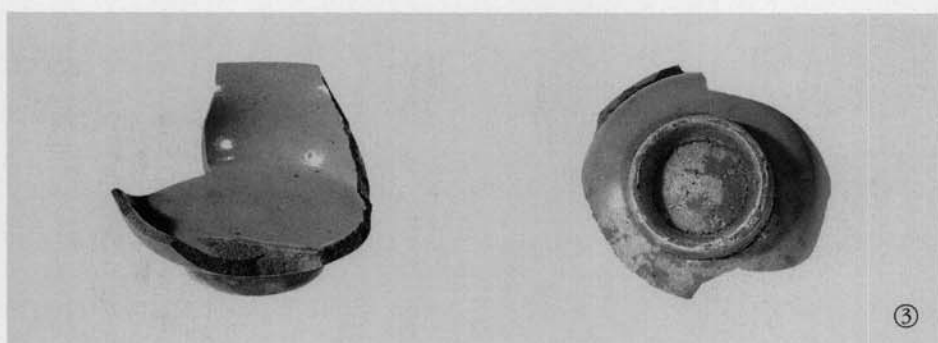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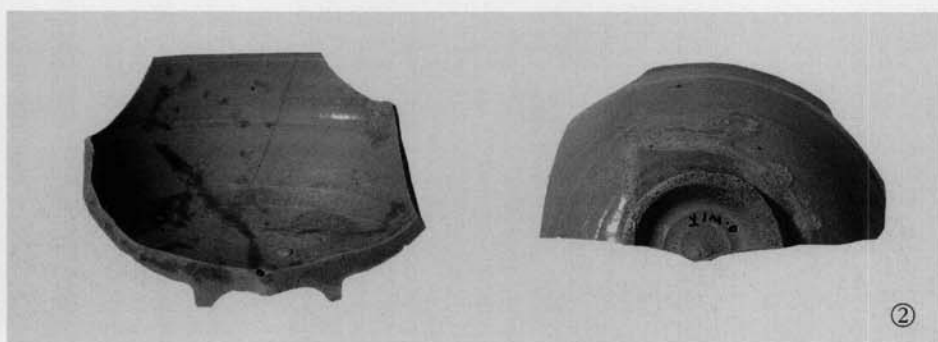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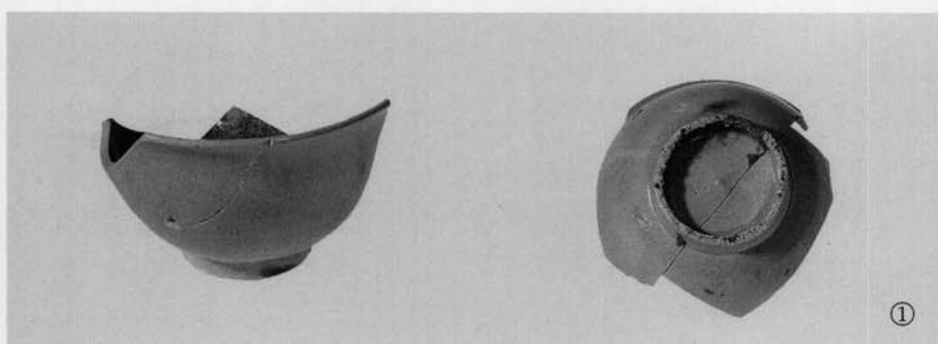
〈사진 58〉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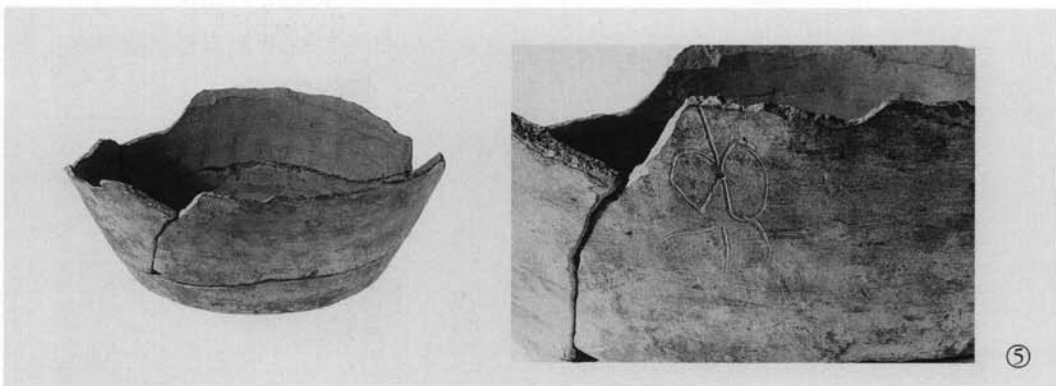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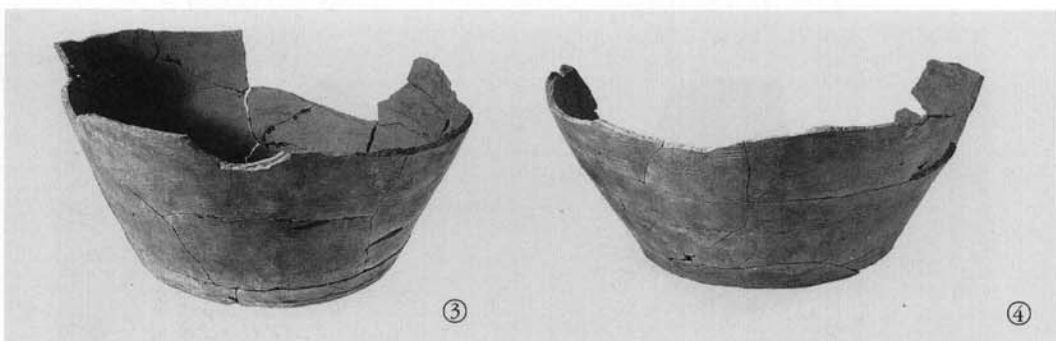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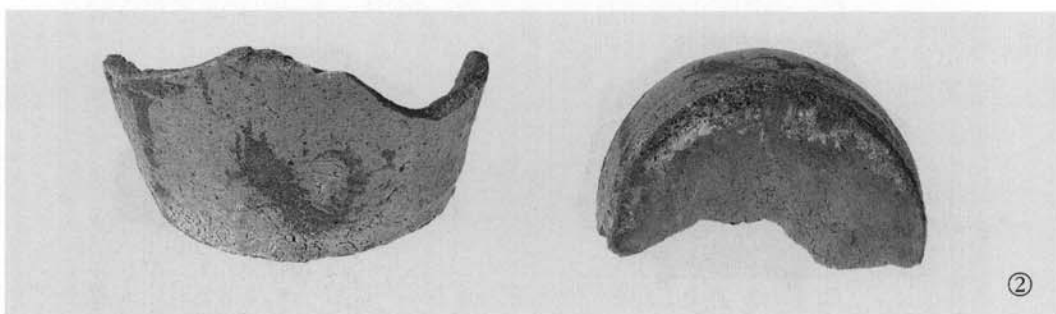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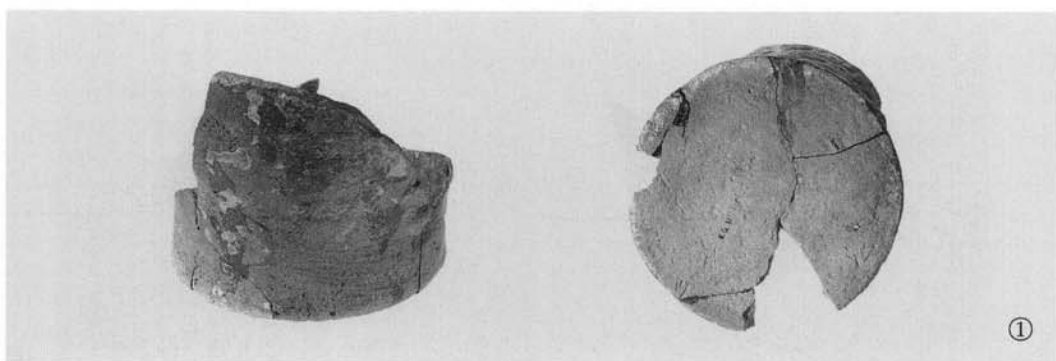
〈사진 59〉 하층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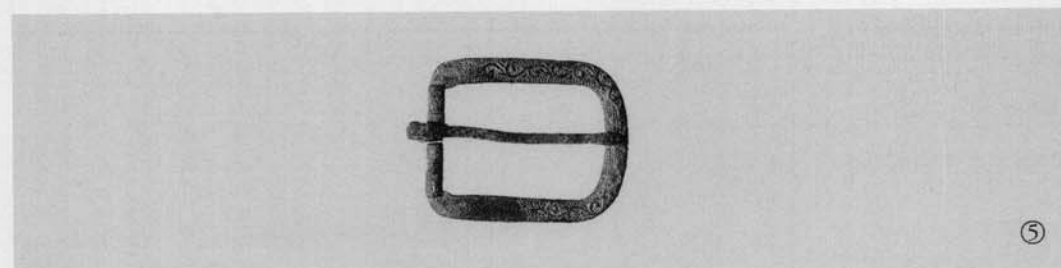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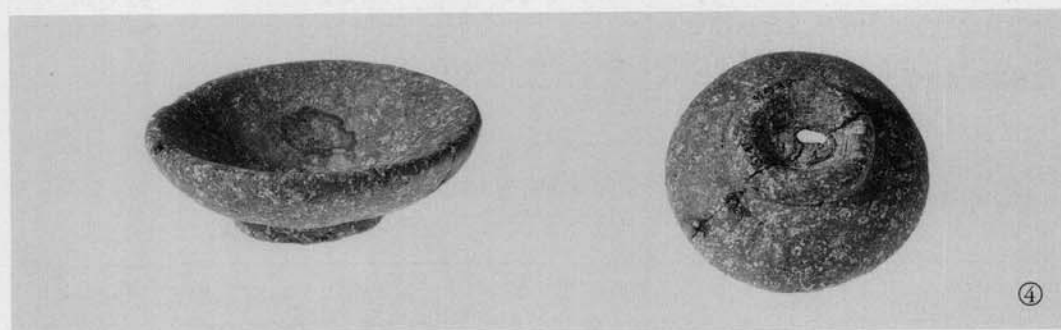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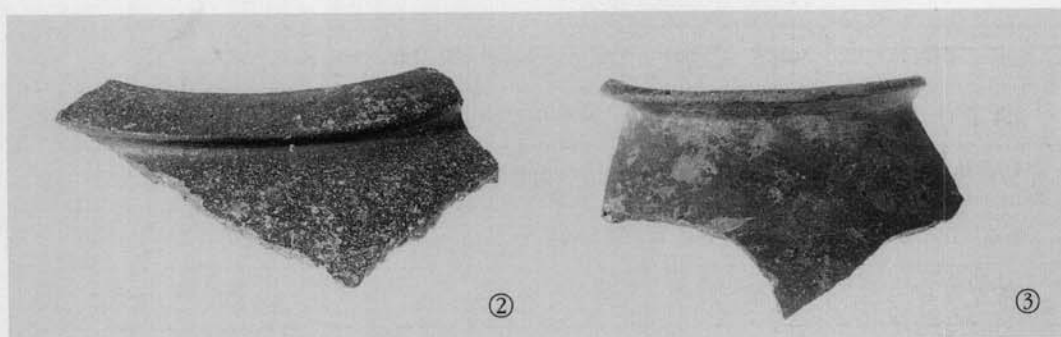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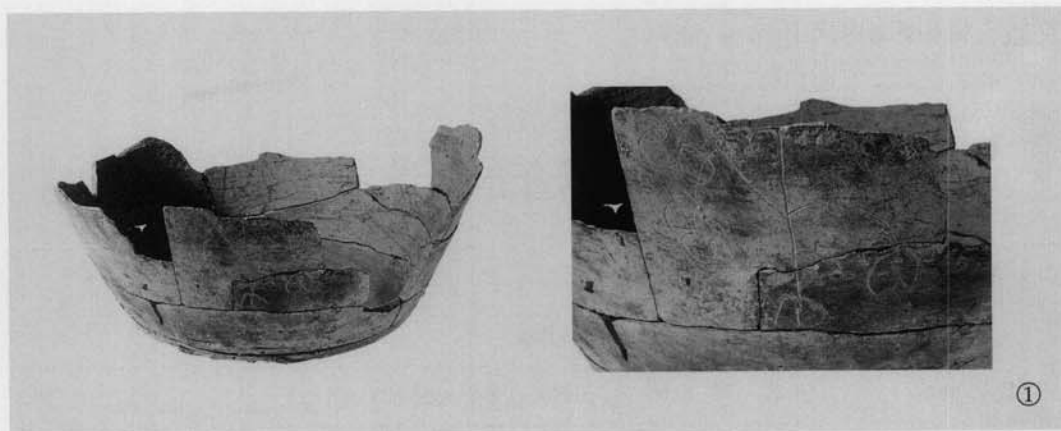
〈사진 60〉 하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61〉 하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62〉 하층유구 출토유물



〈사진 63〉 하층유구 출토유물

江原監營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江 原 監 營		發刊日	2001년 4월
發 刊 機 關	名 稱	江陵大學校 博物館		
	住 所	(210-702) 江原道 江陵市 池邊洞 123番地		
	TEL	(033) 640-2596	FAX	033) 640-2593
執筆・編輯者	지현병 · 김성찬 · 박영구 · 윤석인 · 최영희			
調 査 緣 由	강원감영 복원에 앞선 사전 매장유구 파악을 위한 발굴조사			
發掘調査者	지현병 · 고동순 · 박영구 · 이창현 · 최영희			
遺蹟所在地番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54-2			
調 査 面 積	6041㎡(2,000평)			
遺 構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 記 事 項
건물지(하층)	조선시대전기(15세기중엽~16세기)	건물지 3棟, 담장지 3, 유구 4	분청사기, 백자	
건물지(상층)	조선시대후기(19세기후반~20세기)	건물지 6棟, 배수로, 보도 2, 담장지 1	백자, 명문기와, 문양 평기와, 상평통보,	